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결과보고서

GENDER EQUA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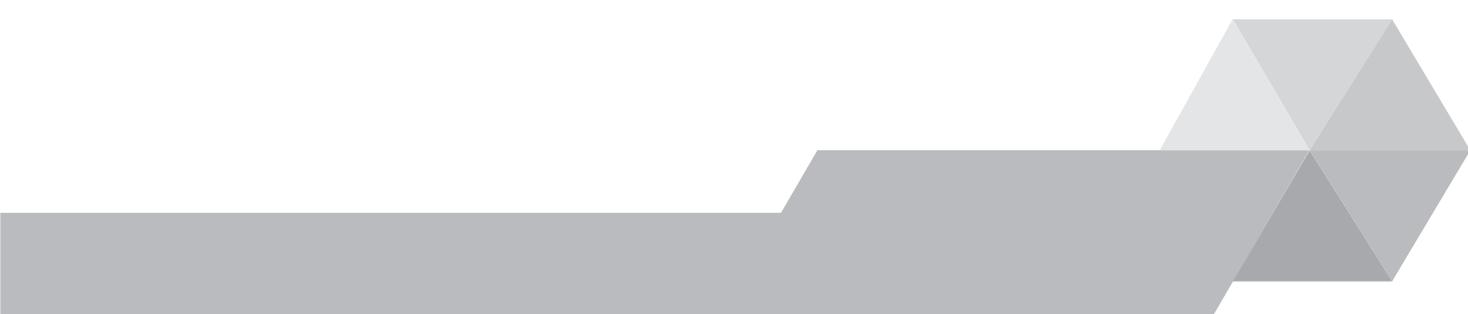
2017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서울YWCA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결과보고서

2017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서울YWCA

본 사업은 서울YWCA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것입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수행단체의 의견으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공식적인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I . 2017년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보고

1.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_03
2. 사업개요 _04
3. 사업추진결과 _05
4. 모니터링 결과요약 _13
5. 종합평가 및 제언 _20

II. 모니터링 결과

1. 정기모니터링
 - 1) 드라마 _23
 - 2) 예능·오락 _67
 - 3) 어린이 _116
 - 4) 광고 _153
 - 5) 인터넷기사 _180
 - 6) 온라인 커뮤니티 _212
2. 이슈모니터링
 - 1) 공공기관 SNS 홍보물 _302
 - 2) 추석특집 예능(파일럿) 프로그램 _328
 - 3) 인터넷 어학사전 _349

III. 부록

1. '성차별 미디어 아카이브' 게시글 _361
2. 언론 보도 내용 _370
3. 카드뉴스 예시 _370
4. 심의 개선 요청 현황 _372
5. 시민이 제보한 미디어 속 성차별 _ 385
6.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_ 390



I . 2017년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보고

1.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2. 사업개요
 3. 사업추진결과
 4. 모니터링 결과요약
 5. 종합평가 및 제언
- 

I. 2017년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보고

1. 사업의 필요성과 목적

1) 사업의 필요성

| 양성평등 사회 정착을 위한 미디어의 영향력 주목

대한민국은 현재 성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혁이 추진되고 있으며 성역할 모델과 가치관 또한 새로운 관점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는 여전히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고정관념적이고 불평등한 성역할 가치관을 확대·재생산하고 있으며 성차별적인 메시지를 유포하여 성 평등 사회를 조성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프랑스, 영국 등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나라들의 미디어 조차 여성을 불평등하고 불공정하게 표현하여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은 오랜 가부장제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미디어의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짐작하게 한다.

| 미디어의 성역할 고정관념 재현의 위험성 인지

미디어는 사회의 '재현체계'로서 사회적 현실을 그 재료로 사용하는 동시에 사회의 기존 고정관념을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특히,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의 여성에 대한 소외는 미디어의 생산 과정에 여성의 참여가 제한되고 남성 중심적 시각이 투영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여성의 현실을 왜곡시켜 재현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가부장적 사회의 젠더 이데올로기는 성별화 된 미디어로 모습을 드러내는데, 이는 성의 상징적 질서를 재현하고 성을 상품화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미디어를 통해 성 역할의 고정관념을 강조하거나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서 표현하고 대상화하는 등 왜곡된 남·여 역할의 재현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 대중매체 모니터링을 통한 양성평등 미디어 문화 확산 필요

미디어가 여성을 어떻게 담아내느냐에 따라, 즉 여성에 대해 어떤 언어를 사용하여 어떤 담론을 유통시키느냐에 따라 향후 여성관련 문제의 내용과 방향이 크게 좌우된다는 점에서 미디어에 대한 감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여성이 남성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 살아가는 사회를 앞당기고 여성과 남성이 함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차별 없는 미디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미디어의 영향력이 양성평등 사회를 위해 긍정적으로 발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미디어 내용에 나타난 각종 성차별적 요소들을 바로잡는 노력과 함께 우리 주변을 가득 채운 솔한 성 규범과 성 담론들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사업에서는 젠더에 대한 관점과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중매체가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왜곡된 남·여 관계의 이데올로기와 성 상품화를 허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니터링 하고자 하였다.

2) 목적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대중매체에 대한 성 인지 관점의 미디어 모니터링으로 차별, 비하, 폭력 등을 조장하는 부정적 사례를 발굴하고 시정을 추진하며 성평등한 사례 발굴·홍보를 통한 양성평등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한다.

3) 기대효과

- 양성평등 미디어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양성평등 미디어모니터링 활동을 통한 성평등 사회조성에의 시민참여 기회 확대
- 방송 제작자의 양성평등 인식 변화의 필요성과 공감대 확산
- 시민의 시청자 주권의식과 양성평등 의식 강화를 통한 양성평등의식 저변 확대

2. 사업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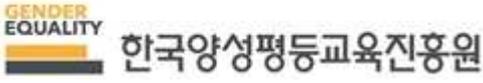
1) 사업명 : 2017년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2) 사업기간 : 2017년 3월~12월

3) 사업내용

사업내용	2016년	2017년
모니터단 운영 및 교육	시민 모니터단 15명	시민 모니터단 16명 대학생 모니터단 14명
미디어 모니터링 실시	정기모니터링 7회 이슈모니터링 3회	정기모니터링 10회 이슈모니터링 3회 상시모니터링
월별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발간 및 배포	매월 언론사 및 유관기관 175곳 배포	매월 언론사 및 유관기관 250곳 배포
모니터링 결과물 활용 및 심의개선 요청활동	심의개선 요청 25건	심의개선 요청 136건 언론보도 109회 카드뉴스 제작·게시 9회
성차별 미디어 개선활동	양성평등 미디어 교육(5회) 양성평등 미디어문화 확산 간담회 개최 미디어 속 성평등/성차별 찾기 캠페인 (11-12월 중)	양성평등 미디어 교육(4회) 양성평등 미디어문화 확산 토론회 개최 미디어 속 성평등/성차별 찾기 캠페인 (연중)

4) 역할체계

			
사업총괄 및 관리, 교육지원 및 홍보, 활용 촉진		모니터단 운영, 모니터링 및 보고서 제작, 교육, 토론회, 캠페인 등 사업운영	
협력기관			

3. 사업 추진 결과

1) 모니터단 구성 및 교육

(1) 양성평등 미디어 모니터단 구성

① 양성평등 미디어 모니터단 (16명)

- 총 16명으로 구성된 서울YWCA 양성평등미디어모니터회는 2010년부터 양성평등 관점을 기반으로 미디어모니터링 활동 전개

모니터 활동가 명단	기존 활동가 (11명) : 강훈덕 김윤정 류영주 류용희 박미경 이범자 전소영 정진숙 정희경 천우신 하진욱 신규 활동가 (5명) : 구연경 김은미 박연미 옥진아 허지현
------------	--

- 2017년 모니터 활동가 선발기준

- 기존 모니터 활동가 : 모니터 활동 실적 및 역량평가 (참여율, 보고서 작성 평가 등)
- 신규 모니터 활동가 : 모니터 역량평가, 모니터 관련 경력, 열의 등

② 온라인 커뮤니티 모니터단 (18명)

- 2017년 온라인 커뮤니티 모니터링을 위해 대학생으로 구성된 모니터단 활동(18명)

온라인 커뮤니티 모니터 활동가 명단	강보민 강성은 권경녀 권나영 김아림 김하나 박수진 박영은 박옥란 박혜수 성임은 송다민 안혜진 오채영 윤소정 임희진 조지명 함수연
---------------------	--

- 온라인 커뮤니티 모니터 활동가는 서울YWCA 회원 조직인 대학Y를 중심으로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들을 모집·선발

(2) 양성평등 미디어모니터단 역량강화교육

① 오프라인 기초교육 (5회기)

- 기간 : 2017년 3월 9일 ~ 3월 23일 (매주 목) 14:00-18:00
- 장소 : 서울YWCA
- 내용

일자	교육내용	강사
3/9(목)	성인지 감수성과 미디어 모니터링	강혜란 대표 (한국여성민우회)
3/9(목)	성인지 관점의 미디어모니터링 실습	
3/16(목)	양성평등 미디어환경을 위한 심의개선체계	김언경 사무처장 (민주언론시민연합)
3/16(목)	미디어의 젠더 재현	허민숙 교수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3/23(목)	유아동용 성차별적 문화콘텐츠 모니터링	이병민 교수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② 사이버교육(4시간)

- 기간 : 2017년 3-5월 중
- 장소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러닝센터
- 내용 : 정규특화과정 ‘대중매체와 양성평등’
 - 미디어 성평등성 모니터링의 필요성과 현황
 - 뉴스, TV광고가 보여지는 젠더 표상
 - 성인지적 모니터링

③ 심화교육 (3회기)

일자	교육내용	강사
7/13(목)	광고와 젠더 인식	정영희 교수 (고려대 정보문화연구원)
10/12(목)	모니터링 글쓰기 I	김유진 이사 (민주언론시민연합)
11/9(목)	모니터링 글쓰기 II	

④ 온라인 커뮤니티 모니터단 심화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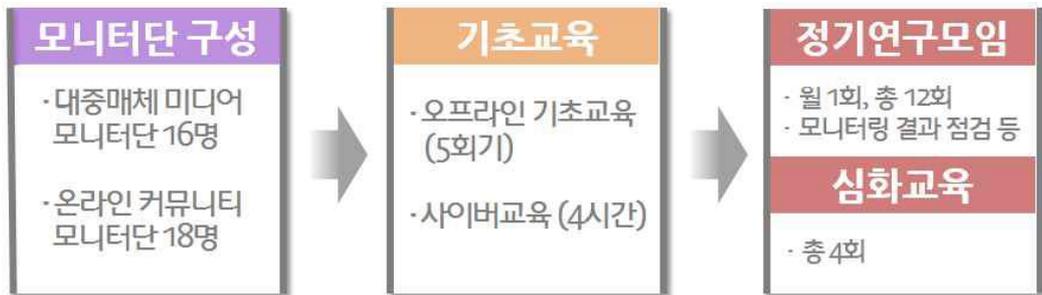
- 일시 : 2017년 7월 26일(수) 15:00-16:00
- 장소 : 서울YWCA
- 내용 : 여성혐오 콘텐츠에 대한 심의요청 방법
- 강사 : 이성우 차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⑤ 기타교육 - 행복한 인문학 카페 '페미니즘'

- 일시 : 2017년 6월 2일 ~ 7월 14일 (매주 금) 19:00-21:00
- 장소 : 서울YWCA
- 내용 : 여성혐오 시대, 페미니즘과 여성운동, 남자답게/여자답게가 아닌 사람답게 등
- 강사 : 허민숙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외 3명
- 대상 : 모니터단 중 교육 희망자 (5명 수료)

⑥ 정기연구모임

- 일시 : 매월 둘째주 목요일 14:00-17:00(월 1회, 총 12회)
- 장소 : 서울YWCA
- 내용 : 모니터링 결과 공유 및 점검
 익월의 모니터링 방향 및 방법(체크리스트) 점검
 여성가족부 및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모니터링 제안사항 논의



(3) 전문가 멘토링 (자문)

- 내용

일자	교육내용	강사
3/20(월)	어린이 프로그램 모니터링 지표구성 및 분석방법 자문	이병민 교수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7/14(금)	광고 모니터링 지표구성 및 분석방법 자문	심미선 교수 (순천향대 언론학과)
11/24(금)	온라인 커뮤니티 속 여성혐오 문화 분석 자문	서승희 대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 기타 : 유선을 통한 상시자문 진행

2) 미디어 모니터링

(1) 정기 모니터링

시 기	기 간	장 르	매 체	모니터링 대상
3월	3/6-12	TV 예능	지상파TV, 종합편성채널, 케이블	33개 프로그램
4월	4/1-7	TV 어린이	지상파TV, 케이블	79개 프로그램, 141편
	4/1-7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16개 커뮤니티
5월	5/1-7	TV 드라마	지상파TV, 종합편성채널, 케이블	22개 프로그램, 68편
7월	7/1-7	TV 예능	지상파TV, 종합편성채널, 케이블	33개 프로그램
8월	7/1-31	광고	공중파, 케이블, 인터넷·극장·바이럴	광고 343편
	8/1-7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14개 커뮤니티
9월	9/1-7	TV 드라마	지상파TV, 종합편성채널, 케이블	23개 프로그램, 62편
11월	11/1-7	온라인 기사	네이버 뉴스스탠드	35개 언론매체
	11/1-7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14개 커뮤니티

(2) 이슈 모니터링

시 기	기 간	장 르	매 체	모니터링 대상
6월	4/1-5/31	공공기관 SNS 홍보물	공공기관 페이스북	20개 공공기관 페이스북 홍보동영상, 이미지 1,261건
10월	9/29-10/9	추석 특집 예능	지상파TV, 종합편성채널, 케이블	23개 프로그램
11월	11/6-10	인터넷 어학사전	네이버 어학사전(영어)	60개 단어 예문

(3) 상시 모니터링

- 기간 : 4월 1일 ~ 12월 31일 (상시)
- 내용 : 정기 모니터링 외의 분야에서의 상시 모니터링 실시
매주 이슈가 되었던 미디어 속 성차별 사례 검토
페이스북 페이지를 활용한 미디어 속 성차별/성평등 사례 포스팅(19건)
사안에 따라 심의개선 요청 활동 진행



3) 모니터링 결과물 활용 및 심의개선 요청

월별보고서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기 : 3-11월 중 매월 ○ 내용 : 월별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발행(매월 75부), 우편 및 이메일로 발송 ○ 배포처 : 언론사 및 유관기관 250곳
언론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관련 언론 보도 109건
카드뉴스 게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별 보고서 내용을 카드뉴스 형태로 가공하여 제작 ○ SNS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 (9회)
심의개선 요청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이슈/상시 모니터링 결과 심의 개선 요청

*세부 내용 부록 첨부

4) 성차별 미디어 개선 활동

(1) 양성평등미디어교육

일시	장소	대상	강사
9/8(금) 10:30	한국방송회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울지회기초심의원 100명	강혜란 대표 (한국여성민우회)
9/20(수) 10:00	방심위 대전지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전지회기초심의원 30명	김현희 강사 (한국여성민우회)
10/24(화) 11:00	방심위 강원지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전지회기초심의원 14명	김예리 부장 (서울YWCA)
12/4(월) 10:30	한국방송회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울지회기초심의원 50명	강혜란 대표 (한국여성민우회)

(2) 양성평등 미디어 문화 확산 토론회

- 목적
 - 미디어 속 성차별성을 진단하고, 미디어 환경 개선에 대한 필요성 공감
 - 성평등 미디어문화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모색
- 일시 : 2017년 12월 6일(수) 15:00-17:00
- 장소 : 서울YWCA 대강당
-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14:30	등록		
15:00	인사말	서울YWCA 여성참여위원회 한혜영 위원장	
	환영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민무숙 원장	
15:10	사업보고	2017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결과	황경희 간사 (서울YWCA)
15:25	주제발표	젠더 감수성과 미디어의 방송·보도 방향	변신원 교수 (양평원)
15:40 -16:30	패널발표	1. 시청자가 본 미디어의 성차별성과 역할	정진숙 (서울YWCA 모니터)
		2. TV 프로그램의 성차별적 사례와 개선점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
		3. 성평등 관점 보도의 시사점 및 언론계 역할	김주혁 (가족·여성행복연구소)
		4. 제작자가 본 미디어의 성평등 방송제작 방안	김민지 (EBS PD)
		5. 성차별적 방송·통신에 대한 심의강화 방안	안기섭 과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6. 대중매체 양성평등 정책 추진방향	유선훈 사무관 (여성가족부)
16:30	양성평등 미디어 문화 확산을 위한 전체토론 (질의응답)		
17:00	폐회		

- 참가인원 : 모니터링 종사자 및 언론방송계 관계자, 일반 시민 등 104명



(3) 미디어 속 성평등/성차별 찾기 캠페인

- 기간 : 2017년 5~12월 중
- 내용 : 성차별미디어아카이브 페이스북 페이지 운영,
미디어 속 성평등/성차별이 드러나는 장면에 대한 시민 제보 캠페인
- 사후처리 : 제보 내용을 모니터링 하여 심의기관에 심의요청



4. 모니터링 결과요약

1) 드라마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 케이블의 22개 드라마를 2회기에 걸쳐 모니터링 하였다. 등장인물의 성비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업군에 있어서는 매우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드라마의 주연과 조연의 직업군을 분석했을 때 남성은 사장/대표를 포함해 고위급 회사원 역할을 맡는 반면 여성은 아르바이트, 학생 등의 비전문 직종으로 그려졌다. 그 외에도 여성은 판매사원, 아르바이트, 공장 노동자 등의 비전문직 역할을 맡은 것과는 달리 남성은 자영업자, 의사, 검사, 전문가, 국회의원 등 사회적 지위가 높은 전문직으로 묘사되었다. 성별에 따른 직업군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어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 한편 2017년 5월에 진행된 모니터링 결과에서는 주요 갈등해결자가 여성에 비해 남성이 약 2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9월 모니터링 결과에서는 주요 갈등해결자의 성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성평등을 지향하는 방송사와 제작진들의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여성을 가사노동이나 가족에게 희생해야 하는 역할로 그려내는 프로그램도 많았다. <추리의 여왕>(KBS2, 5월 4일, 10회)에서 유설옥(최강희)은 전문 프로파일러임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을 수행해야 하는 역할로 그려지며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매번 타박 받는 인물로 등장했다. 또한 <당신은 너무합니다>(MBC, 5월 7일, 19

회)에서는 여성의 경제적 활동을 마뜩찮게 보는 예비 시어머니 성경자(정혜선)가 예비 며느리인 유지나(엄정화)에게 요리를 배우라고 강요하는 장면이 방영되기도 했다. <아임 소리 강남구>(SBS, 5월 1일, 92회)와 <그 여자의 바다>(KBS2, 5월 1일, 46회)에서는 여성을 출산의 수단으로 보고 출산에 대한 압박을 부가하거나 남아 선호 사상을 부추기기도 했다. <훈장오순남>(MBC, 9월 1일, 94회)의 경우 시어머니(금보라)가 며느리(황세희)의 회사 사무실까지 찾아와 망신을 주는 장면이 방영되어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고부 갈등을 과장되게 그려냈으며, <밥상 차리는 남자>(MBC, 9월 3일, 2회)에서는 이신모(김갑수)가 자신의 아내인 홍영혜(김미숙)를 무시하고 비하하는 대사로 인해 가부장적인 요소를 강화했다.

한국 사회의 현실을 반영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드라마도 다수 제작되었다. <초인가족 2017>(SBS, 5월 1일, 22회)에서는 비혼 세대를 반영해 비혼식을 여는 모습을 그렸고, 일하는 여성이 늘어남에 따라 공동육아·공동가사를 강조한 프로그램(<아버님 제가 모실게요>, <아버지가 이상해>)도 발견할 수 있었다. <자체발광 오피스>(MBC, 5월 4일, 15회)에서는 여주인공 은호원(고아성)이 사장이 되겠다는 큰 포부를 드러내자 이를 인정하고 응원하는 서우진(하석진)의 모습이 방영되어 여성의 주체적·진취적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조성할 수 있었다. 한편 JTBC의 <청춘시대>는 시즌1에서 청춘들의 이야기를 섬세하게 그려냈다는 호평을 받아 시즌2가 제작되었고 8월에 방영되었다. 구태의연한 연애·결혼관에서 탈피해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하고 2030대의 여성들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담았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과도한 연출로 남성의 알몸을 노출하거나 자유연애 시대를 반영해 성관계에 대해 개방적인 면모를 표출하면서 피임의 중요성은 언급하지 않는 등 아쉬운 부분도 존재했다.

2회에 걸친 드라마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던 특징은 드라마 속에서 '비혼', '자유연애', '가사분담' 등과 같은 이슈들이 드라마 속 주요 주제로 자리매김했으며, 가부장적인 요소가 화면 전반에 배치되었던 과거와 달리 성차별적인 요소들이 은유적이고 우회적으로 드라마 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시청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때문에 드라마 제작자의 세심한 고찰과 고민이 필요하다.

2) 예능·오락 프로그램

예능·오락 프로그램은 총 2회기에 걸쳐 각 방송사 별 시청률 상위 기준 33개의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였다. 등장인물의 성비는 2회 모두 여성보다 남성이 약 2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별 출연자 성비를 살펴본 결과, 활동적인 야외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나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고정 출연진이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여성이 많은 프로그램은 대부분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프로그램 진행자, 보조진행자의 경우 여성보다 남성이 약 3배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예능·오락 프로그램들의 세

부 콘텐츠에 따라 성별로 다른 역할을 부여하는 모습은 우리 사회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예능 프로그램의 출연자들이 육아 노동, 가사 노동을 여성이 담당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발언을 하거나 프로그램 속에서 전문적, 능동적인 역할은 항상 남성이 맡고 있어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할 요소들이 다분했다. 또한 <개그콘서트>(KBS2), <해피선데이-1박 2일>(KBS2) 등의 프로그램에서는 여성의 외모를 조롱하고 비하하며 웃음을 자아냈으나 반대로 <아는 형님>(JTBC) 등은 여성 출연자를 '여신', '인형'으로 표현하며 외모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끌고 가는 모습에서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고 있다. <런닝맨>(SBS), <불후의 명곡>(KBS2)은 '개미허리', '섹시', '청순' 등 성적인 요소를 강조해 자막을 삽입하거나 <라디오스타>(MBC)와 같이 남성의 성기를 가지고 자극적인 농담을 만들어내는 장면도 존재했다. 나아가 <미운 우리 새끼>(SBS)의 경우 남성이 남성성을 수행할 경우 '수컷'으로 표현하는 반면 여성에게는 특정 이미지('질투 많은 여성')를 부과해 성차별적 고정관념이 반영된 부분을 포착할 수 있었다. <강적들>(TV조선)의 출연자들은 여성 정치인을 두고 표정이 부드러워져야 한다거나, '어머니'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발언으로 인해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기도 했다.

E채널에서 방영되고 있는 <내 딸의 남자들>의 경우 프로그램 제목에서부터 딸을 아버지의 소유물로 보는 가부장적인 성향이 반영되어 있으며, '아빠가 보고 있다'라는 부제와 같이 딸의 연애를 관음증적인 형식으로 소비한다는 점에서 심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남성(강자)의 시선으로 기획·제작되는 프로그램들은 단단한 팬덤 문화를 구축하고 있는 아이돌에게도 해당된다. <주간 아이돌>(MBCevery1)은 여성 가수에게 애교를 요구하고 섹시댄스를 추도록 하거나, 군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여성가수를 섭외했다는 진행자의 멘트 등에서는 여성에 대한 심각한 성적 대상화가 보이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예능·오락 프로그램의 목표는 '재미'와 '웃음'이기 때문에 편견이나 비하 발언에 대해서도 "웃기면 됐지"라는 태도로 인해 그동안 문제제기가 수용되기 어려웠다. 그렇기에 잘못된 고정관념과 혐오를 밝고 이뤄지는 '재미'에 대해서 시청자들의 면밀한 감시와 피드백이 이뤄져야 한다.

3) 어린이 프로그램

모니터링 기간 동안 방송된 79개의 어린이 프로그램(143편)에서는 여성과 남성 주인공의 비율이 여성 37.3%, 남성 52.5%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프로그램 내에서의 갈등유발 인물과 갈등해결 인물 또한 여성보다 남성이 더 큰 비중을 맡고 있어 성차별적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

<레인보우 루비>의 '루비', <엉뚱발랄 콩순이와 친구들>에서 '콩순이'와 같이, 어린이임에도 불

구하고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밝히고 문제 해결 능력을 지닌 주체적인 여성이 주인공 역할을 하는 성평등적 사례도 찾을 수 있었지만, 많은 프로그램들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외모지상주의를 강화·재생산하는 장면이나 대사가 방영되었다. 여성의 굴곡지고 날씬한 몸을 강조하기 위해 여성 캐릭터를 ‘개미허리’와 풍만한 가슴으로 과장되게 표현한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남성 캐릭터의 경우 굵은 팔뚝과 넓은 어깨를 가진 신체로 그려 기존의 고착화된 남성적인 이미지가 반영되어 있었다. 한편 캐릭터의 성별을 색상에 따라 구분함으로써 성별을 구분하는 경향 또한 두드러졌다. 여성은 핑크색, 남성은 파랑색 등 성별에 따라 색상을 구분하고 여성캐릭터에게는 치마를 입혀 성별 이분법을 강화하였다. 또한 〈소피루비〉, 〈미라큘러스: 레이디버그와 블랙캣〉 등의 프로그램에서는 여성의 가슴, 다리, 엉덩이가 집중적으로 부각되는 등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장면들이 방영되기도 했다.

이미 성관념이 형성된 성인에 비해 유아와 아동의 경우 대중매체를 통해 받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유아·아동기에 미디어를 통해 고정화되고 부정적인 성역할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때 성평등한 가치관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부모, 교사 등의 보호자는 양평평등 의식을 가지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어린이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며, 어린이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방영하는 제작진은 어린이 프로그램이 가지는 막대한 영향력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성 인지적 관점에서 평등한 관계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한다.

4) 광고

모니터링 기간 동안 상영된 총 343편의 광고 출연자 성비는 여성, 남성 모두 비슷했으나 광고 품목에 따른 성별 구분이 명확한 분야가 있었다. 자동차/정유 부분에서는 남성 출연자의 수가 여성보다 3배가량 많은 반면 생활/가정용품, 화장품, 제약/의료/복지 분야에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 출연자가 다수였다. 주요 등장인물 역할 분석에서도 돌봄·가사일을 하는 사람은 남성(37.9%)보다 여성(62.1%)으로 그려지는 반면 돈을 버는 사람은 여성(39.2%)보다 남성(60.8%)으로 묘사되었다. 이를 통해 자동차/정유와 관련된 운전 영역과 경제 활동을 담당하는 것은 남성이며, 가사노동, 화장, 돌봄노동과 같은 분야는 여성의 영역이라는 고정관념이 광고에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광고 모니터링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자동차와 음료/식품 분야였다. 자동차 광고 속에서 남성이 등장하는 경우 “정상에 오르다”, “세상을 바꾸다” 등의 자막과 함께 자동차 기술력과 성능을 홍보하는 반면 여성은 “엄마의 뱃속, 지켜줄 거지?”라는 내레이션과 더불어 안전을 강조할 때 등장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 전문적인 영역은 남성의 역할로 간주되고, 여성은 미숙한 운전자로 상정되어 수동적이고 안전을 추구하는 존재로 묘사됨으로써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있었다. 음료/식품 분야의 경우, 빙그레에서 제작한 〈바나나맛 우유〉 광고 시리즈에서는 ‘여성다움’

과 '남성다움'이라는 성별 고정관념을 부추기는 내용이 존재했다. 동서식품의 <맥스웰하우스 콜롬비아나> 광고 시리즈의 경우 여성을 (외모) 칭찬에 약한 존재로 그리고 여성의 외모를 과도하게 부각시키는 등 여성을 성적대상화하는 측면도 있었다.

이번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광고 속 여성들의 특정 부분이 왜곡·과장되어 재현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광고에서 비취지는 성별에 대한 왜곡된 고정관념은 광고에 수시로 노출되는 수용자의 성 인식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기획자와 제작자, 카메라(카메라맨), 그리고 광고 수용자까지 남성을 전제로 한 광고는 여성에 대한 성상품화를 부추기고 성차별을 지속한다는 점에서 제재가 시급하다.

5) 인터넷 기사

35개 매체의 인터넷 기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모니터링은 외모지상주의 조장(17건, 37.0%)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선정성(9건, 19.6%)과 여성의 성적대상화(7건, 15.2%)가 그 뒤를 이었다. 매체별로는 KBS, 노컷뉴스, 프레시안(3건, 13.6%)이 성평등적 내용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성차별적 내용에서는 스포츠동아(16건, 34.8%)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알 수 있었던 점은 신문사에 따른 감수성이 다르다는 것이다. 같은 주제임에도 신문사에 따른 보도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스포츠신문에서 선정성이 짙은 기사들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여성의 신체가 노출된 이미지가 게재되어 있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의도적으로 선별해 기사가 작성되어 있었다. 또한 기사 제목을 선정적으로 설정해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려는 낚시성 제목이 심각하게 많았다. 스포츠 보도를 주목적으로 하는 언론사들임에도 보도의 질보다는 선정적인 자극을 통해 구독자의 이목을 끌고자 하는 모습이었다.

공중파 뉴스, 종이신문에서 벗어나 스마트폰, PC를 통해 온라인 매체가 가장 큰 이용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온라인 매체들의 성평등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만을 내보내거나 제목의 왜곡을 무분별하게 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방안이 시급하다. 또한 오프라인에 비해 온라인의 규제가 약한 만큼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수렴하고 대안 마련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되어야 한다.

6) 온라인 커뮤니티

온라인 커뮤니티 모니터링은 총 3회에 걸쳐 온라인 커뮤니티 상의 게시글과 댓글을 중심으로 비난/비하, 혐오, 폭력성 내용을 모니터링했다. 4월의 경우 16개, 8월과 11월의 경우 14개의 온라인 커뮤니티를 모니터링했으며 '혐오/비난', '폭력/성적대상화' 2개의 속성으로 분류하여 범주화

했다. 3회의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해보았을 때 성차별적 게시물·댓글이 가장 많은 곳은 디시인사이드였으며 일간베스트, 워마드/디젤마니아가 뒤를 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진행되는 성차별적 게시물들은 특정 성을 일반화해 'OO녀', 'OO충'이라고 유형화해 비난하고 있다. 대개 이러한 게시물 내용들은 하나의 상황 혹은 경험을 가지고 특정 성별의 속성으로 환원시켜 무자비하게 비난한다. 이는 그간 사회에서 개념 없는 '일부' 여성을 개똥녀, 된장녀, 김여사, 맘충 등으로 네이밍해 처벌하는 여성혐오의 역사가 배경에 있다.

'초등학교 페미니스트 교사', '웁싱샵 살인사건', '한샘 성폭력 사건' 등이 모니터링 기간 동안 주요 이슈가 되어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자주 언급되었다. '초등학교 페미니스트 교사' 이슈의 경우 디시인사이드, 일간베스트 등의 커뮤니티에서 해당 교사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언이나 비방을 일삼는 내용으로 도배되었으며, 교사가 근무 중인 학교/학부모들을 조롱하는 내용이 존재했다. '웁싱샵 살인사건'이 발생한 시기에는 여성 표적 살인사건을 규탄하는 시위에 참가한 여성의 사진을 찍어 외모를 폄평하거나 근거 없는 비방을 통해 여성을 비하·혐오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다수 올라왔다. '한샘 성폭력 사건' 때는 사건 피해자를 '꽃뱀'이라 칭하거나 '가해자 없는 강간사건'이라는 내용의 댓글들이 달려있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여성이 젠더 권력 속에서 약자의 위치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 속의 혐오 발화들은 온라인 공간에 대한 제재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함을 확인시켜주었다. 오프라인 현실 속에 위치하고 있는 젠더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다양한 노력과 병행하여 혐오 발화들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규제를 통해서만이 성평등한 온라인 공간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청소년, 대학생 등 이용자들을 위한 젠더 감수성 교육,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혐오 발화 규제 강화, 이용자들의 건전한 비판 의식이 필요하며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려는 모두의 지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7) 이슈 모니터링 1 : 공공기관 SNS 홍보물

모니터링 기간 동안 정부 부처별 20개 공공기관 페이스북에서는 성평등적 게시물보다 성차별적 게시물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평등적 게시물은 근로복지공단이 2건(16.6%)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차별적 게시물 또한 근로복지공단이 4건(14.2%)으로 가장 많았다.

과거와 달리 점차 늘어나고 있는 여성의 사회 진출을 조명해 여성의 주체성을 부각시킨 홍보 게시물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맞벌이 부부의 증가 추세에 따라 육아의 책임을 분담하는 현실을

반영한 게시물도 여럿이었다. 그러나 남성은 전문직종에, 여성은 주방·서비스 직종 등의 비전문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묘사되는 등 성차별적인 내용도 존재했다. 남성은 파랑색 등의 어두운 색상 계열의 옷차림을 하고 여성은 핑크색 등의 밝은 색상 계열의 옷차림과 더불어 치마를 입는 등 성별에 따른 색상과 옷차림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나아가 생계부양자 역할은 남성이, 돌봄의 역할은 여성이 맡게 되는 성별 분업 현상이 반영된 게시물도 있었다. 또한, 안내의 역할에는 여성의 이미지가 주로 쓰이고,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설명에서는 남성의 이미지가 주로 쓰이는 경향성도 발견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대부분의 홍보 게시물에서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홍보 이미지를 제작·배포하고 있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형성된 핵가족을 기본적으로 이상적인 가족 단위로 전제할 때 그 외의 다른 가족 형태를 ‘비정상적 가족’으로 배제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홍보 게시물 제작과정에 대한 비판과 성찰이 필요하다.

SNS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페이스북을 통한 정부-국민 간의 소통창구가 마련되었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유용한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일상적인 홍보물에서 발견되는 성차별적 내용 또한 적지 않다는 것을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공공기관 또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이고, 정부의 정책을 시행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점검이 필요하며,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대한 성인지 교육이 적극 확대될 필요가 있다.

8) 이슈 모니터링 2 : 추석특집 예능(파일럿) 프로그램

추석 특집 예능 프로그램들에서는 ‘소통’, ‘여행’, ‘연결’이라는 키워드가 주를 이루었다. 자극적인 소재와 가족 단위를 염두에 두고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제작되었던 이전과는 달리, 이번 추석에는 자극적인 주제보다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시대의 유행과 개인의 취향에 초점을 두어 프로그램이 제작되었다. 특히 <내 방을 여행하는 낯선 이를 위한 안내서>(SBS), <1%의 우정>(KBS2) 등의 프로그램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 간의 ‘소통’이라는 주제를 전면에 내세워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성별 정체성을 기반으로 차별이 재생산되고 있는 젠더 불평등한 사회에서 한 개인의 정체성(성별, 나이, 국적 등)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차이를 넘어 소통하고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평등한 세상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의 성평등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예능 프로그램에서 여성 출연자를 성적 대상화하거나 지나치게 외모에만 집중하는 등 성차별적 내용에 대해 시청자들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성별인식이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콘텐츠의 질적 변화 또한 필요하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방송 제작자들은 시청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며, 때로는 시대를 앞지르는 시도들도 필요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방송 제작자들은 시청자

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며 시청자들 또한 지속해서 피드백을 해야 한다. 이러한 방송 제작자의 노력은 필수적이며, 사회의 지향이 성평등을 향해 갈수록 예능 프로그램 또한 성평등한 콘텐츠로 채워져 나가길 기대한다.

9) 이슈 모니터링 3 : 인터넷 어학사전

인터넷 어학사전(영어) 속 60개의 단어에 대해 총 1,507개의 예문을 모니터링 한 결과, 성평등적 예문 2문장, 성차별적 문장 59문장을 찾을 수 있었다. 또한 단어별로 주체가 되는 성별을 비교해본 결과, 인터넷 사전의 성차별성을 엿볼 수 있었다. 직업 분야에서 '간호사'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주체가 된 문장이 8배 많았고, '군인', '기자', '경찰'은 여성을 주체로 두는 예문이 단 한 개도 없었다. 사람에 대한 형용사에서 '상냥한'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주체인 경우가 약 3배 많았고, '자상한'은 남성이 주체인 경우가 2.4배 많았다.

내용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성차별적인 내용이 가장 많이 확인된 검색어는 '처녀'와 '총각'이다. 이는 두 단어 모두 한국어에서도 차별적인 맥락에서 사용되기 때문이며 '결혼하지 않은 성년'이라는 사전적 개념보다 '아직 성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은 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녀'와 '총각'을,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하기도 하지만 특정 시기(성관계를 경험하기 이전 시기)로 여기는 경우가 많으며 이 시기를 빨리 벗어나야 함을 강조하는 내용의 예문이 대다수였다. 이 외에도 남편을 괴롭히거나 교양 없는 행동을 하는 이미지로 '이즘마'를 표현하는가 하면, 연약함을 여성의 고유한 속성인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간주하는 표현이 있기도 하였다.

또한 "제 어머니는 가정주부입니다", "어머니의 간호로 많이 앓던 아이는 차도를 보였다" 등 돌봄과 관련된 예문은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검색어로 두었을 때 더 많이 확인되었다. 통념적으로 여성성이 짙은 개념은 여성을 주체로 둔 경우가 많고, 남성성이 짙은 개념은 남성을 주체로 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형용사 '우아한', '상냥한'에서 여성이 성비가 더 높다는 점과 '용감한'에서 남성의 성비가 더 높다는 점을 예로 들 수 있다.

인터넷 어학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성차별적 표현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학술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사전에서조차 전통적 성별 고정관념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다. 인터넷 어학사전에서 확인된 성차별적인 예문의 전체적인 숫자는 많지 않지만 언어를 익히는 과정에서 이러한 고정관념에 노출되는 것은 그 고정관념이 더욱 공고해지는 촉매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성평등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겨지던 일상적인 표현들을 다시 한 번 돌아보아야 할 때이다.

5. 종합평가 및 제언

1) 종합평가

- 2017년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은 예능, 드라마, 어린이 프로그램, 광고, 인터넷 신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과 공공기관 SNS 홍보물, 추석 특집(파일럿) 예능 프로그램, 인터넷 어학사전(영어)에 대한 이슈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예능, 드라마 부문은 2016년과 동일하게 두 차례 모니터링 하였는데, 비슷한 문제점이 지속적·반복적으로 발견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인터넷 신문도 예년과 비슷한 양상으로 성차별적 내용이 계속해서 생산되고 있었다.
- 신규 부문으로 어린이 프로그램과 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어린이 프로그램은 남녀 신체 표현의 과장성 및 선정성, 캐릭터의 색상과 외모의 고정성 등의 문제가 다수 발견되었다. 또한 광고 부문에서는 여성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상품과 여성 모델을 동일시하면서 일어나는 성 상품화와 성적 대상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 2017년에는 온라인 커뮤니티 모니터링을 확대하여 세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그 결과, 특정 집단이나 성에 대한 무차별적인 혐오는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매 회 상대방을 비난하고 혐오하는 단어가 새롭게 등장하였으며, ‘페미니즘 교사 논란’, ‘한샘 성폭력 사건’ 등 특정 이슈에 대한 논란을 확산시키며 2,3차 피해를 양산하였다. 과격한 게시글과 댓글에서는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다수 발견되기도 하였다.
- 공공기관 SNS홍보물 모니터링은 공공기관의 성인지 감수성을 파악하는 기회가 되었다. 성평등적 게시물도 있었으나,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된 게시물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의 정책을 시행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이들 기관에 대한 보다 엄격한 점검과 성인지 교육이 필요하다.
- 모니터링 지표로는 표준화된 모니터링 도구(2016년 개발)를 활용하였으며, 각 주제별 영역에 일괄적인 지표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영역별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기도 하였지만, 영역별 비교와 시계열적인 분석이 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각 영역의 지표별 성평등/성차별 사례의 증감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온라인 커뮤니티 모니터링은 별도의 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대학생으로 구성하여 전년도 모니터링시 발생했던 애로사항을 극복하였으며, 젊은 세대의 성평등 모니터 활동가를 발굴하고 양성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었다.
- 양성평등 미디어 모니터 활동을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기 위하여 페이스북 ‘성차별 미디어 아카이브’ 페이지를 활성화하였다. 매달 2-3회씩 미디어 속 성평등·성차별 사례를 포스팅하였으며, ‘성평등·성차별 콘텐츠를 찾아라’ 이벤트를 연중 실시하였다.
- 모니터링 결과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월별 보고서 발송 기관을 2016년 대비 43%(175→250) 증가 시켰으며, 심각한 사안에 대하여 심의 요청하였다. 또한 모니터링 보고서 내용을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였다.
- 양성평등 미디어 문화 확산 토론회를 개최(12월 6일)하여, 모니터링 최종결과를 공유하고 미디어의 성차별성의 심각함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높였다. 또한 각 분야의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하여 양성평등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의하였다.

2) 제언

◦ 미디어의 성차별성에 대한 공감 확산 및 사회적 처벌 강화

사회적으로 성평등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미디어 속의 성차별성에 대한 비판과 문제제기 또한 최근 들어 더욱 강도 높게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성차별적 콘텐츠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미디어의 성차별성을 지적하는 집단이나 개인을 역으로 비난하거나, 제기되는 문제들을 사소하고 작은 문제로 치부하며 무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성평등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비판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언론의 관심, 성차별적 콘텐츠와 해당 제작사에 대한 개선 권고와 시민사회가 협력을 통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고, 성차별적 콘텐츠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이 이어져야 한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구조 정상화 및 성차별적 방송에 대한 제재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기 위원들의 임기 만료 이후 차기 위원들의 선임이 늦어져, 지난 6개월간(2017년 6월부터) 방송·통신에 대한 심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성차별적 방송·통신에 대한 심의를 다수 요청하였으나, 심의절차 미가동으로 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빠른 시일 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고 성차별적 방송에 대한 제재를 보다 강화해야 할 것이다. 2017년 방송심의 결과에서 양성평등 조항 위반에 따른 제재는 한 건도 없었다. 지속적으로 성차별적 방송 내용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지만 '문제없음'으로 조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해당 조항이 적용된 적극적이고 엄격한 심의가 필요하다.

◦ 양성평등 미디어 제작 환경 조성

양성평등 미디어 문화 확산을 위한 토론회(12월 6일)에서 성평등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한 방송 제작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제작자의 성비 불균형, 남성중심적 문화 등 방송제작 구조 자체가 성차별적이며 제작자들의 성인지 의식 또한 매우 낮기 때문에 제작되는 콘텐츠들이 얼마나 성차별적인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성평등의 관점에서 본 worst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 촉진, 성평등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여성가족부 발간)의 실질적인 활용 촉진, 성평등 방송 제작을 위한 교육 이수 의무화 등 유관 부처와 방송사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 온라인 매체의 성차별성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접근

익명성을 기반으로 자행되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속의 혐오는 온라인 공간에 대한 제재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오프라인 현실 속에 벌어지고 있는 성차별을 해소하려는 다양한 노력과 혐오적 발화들에 대한 강도 높은 심의와 규제의 병행이 필요하다. 청소년·대학생 등 온라인에서 주로 활동하는 이용자들을 위한 젠더 감수성 교육,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 규제 강화, 이용자들의 건전한 비판 의식이 필요하며,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려는 모두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Ⅱ . 모니터링 결과

1. 정기모니터링

- 1) 드라마
- 2) 예능 · 오락
- 3) 어린이
- 4) 광고
- 5) 인터넷기사
- 6) 온라인 커뮤니티

2. 이슈모니터링

- 1) 공공기관 SNS 홍보물
 - 2) 추석특집 예능(파일럿) 프로그램
 - 3) 인터넷 어학사전
- 

드라마 모니터링 보고서(5월)

I. 들어가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서울YWCA 양성평등 미디어 모니터링회에서는 드라마 속 성평등적, 성차별적 사례를 찾아내어 분석하기 위해 2017년 5월 1일부터 7일까지 지상파 3사(KBS1, KBS2, MBC, SBS), 종합편성채널(JTBC)과 케이블(tvN)의 드라마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총 22개 프로그램이 모니터링 대상이 되었고, 1주일간 총 68회분을 모니터링 하였다. 이번 모니터링은 양성평등 모니터링 도구 표준화 제안에 따라 표준화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였다.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은 다음과 같다.

II. 모니터링 개요

- 모니터 장르 : 드라마
- 모니터링 기간 : 2017년 5월 1일~7일(7일간)
- 모니터링 매체 : TV(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케이블)
- 대상 방송사 : KBS1, KBS2, MBC, SBS, JTBC, tvN
- 프로그램 수 : 22개 프로그램, 68편
- 모니터인원 : 15명

[표1] 모니터링 프로그램 목록

번호	프로그램명	방송사	방영일시	방송 횟수
1	빛나라 은수	KBS1	월~금 20:25	5
2	완벽한 아내	KBS2	월·화 22:00	2
3	추리의 여왕		수·목 22:00	2
4	아버지가 이상해		토·일 19:55	2
5	TV소설 그 여자의 바다		월~금 9:00	5
6	이름 없는 여자		월~금 19:50	5
7	역적 : 백성을 훔친 도적	MBC	월·화 22:00	2
8	자체발광 오피스		수·목 22:00	2
9	당신은 너무합니다		토·일 20:45	2
10	아버님 제가 모실게요		토·일 22:00	2
11	훈장 오순남	MBC	월~금 7:50	5
12	행복을 주는 사람		월~금 19:15	5
13	황금주머니		월~금 20:55	5
14	갯속말	SBS	월·화 22:00	2
15	사임당 빛의 일기		수·목 22:00	2
16	언니는 살아있다		토 20:45	2
17	아임소리 강남구		월~금 8:30	5

번호	프로그램명	방송사	방영일시	방송 횟수
18	사랑은 방울방울	SBS	월~금 19:20	5
19	초인가족2017		월 23:10	2
20	맨투맨	JTBC	금·토 23:00	2
21	그녀는 거짓말을 너무 사랑해	tvN	월·화 23:00	2
22	시카고타자기		금·토 20:00	2
합 계				68

Ⅲ. 결과분석

1. 양적분석

드라마에 출연하는 전체 등장인물의 성비와 드라마에서 역할의 비중이 높은 배우 4인(여성 주연, 남성 주연, 여성 조연, 남성 조연)을 뽑아 역할별 연령대, 직업군에 대한 양적분석을 실시하였다. 그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등장인물 성비

등장인물의 성비는 여성이 46.8%, 남성이 53.2%로 남성이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연 역할에 대한 성비는 여성이 55.6%, 남성이 44.4%로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1 참조)

[표1] 등장인물 성비

구분	등장인물		주연(주인공)	
	인원수(명)	비율(%)	인원수(명)	비율(%)
전체인원	474	100.0	54	100.0
여성	222	46.8	30	55.6
남성	252	53.2	24	44.4

(2) 주연 배우 연령대

주연배우의 연령대는 여성과 남성 모두 3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반면, 20대는 여성이 남성보다 약 2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참조)

[표2] 주연 배우 연령대

(단위 : 명)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모름	합계
전체인원	1	16	29	4	3	1	0	0	54
여주연	1	11	14	2	2	0	0	0	30
남주연	0	5	15	2	1	1	0	0	24

(3) 조연 배우 연령대

조연 배우의 연령대에서도 주연 배우와 마찬가지로 30대가 가장 많았다. 특히, 30대와 20대에서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여자조연보다 남자조연의 수가 많았다. (표3 참조)

[표3] 조연 배우 연령대

(단위 : 명)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모름	합계
전체인원	3	13	22	1	1	2	0	0	42
여자조연	1	5	8	1	0	2	0	0	17
남자조연	2	8	14	0	1	0	0	0	25

(4) 주요 등장인물 직업군

22개 드라마의 주연과 조연의 직업군을 분석한 결과 22개의 직업군에 분포되어 있었다. 이 중 대표를 포함한 회사원이 39명(40.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평직원 중 남성은 5명, 여성은 9명으로 여성이 많았고, 사장을 포함한 대리 이상의 중간관리자와 대표 중 남성은 19명, 여성은 6명으로 남성이 훨씬 많았다. 여성은 평사원에 이어 주부가 두 번째로 많이 차지하고 있어 가사노동자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남성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고위급 회사를 제외하고는 다양한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4 참조)

[표4] 주요 등장인물의 직업군

(단위 : 명)

직업번호	1	2	3	4	7	9	10	11	12	15	16	17	20	22	23	25	26	27	30	44	46	99	계	
여주인공	0	2	0	7	1	0	1	0	1	0	2	0	0	1	1	7	3	1	0	1	1	1	1	30
남주인공	1	7	2	1	0	1	1	1	1	1	0	1	2	0	1	0	1	1	0	1	0	1	1	24
여자조연	1	2	1	2	0	2	0	0	1	0	0	0	0	0	1	1	1	0	1	0	0	4	17	
남자조연	6	3	0	4	0	1	0	0	2	2	1	0	1	0	0	0	2	1	0	0	0	2	25	
계	8	14	3	14	1	4	2	1	5	3	3	1	3	1	3	8	7	3	1	2	1	8	96	

※직업분류번호

- ① 사장/대표 ② 회사원(팀장/실장/국장/본부장급) ③ 회사원(대리, 과장급) ④ 회사원(평직원) ⑤ 판매사원 ⑥ 안내원 ⑦ 아르바이트 ⑧ 서빙(접객서비스) ⑨ 자영업자 ⑩ 요리사 ⑪ 의사 ⑫ 변호사 ⑬ 검사 ⑭ 판사 ⑮ 경찰(팀장급 이상) ⑯ 경찰(경장/경위) ⑰ 형사 ⑱ 공무원 ⑲ 기자 ⑳ 작가 ㉑ 교수 ㉒ 교사 ㉓ 그 외 특정 분야 전문가 ㉔ 무직 ㉕ 주부 ㉖ 연예인/방송인 ㉗ PD ㉘ 스텝 어디스/스튜어드 ㉙ 무속인 ㉚ 학생 ㉛ 간호사 ㉜ 농부/어부 ㉝ 해녀/해남 ㉞ 국회의원 ㉟ 장관 ㊱ 비서/수행비서 ㊲ 매니저/로드매니저 ㊳ 회장사모님 ㊴ 범죄자(살인/납치/강도) ㊵ 경비원 ㊶ 공장 노동자 ㊷ 고시생/재수생/취준생 ㊸ 운동선수/감독 ㊹ 의료인 ㊺ 백수 ㊻ 모름 ㊼ 기타

(5) 주요 갈등유발자 및 갈등해결자

주요 갈등유발자는 여성이 20명(54.1%), 남성이 17명(45.9%)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갈등해결자는 여성이 9명(39.1%), 남성이 14명(60.9%)으로 남성이 주로 갈등을 해결하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었다. (표5 참조) 이는 2016년 5월과 6월에 진행되었던 드라마 모니터링 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인다. 2016년도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주요 갈등유발자가 여성이 70명(62.5%), 남성이 42명(37.5%)으로 주로 여성이 갈등유발자로 등장했다. 반면 갈등해결자는 여성이 33명(35.1%), 남성이 61명(64.9%)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았다. (표6 참조)

[표5] 갈등유발자, 갈등해결자 성비(2017년도 5월)

	갈등유발자		갈등해결자	
	인원수(명)	비율(%)	인원수(명)	비율(%)
전체인원	37	100.0	23	100.0
여성	20	54.1	9	39.1
남성	17	45.9	14	60.9

[표6] 갈등유발자, 갈등해결자 성비(2016년도 5월, 6월 합산)

	갈등유발자		갈등해결자	
	인원수(명)	비율(%)	인원수(명)	비율(%)
전체인원	112	100.0	94	100.0
여성	70	62.5	33	35.1
남성	42	37.5	61	64.9

(6) 성 평등/성 차별적 내용

모니터링 결과 성 평등적 내용은 9건, 성 차별적 내용은 19건이 발견되었다. 성 차별적 내용 중에서 성 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내용이 6건(31.6%)으로 가장 많았다. (표7 참조)

[표7] 성평등/성차별적 내용

구분		건수	구분		건수
성평등적 내용	주체성	3(33.3%)	성차별적 내용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6(31.6%)
				출산의 도구로서의 여성	3(15.8%)
				여성의 주체성무시/ 남성 의존성향 강조	3(15.8%)
	현실반영성	1(11.1%)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1(5.3%)
				외모지상주의 조장	1(5.3%)
				여성의 성적대상화	2(10.5%)
	다양성	5(55.6%)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단어와 행동의 무분별 사용	2(10.5%)
				선정성	1(5.3%)
합계		9건	합계		19건

(7) 방송사별 성평등·성차별 건수

방송사별로 성평등·성차별 건수를 분석한 결과, MBC의 프로그램에 성평등적 내용이 가장 많이 발견(4건, 44.4%)되었다. MBC는 성차별적 내용도 가장 많이 발견(8건, 42.1%) 되었고, KBS(6건, 31.6%)가 그 뒤를 이었다. (표8 참조)

[표8] 방송사별 성평등/성차별적 내용 수

(단위 : 건)

구분	KBS1	KBS2	MBC	SBS	JTBC	tvN	합계
프로그램	1개(5편)	5개(16편)	7개(23편)	6개(18편)	1개(2편)	2개(4편)	22개(68편)
성평등	-	2(22.2%)	4(44.4%)	2(22.2%)	-	1(11.1%)	9
성차별	-	6(31.6%)	8(42.1%)	4(21.1%)	-	1(5.3%)	19

2. 질적분석

드라마 모니터링의 주요 내용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평등적 내용

(1) 주체성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MBC, 5월 1일, 27회)

가 시대극임을 감안할 때 가령을 통해 주체적이고 강인한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긍정적 시도로 여겨진다.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MBC, 5월 1일, 27회)에서는 가령(채수빈)이 자신을 심문하는 연산군(김지석)의 귀를 물어뜯는 장면이 방영되었다. 홍길동(윤균상)과의 사이를 물으며 가령이 사실을 실토하도록 심문하자 가령은 조선의 백성을 수탈하는 연산군을 '짐승'으로 표현하며 "이 나라 조선의 백성도 절대 길들여지지 않는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드라마

강인한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려는 긍정적 시도로 여겨진다.



〈사랑은 방울방울〉(SBS, 5월 3일, 105회)

이야기하고 표현하고 있으며, 자신의 미래를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하는 모습으로 비춰졌다.

〈사랑은 방울방울〉(SBS, 5월 3일, 105회)에서는 신지연(이상인)은 남편 한동민(이종수)에게 1년 동안 남편과 시어머니의 임신타령으로 힘든 결혼생활을 보냈음을 얘기하였다. 임신을 위해 시험관 아기 시술 등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했음에도 임신이 안 되는걸 인정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길 원하자 이혼을 요구하였다. 여성이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현명한 선택을 하는 모습으로 비춰졌다.

(2) 현실반영성



〈초인가족2017〉(SBS, 5월 1일, 22회)

〈초인가족2017〉(SBS, 5월 1일, 22회)에서는 맹정신(전영미)이 비혼식을 여는 장면이 방영되었다. 주변의 결혼 압박과 연이은 소개팅 실패로 스트레스 받던 맹정신은 가족들과 지인들을 초대해 자신의 싱글라이프를 선언하는 파티를 개최한다.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일 수 있다는 비혼 세태를 반영하고 있으며 당당하게 스스로의 삶을 개척해나가는 여성의 모습을 그려냈다.

(3) 다양성

〈자체발광 오피스〉(MBC, 5월 4일, 15회)에서는 신입사원인 은호원(고아성)이 자신의 직장 상사인 서우진(하석진)에게 “제가 먼저 사장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라며 당찬 포부를 말하는 장면이 방영되었다. 이에 서우진은 “우리 은사장 밑에서 일 한번 해봅시다.”라며 여성의 승진이 긍정적으로 그려졌다. 또한 같은 회차에서 여자 대리인 하지나(한선화)가 회식 도중에 자신의 남편을 책임져야 된다고 말하는 장면이 방영되었다. 이를 통해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가사노동과 경제적 활동을 분담하는 다양한 가족의 모습이 제시되었다.

2) 성차별적 내용

(1)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당신은 너무합니다〉(MBC, 5월 7일, 19회)

〈당신은 너무합니다〉(MBC, 5월 7일, 19회)에서는 예비 시어머니인 성경자(정혜선)가 유지나(엄정화)에게 아내라는 명목으로 가사노동에 대해 강요하는 장면이 방영되었다. “안주인 되려면 식구들 끼니는 챙겨야지, 못하면 배워.”라며 여성만이 가사노동을 담당해야 한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고 가족을 위해 아내가 희생할 것을 강요하는 장면이었다.



〈완벽한 아내〉(KBS2, 5월 2일)

〈완벽한 아내〉(KBS2, 5월 2일, 2회)에서는 구정희(윤상현)가 아들에게 “진육인 특히 오빠고 남자니까 엄마한테 든든한 아들 됐으면 좋겠어.”라고 말하며 유독 아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아들(남자)이라는 이유로 항상 ‘든든하고 의젓해야 한다’는 남성성을 지녀야 하며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이었다.

(2) 출산의 도구로서의 여성



〈아임 소리 강남구〉(SBS, 5월 1일, 92회)

출하여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써 대상화하고 있다. 또한 같은 날 방송에서 홍명숙(차화연)이 사돈 어른을 만나서 “영화(나야)가 대를 못 이으니 이혼시켜야 겠어요.” 라고 말하였다. 여성을 출산의 수단으로써만 이용하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직접 나서서 이혼을 종용하는 모습이었다.

(3) 여성의 주체성 무시/ 남성 의존성향 강조



〈추리의 여왕〉(KBS2, 5월 4일, 10회)

있는 여성을 ‘아줌마’라고 부르며 무시하고 성차별적인 단어가 그대로 방송되었다.

〈아임 소리 강남구〉(SBS, 5월 1일, 92회)에서는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며느리인 차영화(나야)에게 시어머니인 홍명숙(차화연)이 한약을 억지로 먹으라고 하며, “너 이 약 먹어도 애 못 가지잖아, 우리 집안 대를 끊으려고 작정을 했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당장”라고 말하는 장면이 방송되었다. 며느리가 임신을 못하는 것을 약점으로 삼고, 대를 끊으려 한다고 억지를 쓰는 상황을 연

〈추리의 여왕〉(KBS2, 5월 4일, 10회)에서는 민간인 전문 프로파일러인 유설옥(최강희)이 무시받는 장면이 방영되었다. 전문 프로파일러 자격으로 서동 경찰서를 방문한 유설옥은 자신을 막아서는 하완승(권상우)에게 명패를 보여줬으나 “아무나 오는 곳 아니라고, 유설옥 씨! 여기 아줌마네 집 아니에요.”라며 여성의 전문성과 주체성을 훼손했다. 능력

(4)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훈장 오순남〉(MBC, 5월 2일, 7회)

임을 빌미로 여성에게 언어 성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보여졌다.

〈훈장 오순남〉(MBC, 5월 2일, 7회)에서는 기승재(김형민)가 결혼축하 파티에서 예비 신부인 황세희(황수연)에게 진실게임을 하며 언어 성폭력을 가하는 장면이 방영되었다. 기승재가 황세희를 향해 “나는 과거에 남자와 동거한 적이 있다”, “나는 과거에 애를 낳은 적이 있다”라고 물어보며 조롱하는 동안 황세희는 분노한 표정으로 참고 있다가 결국 구역질을 참으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진실게

(5) 외모지상주의 조장



〈훈장 오순남〉(MBC, 5월 1일, 6회)

외모를 비하하고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고 있다.

〈훈장 오순남〉(MBC, 5월 1일, 6회)에서는 서당의 학생들이 똥똥한 친구의 배를 치며 “와~ 너, 밥 더 잘 먹을 거야?”라고 말하고 이를 보는 다른 아이들이 깔깔대며 조롱하는 듯한 웃음을 연속적으로 보여주었다. 똥똥한 친구를 놀리는 장면과 이어서 키 작은 친구와 똥똥한 친구의 말싸움에서 “조그마한 게”, “왜? 이 꿀꿀아” 등의 대사를 통해 상대방의

(6) 여성의 성적대상화



〈훈장 오순남〉(MBC, 5월 3일, 8회)

〈훈장 오순남〉(MBC, 5월 3일, 8회)에서는 기승재(김형민)에게 농락당한 차유나(서혜진)가 약을 먹고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실려와 깨어나자 엄마인 모화란(금보라)이 딸 차유나를 다그치며 “몸이 무기라고 큰소리치더니 누구한테 팔아먹었어!”라고 말하는 장면이 방송되었다. 여성의 몸을 성적인 도구로 여기고 상품화하고 있는 장면이다.

(5)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단어와 행동의 무분별 사용



〈아버지가 이상해〉(KBS, 5월 6일, 19회)

〈아버지가 이상해〉(KBS, 5월 6일, 19회)에서는 변라영(류화영)이 박철수(안효섭)에게 체조를 알려주는 과정에서 박철수의 몸을 밀착하거나 ‘후’하는 소리와 함께 야릇한 음악이 나왔다. 내용상의 흐름과는 무관하게 자극적으로 편집하여 성적 이미지를 연상하게 하고 있다.

(6) 선정성



〈추리의 여왕〉(KBS2, 5월 3일, 9회)

〈추리의 여왕〉(KBS2, 5월 3일, 9회)에서는 살인사건을 현장 감식하는 장면이 방송을 탔다. 해당 장면에서 카메라는 짧은 반바지를 입은 살인사건 피해 여성의 다리 부분을 클로즈업했다. 여성의 신체부위를 강조하는 선정성과 더불어 노출이 있는 옷을 입은 여성은 쉽게 범죄의 대상이 된다는 잘못된 메

시지를 은연중에 유포하고 있다.

IV. 나가며

모니터링 기간 동안 방송된 22개의 프로그램(68편)에서는 등장인물의 성비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업군에 있어서는 매우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낮은 직급에 있거나 가사노동자로 그려지는 횟수가 많으며 이에 비해 남성은 고위급 회사원 혹은 다양한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2016년도 드라마 모니터링과 비슷한 점을 보인다. 여성이 가사노동자를 비롯해 판매사원, 아르바이트, 공장 노동자 등의 비전문직 역할을 맡은 것과는 달리 남성은 자영업자, 의사, 검사, 전문가, 국회의원 등 사회적 지위가 높은 전문직으로 묘사되었다. 2016년에 이어 2017년 드라마 모니터링 결과 또한 성별에 따른 직업군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어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 한편 주요 갈등유발자의 경우 2016년도와 2017년도 드라마 모니터링 결과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2016년도에서는 주요 갈등유발자가 대체로 여성인 것(62.5%)과 달리 2017년도에서는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주요 갈등해결자가 남성인 지점은 동일했다.

드라마 모니터링을 통해 주목할 만한 점은 드라마가 현 시대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초인가족2017>에서 비혼 세대를 반영해 비혼식을 여는 모습을 그렸고, 일하는 여성이 늘어남에 따라 공동육아·공동가사를 강조한 프로그램(<아버님 제가 모실게요>, <아버지가 이상해>)도 발견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자체발광 오피스>에서는 여주인공 은호원(고아성)이 사장이 되겠다는 큰 포부를 드러내자 이를 인정하고 응원하는 서우진(하석진)의 모습이 방영되어 여성의 주체적·진취적 활동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조성할 수 있었다.

반면, 여전히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여성을 가사노동이나 가족에게 희생해야 하는 역할로 그려내는 프로그램도 많았다. <추리의 여왕>에서는 유설옥(최강희)은 전문 프로파일러임에도 불구하고 가사노동을 수행해야 하는 역할로 그려지며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매번 타박 받는 인물로 등장했다. 또한 <당신은 너무합니다>에서는 여성의 경제적 활동을 미덥찮게 보는 예비 시어머니 성경재(정혜선)가 예비 며느리인 유지나(엄정화)에게 요리를 배우라고 강요하는 장면이 방영되기도 했다. 또한 <아임 소리 강남구>와 <그 여자의 바다>에서는 여성을 출산의 수단으로 보고 출산에 대한 압박을 부가하거나 남아 선호 사상을 부추기기도 했다.

시대상을 반영해 방송 콘텐츠를 만들어 문화를 생산하는 미디어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거나 여성의 주체성을 무시하고 여성을 성적 대상화한다는 것에 대해 제작자와 시청자 모두가 책임을 지녀야 한다. 제작자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이미지를 고착화하는 방식을 극복하고 성평등한 대안적 가치를 생산해내는 드라마를 만들어가고자 노력해야 한다. 또한 시청자는 지속해서 미디어 콘텐츠를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서 제작자가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켜보고 소통해야 한다.

V. 모니터링 내용

1. 성평등적 내용¹⁾

(1) 주체성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MBC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	5월 1일 (27회)	 <p>연산군(김지석)이 가령(채수빈)에게 홍길동(윤균상)과의 사이를 물으며 심문하자 가령은 연산군에게 “가까이 오라”하여 연산군의 귀를 물어뜯음. 그러면서 “네가 바로 내 서방을 찢어 죽인 짐승이다. 나를 죽여라. 나를 능지하고 육시하여 죽여라. 나도, 내 서방도, 이 나라 조선의 백성도 절대 길들여지지 않는다.”면서 폭군에게 일침을 가하며 주체적이고 강인한 여성이자 백성의 모습을 보여줌.</p>
SBS	사랑은 방울방울	5월 3일 (105회)	 <p>신지연(이상인)은 남편 한동민(이종수)에게 1년 동안 남편과 시어머니의 임신타령으로 힘든 결혼생활을 보냈음을 얘기하며, 임신을 위해 시험관 아기 시술 등 할 수</p>

1) ① 주체성 : 여성을 주체로서 다루고 있는가? 여성의 시각에서 문제를 보고 있는가?

② 현실반영성 : 성불평등적인 젠더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성이 처한 문제와 상황을 잘 파악하여 남녀 불균형적인 현실을 적절히 묘사하고 있고, 성평등을 위한 문제 해결방식이 과장되거나 희화화되지 않는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또한 이 문제가 많은 여성의 상황을 대변하는가?

③ 다양성 :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다양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가?

④ 대안성 : 대안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있는 노력은 다했음에도 임신이 안 되는걸 인정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길 원하자 이혼을 요구함. 여성이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이야기하고 표현하고 있음. 자신의 미래를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하는 모습으로 비춰짐.
tvN	그녀는 거짓말을 너무 사랑해	5월 2일 (14회)	후엔터의 사장 유현정(박지영)은 소속 가수에게 “잘 생각해야 돼, 남자 하나 때문에 흔들리기엔 내가 포기해야 할 게 너무 많아. 어떤 구두를 신어야 편한지..... 여자들은 자신을 속이면서 살 수가 없어, 알고 있지?” 라고 말하며, 남성 때문에 여성 자신의 삶을 희생하지 말라고 충고함. 여성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대사임.

(2) 현실반영성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SBS	초인가족 2017	5월 1일 (22회)	 <p>주변의 결혼 압박과 소개팅 실패로 스트레스 받던 맹정신(전영미)이 가족들과 지인들을 초대해서 자신의 싱글 라이프를 선언하는 파티를 열고, 새롭게 출발하는 장면이 방영됨.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일 수 있는 요즘의 비혼 세태를 반영하고 있음.</p>

(3) 다양성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KBS2	아버님 제가 모실게요	5월 7일 (50회)	한성준(이태환)이 오동희(박은빈)에게 청혼할 때에 작가인 오동희에게 “(오동희)가 글 쓸 때 떠들지 않고 글 쓸 때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밥을 알아서 차려먹음으로써 구상에 집중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함. 이는 요리가 여성만의 몫이 아니며 직업에 따라 노동을 분담할 수 있다는 성평등적 요소가 반영되어 있음.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KBS2	아버지가 이상해	5월 6일 (19회)	 <p>가사노동은 여성의 몫이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남성 또한 가사노동에 익숙하며 가족 전체가 함께 책임지고 분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p>
MBC	자체발광 오피스	5월 4일 (15회)	<p>회식자리에서 여자 대리인 하지나(한선화)가 모든 사람에게 구조조정의 불합리성을 주장하며 “저는 진짜 회사 그만 못 둡니다. 적금 부은 거 만기도 아직 멀었고요, 이 남자(도기택)를 먹여 살려야 하거든요. 왜 남자만 여자 먹여 살리라는 법 있어? 오빠(도기택)가 살림하고 내조해. 내가 바깥일 다 할게. 내가 내 남자 책임진다 이거야”라고 말함.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가사노동과 경제적 활동을 분담하는 성평등한 인식을 보여줌.</p> <p>신입사원인 은호원(고아성)이 “제가 먼저 사장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서우진(하석진)은 “우리 은 사장 밑에서 일 한번 해봅시다.”라고 함. 여성 또한 사장이라는 높은 직위에 올라갈 수 있다는 시각이 반영되어 있음.</p> <p>은호원(고아성)이 승진을 보장한다는 부적을 서우진(하석진)에게 내밀자 “승진 빠르면 퇴직도 빠르다. 은호원 씨가 갖고 있어라. 사장까지 한방에. 왜 못합니까. 여자과장, 여자부장, 여자임원, 그리고 사장까지. 우리 회사 역사 은호원 씨가 한번 새로 써보라”라고 말함. 여성의 승진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다양한 시각이 내포되어 있음.</p>

2. 성차별적 내용

(1)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KBS2	추리의 여왕	5월 3일 (9회)	<p>여주인공인 유설옥(최강희)은 앞치마를 두르고 아침부터 늦잠 자는 남편을 깨우고 난 뒤 요리를 시작함. 식탁이 다 차려지자 남편(김호철)과 시어머니(박준금)가 식탁에 앉아서 음식 타박을 하고, 시누이(김호순)는 밥 먹으라고 불러야만 겨우 나와서 먹기 싫다며 짜증을 내는 장면이 방영됨. 식탁에 앉은 남편은 서류를 보고 있고 음식 차리며 바쁜 외중에 물까지 유설옥이 가져다주는 모습이 그려짐. 뒤늦게 시어머니가 식탁에 앉으며 “냄새만 좋아 냄새만.”, “재는 원래 저래..(찌개를 한 입 맛보더니) 짜!”하며 음식 타박까지 함. 한 가정의 며느리이자 아내라는 역할이 모든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함.</p>  
KBS2	완벽한 아내	5월 2일 (20회)	<p>구정희(윤상현)이 이혼 후 오랜만에 자녀들을 만나는 장면에서 “진육인 특히 오빠고 남자니까 엄마한테 든든한 아들 됐으면 좋겠어.”라고 말함. 이에 아들은 “지금도 짱 든든해. 아빠!”라고 대답함. 구정희는 “그래.. 든든하고 의젓하지 우리 진육이.”라고 말하며 유독 아들의 역할을 강조하며 엄마를 지켜주라고 당부하고 있음. 아들</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p>이라는 이유로 엄마를 지켜줘야 한다는 대사에서 남성의 역할을 고정화하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음.</p> 
MBC	당신은 너무합니다	5월 7일 (19회)	 <p>있으면 되는 건 줄 아니?</p> <p>식사를 담당하던 둘째 며느리 고나경(윤아정)의 입지가 좁아지자 예비 시어머니 성경재(정혜선)는 유지나(엄정화)에게 “대신 식구들 식사 부탁한다. 안주인 되려면 식구들 끼니는 챙겨야지. 못하면 배워. 분만 뽀얗게 바르고 입술만 빨강게 칠하고 있으면 되는 줄 아니. 누리고 싶은 게 있으면 할 바가 생기는 거야”라고 말함. 아내라는 명목으로 가사노동에 대해 강요하며 유지나의 외모를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음. 또한 유지나가 경제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전통적 관념으로 인해 가족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모습이 반영되어 다소 아쉬움.</p>
MBC	훈장 오순남	5월 1일 (6회)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p>서당의 아이들 중 여자아이는 1명뿐임. 드라마의 배경은 현재임에도 교육에 있어서의 전통적인 성차별적 고정관념을 그대로 드러냄.</p>
SBS	초인가족 2017	5월 1일 (22회)	나천일(박혁권)이 처형 맹정신(전영미)의 소개팅을 주선하는 장면에서 처형의 직업이 전문 성우이며 “남자관계가 너무 깨끗하다”고 표현하였음. 여성의 남자관계를 언급하며 깨끗함을 강조한 점이 전형적인 여성의 성역할을 조장하고 순결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대사임.
tvN	그녀는 거짓말을 너무 사랑해	5월 2일 (14회)	강한결(이현우)이 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친구 지인호(장기용)를 위해 “야, 과일 먹을래? 내가 깎아줄게.”라고 하자, 지인호는 “야, 남자가 깎으면 당도가 반으로 줄어든다는 연구결과 모르냐?”라고 대답함. 강한결은 “깎아준다고 할 때 조용히 먹어라~”라고 응수하며 과일을 깎아 주었지만, 가벼운 한마디 농담에서도 ‘과일은 여성이 깎아야 한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드러남.

(2) 출산의 도구로써의 여성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KBS2	그 여자의 바다	5월 1일 (46회)	 <p>윤수인(오승아)의 아버지 윤동철(이대연)은 아내인 박순옥(박현숙)이 아들을 낳지 못하자, 이영선(이현경)을 두 번째 아내로 맞이해 아들을 낳고 두 아내와 한 집에 살고 있음. 여성을 아들을 낳기 위한 수단으로만 보고 있음.</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으며 남아 선호 사상을 반영하고 있음.
SBS	아임 쏘리 강남구	5월 1일 (92회)	 <p>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며느리인 차영화(나야)에게 시어머니인 홍명숙(차화연)이 한약을 억지로 먹으라고 하면서 “너 이 약 먹어도 애 못 갖자나, 우리 집안 대를 끊으려고 작정을 했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당장”라고 말함. 또한 손자인 재민이가 죽은 것도 모두 “애를 못 가져서 생긴 일이야” 라고 함. 며느리가 임신을 못하는 것을 약점으로 삼고, 대를 끊으려 한다고 억지를 쓰고, 손자를 죽인 원인으로 몰고 가는 상황이 연출됨.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써 대상화하고 있음.</p>
		5월 1일 (92회)	<p>홍명숙(차화연)이 사돈 어른을 만나서 “영화(나야)가 대를 못 이으니 이혼시켜야 겠어요.” 라고 말함. 여성을 출산의 수단으로써만 이용하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직접 나서서 이혼을 종용함.</p>

(3) 여성의 주체성 무시/ 남성 의존성향 강조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KBS2	추리의 여왕	5월 4일 (10회)	 <p>민간인 전문가 프로파일러 자격으로 서동 경찰서를 방문한 유설옥(최강희)을 막아서는 하완승(권상우). 명패를 보여주는 유설옥(최강희)에게 “아줌마 자리 없대니까!”라며 막아서고 “아무나 오는 곳 아니라고, 유설옥 씨! 여</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기 아줌마네 집 아니에요.”라며 조롱함. 프로파일러로 특별 채용된 유설옥(최강희)을 계속 아줌마라 호칭하며 여성의 전문성과 주체성을 무시하고 있음.
MBC	훈장 오순남	5월 1일 (6회)	 <p>허영심으로 가득 찬 철부지 차유나(서혜진)가 바람둥이 병원 이사장 기승재(김형민)에게 농락당하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치장한 이미지와 어린애가 응석 부리는 듯한 말투로 “돈 많이 많이 벌어서 유나 예쁜 가방 사주세요.”라고 말함. 남성 의존 성향이 강조되었으며 여성이 남성의 경제적 능력에 매달리는 이미지가 조장됨.</p>
SBS	초인가족 2017	5월 1일 (22회)	조여사(김혜옥)가 셋째 딸인 맹라연(박선영)에게 둘째 딸 맹정신(전영미)의 결혼 얘기를 하면서 “둘째언니 꼭 치워버린다”라고 표현함. 남녀 간의 결합인 결혼상황을 당사자의 선택과 결정 없이 엄마가 “치워버린다”고 표현하여, 여성의 주체성이 무시된 상황으로 간주됨.

(4)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MBC	훈장 오순남	5월 2일 (7회)	 <p>기승재(김형민)가 결혼축하 파티에서 예비 신부인 황세희(한수연)에게 진실게임이라는 형식을 빌려 노골적인 언어 성폭력을 연발하는 상황을 보여줌. 기승재는 예비 신부 황세희를 향해 “나는 과거에 가출을 한 적이 있다?”라고 하자 “뭐야 예비신부 과거 캐기야?”라는 반응</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이 이어지고 황세희는 대답 대신 술을 마심. 이어서 기승재가 다시 “나는 과거에 남자와 동거를 한 적이 있다”, “나는 과거에 애를 낳은 적이 있다”라고 연이어 조롱하는 동안 황세희는 분노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견디다 결국 구역질을 참으며 밖으로 뛰쳐나감. 성희롱이 진실게임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있음.

(5) 외모지상주의 조장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MBC	훈장 오순남	5월 1일 (6회)	 <p>서당의 학생들이 똥똥한 친구의 배를 치며 “와~ 너, 밥 더 잘 먹을 거야?”라고 말하고 이를 보는 다른 아이들이 깔깔대며 조롱하는 듯한 웃음을 연속적으로 보여줌. 똥똥한 친구를 놀리는 장면과 이어서 키 작은 친구와 똥똥한 친구의 말싸움에서 “조그마한 게”, “왜? 이 꿀꿀아” 등의 대사를 통해 상대방의 외모를 비하하고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함.</p>

(6) 여성의 성적대상화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MBC	훈장 오순남	5월 1일 (6회)	외박하고 들어온 딸 차유나(서혜진)에게 엄마 모화란(금보라)이 “너 어디서 뭐하다가 지금 들어오는 거야? 노는 건 자유인데 네 몸 네가 알아서 챙겨. 나중에 땅치고 후회해도 그때는 늦는 거야.”라고 다그치자 차유나(서혜진)가 자기 몸을 가리키며 “물론이지 이 귀~한 무기를 함부로 쓸 수 있나.”라고 대꾸하는 장면이 방영됨. 자신의 몸을 이용해 남성을 유혹할 수 있다는 의미로 여성의 성 상품화를 조장하는 대사임.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5월 3일 (8회)	 <p>기승재(김형민)에게 농락당한 차유나(서혜진)가 약을 먹고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실려와 깨어나자 어머니인 모화란(금보라)이 딸 차유나를 다그치며 “몸이 무기라고 큰 소리치더니 누구한테 팔아먹었어!”라고 말함. 여성의 몸을 성적인 도구로 여겨 상품화하는 대사임.</p>

(7)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단어와 행동의 무분별 사용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KBS2	아버지가 이상해	5월 6일 (19회)	<p>변리영(류화영)이 박철수(안효섭)에게 체조를 알려주는 과정에서 박철수의 몸을 밀착하거나 ‘후’하는 소리와 함께 야릇한 음악이 나와 성적 이미지를 연상하게 함.</p> 
MBC	훈장 오순남	5월 1일 (6회)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p>강운길(설정환)이 운동하고 있는 모습을 소명재(신이)가 “좋다~ 참 좋다”, “공기 좋다”, “좋다”라는 대화와 함께 야릇한 표정으로 훑쳐보는 것처럼 묘사해 성적이미지를 연상케 함.</p>

(8) 선정성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KBS2	추리의 여왕	5월 3일 (9회)	  <p>서동경찰서 관할 지역에 살인사건이 발생해서 남주인공인 하완승(권상우)이 출동해 현장 감식하는 장면임. 피해 여성이 짧은 반바지 차림으로 침대에 반듯이 누워 있는데 다리 부분을 짝 클로즈업 함. 강도 살인 현장의 피해 여성의 옷차림을 짧은 반바지로 설정해 여성의 신체부위를 강조하는 선정적인 장면이 방송에 나옴.</p>

드라마 모니터링 보고서(9월)

I. 들어가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서울YWCA 양성평등 미디어 모니터회에서는 드라마 속 성평등적, 성차별적 사례를 찾아내어 분석하기 위해 2017년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지상파 3사(KBS1, KBS2, MBC, SBS), 종합편성채널(JTBC)과 케이블(tvN, OCN)의 드라마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총 22개 프로그램이 모니터링 대상이 되었고, 1주일간 총 64편을 모니터링 하였다. 이번 모니터링은 양성평등 모니터링 도구 표준화 제안에 따라 표준화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였다.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은 다음과 같다.

II. 모니터링 개요

- 모니터 장르 : 드라마
- 모니터링 기간 : 2017년 9월 1일~9월 7일(7일간)
- 모니터링 매체 : TV(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케이블)
- 대상 방송사 : KBS1, KBS2, MBC, SBS, JTBC, tvN, OCN
- 프로그램 수 : 22개 프로그램, 64편 (표1 참조)
- 모니터인원 : 14명

[표1] 모니터링 프로그램 현황

연번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시	방송 횟수
1	KBS1(1)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월~금 20:25	5
2	KBS2 (6)	학교 2017	월·화 22:00	2
3		맨홀 - 이상한 나라의 필	수·목 22:00	2
4		황금빛 내 인생	토·일 19:55	2
5		꽃피어라 달순아	월~금 9:00	5
6		이름 없는 여자	월~금 19:50	5
7		최강 배달꾼	금·토 23:00	2
8		MBC (6)	왕은 사랑한다	월·화 22:00
9	병원선		수·목 22:00	2
10	밥상 차리는 남자		토·일 20:45	2
11	도둑놈, 도둑님		토·일 22:00	2
12	훈장오순남		월~금 7:50	5
13	별별 며느리		월~금 20:55	5
14	SBS (4)	조작	월·화 22:00	2
15		다시 만난 세계	수·목 22:00	2
16		언니는 살아있다	토 20:45	4

연번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시	방송 횟수
17		달콤한 원수	월~금 8:30	5
18	JTBC(1)	청춘시대2	금·토 23:00	2
19	tvN (3)	아르곤	월·화 22:50	2
20		크리미널 마인드	수·목 22:50	2
21		명불허전	토·일 21:00	2
22	OCN(1)	구해줘	토·일 22:20	2

Ⅲ. 결과분석

1. 양적분석

드라마에 출연하는 전체 등장인물의 성비와 드라마에서 역할의 비중이 높은 등장인물 4인을 뽑아 역할별 연령대, 직업군에 대한 양적분석을 실시하였다. 그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등장인물 성비

등장인물의 성비는 여성이 42.4%, 남성이 57.6%로 여성에 비해 남성 등장인물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연 역할에 대한 성비는 여성이 49.1%, 남성이 50.9%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참조)

[표2] 등장인물 성비

구분	등장인물		주연(주인공)	
	인원수(명)	비율(%)	인원수(명)	비율(%)
전체인원	472	100.0	57	100.0
여성	200	42.4	28	49.1
남성	272	57.6	29	50.9

(2) 주연 배우 연령대

주연배우의 연령대는 여성의 경우 20대가, 남성의 경우 3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뒤이어 여성은 30대가, 남성은 20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3 참조)

[표3] 주연 배우 연령대

(단위 : 명)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모름	합계
전체인원	4	24	23	3	3	0	0	0	57
여해주연	2	15	9	1	1	0	0	0	28
남해주연	2	9	14	2	2	0	0	0	29

(3) 조연 배우 연령대

조연 배우의 연령대는 여성과 남성 모두 3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근소한 차이로 여성, 남성 모두 20대가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4 참조)

[표4] 조연 배우 연령대

(단위 : 명)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모름	합계
전체인원	2	12	14	4	1	0	2	0	35
여자조연	1	6	7	1	0	0	0	0	15
남자조연	1	6	7	3	1	0	2	0	20

(4) 주요 등장인물 직업군

22개 드라마의 주연과 조연의 직업군을 분석한 결과 26개의 직업군에 분포되어 있었다. 이 중 대표를 포함한 회사원이 23명(2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장·대표를 포함한 대리 이상의 중간관리자(직업군 ①,②,③) 중 남성은 16명, 여성은 6명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고위급 회사원 역할을 많이 맡았다. 반면 아르바이트 역할(직업군 ⑦)에는 여성의 비율이 더 높았다. 뒤이어 의사와 학생 역할이 남성/여성을 포함해 9명(9.7%)으로 비중이 두 번째로 높았다. 의사의 경우 남성이 7명, 여성이 2명이었으며 학생의 경우 남성이 2명, 여성이 7명이었다. 전문 직종에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이 종사하는 것으로 그려졌다. (표5 참조)

[표5] 주요 등장인물의 직업군

(단위 : 명)

직업번호	1	2	3	4	5	7	8	9	10	11	12	13	15	16	19	22	23	24	25	26	27	30	36	42	45	99	계
여주인공	0	1	0	1	1	1	0	1	0	2	1	1	0	1	1	1	1	0	1	1	0	6	2	1	1	3	28
남주인공	0	7	0	0	0	0	0	1	2	3	1	1	0	1	3	0	4	0	0	0	0	2	0	1	0	3	29
여자조연	1	3	1	0	0	3	0	0	0	0	0	0	1	0	0	0	2	0	0	0	0	1	0	0	0	3	15
남자조연	5	4	0	0	0	0	1	0	0	4	0	0	0	1	0	0	0	1	0	0	1	0	0	1	0	2	20
계	6	15	1	1	1	4	1	2	2	9	2	2	1	3	4	1	7	1	1	1	1	9	2	3	1	11	92

※직업분류번호

① 사장/대표 ② 회사원(팀장/실장/국장/본부장급) ③ 회사원(대리, 과장급) ④ 회사원(평직원) ⑤ 판매사원 ⑥ 안내원 ⑦ 아르바이트 ⑧ 서빙(접객서비스) ⑨ 자영업자 ⑩ 요리사 ⑪ 의사 ⑫ 변호사 ⑬ 검사 ⑭ 판사 ⑮ 경찰(팀장급 이상) ⑯ 경찰(경장/경위) ⑰ 형사 ⑱ 공무원 ⑲ 기자 ⑳ 작가 ㉑ 교수 ㉒ 교사 ㉓ 그 외 특정 분야 전문가 ㉔ 무직 ㉕ 주부 ㉖ 연예인/방송인 ㉗ PD ㉘ 스텐더디스/스튜어드 ㉙ 무속인 ㉚ 학생 ㉛ 간호사 ㉜ 농부/어부 ㉝ 해녀/해남 ㉞ 국회의원 ㉟ 장관 ㊱ 비서/수행비서 ㊲ 매니저/로드매니저 ㊳ 회장사모님 ㊴ 범죄자(살인/납치/강도) ㊵ 경비원 ㊶ 공장노동자 ㊷ 고시생/재수생/취준생 ㊸ 운동선수/감독 ㊹ 의료인 ㊺ 백수 ㊻ 모름 ㊼ 기타

(5) 주요 갈등유발자 및 갈등해결자

주요 갈등유발자는 여성이 15명(42.8%), 남성이 20명(57.2%)으로 남성의 비율이 조금 높았다. 또한 주요 갈등해결자 역할에는 여성이 14명(48.3%), 남성이 15명(51.7%)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표6 참조) 이와 같은 결과는 2017년 5월에 진행되었던 드라마 모니터링 결과와 차이를 보인다. 2017년도 5월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9월 모니터링 결과와 달리 주요 갈등유발자 부분에서 여성(20명, 54.1%)이 남성(17명, 45.9%)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갈등해결자는 여성(9명, 39.1%)에 비해 남성(14명, 60.9%)이 2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7 참조)

[표6] 갈등유발자, 갈등해결자 성비(2017년 9월)

	갈등유발자		갈등해결자	
	인원수(명)	비율(%)	인원수(명)	비율(%)
전체인원	35	100.0	29	100.0
여성	15	42.8	14	48.3
남성	20	57.2	15	51.7

[표7] 갈등유발자, 갈등해결자 성비(2017년 5월)

	갈등유발자		갈등해결자	
	인원수(명)	비율(%)	인원수(명)	비율(%)
전체인원	37	100.0	23	100.0
여성	20	54.1	9	39.1
남성	17	45.9	14	60.9

(6) 성평등/성차별적 내용

모니터링 결과 성평등적 내용은 9건, 성차별적 내용은 31건이 발견되었다. 성차별적 내용 중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내용이 15건(48.4%)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여성의 주체성 무시/ 남성 의존성향 강조하는 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8 참조) 2017년 5월과 비교하면, 성평등적 내용은 9건으로 동일했으며, 성차별적 내용은 19건에서 31건으로 약 1.5배 늘어났다. 특히,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내용이 6건에서 15건으로 약 3배가량 증가했다. (표9 참조)

[표8] 성평등/성차별적 내용 (2017년 9월)

구분		건수	구분		건수
성평등적 내용	주체성	4(44.5%)	성차별적 내용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15(48.4%)
				출산의 도구로써의 여성	1(3.2%)
	현실반영성	2(22.2%)		여성의 주체성무시/ 남성 의존성향 강조	5(16.1%)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3(9.6%)
	다양성/대안성	3(33.3%)		외모지상주의 조장	2(6.5%)
				여성의 성적대상화	2(6.5%)
				선정성	1(3.2%)
	합계	9건		합계	31건

[표9] 성평등/성차별적 내용 (2017년 5월)

구분		건수	구분		건수
성평등적 내용	주체성	3(33.3%)	성차별적 내용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6(31.6%)
				출산의 도구로써의 여성	3(15.8%)
	현실반영성	1(11.1%)		여성의 주체성무시/ 남성 의존성향 강조	3(15.8%)

구분	건수	구분	건수
다양성	5(55.6%)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1(5.3%)
		외모지상주의 조장	1(5.3%)
		여성의 성적대상화	2(10.5%)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단어와 행동의 무분별 사용	2(10.5%)
		선정성	1(5.3%)
합계	9건	합계	19건

(7) 방송사별 성평등·성차별적 내용 건수

방송사별로 성평등·성차별적 내용 건수를 분석한 결과, SBS의 프로그램에서 성평등적 내용이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3건, 33.3%). 반면 성차별적 내용은 MBC(13건, 41.9%)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었으며 KBS2(9건, 29%)가 뒤를 이었다. (표10 참조)

[표10] 방송사별 성평등·성차별적 내용 건수

구분	KBS1	KBS2	MBC	SBS	JTBC	tvN	OCN	합계
프로그램	1개(5편)	6개(18편)	6개(18편)	4개(13편)	1개(2편)	3개(6편)	1개(2편)	22개(64편)
성평등	1	1	1	3	2	1	0	9
성차별	2	9	13	1	2	3	1	31

2. 질적분석

드라마 모니터링의 주요 내용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평등적 내용

(1) 주체성



〈왕은 사랑한다〉(MBC, 9월 5일)

읽고 슬픈 상황임에도 곁을 지키는 왕린(홍중현)에게 기대기보다 직접 나서서 가솔들을 지휘하는 모습에서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상을 보여준다.

〈왕은 사랑한다〉(MBC, 9월 5일, 31회)에서는 은산(임윤아)이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지혜롭고 강인하게 위기를 대처하는 장면이 방영되었다. 은산은 자신의 아버지인 은영백(이기영)의 장례식 전날 총렬(정보석)과 원성(장영남)의 명을 받은 자들이 자신을 쫓을 것을 미리 예견하고 집안 모든 가솔을 모아 놓고 거처할 곳과 노잣돈을 마련해주며 안전한 곳으로 떠나 있을 것을 지시한다. 아버지를



〈명불허전〉(tvN, 9월 2일)

있었다. 드라마 전반에 걸쳐 최연경이 흉부외과 의사로서 수술을 집도하고 동료 의사들을 압도하는 실력으로 활약하는 모습을 통해 능력있는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명불허전〉(tvN, 9월 2일, 7회)에서는 조폭의 협박에도 겁내하지 않고 당당하고 소신있게 행동하는 의사 최연경(김이중)의 모습이 방영된다. 최연경은 “오히려 대퇴부를 찔린 이쪽 가족분이 치명상을 입었습니다.”라며 조폭과 경찰 앞에서 환자의 상황을 의학적으로 용기 있게 설명한다. 이를 통해 환자가 누명을 벗고 경찰이 진실을 밝혀낼 수

(2) 현실반영성

〈청춘시대2〉(JTBC, 9월 1일, 3회)에서는 주인공 송지원(박은빈)이 자신의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는 장면에서 “애 낳고 살다가도 이혼하는데 연애하면 다 결혼이나?”라며 연애와 결혼은 별개일 수 있다는 현실의 연애 가치관을 드러내는 내용이 방송을 탔다. 또한 자신의 친구인 임성민(손승원)과 얘기하면서 “남자는 동정을 떼어버리라고 그러는데 여자는 왜 안돼?”라고 말하고 자신은 모태솔로이지만 스킨십은 잘할 수 있다고 연습을 하자며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시도하는 장면 등은 과거 여성에게 부과되는 정조 관념을 강조하던 시대상과는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3) 다양성



〈이름없는 여자〉(KBS2, 9월 1일)

〈이름없는 여자〉(KBS2, 9월 1일, 92회)에서는 최고식품 윤기동(선동혁)이 아내와 대화하는 장면에서 자연스럽게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모습이 방송을 탔다. 아내에게 가사일을 전가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로 빨래를 가는 모습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있다.

2) 성차별적 내용

(1)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밥상 차리는 남자〉(MBC, 9월 3일, 2회)에서는 홍영혜(김미숙)와 이신모(김갑수)가 결혼기념일을 기념하기 위해 레스토랑에 방문하는 모습이 방영되었다. 음식 가격을 본 이신모가 “완전히 바가지 씌우려고 걱정했구만.”라



〈밥상 차리는 남자〉(MBC, 9월 4일)

고 말하자 흥영혜는 “여기 세프가 유명해서요”라고 대답한다. 그러자 이신모는 “유명하면 손에 금테 돌렸대. 하여간 대한민국 여편네들. 큰일이야. 남편은 밖에서 7000원 짜리 밥 사먹으면서 하루 종일 일하는데, 집에서 평평 놀구 먹으면서 이런데서 칼질이나 하구. 진짜 말세다. 말세야. 양고기 볶음밥이나 줘요.”하며 핀잔을 준다. 이신모의 대사는 가사노동을 폄하하고 전업주부를 과소평가하는 것이며 중년 여성을 비하하는 것으로, 왜곡된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고 있다.



〈훈장오순남〉(MBC, 9월 1일)

〈훈장오순남〉(MBC, 9월 1일, 94회)에서는 시어머니(금보라)가 며느리(황세희)의 회사 사무실까지 찾아와 망신을 주는 장면이 방영되었다. 해당 회에서는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며느리의 과거 문제를 따지고 결국에는 언쟁을 하며 몸싸움을 하는 장면이 방송을 타기도 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계속되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막말싸움을 지나치게 연출함으로써 고부갈등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시

키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의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2) 여성의 주체성 무시/남성 의존성향 강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KBS1, 9월 5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KBS1, 9월 5일, 72회)에서는 경찰관을 사칭한 범인을 검거하는 장면이 방영되었다.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무순경(임수향)은 범인이 팔을 한번 뿌리치자 힘없이 내동댕이쳐져서 부상을 입고 검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 반면 차팀장(도지한)은 혼자 범인을 제압하여 체포하는데, 이는 경찰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나약하게 묘사되어 주체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남성에게 의존하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

(4)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왕은 사랑한다〉(MBC, 9월 5일, 32회)에서는 왕원(임시완)이 걱정되어 함께 떠나기를 주저하는 은산(임윤아)의 마음을 알면서 왕원이 지켜보는 곳에서 왕린(홍중현)이 은산에게 기습키스를 하는 장면이 방영되었다. 어깨를 밀며 거부하던 은산의 의사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키스를 시도하는 것은 엄연한 성폭력이며, 이를 로맨스로 포장해 방송에 내보내는 것은 위험하게 보여졌다.



〈왕은 사랑한다〉(MBC, 9월 5일)

(5) 선정성



〈청춘시대2〉(JTBC, 9월 2일)

〈청춘시대2〉(JTBC, 9월 2일, 4회)에서는 남성의 알몸 노출신이 방송을 탔다. 벨에포크 집주인의 손자인 서장훈(김민석)은 층을 잘못 찾아서 여자들의 숙소에서 샤워를 하는 사이에 조은(최아라)이 집에 들어와 서장훈의 알몸을 보게 되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연출되었다. 서로가 당황하는 사이에 서장훈의 알몸 노출신이 오랜 시간 화면에 비춰졌고 이러한 선정적인 장면이 여과없이 방송에 내보내졌다.

IV. 나가며

모니터링 기간 동안 방송된 22개의 프로그램(64편)에서는 등장인물의 성비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드라마의 주연과 조연의 직업군을 분석했을 때 남성은 사장/대표를 포함해 고위급 회사원 역할을 맡는 반면 여성은 아르바이트, 학생 등의 비전문 직종으로 그려졌다. 직업군에 있어 성차별적인 요소가 존재한 것과 달리 주요 갈등유발자 및 갈등해결자는 이전 결과와 달리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 2017년 5월에 진행된 모니터링 결과에서는 주요 갈등해결자가 여성에 비해 남성이 약 2배가량 많았으나 이번 9월 모니터링 결과에서는 주요 갈등해결자의 성비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성차별적인 요소가 잔존하고 있으나 등장인물과 주요 갈등유발자/갈등해결자의 성비를 고려했을 때 성평등을 지향하려는 노력을 찾을 수 있었다.

방송사 중에는 SBS에서 성평등적 내용을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3건, 33.3%). 반면 성차별적 내용은 MBC가 가장 비율이 높았다(13건, 41.9%). 이는 2017년 5월에 진행된 모니터링 결과(8건, 42.1%)를 비교해봐도 MBC 드라마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내용이 다수였음을 알 수 있다. 〈훈장오순남〉의 경우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고부 갈등을 과장되게 그려냈으며, 〈밥상 차리는 남자〉에서는 이신모(김갑수)가 자신의 아내인 홍영혜(김미숙)를 무시하고 비하하는 대사로 인해 가부장적인 요소를 강화했다.

한편 JTBC의 〈청춘시대〉는 시즌1에서 청춘들의 이야기를 섬세하게 그려냈다는 호평을 받아 시즌2가 제작되었고 8월부터 방영을 시작했다. 구태의연한 연애·결혼관에서 탈피해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하고 2030대의 여성들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담았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과도한 연출로 남성의 알몸을 노출하거나 자유연애 시대를 반영해 성관계에 대해 개방적인 면모를 표출하면서 피임의 중요성은 언급하지 않는 등 아쉬운 부분도 존재했다. OCN의 〈구해줘〉는 색다른 소재로 이목을 끌었다. 사이버 종교인 구선원의 교주에게 납치된 임상미(서예지)를 구하기 위해 동창 4명이 고군분투하는 내용으로 박진감 넘치는 전개로 많은 주목을 받았으나 그 과정에서 여성의 몸을 매개로 결혼이 강요되거나 성적 대상화하는 면모가 나타났다.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던 특징은 가부장적인 요소가 화면 전반에 배치되어 표출된 과거와는 달리 은유적이고 우회적으로 성차별적인 요소가 드라마 속에 자리잡고 있었다는 점이다.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이와 같은 방식도 시청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드라마 제작자의 세심한 고찰과 고민이 필요하다. 나아가 미디어의 성차별적 내용의 영향력과 관련된 보다 더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며, 자체 심의기능의 강화가 요구된다. 이를 기반으로 성차별적 내용에 대한 규제와 더 좋은 콘텐츠를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이 형성된다면 미디어 속 성차별적 현상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V. 모니터링 내용

1. 성평등적 내용²⁾

(1) 주체성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KBS1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9월 4일 (71회)	 <p>우리(무궁화의 딸)를 친정에 양육을 맡기면 차태진(남자 주인공)과 결혼을 허락하겠다는 차태진 가족의 요구에 힘들어하던 무궁화(임수향)는 “우리는 내 딸이니까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내가 키울거예요” 라고 말하는 장면은 시댁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독립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여성의 주체성을 보여줌.</p>
MBC	왕은 사랑한다	9월 5일 (31회)	<p>은산(임윤아)는 자신의 아버지인 은영백(이기영)의 장례식 전날 총렬(정보석)과 원성(장영남)의 명을 받은 자들이 자신을 쫓을 것을 미리 예견하고 “곧 우리 재산을 노리는 자들이 찾아올 것이네. 아버지나 내가 죄를 뒤집어쓰게 되면 이 집안 자네들에게도 해가 미칠 것이야. 노잣돈을 넉넉히 나눠줄꺼야. 전국 각지에 당분간 거처할 곳을 마</p>

2) ① 주체성 : 여성을 주체로서 다루고 있는가? 여성의 시각에서 문제를 보고 있는가?

② 현실반영성 : 성불평등적인 젠더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성이 처한 문제와 상황을 잘 파악하여 남녀 불균형적인 현실을 적절히 묘사하고 있고, 성평등을 위한 문제 해결방식이 과장되거나 희화화되지 않는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또한 이 문제가 많은 여성의 상황을 대변하는가?

③ 다양성 :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다양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가?

④ 대안성 : 대안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p>련해 놓았으니 내일 모두 떠나게... 부디 모두 무사하기를."이라며 집안 모든 가솔을 모아 놓고 거처할 곳과 노잣돈을 마련해주며 안전한 곳으로 떠나 있을 것을 지시함. 아버지를 잃고 슬픈 상황에서도 곁을 지키는 왕린(홍중현)에게 기대기보다 직접 나서서 가솔들을 지휘하는 모습에서 이 드라마가 시대극임에도 주체적인 여성상을 보여줌.</p> 
SBS	달콤한 원수	9월 1일 (60회)	 <p>최고식품 회사의 회장인 차복남(장정희)은 여성으로써 남성과 다른 최고의 식품이라는 회사를 경영하며 직원들에게 공정한 기회와 선입견 없는 일처리로 당당한 여성 경영자의 모습을 보여줌</p>
tvN	명불허전	9월 2일 (7회)	 <p>(병원으로 찾아온 경찰에게) 주인공 최연경(김아중)이 조폭들의 겁박에도 전혀 굴하지 않고 "오히려 대퇴부를 찔린 이쪽 가족분이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정확하게 대</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퇴동맥이 예리하게 잘렸습니다."라며 조폭과 경찰 앞에서 환자의 상황을 의학적으로 당당하고 용기 있게 설명하여 환자가 누명을 벗고 경찰이 진실(가해자는 조폭, 피해자인 환자는 방어를 한 것이라는)을 밝혀낼 수 있는 증언을 말하는 장면이 돋보임. 드라마 전반에 걸쳐 주인공 최연경이 흉부외과 의사로서 수술을 집도하고 동료 의사들을 압도하는 실력으로 당당하게 활약하는 장면을 보여줌.

(2) 현실반영성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JTBC	청춘시대2	9월 1일 (3회)	송지원(박은빈)이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애 낳고 살다가도 이혼하는데 연애하면 다 결혼이냐?”라고 말함. 연애와 결혼은 별개일 수 있다는 현실의 연애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음. 또한 송지원이 친구인 임성민(손승원)과 얘기하면서 “남자는 동정을 떼어버리라고 그러는데 여자는 왜 안돼?”라고 말하고 송지원 자신이 모태솔로이지만 스킨십은 잘 할 수 있다고 연습을 하자며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시도하는 장면은 과거 여성에게 강요되는 정조관념 강화주의와 다른 여성상을 보여줌.
		9월 2일 (4회)	유은재(지우)가 개강파티 때 헤어진 남자친구를 마주칠 걱정을 하자 송지원(박은빈)이 “왜 CC 하다가 깨지면 여자만 피해다녀야 해?”라고 말하며 연애 후 헤어짐을 온전히 여성만 감당해야 할 것으로 여기지 않음.

(3) 다양성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KBS2	이름없는 여자	9월 1일 (92회)	 <p>윤기동(선동혁)이 자연스럽게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모습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있음.</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SBS	조작	9월 4일 (25회)	 <p>범인을 추적하는 장면에서 여성이 경운기를 운전하고 남성이 타고 있는 모습에서 역할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음.</p>
SBS	다시 만난 세계	9월 6일 (15회)	 <p>도여사(윤미라)는 70대의 나이임에도 농장일도 열심히 하고 갤러리도 차별화된 운영을 하며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보여줌.</p>

2. 성차별적 내용

(1)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KBS1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9월 1일 (70회)	 <p>긴 치마에 앞치마를 두르고 올림머리를 한 무궁화의 엄마, 짧은 파마머리에 긴 치마를 입은 차태진의 계모, 역시 긴 치마를 입은 차태진의 할머니 등의 모습은 전통적인 여성(어머니)의 이미지를 재현하고 있음. 중년여성의</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p>옷차림을 정숙하게 보이도록 하는 획일적인 연출은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함.</p> 
KBS2	꽃피어라 달순아	9월 6일 (18회)	 <p>가족 모임에 술을 많이 먹고 취해 들어온 부인을 향해 한강피혁 사장은 “어디서 여자가 술 먹고 들어와서 고성방가야”라고 말함. 여성만이 술을 먹고 고성방가를 하면 안 된다는 대사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시킬 수 있음</p>
KBS2	황금빛 내 인생	9월 2일 (1회)	 <p>분리수거하던 서태수(천호진)와 동료의 대화 속에서 “사자가 늙어서 가족들 지킬 힘이 없고 식량만 축내면 쫓겨난다. 모든 아버지, 남자 인생 모두가 사자이므로 식구들 건사하지 못하면 쫓겨나지. 식구들 밥도 못 챙기면 죽어야지.”라고 한 것은 남성에게 생계부양자로서의 역할을 부과시키는 것으로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함.</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KBS2	학교 2017	9월 4일 (15회)	<p>현태운(김정현)이 라은호(김세정)에게 전화해 잠이 안 오니까 잠들면 전화 끊으라고 하자 라은호가 “그런 거는 여자가 하는 거야. 나 잠들 때까지 잠들지 마. 나 잠들 때까지 노래 불러줘.”라고 말함. 성역할 고정관념이 내포된 대사임.</p>
KBS2	이름없는 여자	9월 1일 (92회)	 <p>손여리(오지은)가 시아버지의 제사를 준비하는데 손여리 스스로 “며느리로서 당연히 음식준비를 거들어야 한다”고 얘기함. 이와 같은 대사는 여성이 시댁의 제사에 힘쓸 것을 우회적으로 강조함.</p>
MBC	훈장오순남	9월 1일 (94회)	 <p>시어머니(금보라)가 며느리(황세희) 회사 사무실까지 찾아와 다른 직원들 보는 앞에서 “이럴 줄 알았어, 너 내 전화 무조건 씹고 보지?”라고 말하며 뒤이어 “망신당하기 싫으면 조용히 따라 나와, 어서”라고 말하며 나감. 그 이</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p>후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과거 문제를 따지며 두 사람의 막말하는 모습과 몸싸움 장면이 이어짐. 해당 회차 내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계속되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막말싸움을 지나치게 연출함으로써 고부갈등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시키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의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음.</p>
MBC	별별 며느리	9월 5일 (63회)	 <p>여성이 남자를 만나기로 했다가 바람맞고는 커피숍에서 전화를 거는 남자를 보더니 갑자기 “낯선 남자에게 그의 향기가 나, 어머 그이다. 그이야, 놓칠 수 없어 이번에도 놓치면 끝이야” 라며 남자를 쫓아가다가 놓치고는 망가진 모습으로 다니는 모습을 연출하며 오직 남성에게만 집착하며 의존하는 여성을 그리며 여성비하적인 모습을 연출함.</p>
MBC	훈장오순남	9월 5일 (96회)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p>용선주(김혜선) 회장을 찾아온 시어머니 모화란(금보라)이 아들과 이미 이혼한 며느리 오순남(박시은)에게 “애 너 뭐하니? 얼른 그거 갖다놓고 마실 거라도 좀 내오지 않고?”, “애, 우리끼리 얘기가 있으니까 넌 좀 빠져!” 라고 지속적으로 명령하고 지시하며 며느리를 무시함. 과도하게 명령하는 시어머니, 따르는 며느리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며, 여성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있음.</p>
MBC	병원선	9월 6일 (7회)	 <p>곽현의 동생이 엄마를 향해 “미치지 않고서야 이 판국에 연애할 생각이 나우? 그 나이에 여자놀이가 하고 싶냐고!”라고 말함. 여성은 젊은 나이일 때만 연애를 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이 내포되어 있음. 또한 중년 여성이 자신을 꾸미고 개성을 드러내는 것에 ‘여자놀이’라고 지칭하며 비난하는 것은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내용임.</p>
MBC	병원선	9월 6일 (7회)	 <p>송은재(하지원)를 두고 친척이 “기집애가 어딜 새벽까지 돌아다녀? 그것도 남자하고?” 라고 말함. 여성은 늦은 시간까지 돌아다니면 안 되며 남성과 같이 있는 것이 터부시되는 정조 관념이 반영되어 있는 대사로 성별 고정관념을 조장함.</p>
MBC	밥상 차리는 남자	9월 2일 (1회)	<p>요리를 준비하다 더위에 에어컨을 켜 흥영혜(김미숙)를 보며 “나 친바람 싫어하는 거 알잖아”라며 이신모(김갑수)는 에어컨을 꺼버림. 흥영혜가 “갱년기라 시도 때도 없이 속</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p>에서 불이 나서”라고 말하자 “혼자만 갱년기야. 다 정신줄 놔서 그런 거야. 나는 사우디아라비아 50도에서 사타구니에 곰팡이가 피어도 언제 힘들다고 했어. 정신줄만 차리면 그깟 날씨가 무슨 상관이야”라며 자신이 살아 온 삶의 방식을 강요하며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어려움은 무시하고 여성을 과소평가하는 가부장적인 모습을 보여줌.</p> 
MBC	밥상 차리는 남자	9월 3일 (2회)	 <p>결혼기념일이라 식사를 하러 온 홍영혜(김미숙)와 이신모(김갑수). 음식 가격을 본 이신모는 “완전히 바가지 씌우려고 작정했구만.” 그러자 홍영혜가 “여기 셰프가 유명해서요”라고 하자 “유명하면 손에 금테 돌렸대. 하여간 대한민국 여편네들. 큰일이야. 남편은 밖에서 7000원 짜리 밥 사먹으면서 하루 종일 일하는데. 집에서 평평 놀구 먹으면서 이런데서 칼질이나 하구. 진짜 말세다. 말세야. 양고기 볶음밥이나 줘요.”하며 핀잔을 줌. 가사노동을 폄하하고 전업주부를 과소평가함.</p>
SBS	다시 만난 세계	9월 6일 (15회)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전문 셰프는 남성이 맡고 있는 반면 여성은 서빙을 담당함. 전문 직종은 남성이 담당하며 여성은 이를 보조하는 역할이라는 식의 고정관념을 조장함.

(2) 출산의 도구로써의 여성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KBS2	황금빛 내 인생	9월 2일 (1회)	서지안(신혜선)이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친구로부터 청첩장을 받게 됨. 다른 친구가 결혼하게 될 친구를 부러워하자 “나도 임신공격으로 겨우 취직하는 것(취업+시집)”이라고 말함. 이는 임신을 이용해 능력있는 남성과의 결혼을 성사시키고자 하는 여성을 보여주며, 임신을 도구로 삼고, 임신이 여성에게 절대적인 것으로 그림.

(3) 여성의 주체성 무시/남성 의존성향 강조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KBS1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9월 5일 (72회)	 <p>무순경(임수향)과 차팀장(도지한)이 경찰관을 사칭한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무순경은 범인이 팔을 한번 뿌리치자 힘없이 내동댕이쳐져서 부상을 입고 검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 반면 차팀장은 혼자 범인을 제압하여 체포하는 장면은 신체적으로 강인한 여성 경찰을 나약한 것으로 묘사하여 남성 의존성향을 강조함.</p>
KBS2	황금빛 내 인생	9월 2일 (1회)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최도경(박시후)이 먼저 자리에서 나오자 한 여성이 뒤따라 나오며 최도경과 더 시간을 보내기 위해 “저도 가야 되는데 집까지 태워 달라. 무서워서 택시는 못타고 차가 정기점검 들어가 있다.”라는 핑계를 댈. 이러한 대사를 통해 여성의 남성의존성향을 강조함.
MBC	별별 며느리	9월 4일 (61회)	 <p>최한주(강경준)는 황은별(함은정)의 친정에서 “내가 보호자입니다. 은별씨 보호자는 접니다. 함부로 하면 안 참습니다.”라고 말함. “안 참으면 어쩔 건데?”라는 동서의 말에 “처갓집이랑 인연 끊겠습니다.” 등 황은별의 의사는 묻지 않고 혼자서 결단을 내림. 여성의 주체성을 무시하고 남성 의존성향을 부각시킴.</p>
		9월 5일 (62회)	 <p>술자리에서 오빠(박민호)가 동생(박지호)을 자신이 마음에 드는 변호사에게 소개시켜주는 장면으로 “내가 사랑하는 하나뿐인 내 동생인데 최변한테는 허락할 수 있어. 우리 가족 전부 다 허락할 수 있어”라고 말함. 동생이 자신의 소유물인 마냥 말한 대사에서 가부장적인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여성의 주체성을 무시함.</p>
tvN	명불허전	9월 2일 (7회)	조폭들이 그들과 싸우다 누명을 쓴 환자의 편을 들어주었던 의사 최연경(김아중)을 찾아와 시비를 거는 상황임. 조폭들이 “우리 형님은 깜빡 가게 생겼는데 의사 선생님은 아름답게 연애놀이 중이시네”라고 하자 최연경은 “무슨 일이시죠? 환자한테 뭐 문제 생겼어요?”라고 말함. 옆에 있던 허임(김남길)이 “환자 보호자들 이십니까? 우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p>리 연경샘이 잘 돌봐주고 있으니 걱정들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자 조폭이 “우리가 저 여선생 버르장머리 좀 고쳐줄라 그래요.” 이어 허임은 “연경샘 버르장머리를 왜 당신들이 고칩니까요? 고쳐도 내가 고칠 건데.”라며 여성의 버릇을 고치는 것은 (조폭이든 허임이든) 남성 주체이며 이는 여성을 타자화하는 것임.</p> 

(4)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MBC	왕은 사랑한다	9월 5일 (32회)	 <p>왕원(임시완)이 걱정되어 함께 떠나기를 주저하는 은산(임윤아)의 마음을 알면서 왕원이 지켜보는 곳에서 왕린(홍종현)이 은산에게 기습키스를 하는 장면임. 여성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적 접촉을 시도하는 것은 성폭력임. 이러한 연출은 남성의 기습적인 스킨십을 여성들이 좋아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조장함.</p>
MBC	밥상 차리는 남자	9월 3일 (2회)	<p>졸혼을 선언한 홍영혜(김미숙)에게 이신모(김갑수)는 “당신 각방 쓰는 거 땀에 그래. 우리 나이에 정상적인 거야.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라며”라고 홍영혜에게 노력을 강요함. 뒤이어 홍영혜의 회상신이 등장함. 홍영혜가 향수를 뿌리고 고운 모습으로 이신모에게 다가가며 “여보. 나 오늘 여기서 같이 자려구요.”라고 말함. 그러자 이신모는</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p>“당신 방은 어찌구. 내일 새벽 골프 가야해. 여자가 늙으면 뺨살과 얼굴만 두꺼워 진다더니. 당신이 작부야? 천 박하게시리”라며 핀잔을 주며 성희롱적인 표현이 이뤄짐.</p> 
MBC	도둑놈 도둑님	9월 2일 (33회)	  <p>윤화영(임주은)은 이윤호(하재석)에게 관심이 없다고 분명히 말을 하지만 이윤호는 윤화영에게 관심이 있다고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결혼하자며 구애함. 상대방이 싫다는 의사를 지속해서 밝힘에도 불구하고 따라다니며 결혼을 강요하고 있음.</p>

(5) 외모지상주의 조장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tvN	아르곤	9월 5일 (2회)	 <p>신철 PD(박원상)가 김백진 앵커(김주혁)에게 생방송 도중에 이연화 기자(천우희)를 갑자기 인터뷰한 이유를 묻자 김백진 앵커가 이연화 기자를 두고 “누구? 이쁘장하게 생긴 애?”라고 하며 외모를 부각시켜 상대방을 표현함.</p>
tvN	아르곤	9월 5일 (2회)	 <p>육혜리 작가(박희본)가 신철 PD(박원상)에게 회사에서 팀을 감축한다는 소식이 사실이나며 대화를 나누는데 “큰 형님 시간 있으세요?”, “못생긴 여자한테는 없는데?”, “나도 덜 생긴 늙은 남자에겐 없거든요.” 등 외모를 비하하는 대사가 나옴.</p>

(6) 여성의 성적대상화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KBS2	최강 배달꾼	9월 1일 (9회)	<p>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게 된 최연지(남지현)가 거절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몸을 만지는 남성을 때리고 그 자리에서 나감. 이에 대해 업주는 연지의 급여에서 그 남성의 치료비를 제하겠다고 하며 “만진다고 닳아서 없어지냐?”, “넌 양심도 없냐? 돈이 그렇게 쉽게 벌려? 돈벌러 왔으면 돈만벌어! 자존심까지 챙기려고 하지 말고!”라고 말하며 성매매를 강요함. 여성의 몸을 ‘돈벌이’로 인식하도록 하고, 노래방 도우미와 같은 일을 하는 여성이라면 거절의사를 밝혀서는 안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음.</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OCN	구해줘	9월 3일 (10화)	 <p>사이비 종교의 교단집사인 강은실(박지영)과 영부 백정기(조성하)는 계속해서 20살의 어린 여성을 66세의 영부의 부인으로 삼으려고 함. 여성의 몸을 매개로 해 결혼을 강요하고 계속해서 겁박하고 감금함으로써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함.</p>

(7) 선정성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JTBC	청춘시대 2	9월 2일 (4화)	벨에포크의 집주인 손자인 서장훈(김민석)이 층을 잘못 찾아서 여자들의 숙소에서 샤워를 하는 사이에 조은(최아라)이 집에 들어와서 서장훈의 알몸을 보게 되고 서로가 당황하는 장면에서 서장훈의 알몸 노출신이 오랜 시간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p>화면에 비춰졌음. 알몸 노출이라는 과도한 설정으로 인해 선정적임.</p> 

(8) 기타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MBC	도둑놈 도둑님	9월 2일 (33회)	 <p>강소주(서주현)을 두고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서 무엇을 배웠겠느냐며 한부모 가정에 대해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조장함.</p>
JTBC	청춘시대 2	9월 1일 (3회)	<p>송지원(박은빈)이 나이트클럽에서 친구들과 얘기하는 도중 친구들이 송지원을 보고 “너 아직도 ‘모솔(모태솔로)’이야?”라고 빈정대며 묻자 송지원은 “응, 난 취직하는 것보다 딱지 떼는 게 더 시급해”라며 너스레를 떨. 그러자 한 남자선배가 “취직보다 더 급한 게 남자랑 자는 거라는 말, 진짜면 나갈래?”라고 말함. 이 말에 송지원은 선배를 따라 나섰고 결국 송지원이 기절하며 상황은 종결됨. 술에 취한 상황과 더불어 피임에 대한 고민 없이 성관계를 제안하는 것은 잘못된 성문화를 조장할 수 있음.</p>

예능·오락 모니터링 보고서(3월)

I. 들어가며

서울YWCA 양성평등 미디어 모니터회에서는 예능·오락 프로그램 속 성평등적, 성차별적 사례를 찾아내어 분석하기 위해 2017년 3월 6일부터 12일까지 지상파 3사(KBS1, KBS2, MBC, SBS), 종합편성채널(JTBC, 채널A, MBN, TV조선)과 케이블(tvN, MBC every1)의 33개 예능·오락 프로그램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모니터링 대상은 각 방송사별 시청률 상위 프로그램을 3개씩 선정하였고, 타 방송사에 비해 예능·오락프로그램 개수가 많은 지상파의 경우 4개씩 선정하였다. 이번 모니터링은 '16년 3월 양성평등 모니터링 도구 표준화 지문결과에 따라 표준화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은 다음과 같다.

II. 모니터링 개요

- 모니터 장르 : 예능·오락
- 모니터링 기간 : 2017년 3월 6일~12일(7일간)
- 모니터링 매체 : TV(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케이블)
- 대상 방송사 : KBS1, KBS2, MBC, SBS, JTBC, 채널A, MBN, TV조선, tvN, MBC every1
- 프로그램 수 : 33개 프로그램
- 모니터인원 : 11명

[표1] 모니터링 프로그램 목록

no.	프로그램명	방송사	요일/시간
1	전국노래자랑	KBS1	일 12:10
2	가요무대		월 22:00
3	열린음악회		일 18:00
4	해피선데이-1박2일 시즌3	KBS2	일 16:50
5	해피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다		일 16:50
6	불후의 명곡		토 18:05
7	개그콘서트		일 21:15
8	무한도전	MBC	토 18:25
9	일밤-복면가왕		일 16:50
10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수 23:10
11	신비한TV 서프라이즈		일 10:35
12	K팝스타6	SBS	일 21:15
13	불타는 청춘		화 23:10
14	자기야-백년손님		목 23:10

no.	프로그램명	방송사	요일/시간
15	백종원의 3대 천왕	SBS	토 18:10
16	한끼줍쇼	JTBC	수 22:50
17	멍쳐야 뜬다		화 22:50
18	아는 형님		토 20:50
19	풍문으로 들었쇼	채널A	월 23:00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일 23:00
21	외부자들		화 23:00
22	고수의 비법 황금알	MBN	월 23:00
23	아궁이		금 23:00
24	속풀이쇼 동치미		토 23:00
25	강적들	TV조선	수 23:00
26	애정통일 남남북녀 시즌2		금 23:00
27	모란봉클럽		토 23:00
28	신혼일기	tvN	금 21:20
29	신서유기3		일 21:20
30	코미디빅리그		일 19:40
31	로맨스의 일주일 4	MBC every1	목 18:00
32	비디오스타		화 20:30
33	주간 아이돌		수 18:00

Ⅲ. 결과분석

1. 양적분석

예능·오락프로그램의 주요 양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출연자 성비

출연자의 성비는 여성이 38.5%, 남성이 61.5%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참조)

[표2] 출연자 성비

no.	프로그램명	여성(명)	남성(명)
1	전국노래자랑	13	20
2	가요무대	12	6
3	열린음악회	7	2

no.	프로그램명	여성(명)	남성(명)
4	해피선데이-1박2일 시즌3	2	11
5	해피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다	9	10
6	불후의 명곡	3	9
7	개그콘서트	15	40
8	무한도전	-	6
9	일밤-복면가왕	3	11
10	황금어장 라디오스타	-	8
11	신비한TV 서프라이즈	12	20
12	K팝스타6	7	6
13	불타는 청춘	4	6
14	자기야-백년손님	7	6
15	백종원의 3대 천왕	5	4
16	한끼줍쇼	-	4
17	몽쳐야 뜬다	-	4
18	아는 형님	1	7
19	풍문으로 들었쇼	6	6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	13	11
21	외부자들	1	6
22	고수의 비법 황금알	5	11
23	아궁이	1	9
24	속풀이쇼 동치미	8	7
25	강적들	1	7
26	애정통일 남남북녀 시즌2	2	2
27	모란봉클럽	9	8
28	신혼일기	1	1
29	신서유기3	-	6
30	코미디빅리그	16	31
31	로맨스의 일주일 4	3	-
32	비디오스타	8	-
33	주간 아이돌	6	2
합 계		180(38.5%)	287(61.5%)

(2) 출연자 성별 연령대

출연자 연령대는 30대가 37.9%로 가장 높았고, 40대가 25.7%로 그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10대는 여성이 더 많았고, 20대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3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급격히 많아지며 성비의 불균형이 나타났다. (표3 참조)

[표3] 출연자 성별 연령대

(단위 : 명)

	10대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합계
전체인원	26 (5.6%)	75 (16.1%)	177 (37.9%)	120 (25.7%)	46 (9.9%)	15 (3.2%)	8 (1.7%)	467 (65.4%)
여성	17 (65.4%)	37 (49.3%)	68 (38.4%)	38 (31.7%)	9 (19.6%)	9 (60.0%)	2 (25.0%)	180 (38.5%)
남성	9 (34.6%)	38 (50.7%)	109 (61.6%)	82 (68.3%)	37 (80.4%)	6 (40.0%)	6 (75.0%)	287 (61.5%)

(3) 성별 역할

주진행자의 경우 남성이 32명, 여성이 15명으로 주로 남성이 예능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보조진행자, 출연자/초대손님 모두 남성이 60%에 가깝거나 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4 참조)

[표4] 성별 역할

(단위 : 명)

	주진행자	보조진행자	출연자/초대손님	합계
전체인원	47	44	376	467
여성	15(31.9%)	9(20.5%)	156(41.5%)	180(38.5%)
남성	32(68.1%)	35(79.5%)	220(58.5%)	287(61.5%)

(4) 성별 직업군

직업군을 분석한 결과 22개의 직업군에 분포되어 있었다. 전문 개그맨/코미디언의 비중이 144명(30.8%)으로 가장 높았고, 가수가 86명(18.4%), 배우가 64명(13.7%)로 전문 방송인이 출연하는 비중이 높았다. (표5 참조)

[표5] 출연자의 직업군

(단위 : 명)

직업번호	1	2	3	5	6	7	8	9	10	11	12	14	15	16	18	19	20	21	22	23	99	계
여성	46	30	37	8	0	2	0	2	1	2	0	1	6	5	0	11	0	0	3	19	7	180
남성	98	34	49	23	3	8	2	4	1	3	5	0	30	0	3	1	1	2	5	11	4	287
계	144	64	86	31	3	10	2	6	2	5	5	1	36	5	3	12	1	2	8	30	11	467

※직업분류번호

- ① 개그맨/코미디언 ② 배우 ③ 가수 ④ 모델 ⑤ 방송인/전문진행자 ⑥ 변호사 ⑦ 의사 ⑧ 비평가/평론가 ⑨ 언론인(기자 등) ⑩ 요리사/요리연구가 ⑪ 작가 ⑫ 상담사 ⑬ 교수 ⑭ 교육 전문가(교사 등) ⑮ 그 외 특정 분야 전문가 ⑯ 학생 ⑰ 일반시청자 ⑱ 회사원 ⑲ 주부 ⑳ 자영업자 ㉑ 운동선수 ㉒ 무직 ㉓ 모름 99 기타_____

(5)성평등/성차별적 내용

내용분석 결과, 성평등적 내용은 5건, 성차별적 내용은 19건으로 나타났다. 성평등적 내용에서는 기존의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한 다양성을 표현한 내용이 2건(40%)으로 가장 많았다. 성차별적 내용은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내용(5건, 26.3%), 여성의 주체

성을 무시하고 남성 의존성향을 강조하는 내용(5건, 26.3%)과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는 내용(5건, 26.3%)이 많았다. (표6 참조)

[표6] 성평등/성차별적 내용 수 (단위 : 건)

구분		건수	구분		건수
성평등적 내용	주체성	1 (20%)	성차별적 내용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5 (26.3%)
	현실반영성	1 (20%)		여성의 주체성 무시/ 남성 의존성향 강조	5 (26.3%)
	다양성	2 (40%)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1 (5.3%)
	대안성	1 (20%)		외모지상주의 조장	5 (26.3%)
합 계		5 (100%)	합 계		19 (100%)

(6) 방송사별 성평등·성차별 건수

방송사별로 성평등·성차별 건수를 분석한 결과, 채널A의 프로그램에 성평등적 내용이 가장 많이 발견되었으나(2건, 40%), 타 방송사와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채널A는 MBC every1과 같이 성차별적 내용도 가장 많이 발견(4건, 21.1%) 되었고, JTBC(3건, 15.7%)가 그 뒤를 이었다. 지상파 방송사의 프로그램에 비해 종편·케이블 방송의 성평등·성차별적 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7 참조)

[표7] 방송사별 성평등/성차별적 내용 수 (단위 : 건)

구분	KBS1	KBS2	MBC	SBS	JTBC	채널A	MBN	TV조선	tvN	MBC every1	합계
성평등	-	-	-	-	1 (20%)	2 (40%)	-	1 (20%)	1 (20%)	-	5 (100%)
성차별	-	2 (10.5%)	1 (5.3%)	-	3 (15.7%)	4 (21.1%)	1 (5.3%)	2 (10.5%)	2 (10.5%)	4 (21.1%)	19 (100%)

2. 질적분석

예능·오락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평등적 내용

(1) 주체성

<이제 만나러 갑니다>(채널A, 3월 12일)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에, 북한 기자 출신의 여성과 북한 출신 전문가, 남한 출신 전문가 등 남녀 출연자를 여성 1명, 남성2

명으로 비교적 고르게 초빙하여 시청자들이 다양한 관점으로 의견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채널A, 3월 12일)

(2) 현실반영성



〈풍문으로 들었쇼〉(채널A, 3월 6일)

〈풍문으로 들었쇼〉(채널A, 3월 6일)에서는 미스코리아 대회 출신의 연예인을 주제로 이야기 하는 코너에서, 칼럼니스트 박정은이 미스코리아 대회에서의 수영복 심사는 성상품화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여성의 신체에 대해 지나치게 적나라한 평가를 하면 또 다른 위험한 메시지가 생산될 수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며, 미스코리아 대회의 성차별적 요소를 적절히 설명하였다.

(3) 다양성



〈애정통일 남남북녀 시즌2〉(TV조선, 3월 10일)

〈애정통일 남남북녀 시즌2〉(TV조선, 3월 10일)에서는 가상부부인 김진·임지현 부부가 또다른 가상부부인 양준혁·김은아 부부를 집으로 초대하여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연출되었다. 손님을 초대해서 여성만 음식준비를 하지 않고, 부부가 함께 만들어 즐겁게 같이 나누어 먹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양성평등한 모습을 제시하였다.

(4) 대안성

〈신혼일기〉(tvN, 3월 10일)에서는 신혼부부인 구혜선과 안재현의 가사분담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다. 아내 구혜선은 “제가 계속 일을 해서 집안일을 다 남편이 하고 있어요. 제가 집안일 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하였고, 남편 안재현은 “지금은 제가 가사 일을 열심히



〈신혼일기〉(tvN, 3월 10일)

히 하고 있어요” 라는 내용으로 인터뷰 하였다. 이를 통해 가사는 특정 성의 역할이 아니라 가족구성원이 함께하는 것이라는 점을 잘 보여주었다.

2) 성차별적 내용

(1)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몽쳐야 뜬다〉(JTBC, 3월 7일)

중에 바깥양반 옷 정리' '날로 머리광만 늘어가는 바깥양반' '정성껏 VIP급 서비스로 모십니다' 는 등의 자막을 내보냈다. 두 남성의 행동을 '바깥사람'과 '안사람'으로 표현해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였다.

〈몽쳐야 뜬다〉(JTBC, 3월 7일)에서는 감기에 걸려 침대에 편안히 앉아 이것저것 시키는 '바깥 사람' 김용만과 그를 챙기며 부지런히 움직이는 '안사람' 안정환을 대비하여 연출하였다. 김용만은 “용만이 손 없때. 니가 가방을 풀어줘야 씻지” 등의 멘트를 하고, 안정환은 “얼른 약 드세요” “씻으세요” 등 챙기는 멘트를 대비적으로 하였다. 또한, '바깥 양반 신을 슬리퍼를 챙겨주는 안사람' '이 와

(2) 여성의 주체성 무시/ 남성 의존성향 강조

〈복면가왕〉(MBC, 3월 12일)에서는 MC 1명과 연예인 판정단 12명 중 여성은 단 3명에 불과했고, 남성 판정단은 싱어송라이터(유영석, 김현철, 유승우), 성악가(김동규), 기타리스트(조정치) 등으로 구성됐지만 여성 판정단은 개그맨(신봉선), 배우(김정민), 아이돌 가수(정채연)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여성 판정단은 전문성 보다는 감성적인 평에 집중되는 모습이였다. 이러한 출연자 구성과 연출은 양성을 균형있게 표현하지 못하였다.



〈로맨스의 일주일 4〉(MBC every1, 3월 9일)

〈로맨스의 일주일 4〉(MBC every1, 3월 9일)에서는 남성 출연자가 여성 출연자의 구두를 들어주고, 추울까봐 옷을 걸쳐주고, 본인의 신발로 여성 출연자의 방석을 만들어 주며, 바이크 탑승 시에는 여성에게 헬멧을 씌워주는 모습을 연출하였다. 이와 같은 행동들을 남성들의 '매너'라고 표현하였다.

또한 외국인 남성출연자가 “여성 출연자들이 카메라 앞에서 거짓을 연기하는 것 같다” 며 문제를 제기하자 여성 출연자들은 당황해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 반면, 다른 남성 출연자들은 능숙하게 동시통역을 하며 상황을 해결하는

주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모습들에서 여성은 예쁘지만 똑똑하지 않고, 남성에게 의존적이며 나약하고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3)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해피선데이-1박 2일〉(KBS2, 3월 12일)에서는 채석강에서 치명적인 컨셉으로 앨범재킷 사진을 찍는 장면이 연출되었다. 남성 팀원들이 포즈를 취하고, 그들의 다리 사이로 바닥에 드러누운 박나래는 다양한 표정 변화를 보여주었다. 카메라는 그녀를 바라보는 남성 출연자들의 모습들을 각각 클로즈업하였으며, 화면에는 이러한 박나래의 모습이 ‘치명적’이라는 멘트와 ‘퇴폐미 & 관능미의 치명적 부조화’라는 등의 자막이 노출되었다. 여성 출연자가 본인의 표정과 자세를 선정적으로 취하고, 남성들은 이를 즐기고 관찰하는 성희롱적인 모습을 연출하며 웃음을 유발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피선데이-1박 2일〉(KBS2, 3월 12일)

(4) 외모지상주의 조장

〈아는형님〉(JTBC, 3월 11일)에서는 배우 김희선이 게스트로 등장하자마자 ‘여신 김희선 강림’, ‘인형이 말도 한다!’는 등의 자막과 함께 남자 MC들이 ‘미녀 전학생에 혼비백산’, ‘자석에 이끌리듯 우르르’, ‘여신님 처음 뵙겠습니다’, ‘성격도 화끈한 모태 여신’, ‘교실에 장미꽃 핀 줄 알았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모든 출연자를 비롯한 전반적 방송 진행이 게스트 김희선의 ‘외모’에만 초점을 맞추어 전개되고 있었는데, 이는 출연자의 외모를 지나치게 미화하여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는 것이므로 문제가 있었다.



〈아는형님〉(JTBC, 3월 11일)

〈개그콘서트〉(KBS2, 3월 12일)의 [사랑이 LARGE]코너에서는 남성(유민상)이 여성(김민경)에게 “동물원 가지는 것은 사람이 던져주는 과자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생닭 가지고 사자와 왜 싸



〈개그콘서트〉(KBS2, 3월 12일)

웠어”, “물개쇼 하는데 왜 박수쳤냐”, “음식 나오니 물개 박수를 치며 좋아한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뚱뚱한 사람은 먹는 것 앞에서 무조건 좋아하는 것처럼 표현하며, 여성의 외모를 계속해서 조롱하였다.

(5) 여성의 성적대상화



〈주간아이돌〉(MBC every1, 3월 8일)

〈주간아이돌〉(MBC every1, 3월 8일)에서는 남성 진행자들(정형돈, 데프콘)이 “지난 10주간 남자 아이돌 출연으로 시청률이 좋지 않았지만 걸그룹 출연으로 시청률 반등을 꿈꾼다”며 여성출연자들을 소개하였다. 정형돈은 “국방부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금주의 아이돌로 걸그룹 여자친구를 선정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남자 시청자들 만족 하십니까’, ‘전국 내무반 들썩들썩’ 등의 자막을 노출하며,

여자 아이돌 그룹을 남성들의 사기진작과 호기심을 채워주는 도구로 사용하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정형돈은 여자친구 멤버 신비에게 ‘시간을 달려서’ 섹시 버전 춤을 유도한 뒤, “옷 벗으면 섹시한 줄 알아” 라며 야유하였으며 ‘성인 3개월 차의 최대 섹시미’라는 자막 하에 여성에게 계속 섹시미를 강요하였다. 청소년에서 이제 갓 20대가 된 여성들의 미성숙한 외모와 춤사위에 대해 남성 진행자들이 “말만 섹시하면 다가 아니다”라며 핀잔을 주고, 성숙한 여인의 섹시미를 과도하게 요구하였다. 이에 여자친구 멤버들도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춤사위를 보여주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여성이 남성에게 소비 대상이 되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였다.

‘안무천재 선발대전’ 코너에서 여자친구 멤버 예린이 레드벨벳 음악에 따라 막춤을 추었는데 남성 진행자들이 예린이 마네킹을 닮았다고 언급하였고, 그녀를 ‘홍삼 인형’이라 지칭하며 “이런 인형 어디가면 살 수 있나요?” 라는 자막을 노출하였다. 남성출연자들이 ‘마네킹을 닮았다’ 등의 표현으로 인격이 있는 여성을 사물화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심지어 인형으로 표현한 여성을 ‘살 수 있나’는 표현의 자막을 가감 없이 사용하며 문제점을 드러냈다.

IV. 나가며

모니터링 기간 동안 방송된 33편의 예능·오락프로그램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이 눈에 띄었다. 여성과 남성 출연자의 비율이 여성 38.5%, 남성 61.5%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프로그램 내에서의 역할(남성 주진행자 32명, 여성 주진행

자 15명)도 다르게 나타난다. 프로그램별 출연자 성비에 대한 양상을 살펴본 결과, 활동적인 야외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의 고정 출연진은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여성이 많은 프로그램은 대부분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예능·오락프로그램들의 세부 콘텐츠에 따라 성별로 다른 역할을 부여하는 모습은 우리 사회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프로그램에서 여성의 외모를 조롱하고 비하하며 웃음을 자아내는 모습이나 반대로 여성 출연자를 ‘여신’, ‘인형’으로 표현하며 외모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끌고 가는 모습에서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고 있다. 여성 가수에게 애교를 요구하고 섹시댄스를 추도록 하거나, 군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여성가수를 섭외했다는 진행자의 멘트 등에서는 여성에 대한 심각한 성적 대상화가 보여지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반면 여성들이 남성 의존적인 모습에서 탈피한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모습과, 부부가 육아와 가사를 분담하는 내용이 현실적으로 그려진 긍정적인 사례도 눈에 띄었다. 대중들이 가장 쉽게 접하는 예능오락 프로그램의 영향력이 성차별을 조장하기 보다는 양성평등한 시민 문화를 형성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제작진과 출연자들의 의식 있는 태도와 실천이 요구된다.

V. 모니터링 내용

1. 성평등적 내용³⁾

(1) 주체성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	3월 12일 (273회)	 <p>북한 핵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에, 북한 기자</p>

3) ① 주체성 : 여성을 주체로서 다루고 있는가? 여성의 시각에서 문제를 보고 있는가?

② 현실반영성 : 성불평등적인 젠더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성이 처한 문제와 상황을 잘 파악하여 남녀 불균형적인 현실을 적절히 묘사하고 있고, 성평등을 위한 문제 해결방식이 과장되거나 희화화되지 않는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또한 이 문제가 많은 여성의 상황을 대변하는가?

③ 다양성 :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다양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가?

④ 대안성 : 대안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출신의 여성과 북한 출신 전문가, 남한 출신 전문가 등 남녀 출연자를 여성 1명, 남성2명으로 비교적 고르게 초빙하여 시청자들이 다양한 관점으로 의견들을 비교할 수 있게 하였음.

(2) 현실반영성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	3월 6일 (73회)	 <p>미스코리아 대회 출신의 연예인을 주제로 이야기 하는 중, 칼럼니스트 광정은이 미스코리아 대회의 수영복 심사에 대하여 말하며, 성을 상품화 하는 상징이라고 말함. 여성의 신체에 대해 지나치게 적나라한 평가를 하면 또 다른 위험한 메시지가 생산될 수 있다는 점을 환기시켰음.</p>

(3) 다양성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TV 조선	애정통일 남남북녀 시즌2	3월 10일 (87회)	 <p>김진·임지현 부부가 양준혁·김은아 부부를 집으로 초대하여 함께 하는 모습을 그림. 손님이 올 때 여성 혼자만 음식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만들어 같이 먹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양성평등한 모습을 제시함.</p>
JTBC	뭉쳐야 뜬다	3월 7일 (16회)	김성주가 자녀들과 하루 일과에 대해 나누며 즐겁게 영상통화를 끝낸 뒤 동료에게 “아이들과 여행가는 프로그램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램을 하면서 아이들이랑 많이 가까워지긴 했어. 예전에는 '아이들이 빨리 커라..나 좀 쉬게~' 하는 생각이 머릿 속 가득했는데 지금은 이 예쁜 모습이 마지막 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쫓기기 시작했어" 라고 말함. 육아에 있어서 방관하던 아버지에서 벗어나 자녀의 성장과 마음을 함께 나누며 소통하는 아버지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줌.

(4) 대안성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tvN	신혼일기	3월 10일 (6회)	<p>가사분담률을 물어보는 질문에 안재현은 “지금은 제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구혜선은 “제가 계속 일을 해서 집안일을 다 남편이 하고 있어요. 제가 집안일 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함. 가사는 특정 성의 역할이 아닌 모두가 함께하는 것이라는 점을 보여줌.</p> 

2. 성차별적 내용

(1)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	3월 12일 (273회)	여성진행자가 연예인 패널을 소개할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역할이 미미했고, 특히 전문 분야 등에 대한 역할이 없었음. 방송 31분 후부터는 남성 진행자가 16회 발언을 하는 동안 여성 진행자는 약 4회 정도 발언하였음. 이는 주요 진행은 남성의 몫이라는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음.
MBN	속풀이쇼 동치미	3월 11일 (226회)	남성패널 최홍림이 “식사준비가 다됐다는 아내의 말에 식탁에 가보면 식사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수저준비도 안되어 있다” 고 언급함. 국 뜨고 수저 놓는 등의 밥상 차리는 일을 여성의 일로 규정하는 것은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자 성차별적 사고방식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임.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JTBC	몽쳐야 뜬다	3월 7일 (16회)	 <p>감기에 걸려 침대에 편안히 앉아 이것저것 시키는 ‘바깥 사람’ 김용만과 그를 챙기며 부지런히 움직이는 ‘안사람’ 안정환을 대비하여 연출함. 김용만은 “용만이 손 없더. 니가 가방을 풀어줘야 씻지” 등의 멘트를 하고, 안정환은 “얼른 약 드세요” “씻으세요” 등 챙기는 멘트를 대비적으로 함. 또한, ‘바깥양반 신을 슬리퍼를 챙겨주는 안사람’ ‘이 외중에 바깥양반 옷 정리’ ‘날로 어리광만 늘어가는 바깥양반’ ‘정성껏 VIP급 서비스로 모십니다’ 는 등의 자막을 내보냄. 두 남성을 ‘바깥사람’과 ‘안사람’으로 표현해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함.</p>
TV 조선	애정통일 남남북녀 시즌2	3월 10일 (87회)	<p>김진·임지현 부부가 소품샵에 구경가서 임지현이 총을 가지고 신나게 쏘는 모습을 보이자 김진이 “여자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며 임지현을 저지함. 남성이 여성의 행동을 규제하고, 여성의 모습을 규정하는 모습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함.</p>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	3월 6일 (73회)	<p>하은정 기자는 미스코리아를 많이 배출한 M미용실과 S 미용실 출신 당선자들 간의 암투가 있으며, 왕관 수여식 때 다른 미용실 출신의 상대방 당선자에게 일부러 왕관을 비뚤게 씌워주기도 하였다는 일화를 전달하였음. 그녀는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여자들이란..” 이라는 말을 덧붙여, 일부 여성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비합리적으로 행동한 것을 모든 여성의 특성인 것처럼 표현함.</p>

(2) 여성의 주체성 무시/ 남성 의존성향 강조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MBC	복면가왕	3월 12일 (102회)	MC 1명과 연예인 판정단 12명 중 여성은 단 3명에 불과했고, 남성 판정단은 싱어송라이터(유영석, 김현철, 유승우), 성악가(김동규), 기타리스트(조정치) 등으로 구성됐지만 여성 판정단은 개그맨(신봉선), 배우(김정민), 아이돌 가수(정채연)으로 구성됨. 이로 인해 여성 판정단은 전문성 보다는 감성적인 평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비춰짐. 출연자 구성과 연출이 양성을 균형있게 표현하지 못함
MBC every1	로맨스의 일주일4	3월 9일 (5회)	 <p>지중해 최고의 휴양지 스페인 해변가 산책을 하는 소진과 하이메의 모습을 보여줌. 하이메표 매너시리즈 라며 '세상 무거운 구두 들어주기 (소진 팔 떨어질까...)' 등의 자막과 함께 남성이 여성의 구두(하이힐)를 들어주는 모습, '나쁜 추위놈(?) 막아줄 옷 제공' 등의 자막과 함께 남성이 자신의 자켓을 벗어 여성을 덮어주는 모습, '신발 방석 제공' 등의 자막과 함께 남성이 자신의 구두를 여성의 방석으로 제공하는 모습 등을 보여줌. 또한 다음 날 바이크를 타는 장면에서도 하이메가 소진의 옷을 여며주고 헬멧을 씌워주는 모습 등을 '매너남'으로 표현하였음. 여성을 한 없이 나약하고 보호받는 존재로 그렸으며, 그에 반해 남성은 주도적이고 강한 모습으로 그려져 남성에게 의존적인 여성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음.</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	3월 12일 (273회)	 <p>북한의 정치·문화적인 이야기를 주로 다루는 프로그램으로, 여성 출연자는 13명으로 남성보다 많았으나 그 비중은 작아 보임. 여성들의 발언 내용은 자신의 경험담을 설명하는 수준에 그친 반면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남성들이 이야기를 주도하였고 방송 시간도 대략 2/3정도 배정되었음.</p>
JTBC	뭉쳐야 뜬다	3월 7일 (16회)	 <p>양코르와트 회랑에 새겨진 조각을 설명하는 가이드가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며 지옥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여성이며, 예로부터 캄보디아 사람들은 모든 악의 근원이 여자에게 있다고 믿는 풍습이 있었다고 설명함. 이어서 가이드는 수많은 못에 박혀있는 여성의 모습을 가리키며 “과연 이 여성의 죄목은 뭘까요?”라는 질문을 던지고, 여행객 중 누군가가 “바람뿔구나 바람”이라고 답하자, “수많은 남자 가슴에 못을 박은 죄를 졌다”고 설명함.</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천년의 역사를 가진 유적지의 많은 전설 중 유독 여성을 비하하는 전설을 소개하며 여성의 주체성을 약화시킴.
TV 조선	애정통일 남남북녀 시즌2	3월 10일 (87회)	 <p>출연부부들이 부부간 연령차가 많긴 하지만 남성출연자들은 대부분 여성출연자들에게 '너', '이름', '마누라' 같은 여성을 하대하는 호칭을 사용하고, 여성출연자는 남성출연자에게 존칭을 사용하고 있음. 이러한 장면은 평등한 부부 관계를 상하관계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음.</p>

(3)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KBS2	1박2일	3월 12일 (636회)	 <p>채석강에서 치명적인 컨셉으로 앨범재킷 사진을 찍는다며, 남성들은 포즈를 취하고, 그들의 다리 사이로 바닥에 드러누운 박나래는 다양한 표정 변화를 보여줌. 카메라</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라는 그녀를 바라보는 남성 출연자들의 모습들을 각각 클로즈업 했고, '치명적' 이라는 멘트와 '퇴폐미&관능미의 치명적 부조화' 등의 자막을 노출함. 여성이 표정과 자세를 선정적으로 취하고, 남성들은 이를 즐기고 관찰하도록 하여, 남성들이 여성을 희롱하는 모습을 연출함.

(4) 외모지상주의 조장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KBS2	개그콘서트 [사랑이 LARGE]	3월 12일 (889회)	 <p>남성(유민상)이 여성(김민경)에게 “동물원 가자는 것은 사람이 던져주는 과자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생닭 가지고 사자와 왜 싸웠어”, “물개쇼 하는데 왜 박수쳤냐”, “음식 나오니 물개 박수를 치며 좋아한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똥똥한 사람은 먹는 것 앞에서 무조건 좋아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여성의 외모를 조롱함.</p>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	3월 6일 (73회)	 <p>미스코리아 대회에 대한 뒷얘기 코너에서 배우 김가연은 미를 가꾸기 위해서는 적당한 성형도 가능하며 “미를 가꾸는 건 여자로서 당연히 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여, 외모 지상주의를 조장하였음,</p>
JTBC	아는 형님	3월 11일 (66회)	배우 김희선이 게스트로 등장하자마자 '여신 김희선 강림', '인형이 말도 한다'는 등의 자막과 함께 남자 MC들이 '미녀 전학생에 준비백산', '자석에 이끌리듯 우르르', '여신님 처음 뵙겠습니다', '성격도 화끈한 모태 여신', '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p>교실에 장미꽃 핀 줄 알았다' 등의 표현을 사용함. '미녀', '여신'이라는 수식어를 여러 차례 사용하고 있으며, MC와 출연손님들이 학생으로 등장하는 방송 컨셉상 김희선은 본인의 학교를 '품위 있는 미녀高'라고 소개하는데, 이는 '품위=미녀'로 느끼게끔 하는 표현임. 본 방송에서는 게스트 김희선에 대해 줄곧 '외모'에 초점을 맞추어 대하고 있음. 이는 출연자의 외모를 미화시켜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는 것임.</p> 
tvN	코미디 빅리그 [그린나이트]	3월 12일 (208회)	 <p>남녀가 나이트클럽을 온 상황에서 키가 작고 통통한 여성(박나래)이 남성(이용진)에게 적극적으로 대시하자 남성이 얼굴을 찌푸리며 “뭐하시는 거예요”, “아줌마, 그냥 가시는게 소원이예요”라고 하였으며, 몸매를 보며 “그냥 저녁을 푸짐하게 먹은 것 같아요”라고 하며 여성(박나래)의 외모와 태도를 비하함.</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코미디 빅리그 [오지라퍼]		 <p>남성(이상준)이 여성(이국주)에게 매우 똥똥하다는 의미로 비속어가 섞인 단어(존똥)를 사용하며 외모를 비하함</p>

(5) 여성의 성적대상화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MBC every1	주간 아이돌	3월 8일 (293회)	 <p>진행자 정형돈은 지난 10주간 남자 아이돌 출연으로 시청률이 좋지 않았지만 걸그룹 출연으로 시청률 반등을 꿈꾼다며 여성출연자들을 소개함. '10주간 군대 시청률 제로'라는 자막과 함께 또 다른 진행자 데프콘은 "군에서 연락이 왔다. 저희는 사심이 없다"라고 멘트 하였고 정형돈은 국방부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금주의 아이돌로 여자친구를 선정했다며 소개함. 또한 '남자 시청자들 만족하십니까' '전국 내무반 들썩들썩'등의 자막을 노출하며, 여자 아이돌 그룹을 남성들의 사기진작과 호기심을 채워주는 도구로 사용하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함. 약 50분간 '섹시 컨셉' 이라는 멘트가 무수히 사용되었음.</p> <p>정형돈은 여자친구 멤버 신비에게 '시간을 달려서' 섹시 버전 춤을 유도한 뒤, "옷 벗으면 섹시한 줄 알아"라며 야유함. 또한 '성인 3개월 차의 최대 섹시미'라는 자막 하에 여성에게 계속 섹시미를 강요하였음. 청소년에서 이제 갓 20대가 된 여성들의 미성숙한 외모와 춤사위에 대해 남</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p>성 진행자들이 “말만 섹시하면 다가 아니다”라며 핀잔을 주고, 성숙한 여인의 섹시미를 과도하게 요구함. 여자친구도 남성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계속 춤을 보여주는 등 노력을 기울임. 소비자와 상품, 가부장적 팬과 소녀의 감성이 어우러진 대중문화의 단면을 보여줌.</p>   <p>‘안무천재 선발대전’ 여자친구 멤버 예린이 레드벨벳 음악에 따라 막춤을 추었음. 남성 진행자들이 예린이 마네킹을 닮았다며 ‘좀더 좀더’하며 흥을 돋구었으며, 여성출연자에게는 ‘홍쌌 인형’이라는 자막과 함께 “이런 인형 어디 가면 살 수 있나오?” 라는 자막이 사용됨. 남성 진행자들이 젊은 여성에게 자극적이며 지속적인 춤동작을 강요하였으며, 심지어 ‘마네킹을 닮았다’는 등의 표현으로 인격이 있는 여성을 사물화 하였음. 심지어 인형으로 표현한 여성을 ‘살 수 있나’ 는 표현의 자막이 가감 없이 사용되었음.</p>

예능·오락 모니터링 보고서(7월)

I. 들어가며

서울YWCA 양성평등 미디어 모니터회에서는 예능·오락 프로그램 속 성평등적, 성차별적 사례를 찾아내어 분석하기 위해 2017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지상파 3사(KBS1, KBS2, MBC, SBS), 종합편성채널(JTBC, TV조선, 채널A, MBN)과 케이블(tvN, MBCevery1, E채널)의 33개 예능·오락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모니터링 대상은 각 방송사별 시청률 상위 프로그램을 3-4개씩 선정하였다. 이번 모니터링은 양성평등 모니터링 도구 표준화 제안에 따라 표준화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였다.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은 다음과 같다.

II. 모니터링 개요

- 모니터 장르 : 예능·오락 프로그램
- 모니터링 기간 : 2017년 7월 1일~7월 7일(7일간)
- 모니터링 매체 : TV(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케이블)
- 대상 방송사 : KBS1, KBS2, MBC, SBS, JTBC, TV조선, 채널A, MBN, tvN, MBC every1, E채널
- 프로그램 수 : 33개 프로그램 (표1 참조)
- 모니터인원 : 14명

[표1] 모니터링 프로그램 현황

연번	매체	방송사	프로그램명	요일/시간
1	지상파	KBS1	가요무대	월/22:00
2			전국노래자랑	일/12:10
3		KBS2	개그콘서트	일/21:15
4			불후의 명곡 - 전설을 노래하다	토/18:05
5			슈퍼맨이 돌아왔다	일/16:50
6			1박 2일	일/18:15
7		MBC	나 혼자 산다	금/23:10
8			라디오스타	수/23:10
9			무한도전	토/18:25
10			복면가왕	일/16:50
11	지상파	SBS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	금/22:00
12			판타스틱 듀오	일/18:25
13			런닝맨	일/16:50
14			미운 우리 새끼	일/21:15

연번	매체	방송사	프로그램명	요일/시간
15	종합편성채널	JTBC	한끼줍쇼	수/22:50
16			아는 형님	토/20:50
17			몽처야 뜬다 - 패키지로 세계일주	화/22:50
18			최고의 사랑	화/21:30
19		TV조선	강적들	수/23:00
20			며느리 모시기	금/23:00
21			모란봉 클럽	토/23:00
22		채널A	외부자들	화/23:00
23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일/23:00
24			풍문으로 들었쇼	월/23:00
25		MBN	속풀이쇼 동치미	토/23:00
26			알토란	일/23:00
27			아궁이	금/23:00
28	케이블	tvN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	금/21:50
29			SNL 코리아	토/22:00
30			코미디빅리그	일/19:40
31		MBC every1	주간 아이돌	수/18:00
32			비디오스타	화/20:30
33		E채널	내 딸의 남자들 - 아빠가 보고있다	토/22:50

Ⅲ. 결과분석

1. 양적분석

예능·오락 프로그램의 주요 양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출연자 성비

출연자의 성비는 여성이 38.7%, 남성이 61.3%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진행된 예능·오락프로그램 모니터링에서 여성 38.5%, 남성 61.5%로 집계되었던 것⁴⁾과 비교하면, 예능·오락프로그램 출연자의 성비는 지속적으로 남성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 참조)

[표2] 출연자 성비

no.	프로그램명	여성(명)	남성(명)
1	가요무대	12	9
2	전국노래자랑	12	9

4) 2017년 3월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보고서 (서울YWCA·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7.03)

no.	프로그램명	여성(명)	남성(명)
3	개그콘서트	11	35
4	불후의 명곡 - 전설을 노래하다	4	16
5	슈퍼맨이 돌아왔다	3	10
6	1박 2일	3	9
7	나 혼자 산다	2	2
8	라디오스타	4	4
9	무한도전	-	7
10	복면가왕	6	13
11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	1	6
12	판타스틱 듀오	5	11
13	런닝맨	7	7
14	미운 우리 새끼	6	15
15	한끼줍쇼	2	2
16	아는 형님	2	7
17	뭉쳐야 뜬다 - 패키지로 세계일주	-	6
18	최고의 사랑	2	2
19	강적들	1	6
20	며느리 모시기	10	1
21	모란봉 클럽	9	9
22	외부자들	1	4
23	이제 만나러 갑니다	1	1
24	풍문으로 들었쇼	6	6
25	속풀이쇼 동치미	7	7
26	알토란	2	6
27	아궁이	6	5
28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	-	5
29	SNL 코리아	12	9
30	코미디빅리그	7	13
31	주간 아이돌	6	4
32	비디오스타	4	-
33	내 딸의 남자들 - 아빠가 보고있다	5	6
합 계		159(38.7%)	252(61.3%)

(2) 출연자 성별 연령대

출연자 연령대는 30대가 33.3%(137명)로 가장 높았고, 40대가 25.6%(105명)로 그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여성, 남성 모두 30대 출연자(32.1%, 34.%)가 가장 높았고, 뒤이어 여성은 20대 출연자(28.9%)가, 남성은 40대 출연자(29.7%)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여성은 주로

30대 이하의 출연자가, 남성은 주로 30대 이상의 출연자가 많은 경향성은 지난 3월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⁵⁾ (표3 참조)

[표3] 출연자 성별 연령대 (단위 : 명)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모름	합계
전체 인원	8 (1.9%)	9 (2.2%)	77 (18.8%)	137 (33.3%)	105 (25.6%)	45 (10.9%)	13 (3.2%)	15 (3.6%)	2 (0.5%)	411
여성	3 (37.5%)	2 (22.2%)	46 (59.7%)	51 (37.2%)	30 (28.6%)	13 (28.9%)	7 (53.8%)	7 (46.7%)	-	159
남성	5 (62.5%)	7 (77.8%)	31 (40.3%)	86 (62.8%)	75 (71.4%)	32 (71.1%)	6 (46.2%)	8 (53.3%)	2 (100%)	252

(3) 성별 역할

주진행자의 경우 남성이 44명(77.2%), 여성이 13명(22.8%)으로 약 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로 남성이 예능·오락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4 참조)

[표4] 성별 역할 (단위 : 명)

	주진행자	보조진행자	출연자/초대손님	합계
전체인원	57	83	271	411
여성	13 (22.8%)	22 (26.5%)	124 (45.7%)	159 (38.7%)
남성	44 (77.2%)	61 (73.5%)	147(54.2%)	252 (61.3%)

(4) 성별 직업군

직업군을 분석한 결과 21개의 직업군에 분포되어 있었다. 전체적으로 가수(121명, 29.4%)와 개그맨/코미디언(120명, 29.2%)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배우와 주부를 제외한 모든 직업군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방송인/전문진행자는 남성(20명)이 여성(6명)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5 참조)

[표5] 출연자 성별 직업군 (단위 : 명)

직업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8	19	20	21	23	99	계
여성	34	21	49	2	6	1	0	1	4	0	2	0	0	1	4	2	9	3	0	14	6	159
남성	86	19	72	2	20	1	3	2	5	2	3	1	2	3	0	2	0	3	1	12	13	252
계	120	40	121	4	26	2	3	3	9	2	5	1	2	4	4	4	9	6	1	26	19	411

※직업분류번호 ① 개그맨/코미디언 ② 배우 ③ 가수 ④ 모델 ⑤ 방송인/전문진행자 ⑥ 변호사 ⑦ 의사 ⑧ 비평가/평론가 ⑨ 언론인(기자 등) ⑩ 요리사/요리연구가 ⑪ 작가 ⑫ 상담사 ⑬ 교수 ⑭ 그 외 특정 분야 전문가 ⑯ 학생 ⑰ 회사원 ⑱ 주부 ⑲ 자영업자 ⑳ 운동선수 ㉑ 모름 ㉒ 기타_____
--

5) 출연자 성별 연령대 분석 결과, 남성은 30대가 38%, 40대가 28.6%로 나타났으며, 여성은 30대가 37.7%, 20대가 20.5%로 나타남.

- 2017년 3월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보고서 (서울YWCA·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7.03)

(5) 성평등/성차별적 내용

성평등적 내용은 5건, 성차별적 내용은 32건으로 성평등적 내용보다 성차별적 내용이 약 6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적 내용에서는 여성의 주체성을 표현한 내용이 2건(40%)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차별적 내용은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내용(17건, 53.1%)이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 3월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와 대체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성차별적 내용의 경우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내용이 지난 3월에 비해 3배가량 증가했다. (표6 참조)

[표6] 성평등/성차별적 내용 수 (단위 : 건)

구분		건수		구분		건수	
		3월	7월			3월	7월
성평등적 내용	주체성	1 (20%)	2 (40%)	성차별적 내용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5 (26.3%)	17 (53.1%)
	현실반영성	1 (20%)	1 (20%)		출산의 도구로써의 여성	-	-
					여성의 주체성 무시/ 남성 의존성향 강조	5 (26.3%)	2 (6.3%)
	다양성	2 (40%)	1 (20%)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1 (5.3%)	1 (3.1%)
					외모지상주의 조장	5 (26.3%)	6 (18.7%)
	대안성	1 (20%)	1 (20%)		여성의 성적대상화	3 (15.8%)	3 (9.4%)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단어와 행동의 무분별 사용					-	2 (6.3%)	
합 계		5	5		합 계		19

(6) 방송사별 성평등·성차별 건수

방송사별로는 JTBC의 프로그램에서 성평등적 내용이 가장 많이 발견되었고(2건, 40%), 성차별적 내용은 tvN이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6건, 18.7%). 뒤이어 KBS2, MBC, TV조선이 5건(15.6%)으로 동일한 수치를 나타냈다. (표7 참조)

[표7] 방송사별 성평등/성차별적 내용 수 (단위 : 건)

구분	KBS1	KBS2	MBC	SBS	JTBC	채널A	MBN	TV조선	tvN	MBC every1	E채널	합계
성평등	-	-	1 (20%)	-	2 (40%)	-	-	1 (20%)	1 (20%)	-	-	5
성차별	-	5 (15.6%)	5 (15.6%)	4 (12.5%)	3 (9.4%)	-	1 (3.1%)	5 (15.6%)	6 (18.8%)	2 (6.3%)	1 (3.1%)	32

2. 질적분석

예능·오락 프로그램 모니터링의 주요 내용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평등적 내용

(1) 주체성



〈최고의 사랑〉(JTBC, 7월 4일)

〈최고의 사랑〉(JTBC, 7월 4일)에서는 강릉 산불 피해 현장에 김숙, 윤정수 커플이 방문해 현장을 복구하는 장면이 방송되었다. 윤정수는 김숙에게 “힘든 일은 오빠가 할게.”라고 말하자 김숙은 “봉사하러 와서 힘든 일, 안 힘든 일이 어디 있어. 여자 일, 남자 일은 없어.”라고 답하며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탈피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어 해머드릴로 하수구 라인을 깨는 노련함과 강인함을 보여

주며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2) 현실반영성



〈나 혼자 산다〉(MBC, 7월 7일)

〈나 혼자 산다〉(MBC, 7월 7일)에서는 출연자 박나래가 꽃집을 방문해 플로리스트인 오민선에게 “여자들도 남자한테 꽃 선물해요?”라고 묻는 장면이 방송에 나왔다. 박나래의 질문에 오민선은 “하죠”라고 대답했고, 이를 통해 꽃은 남성이 여성에게 선물한다는 사회적 고정관념이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나타내었다.

(3) 다양성



〈한끼줍쇼〉(JTBC, 7월 5일)

〈한끼줍쇼〉(JTBC, 7월 5일)에서는 출연자 강호동, 박나래가 전라남도 광주 봉선동의 한 집에서 한 끼 식사를 하는 장면이 방송되었다. 식사를 마친 강호동과 박나래는 부엌에 들어가 나란히 설거지를 했다. 성역할 고정관념을 깨고 성별에 상관없이 역할을 다양하게 수행했다.

(4) 대안성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tvN, 7월 7일)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tvN, 7월 7일)에서는 공주·부여·세종으로 여행을 떠난 출연자들이 백마강 관광배를 타는 장면이 방송되었다. 관광배를 타는 도중 안내 방송에서 정절을 지켰던 여성에 대한 이야기와 정절을 중요시한 여성을 아내로 맞은 남자들은 행복하다고 나오자, 출연자 유시민은 이에 대해 현실적·사실적이지 않은 잘못된 역사적 지식이라며 비판했다. 덧붙여 누군가가 나서서 바꿔야 한다고 말하며 성차별적인 현실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대안성을 지닌다.

2) 성차별적 내용

(1)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복면가왕〉(MBC, 7월 2일)

전문가들의 출연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성차별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복면가왕〉(MBC, 7월 2일)에서 노래를 듣고 전문적 평가를 해줄 싱어송라이터나 언론 있는 전문가들은 남성(김현철, 유영석 등)이 담당하며 단순한 평가나 개그를 담당하는 것은 주로 여성 개그맨(신봉선, 장영란 등)이다. 이와 같은 패널 구성은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비전문적이며 단순하다는 식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줄 우려가 상당하다. 또한 여성



〈미운 우리 새끼〉(SBS, 7월 2일)

출연자인 토니가 자신의 집을 바(bar)와 편의점 시설을 갖추는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모습이 방영되었다. 이를 축하하기 위해 동료들을 초대했으나 대부분의 반응이 부정적이지, 김희철이 “여자한테 물어서 리모델링이 어떤지 반응을 들어보자”라고 제안했다. 김희철이 설현과 영상통화를 하자 “설현과의 영상통화에 수컷들 우르르”라는 자막이 등장하고 토니의 집을 ‘수컷 하우스’라고 칭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동물에게 사용하는 ‘수컷’이라는 표현은 상남자, 거친 남자 등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해 남성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성차별 고정관념을 조장한다.

〈미운 우리 새끼〉(SBS, 7월 2일)에서는



〈강적들〉(TV조선, 7월 5일)

면 좋겠다. 이게 대중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다정다감하고 특히 여성 정치인에게는 모성애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헛갈립니다.”라고 말했다. 여성은 언제나 타인에게 따뜻하고 살가워야 하는 감정 노동을 강요하는 발언이며 정치인인 추미애 대표에게 ‘어머니’의 역할을 투영하는 것은 성차별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장한다.

(2) 여성의 주체성 무시/ 남성 의존성향 강조



〈판타스틱 듀오 2〉(SBS, 7월 2일)

〈강적들〉(TV조선, 7월 5일)에서는 ‘여성 당대표 전성시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출연자들의 장면이 방송되었다. 출연자인 강민구는 “추미애 대표는 다른 건 다 좋은데 약간 표정이 좀 더 부드러워졌으면 좋겠어요. 약간 차갑다라는 느낌이 솔직히 많이 드는데...”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출연자인 김갑수는 추미애 대표를 두고 “좀 부드러웠으면 좋겠다.

〈판타스틱 듀오 2〉(SBS, 7월 2일)에서는 가수 흥진영과 함께 듀엣을 하기 위해 노래를 부른 지원자들의 영상이 공개되었다. 지원자들의 닉네임을 살펴보면 남성들은 직업과 관련된 작명인 반면 여성들은 ‘소녀’, ‘~딸’, ‘~배터리’ 등 대상화되거나 누구의 부속물과 같은 닉네임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작명으로 인해 여성은 주체성 없는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다.

(3) 외모지상주의 조장



〈코미디빅리그〉(tvN, 7월 2일)

는 “여기를 어떻게 들어 온 거야? 저 아줌마~”, “땅콩을 드릴 테니까 꺼지세요. 저리”라고 무시 당한다. 여성의 외모를 근거로 남성의 반응이 상반된 장면을 방송에 내보냄으로써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고 있다.

〈코미디빅리그〉(tvN, 7월 2일) 중 ‘그린라이트’ 코너에서는 여성 출연자인 장도연과 박나래를 외적인 모습만을 보고 평가하는 외모지상주의적 내용이 방송을 탔다. 키 크고 날씬하고 도도한 철벽녀 컨셉인 장도연은 남성 출연자인 이용진한테 “그 쪽 완전 내 이상형이에요.”라며 호의적인 대우를 받지만 키 작고 뚱뚱하고 못생긴 캐릭터인 박나래한테

(4) 여성의 성적대상화



〈SNL 코리아 9〉(tvN, 7월 1일)

있었다. 이처럼 남성이 여자친구를 메뉴판에서 고른다는 설정으로 인해 성상품화를 부추길 우려가 상당하다. 또한 메뉴판에 적혀있는 메뉴 이름들은 여성을 대상화한 표현이며 여성을 ‘청순’, ‘과즙녀’ 등 유형화시켜 이미지를 부여한다는 데에 있어 성차별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SNL 코리아 9〉(tvN, 7월 1일) 중 ‘3분 가게’ 코너에서는 걸 그룹 에이핑크 멤버들이 등장했다. 여자친구를 원하는 유세윤이 걸 그룹 에이핑크 멤버들이 적혀 있는 메뉴판을 보고 ‘3분 여자친구’를 선택하는데, 메뉴판에는 ‘청순한 여자친구’, ‘친구같은 여자친구’, ‘보호본능 여자친구’, ‘과즙녀 여자친구’, ‘뉴페이스의 다양한 여자친구’ 등이 적혀

(5)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단어와 행동의 무분별 사용



〈라디오스타〉(MBC, 7월 5일)

죄송해요!”라고 답했다. 우리 사회가 남성의 성기를 ‘고추’라고 표현하는 것을 이용해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고 희화화하고 있다.

〈라디오스타〉(MBC, 7월 5일)에서는 가수 채리나가 출연해 현재 자신이 전원생활을 하고 농사를 짓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방송되었다. 채리나는 고추 농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고추를 보며 “어머 고추야 많이 열렸네”라고 얘기한다고 하자, 진행자 김국진이 “왜 하필이면 고추한테”라고 얘기했다. 그러자 채리나가 크게 웃으며 “아,

(6) 선정성

〈불후의 명곡〉(KBS2, 7월 1일)에서는 가수 청하의 무대를 보여주었다. 청하와 여성 댄서들의 선정적인 춤동작과 함께 ‘오늘 밤 주인공은 청하야 청하!’라는 자막을 내보내는 것은 매우 선정적으로 비추어졌다.



〈불후의 명곡〉(KBS2, 7월 1일)

IV. 나가며

모니터링 기간 동안 방송된 33개의 예능·오락 프로그램에서는 등장인물의 성비가 지난 3월에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와 비슷하게 여성보다 남성이 약 2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장르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무한도전, 1박 2일,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 등에는 여성 출연자가 거의 없거나 남성 출연자에 비해 비율이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프로그램 주진행자의 경우 여성(13명, 22.8%)보다 남성(44명, 77.2%)이 약 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조진행자 또한 여성(22명, 26.5%)보다 남성(61명, 73.5%)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예능·오락 프로그램은 남성에게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예능 프로그램의 경우 재미와 웃음을 생산해내기 위해 다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방식을 택했다. <코미디빅리그>의 경우 여성의 몸을 희화화해 개그소재로 삼거나 외모를 근거로 차별과 비하 발언을 내뱉는 등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이 있었다. 또한 제작자의 주관에 개입된 자막 삽입에서 성차별적인 면모를 찾아볼 수 있었다. <런닝맨>, <불후의 명곡>과 같이 '개미허리', '섹시', '청순' 등 성적인 요소를 강조해 자막을 삽입하거나 <라디오스타>와 같이 남성의 성기를 가지고 자극적인 농담을 만들어내는 지점도 존재했다. 나아가 <미운 우리 새끼>의 경우 남성이 남성성을 수행할 경우 '수컷'으로 표현하는 반면 여성에게는 특정 이미지('질투 많은 여성')를 부과해 성차별적 고정관념이 반영된 부분을 포착할 수 있었다.

지난 3월 모니터링 결과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 조장, 여성의 주체성 무시/남성 의존성향 강조, 외모지상주의 조장이 동일한 수치(5건, 26.3%)를 기록했으나 이번 모니터링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은 성역할 고정관념 조장(17건, 53.1%)이었다. <미운 우리 새끼>나 <최고의 사랑>에서 남성을 '상남자', '수컷'으로 표현해 남성성 이미지를 갖도록 조장하거나, <강적들>의 경우 출연자들이 여성 정치인을 두고 표정이 부드러워져야 한다거나, '어머니'의 역할을 기대한다는 발언으로 인해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기도 했다. 또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출연진들이 육아 노동, 가사 노동을 여성이 담당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발언을 하거나 프로그램 속에서 전문적이거나 능동적인 역할은 항상 남성이 맡고 있는 등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할 요소들이 다분했다.

한편 최근 유행하고 있는 포맷인 관찰 예능⁶⁾의 경우 포맷은 동일하지만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E채널에서 방영되고 있는 <내 딸의 남자들>의 경우 매 회가 방송될 때마다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 제목에서부터 딸을 아버지의 소유물로 보는 가부장적인 성향이 반영되어 있으며, '아빠가 보고 있다'라는 부제와 같이 딸의 연애를 관음증적인 형식으로 소비한다는 점에서 심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남성(강자)의 시선으로 기획·제작되는 프로그램들은 단단한 팬덤 문화를 구축하고 있는 아이돌에게도 해당된다. <주간 아이돌>의 경우 MC들로부터 비롯되는 삼촌팬의 시선은 아이돌, 특히 걸 그룹이라면 어리고 사랑스러워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은연중에 드러내기도 한다.⁷⁾ 더 나아가 데뷔 경쟁을 위해 기획된 <프로듀스 101> 시즌 1, 2와 최근에 시작한 <아이돌 학교>까지 시청자이자

6) 다큐에 가까운 정도로 제작진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관찰 카메라 형태로 구성된 예능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작진이 상황을 설정하거나 계획을 꼼꼼하게 짜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주제나 소재, 미션 등을 출연진에게 던져주고 실제 벌어지는 상황을 오롯이 카메라에 담아 시청자에게 전달하는 게 특징이다. - 하경현, 「다큐같은 예능, 예능같은 다큐 '다큐테 인먼트'가 뜬다」, 『스포츠경향』, 2013.02.14.

7) 황효진, 「[주간 아이돌], 아이들에게는 애교가 필수일까?」, 『아이즈』, 2016.01.07.

유권자(국민 프로듀서)를 어필하기 위해 프로그램(기획자/제작자)으로부터 강요되는 혹독한 연습이나 애교 요구까지 수용함으로써 아이돌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의 주체성은 박탈될 수밖에 없다.

예능·오락 프로그램의 목표는 '재미'와 '웃음'이기 때문에 편견이나 비하 발언에 대해서도 “웃기면 됐지”라는 태도로 인해 그동안 문제제기가 수용되기 어려웠다. 그렇기에 잘못된 고정관념과 혐오를 밟고 이뤄지는 '재미'에 대해서 시청자들의 면밀한 감시와 피드백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 제작자·기획자들은 건강하고 좋은 웃음을 생산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성평등적인 고찰과 노력이 필요하다.

V. 모니터링 내용

1. 성평등적 내용⁸⁾

(1) 주체성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JTBC	최고의 사랑	7월 4일 (108회)	 

8) ① 주체성 : 여성을 주체로서 다루고 있는가? 여성의 시각에서 문제를 보고 있는가?

② 현실반영성 : 성불평등적인 젠더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성이 처한 문제와 상황을 잘 파악하여 남녀 불균형적인 현실을 적절히 묘사하고 있고, 성평등을 위한 문제 해결방식이 과장되거나 희화화되지 않는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또한 이 문제가 많은 여성의 상황을 대변하는가?

③ 다양성 :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다양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가?

④ 대안성 : 대안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강릉 산불 피해 현장에 도착한 김숙, 윤정수 커플이 불에 탄 집을 복구하기 위해 작업에 들어감. 윤정수는 김숙에게 “숙이야, 너무 힘든 일은 하지마. 힘든 일은 오빠가 할게.”라고 하자 김숙은 “봉사하러 와서 힘든 일, 안 힘든 일이 어딴어.”, “여자 일, 남자 일은 없어.”라며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탈피한 모습을 보임. 또한 김숙은 “공사의 신이다”라는 칭찬까지 들을 정도로 해머드릴로 허수구 라인을 깨는 노련함과 강인함을 보여줌. 여성, 남성의 역할을 탈피함과 동시에 주체성을 반영하고 있음.
TV조선	강적들	7월 5일 (190회)	 <p>‘지금은 여성 당대표시대’, ‘원내 5당 중 3당대표 모두 여성’, ‘바야흐로 여성 당대표 시대’ 등의 자막과 함께 이혜훈, 추미애, 심상정 의원의 활약상을 소개함. 여성이라는 성별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실력 있는 ‘정당 지도자’로 인식해야 한다며 주체성을 강조하고 있음.</p>

(2) 현실반영성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MBC	나 혼자 산다	7월 7일 (212회)	진행자 겸 출연자인 박나래가 “여자들도 남자한테 꽃 선물해요?”라고 묻자 플로리스트인 오민선이 “하쵸.”라고 말함. 보통 꽃 선물은 남성이 여성에게 한다는 고정관념이 존재하지만 이를 탈피한 장면임. 성역할 고정관념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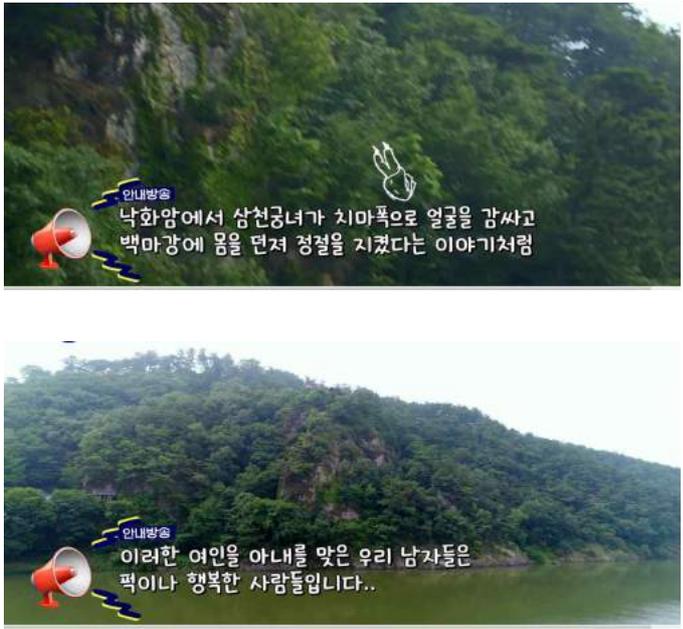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3) 다양성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JTBC	한끼줍쇼	7월 5일 (38회)	<p>전라남도 광주 봉선동의 한 집에서 한 끼를 마친 출연자 강호동과 박나래가 나란히 설거지를 하고 있음. 변화된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음.</p>

(4) 대안성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tvN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	7월 7일 (6화)	<p>정절을 지켰던 여성에 대한 이야기와 정절을 중요시한 여성을 아내로 맞은 남자들은 행복하다라는 내용의 백마강 관광배 안내 방송을 두고 출연자인 유시민 작가는 이러한 내용이 현실적이지 않고 사실적이지 않으며, 잘못된 역사적 지식에 대해 비판함. 덧붙여 누군가가 나서서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함으로써 성차별적인 현실이 변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대안성을 지님.</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2. 성차별적 내용

(1)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7월 2일 (652회)	 <p>'멋진 시안아'로 거듭나기 편에서 아버지인 이동국이 말로 변장하고 쌍둥이 딸인 설아, 수아를 인질로 잡고 있는 상황을 설정함. "시안아 살려줘"라고 외치는 누나들의 요청에 시안이가 나타나 말 괴물을 응징하며 위험에 처한 누나를 구해줌. 아빠 동국은 누나들을 용감하게 구해 주는 모습을 보니 멋진 시안이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며 기특해 함. 남성은 위험에 처한 여성을 구하고 여성은 보호받는 대상으로 묘사해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함.</p>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7월 2일 (652회)	<p>누나인 설아와 막내 대박이가 장난감을 서로 갖겠다고 잡아당기며 힘겨루기를 하다 설아가 이기자 아빠 이동국이 설아에게 "저줘, 저줘~"하며 대박이에게 저주라고 지</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p>시하고 다시 경기를 해 설아가 저 줌. “빠기 일등!”이라고 외치는 대박이와 “빠기가 다 이겼어”하고 칭찬해 주는 아빠의 모습에 분해하는 설아가 장난감을 뺏아서 돌리며 놀자 다시 대박이 울고 아빠가 “빠기에게 줘~”라며 설아에게 다시 양보할 것을 종용함. 자막에도 대박 설아수아라고 3형제를 지칭하는 등 여전히 남아가 우선시하는 가부장적 모습이 보임.</p> 
MBC	나 혼자 산다	7월 7일 (212회)	 <p>진행자 겸 출연자인 박나래가 꽃꽂이와 요리하는 본인의 모습을 두고 “오늘 신부수업 같지 않니?”라고 하자 자막으로 “꽃꽂이에 요리까지 당장 시집가도 되겠어”라고 나눔. ‘꽃꽂이’와 ‘요리’가 여성의 역할이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고 있음.</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MBC	라디오스타	7월 5일 (534회)	 <p>라디오스타에 출연한 여성 출연자들을 두고 ‘조신한 아내’라고 표현함으로써 아내로서의 여성은 조신해야 한다는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됨.</p>
MBC	라디오스타	7월 5일 (534회)	 <p>출연자 이효리가 남편 이상순에 대해 얘기하다가 “(이상순이) 저도 잘 보살펴주고 집안일 잘 도와주고”라고 말함. 여성은 남성을 통해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며 가사노동은 여성의 역할이고 남성은 이를 보조하는 역할이라는 고정관념이 드러남.</p>
MBC	복면가왕	7월 2일 (118회)	 <p>음악 프로그램인 <복면가왕>에서 노래를 듣고 전문적 평가를 해줄 싱어송라이터 또는 연륜 있는 전문가들은 남성(김현철, 유영석, 조장혁 등)들이며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여성은 1명도 없음. 깊이 없는 평가나 웃음을 만드는 것은 주로 여성 개그맨(신봉선, 장영란 등)으로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비전문적이며 단순하다는 성 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할 우려가 상당함. 이는 지난 3월</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모니터링에서도 지적된 부분이나 여전히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패널 구성이 지속되고 있음.
SBS	미운 우리 새끼	7월 2일 (43회)	 <p>출연자인 토니는 자신의 집을 바(bar)와 편의점 시설을 갖추는 리모델링을 진행함. 이를 축하하기 위해 동료들을 초대했는데, 리모델링에 대한 대부분의 반응은 부정적이었음. 이때 김희철이 “여자한테 물어서 의견을 들어보자”고 제안했고, 모두 환호함. 김희철이 설현과 영상통화를 하자 모두들 환호하며 휴대폰 앞으로 모이고, “설현과의 영상통화에 수컷들 우르르르” 라는 자막이 등장함. 또한 토니의 집을 “수컷 하우스”라고 칭함. 동물에게 사용하는 ‘수컷’이라는 표현은 상남자, 거친 남자 등의 고정된 남성성 이미지로,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할 우려가 있음.</p>
JTBC	최고의 사랑	7월 4일 (108회)	 <p>강릉 산불 현장을 찾아간 김숙, 윤정수 커플이 잔해 현장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도와가며 치우는 장면에서 윤정수가 김숙에게 “오빠가 상남자의 모습을 보여줄게!”라고 말함. 육체적 노동이 필요한 부분에서 남성이 담당하는 것이 당연하며 ‘상남자’와 같이 남성성 이미지를 지닐 수 있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어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할 우려가 있음.</p>
JTBC	한끼줍쇼	7월 5일 (38회)	전라남도 광주 봉선동의 한 집에 한 끼 식사를 하러 들어간 강호동, 박나래. 남편이 이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난 뒤 막 퇴근해서 돌아온 아내는 급히 주방으로 들어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p>가 음식 준비를 함. 음식 준비는 여성의 몫이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그대로 드러남.</p> 
TV 조선	강적들	7월 5일 (190회)	 <p>출연자인 강민구는 “추미애 대표는 다른 건 다 좋는데 약간 표정이 좀 더 부드러워졌으면 좋겠어요. 약간 차갑다라는 느낌이 솔직히 많이 드는데...”라고 말함. 여성은 언제나 남성한테 따뜻하고 살가워야 한다는 식의 감정 노동을 강요하고 있음.</p>
TV 조선	강적들	7월 5일 (190회)	 <p>출연자인 김갑수는 추미애 대표를 두고 “좀 부드러웠으면 좋겠다. 이게 대중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다감하고 특히 여성 정치인에게는 모성애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굉장히 헛갈립니다.”라고 말함. 여성의 역할을 ‘어머니’로 한정 짓고 있으며 여성은 항상 상냥해야 한다는 식의 고정관념을 내포하고 있음.</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p>출연자인 김갑수는 추미대 대표를 두고 “사석에서는 아주 여성스러워요. 굉장히 잘 웃고. 대중적인 이미지와 사석에서의 이미지가 굉장히 다른데 정치인으로 처신할 때 기선 여성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추 대표”라고 말함. 정치인의 여성성을 유독 부각시키고 있으며,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모습을 ‘기가 세다’고 표현하며 여성 정치인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보여줌.</p>
TV 조선	강적들	7월 5일 (190회)	 <p>정치 시사토크쇼를 표방하는 프로그램에서 형식상 여성(김성경)이 주 진행자이기는 하지만 보조 진행자와 출연자 모두 남성임. 이러한 성비의 극심한 불균형은 여성이 정치시사 문제에 대해 남성보다 식견이 부족하다는 왜곡된 의식을 조장하고 비전문적일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강화함.</p>
MBN	아궁이	7월 7일 (221회)	<p>남성 출연자인 홍종선이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것을 배웠으며, 가수 임재범이 음식물쓰레기를 버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임재범 씨의 의외의 여성성을 보여주었다”고 말함. 남성이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대단한 일이며 쓰레기를 비롯한 가사 노동이 여성의 상징인 것처럼 언급함.</p>
tvN	코미디 빅리그	7월 2일 (222회)	<p>'그린라이트' 코너에서 나이트에 놀러온 여자(이은지)는 남재(이용진)가 같이 놀자고 해도 관심을 안 보이다가 남자가 통화하며 "그래 가게 문 닫아."라는 말을 듣고, "저기요 가게 사장님이세요?" 라며 관심을 보이거나 "내가 킵 해놓은 거 줘."라는 말을 듣고 웨이터에게 "양주</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p data-bbox="678 315 1353 387">킵 해냈어요?"라며, 여성을 돈 많은 남자에게만 관심을 보이는 존재로 묘사함.</p>  <p data-bbox="678 1144 1353 1299">돈 많은 건물주(박나래)는 만취해서 “내가 그린나이트 건물주야.”라며 민망한 자태의 춤으로 추태를 보이는 장면 등 시종일관 여성을 주로 허영심 많고 소비지향적인 존재로 왜곡된 이미지를 조장함.</p>
E채널	내 딸의 남자들: 아빠가 보고있다	7월 1일 (7회)	 <p data-bbox="699 1305 1329 2004">무거운 짐도 혼자 척척! 밤자는 힘이야!</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최하나(최양락의 딸)와 최하나의 친구, 그리고 노선권(최하나의 남자친구)이 글램핑을 간 상황에서 최하나와 그의 친구는 텐트를 꾸미는 등의 힘을 쓰지 않는 간단한 일을 한 반면 노선권은 랍스타 등을 요리하기 위해 혼자서 무거운 솔단지를 옮기고 레몬을 짬. 요리과정을 지켜보던 최하나와 최하나의 친구는 연신 “남자는 힘이야”를 말하고 화면의 자막도 “상남자의 힘줄이여 솟아라”라고 나옴. 남성의 상징은 강한 힘이며 여성은 남성의 적극적인 애정공세를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면 된다는 성역할의 고정관념이 반영되어 있음.

(2) 여성의 주체성 무시/ 남성 의존성향 강조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SBS	판타스틱 듀오	7월 2일 (14회)	 <p>출연자인 흥진영이 6명의 듀오 파트너 중 한 명을 골라야 하는 상황에서 곤란해하자 다른 출연자인 장윤정이 고르기 힘들때 “당연히 남자지”라고 말함. 여성은 (실력과 무관하게) 고민할거 없이 남성을 골라야 한다며 여성은 남성을 무조건 선호하며 남성에게 기댈 것을 요구하고 있음.</p>  <p>가수와 함께 듀엣을 하기 위해 출연한 출연자들의 닉네임을 살펴보면, 남성들은 직업과 관련된 작명인데 여성</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출연자들은 ‘소녀’, ‘~딸’, ‘~배터리’ 등 여성을 대상화하거나 누구의 부속물과 같은 작명을 통해 여성이 주체성 없는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음.

(3)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KBS2	개그콘서트	7월 2일 (905회)	 <p>남성 출연자인 정명훈을 둘러싼 세 여성 출연자가 정명훈 앞에서 섹시 댄스를 추며 “나 요즘 씬 탄다”, “설레겠다”라는 대사를 하면서 정명훈의 몸을 만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만지는 것이 성폭력이라는 지점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설정임.</p>

(4) 외모지상주의 조장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JTBC	아는 형님	7월 1일 (82회)	<p>게스트로 출연한 한채영을 두고 “바비인형 같다”, “머리 스타일이 예쁜 암사자 같다”라고 말하며 남성 출연자들이 한채영한테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도 “예쁘다고 해주니 괜찮아”라고 말함. 여성의 외모를 칭찬하고 이를 좋아하는 장면을 통해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고 있음.</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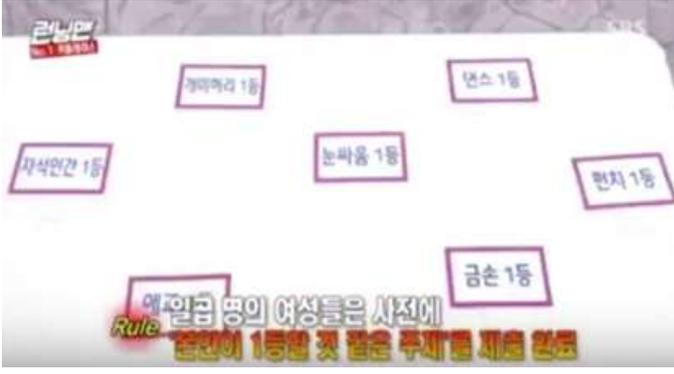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TV 조선	며느리 모시기	7월 8일 (12회)	<p>결혼을 하고자 하는 여성들과 결혼적령기의 아들을 둔 어머니들의 만남을 내용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젊은 여성들은 자신이 만나고자 하는 남성의 어머니에게 선택 받고자 하고, 어머니들은 자신의 아들과 어울릴 여성에게 선택 받길 바라는 예능임. 마지막 관문인 남성사진 공개에서 변신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줌으로써 상대방의 외모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김.</p>  
tvN	코미디 빅리그	7월 2일 (222회)	<p>〈그린나이트〉 코너에서 박나래가 술 취한 모습으로 “요즘 트와이스 좋아하지?”라며 춤을 추며 “치얼업 베이베”라고 노래를 부름. 이를 두고 이용진이 박나래의 뺨살을 만지며 “쳐진 배에”라고 가사를 바꿔 부르고 박나래를 향해 “제발 그만 하세요. 너무 빨개 가지고 눈이 아파요”라고 하는 대사와 장면 등이 나옴. 여성의 신체를 희화화하고 있으며 여성은 날씬한 몸매일 것을 은연중에</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p>강요하고 있음.</p> 
tvN	코미디 빅리그	7월 2일 (222회)	 <p>〈그린나이트〉 코너에서 키 크고 날씬하고 도도한 철벽녀 장도연에게 이용진이 “안녕하세요? 그 쪽 완전 내 이상형이에요.”라며 호의적으로 접근하지만 키 작고 뚱뚱</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p>한 뱃살을 드러낸 박나래에게는 “여기를 어떻게 들어 온 거야? 저 아줌마~”, “땡공을 드릴 테니까 꺼지세요. 저 리”라고 무시하고, 박나래가 같이 놀자며 남성의 등에 업히자 뿌리치며 “아줌마 뭐하시는 거예요? 이게”라며 화를 내듯 말함. 박나래가 봉춤을 추며 드러눕자 “아저씨 여기서 주무시면 입 돌아가요. 일어나세요. 아저씨 입 돌아가요” 라는 등의 비하 발언과 무시하는 장면들을 연속적으로 보여줌. 키 크고 날씬하고 도도한 철벽녀 캐릭터 장도연은 남성의 이상형으로 여겨지는 반면 키 작고 뚱뚱하고 못생긴 캐릭터인 박나래는 남성으로부터 함부로 ‘아줌마’, ‘아저씨’라는 비하 발언을 들으며 철저히 무시당함. 여성의 외모를 근거로 남성의 반응이 상반된 장면을 묘사함으로써 외모지상주의를 심각하게 조장하고 있음.</p>
			<p>〈오지라퍼〉 코너에서 여성(이국주)이 배를 과도하게 출렁이며 춤을 추는 모습을 팔짱을 끼고 쳐다보는 남성(이상준)의 시선은 여성 외모를 폄하하는 것으로, 외모지상주의적 시선이 반영되어 있음. 또한 이국주를 향해 이상준이 “이거 뭐야 이거 브로컬리아 검색창이야”라며 개성을 인정하지 않고 외모를 비하함.</p>  <p>The image contains two screenshots from the TV show 'Ojirafo'. The top screenshot shows a woman in a white polka-dot shirt and green shorts dancing on a stage with blue spotlights. A man in a white traditional Korean outfit (hanbok) stands to the right, watching her. The bottom screenshot shows the same woman dancing, with the man and another woman standing to the left, observing her. The stage is lit with yellow spotlights.</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MBC every1	비디오스타	7월 4일 (52회)	 <p>출연자를 소개하면서 “기럭지 특집! 잘 생긴 애 옆에 잘 생긴 애”라며 요즘 가장 활발하게 활약하고 있는 모델 4명을 소개하며 잘 생긴 외모만을 강조해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함.</p>

(6) 여성의 성적대상화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KBS2	불후의 명곡	7월 1일 (310회)	<p>아이돌인 김청하가 무대 오르기 전 대기실에서 춤을 추자 남성들이 환호하는 장면과 더불어 ‘섹시 청순’이라는 자막이 등장함. 무대에 오를 때는 MC 신동엽이 “솔로로 돌아온 차세대 섹시 디바 청하”라고 소개하는 멘트를 하며 여성 출연자를 성적대상화하고 있음.</p> 
SBS	런닝맨	7월 2일 (357회)	 <p>예일급 명의 여성들은 사전에 Rule 본인의 1등할 것 같은 주제별 1등선 받음</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여성 파트너 선택 시, 파트너 선택 키워드에 ‘개미허리’, ‘애교’ 등 여성의 외모나 여성성을 강요하는 단어 사용이 나옴. 외모 또는 애교와 같이 실력과 상관없는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여성 파트너를 선택할 것을 설정해 여성을 대상화하고 있음.
tvN	SNL 코리아	7월 1일 (15회)	 <p>〈3분 가게〉 코너에서는 여자친구를 원하는 유세윤이 걸 그룹 에이핑크 멤버들이 적혀 있는 메뉴판을 보고 ‘3분 여자친구’를 선택하는 코너임. 메뉴판에는 ‘청순한 여자친구’, ‘친구같은 여자친구’, ‘보호본능 여자친구’, ‘과즙녀 여자친구’, ‘뉴페이스의 다양한 여자친구’ 등이 적혀있어 여성을 대상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룸. 남성이 여자친구를 메뉴판에서 고른다는 설정으로 인해 성상품화를 부추길 우려가 상당함. 또한 여성이 남성의 부속물과 같다는 고정관념을 강화하며 여성을 ‘청순’, ‘과즙녀’ 등 유형화시켜 이미지를 부여한다는 데에 있어 성차별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p> 

(7)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단어와 행동의 무분별 사용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MBC	라디오스타	7월 5일 (534회)	출연자 채리나가 전원생활을 하고 있다며 농사를 짓고 있다고 얘기함. 그 중 고추를 심었고 고추를 보면서 “어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p>머 고추야 많이 열렸네”라고 얘기한다고 하자, 진행자 김국진이 “왜 하필이면 고추한테”라고 얘기함. 그러자 채리나가 크게 웃으며 “아, 죄송해요!”라고 얘기함. 우리 사회가 남성의 성기를 ‘고추’라고 표현하는 것을 이용해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고 희화화함.</p>  
MBC every1	비디오스타	7월 4일 (52회)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모델 출연자들의 무대 활약을 소개하는 영상에서 유독 벗은 몸매 위주의 사진이 소개되자 MC인 박나래가 “조민호가 가장 주목받는 곳이 사우나다”라고 질문함. “브라질리언 왁싱 때문”이라고 대답하자 사우나에서 상황을 묘사하는 등 수위 높은 농담을 주고받아 성적 이미지를 연상하게 함.

(8) 선정성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KBS2	불후의 명곡	7월 1일 (310회)	 <p>“오늘밤 주인공은 청하야 청하!”라는 자막과 함께 가수 청하의 아련한 춤동작 장면이 다분히 선정적임.</p>

어린이 프로그램 모니터링 보고서(4월)

I. 들어가며

서울YWCA 양성평등 미디어 모니터회에서는 어린이 프로그램 속 성평등적, 성차별적 사례를 찾아내어 분석하기 위해 2017년 4월 1일부터 7일까지 지상파 방송사(KBS1, KBS2, MBC, SBS, EBS)와 케이블(디즈니채널, 디즈니주니어, JE재능TV, 투니버스)의 79개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모니터링 대상 프로그램은 각 방송사별로 홈페이지에 제시된 인기프로그램과 프라임 타임(주중 16:00-20:00, 주말 9:00-12:00)에 방영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프로그램수가 적은 지상파 3사(KBS, MBC, SBS)의 경우, 모든 어린이 프로그램을 모니터링 하였다. 이번 모니터링은 '16년 3월 양성평등 모니터링 도구 표준화 자문결과에 따라 표준화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은 다음과 같다.

II. 모니터링 개요

- 모니터 장르 : 어린이 프로그램
- 모니터링 기간 : 2017년 4월 1일~7일(7일간)
- 모니터링 매체 : TV(지상파, 케이블)
- 대상 방송사 : KBS1, KBS2, MBC, SBS, EBS, 디즈니채널, 디즈니주니어, JE재능TV, 투니버스
- 프로그램 수 : 79개 프로그램 (141편)
- 모니터인원 : 16명

[표1] 모니터링 프로그램 목록

번호	프로그램명	방송사	방송 횟수
1	갤럭시 키즈2	KBS1	1
2	매직어드벤처		1
3	타오르지마 버스터		1
4	헬로카봇5		1
5	롤러코스터보이 노리	KBS2	1
6	자동공부책상위키2		4
7	터닝메카드W2		1
8	후토스 잃어버린 숲		1
9	누가누가 잘하나		1
10	TV유치원		4
11	꾸러기 탐구생활	SBS	2
12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2
13	뚝?또! 키즈스쿨	MBC	1
14	내친구 마카다-MBC만화마당		1
15	꾸러기 식사교실		1
16	응까 소나타 시즌2 - MBC만화마당		1
17	프리파라 시즌2		1

번호	프로그램명	방송사	방송 횟수
18	내일은 언제나 푸름	EBS	1
19	드림주니어		1
20	텔레몬스터		1
21	방귀대장 뽕뽕이		2
22	레인보우 루비		1
23	소피루비		2
24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2
25	한글이 야호2		1
26	너티너츠		1
27	수학이 야호		1
28	몰랑		3
29	소녀탐정 사건파일		2
30	똑딱맨		2
31	모여라 덩동댕		1
32	덩동댕 유치원		5
33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
34	레이디버그		1
35	오드봇 이상한아이들		1
36	속담이 야호		1
37	두기의 놀이학교		1
38	매직 아이스크림 트럭		2
39	뽕뽕뽕 뽕로로 시즌6		1
40	엄마까투리		2
41	꼬마버스 타요		2
42	용감한소방차 레이		2
43	호기심나라 오키도		2
44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어드벤처		1
45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
46	모피와 친구들		4
47	WHY-최고다 호기심 딱지		1
48	부릉! 부릉! 부르미즈		1
49	봉구야 말해줘2		1
50	꼬마의사 맥스터핀스		1
51	리틀프린세스 소피아		6
52	말랑말랑 도우랑		1
53	에그엔젤 코코밍		3
54	하이호! 일곱난쟁이		5
55	바다탐험대 옥토넷		1
56	코코몽		3
57	영똥발랄 콩순이와 친구들		1
58	제이크와 네버랜드 해적들		1
59	아발로 왕국의 엘레나		3
60	요괴워치		4
61	프린세스 스타의 모험 일기		2
62	미라클러스-레이디버그와 블랙켓		1
63	다이노코어 시즌2		1
64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1

번호	프로그램명	방송사	방송 횟수
65	안녕! 보노보노		1
66	에슬론 또봇		1
67	지오메카 스페셜		1
68	캡슐보이		2
69	파워레인저 브레이브		1
70	파워캐치완다		2
71	라바 시즌3 - 라바 인 뉴욕		7
72	검정고무신		4
73	놓지마 정신줄		1
74	닌자고:타임블레이드		1
75	안녕 자두야 스페셜		3
76	짱구는 못말려 스페셜		1
77	파파독: NEW에피소드		1
78	포켓몬스터 썬앤문		4
79	아기공룡 버디	1	
합 계			141편

Ⅲ. 결과분석

1. 양적분석

어린이 프로그램의 주요 양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등장인물 성비

등장인물의 성비는 전체 등장인물 464명 중 여성이 166명(35.8%), 남성이 219명(47.2%)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았으며, 성별을 알 수 없는 기타 등장인물은 17%로 나타났다. (표2 참조)

[표2] 등장인물 성비

(단위 : 명)

	KBS1	KBS2	SBS	MBC	EBS	디즈니 주니어	디즈니 채널	JET 재능TV	투니 버스	합계
전체 인원	22 (100%)	30 (100%)	53 (100%)	30 (100%)	138 (100%)	66 (100%)	25 (100%)	56 (100%)	44 (100%)	464 (100%)
여성	5 (22.7%)	12 (40%)	26 (49%)	14 (46.7%)	39 (28.3%)	25 (37.9%)	13 (52%)	14 (25%)	18 (41%)	166 (35.8%)
남성	10 (45.5%)	14 (46.7%)	18 (34%)	12 (40%)	67 (48.5%)	32 (48.5%)	8 (32%)	37 (66%)	21 (47.7%)	219 (47.2%)
기타	7 (31.8%)	4 (13.3%)	9 (17%)	4 (13.3%)	32 (23.2%)	9 (13.6%)	4 (16%)	5 (9%)	5 (11.3%)	79 (17%)

(2) 성별 역할

성별 역할을 분석한 결과, 주인공 역할은 여성이 37.3%, 남성이 52.5%로, 다른 성인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어린이 프로그램에서도 남성이 주인공인 경우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3 참조)

갈등 유발 인물과 갈등 해결 인물은 각 에피소드에서 드러난 문제, 미션, 갈등 등을 누가 유발하고 해결하는지를 분석한 항목이다. 갈등 유발 인물은 여성이 30.1%, 남성이 55.4%로, 남성 캐릭터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갈등 해결 인물 또한 여성이 43.8%, 남성이 50.7%로,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갈등 유발 인물과 해결 인물에 남성이 많다는 결과는 남자는 ‘말썹꾸러기’ 또는 ‘문제를 해결하는 주도적 사람’ 이라는 또 다른 성별 고정관념을 양산할 수 있어 우려되는 지점이다. (표3 참조)

또한 2012년 진행했던 어린이 프로그램 양성평등 모니터링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어린이 프로그램의 인물 구조 변화를 살펴볼 수 있었다. 2012년 분석 결과에서는 제목에 포함된 캐릭터 (주인공) 분석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약 3배 많았고, 갈등 해결 인물도 남성이 여성보다 3배 이상 많았다.⁹⁾ 이와 비교한다면 지난 5년 사이 어린이 프로그램에서의 여성 등장인물의 역할이 비교적 커졌으며, 특히 갈등 해결의 역할에서 여성의 비중이 남성과 비슷한 수준까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표3] 성별 역할 - 2017년

(단위 : 명)

	주인공	갈등 유발 인물	갈등 해결 인물
전체인원	177	83	73
여성	66 (37.3%)	25 (30.1%)	32(43.8%)
남성	93 (52.5%)	46 (55.4%)	37(50.7%)
모름	18 (10.2%)	12 (14.5%)	4(5.5%)

(3) 성별 고정관념 강화요소 (등장인물 외모 및 성격)

성별 고정관념 강화요소는 등장인물의 외모와 소개 문구에서 표현되는 성격에서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요소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예를 들어, 여성에게는 분홍색 계열의 치마 의상을, 남성에게는 푸른색 계열의 의상을 입혀서 캐릭터 외모에 차별을 두거나, 여성 캐릭터에게는 얌전하고 예쁘다는 표현으로, 남성 캐릭터에게는 씩씩하고 힘이 세다는 표현으로 캐릭터를 설명하는 경우 등이 있다. 분석 결과, 등장인물 외모에서는 24.4%(4명 중 1명), 등장인물 성격에서는 18.5%(5명 중 1명)가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나, 등장인물의 외모와 성격이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어린이들에게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시킬 위험이 큰 것으로 보인다. (표4 참조)

[표4] 성별 고정관념 강화 요소 분석

(단위 : 명)

	성별 고정관념 강화요소 있음	성별 고정관념 강화요소 없음	합계
등장인물 외모	113 (24.4%)	351 (75.6%)	464
등장인물 성격	86 (18.5%)	378 (81.5%)	464

	제목에 포함된 캐릭터 성별분석	갈등해결 성별분석
합계	94편	283회
여성	12편 (12.8%)	25회 (8.8%)
남성	41편 (43.6%)	81회 (28.6%)
모두	4편 (4.3%)	84회 (29.7%)
없음	37편 (39.3%)	93회 (32.9%)

9)

출처 : 2012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결과보고서(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서울YWCA), 83-84p

(4)성평등/성차별적 내용

내용분석 결과, 성평등적 내용은 26건, 성차별적 내용은 40건으로 나타났다. 성평등적 내용에 서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한 다양성을 표현한 내용이 14건(53.8%)으로 가장 많았으며, 여성을 주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이 8건(30.8%)으로 뒤를 이었다. 성차별적 내용은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장면)하는 내용이 13건(32.5%)으로 가장 많았다. (표5 참조)

[표5] 성평등/성차별적 내용 수

(단위 : 건)

구분		건수	구분		건수	
성평등적 내용	주체성	8 (30.8%)	성차별적 내용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캐릭터)	10 (25%)	
	현실반영성	2 (7.7%)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장면)	13 (32.5%)	
	다양성	14 (53.8%)		여성의 주체성 무시/ 남성 의존성향 강조	5 (12.5%)	
	대안성	2 (7.7%)		외모지상주의 조장	7(17.5%)	
				여성의 성적대상화	3 (7.5%)	
합 계	26		선정성	2 (5%)	합 계	40

(5) 방송사별 성평등·성차별 건수

방송사별로 성평등·성차별 건수를 분석한 결과, EBS가 성평등·성차별 건수가 각각 13건 (50%), 23건(57.5%)로 가장 많았다. 이는 분석대상 프로그램 총 79개 중 EBS가 29개가 분석 대상으로, 타방송에 비해 많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성차별적 내용이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표6 참조)

[표6] 방송사별 성평등/성차별적 내용 수

(단위 : 건)

구분	KBS1	KBS2	MBC	SBS	EBS	디즈니 주니어	디즈니 채널	JET 재능TV	투니 버스	합계
프로그램수	4	5	8	2	29	9	4	10	7	79
성평등	1 (3.8%)	1 (3.8%)	2 (7.7%)	0 (0%)	13 (50%)	2 (7.7%)	6 (23.1%)	1 (3.8%)	0 (0%)	26
성차별	1 (2.5%)	4 (10%)	2 (5%)	0 (0%)	23 (57.5%)	2 (5%)	1 (2.5%)	6 (15%)	1 (2.5%)	40

2. 질적분석

어린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평등적 내용

(1) 주체성



〈미라큘러스: 레이디버그와 블랙캣〉(디즈니 채널, 4월 6일)

조종으로 로봇이 넘어지고 위기를 맞자, 블랙캣은 로봇 조종을 레이디버그에게 넘기고 레이디버그는 다양한 전략과 실력으로 결국 적을 무찌르는데 성공한다. 여성이 남성의 명령을 무조건 따르며, 보조적인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실력과 전략으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을 보여준다.

〈미라큘러스: 레이디버그와 블랙캣〉(디즈니 채널, 4월 6일)에서는 악당 호크모스가 보낸 검은 나비의 조종을 받아 도시를 파괴하는 로봇을 레이디버그(여)와 블랙캣(남)이 힘을 합쳐 적을 무찌르는 모습이 방송되었다. 적을 상대할 로봇 조종석에 앉은 블랙캣이 “난 조종, 넌 사격!”이라며 마음대로 역할을 지정하자 레이디버그가 “왜 네가 조종을 하는데?”라며 반박했다. 이어 블랙캣의 서툰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EBS, 4월 3일)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EBS, 4월 3일)에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새 드론을 발명한 마리 팀장(여)이 “자 모두 보시죠.,” “새 발명품 드론이야”라고 말하며 당당한 모습으로 발명품을 소개하였다. 여성을 파이어로보 슈트를 개발한 능력 있는 과학자로 나타냈으며, 위기의 순간에 전문성과 리더십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모습을 통해 여성의 주체성이 돋보였다.

(2) 현실반영성

〈에슬론 뚝뚝3〉(JT비즈니스TV, 4월 6일)에서는 샌드위치 트럭을 몰며 주인공 차노올과 생활하는 아빠 차차웅의 모습이 그려졌다. 스텐디스인 엄마는 해외에 있어 아빠와 주인공이 함께 요리를 해먹고 생활하는 모습을 통해 가사노동이 여성만의 역할을 아님을 보



〈에슬론 뚝뚝3〉(JT비즈니스TV, 4월 6일)

여주고 있다. 또한 가족이 처한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균형적이고 현실적인 가족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3) 다양성



〈꼬마버스 타요〉(EBS, 4월 3일)

〈꼬마버스 타요〉(EBS, 4월 3일)에서는 남성의 직업으로 고착화되었던 정비사를 여성 캐릭터인 하나가 수행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성별에 따른 직업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여성 또한 특정 역할이 아닌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리틀 프린세스 소피아〉(디즈니 주니어, 4월 4일)

〈리틀 프린세스 소피아〉(디즈니 주니어, 4월 4일)에서는 아빠와 딸들이 함께 다양한 경험과 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장면이 방영되었다. 주말에 아빠와 딸이 함께 마법 동물원으로 소풍을 가거나 함께 공놀이를 했다. 공동육아의 바람직한 단면을 보여주었으며 즐거워하는 딸의 모습을 통해 남성 또한 양육에 능할 수 있다는 면모가 드러났다.

(4) 대안성



〈호기심 나라 오키도〉(EBS, 4월 3일)

〈호기심 나라 오키도〉(EBS, 4월 3일)에서는 물건 고치는 능력이 뛰어난 삼각형 모양의 기술자 잼이 로봇 수리를 주도하는 내용이 방송되었다. 기술자 잼은 여성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으나 외적인 부분을 통해 성별을 구분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 성별 이분법에서 벗어난 진정한 성평등의 의미를 갖추고 있는 캐릭터다.

2) 성차별적 내용

(1)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캐릭터)

〈엄마까투리〉(EBS, 4월 3일)의 등장인물 중 여성캐릭터인 두리는 몸은 분홍색으로 표현하고 머리엔 꽃핀을 꽂았다. 반면에 남성 캐릭터인 세찌는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성격으로 표현되며, 몸의 색을 파란색으로 나타냈다. 여성은 분홍색, 남성은 파란색으로 성별에 따라 캐릭터의 외모

를 대비시키고 있다.



〈엄마까투리〉(EBS, 4월 3일)

(2)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장면)



〈정글에서 살아남기-마루의 어드벤처〉(EBS, 4월 3일)

〈정글에서 살아남기-마루의 어드벤처〉(EBS, 4월 3일)에서는 남성 캐릭터인 마루와 카이가 여성 캐릭터인 아라를 구하는 모습이 방영되었다. 마루와 카이는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는 손목팔찌를 착용하고 시종 일관 용감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여성인 아라는 손목 팔찌도 없이 악당에게 너무나 쉽게 유인되어가는 나약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이는 수동적이고 보호받는 대상은 향

상 여성이며 남성은 이러한 여성을 구하는 영웅의 역할을 맡도록 해 여성을 언제나 약자로 규정짓는 데에 일조한다.

(3) 여성의 주체성 무시/ 남성 의존성향 강조

〈모피와 친구들〉(EBS, 4월 4일) [폭풍우 치는 밤]편에서는 여성 캐릭터 모피가 숲속의 아기 동물들이 무섭고, 춥고, 배고프지 않을지 걱정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에 남성 캐릭터 케리가 숲에 가서 확인해 보자고 제안하여 함께 아기 동물들이 괜찮은지 돌아 보았다. 여성 캐릭터는 걱정만 할 뿐 집 안에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다가, 남성 캐릭터가 해결방안을 제시하자 함께 행동했다. 남성이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제시해 준 후에야 여성이 행동하는 모습은 남성 의존적인 여성의 모습을 강조하는 것이다.



〈경찰소방대 파이어로보〉(EBS, 4월 3일)

〈경찰소방대 파이어로보〉(EBS, 4월 3일)에서는 비행기가 조류에 의해 재난에 빠지는 상황이 방영되었다. 그때 국제 소방관인 태오의 형이 위험에 떨고 있는 승객들에게 “국제 소방관입니다. 안심하십시오.”라고 승객들을 안심시켰다. 위기의 순간, 여승무원에게는 아무런 역할도 주어지지 않았으며, 흔들리는 기내에서 주춤거리는 여승무원의 허리를 잡

아체는 장면 등 오히려 남성에게 자연스럽게 의존하는 상황으로 그려졌다.



〈미라큘러스: 레이디버그와 블랙캣〉(디즈니채널, 4월 6일)

〈미라큘러스: 레이디버그와 블랙캣〉(디즈니채널, 4월 6일) [사생팬의 집착]편에서는 여성 캐릭터 클로이가 미지의 디지털 세상에 갇힌 상태에서도 사랑하는 남성과 단 둘이 있게 되었다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다. 클로이가 좋아하는 아드리앙에게 매달리고, 안기는 등의 모습을 수 차례 보여줌으로써 여성은 남성의 사랑을 갈구하는 존재라는 인식을 전달하였다. 또한 좋아하는 아드리앙(남)

이 안 보이자 마리네뜨(여)가 “아~ 아드리앙도 없이 나 혼자 뭐 하지~힝”하며 실망했다. 당장 수행해야 할 임무마저 잊고, 좋아하는 남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혼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남성 의존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4) 외모지상주의 조장



〈코코몽3〉(디즈니 주니어, 4월 5일)

〈코코몽3〉(디즈니 주니어, 4월 5일)에서는 여성 캐릭터 아로미가 “어제보다 몸무게가 0.333kg이나 찼어”라며 심각하게 고민하는 모습이 방송되었다. 이는 외모지상주의적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는 장면이며 여성은 항상 낮은 몸무게를 유지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것이다. 또한, 현실상황에서는 심각하지 않은 내용을 프로그램 안에서 문제적 상황으로 과장되게 그려 더욱 문제가 있다.



〈다이노코어〉(JTBC, 4월 7일)

〈다이노코어〉(JTBC, 4월 7일)에서는 여성캐릭터 에밀리가 거울을 보며 “어디 놀러갈래? 렉스”라며 흐뭇해지는 사이 갑자기 나타난 친구 존(남)에게 “오늘따라 왜 이렇게 못생겼대?”라고 말하였다. “밤새서 그런가?”라고 말하는 존에게 다시 “그러니까 얼굴이 그 모양이지. 렉스는 나랑 놀 거거든”이라며 존을 무시하고 놀리는 장면을 통해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였다.

(5) 여성의 성적대상화

〈소피루비〉(EBS, 4월 2일)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해 주인공 루비가 경호원, 목수 등의 다양한

직업인으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체가 최대한 부각될 수 있는 자세를 반복적으로 취하였다.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여성의 몸매를 감상하도록 하는 장면은 보는 이로 하여금 여성의 신체를 전시품으로 인식하도록 할 수 있다.



〈소피루비〉(EBS, 4월 2일)



〈텔레몬스터〉(MBC, 4월 2일)

〈텔레몬스터〉(MBC, 4월 2일)에서는 주제가 가사에 “새침새침 미끈미끈 흘리는~, 카리스마 눈빛눈빛 흘리는~, 핑크빛 몸을 빚고~” 등 여성의 성적 이미지를 강조한다. 이러한 모습은 성적 도구로서의 여성으로 기능하는 데에 일조한다.

(6) 선정성



〈미라큘러스: 레이디버그와 블랙캣〉(EBS, 4월 6일)

〈미라큘러스: 레이디버그와 블랙캣〉(EBS, 4월 6일)에서는 여성 캐릭터인 마리네뜨가 레이디버그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그녀의 허리와 엉덩이를 지나치게 클로즈업하여 내용 흐름과는 무관한 선정적 느낌을 전달하고 있다.

IV. 나가며

모니터링 기간 동안 방송된 79개의 어린이 프로그램(143편)에서는 등장인물의 외모와 성격으로 인해 어린이들의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시킬 요소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어린이 프로그램에서는 등장인물이 매 회마다 같은 의상을 입고 나온다는 점에서, 성별의 차이를 부각시키는 등장인물의 외모와 의상은 어린이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여성과

남성 주인공의 비율이 여성 37.3%, 남성 52.5%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프로그램 내에서의 갈등 유발 인물과 갈등 해결 인물 또한 여성보다 남성이 더 큰 비중을 맡고 있었다.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어린이에게 무비판적으로 수용되고 학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성평등에 입각한 대안적 묘사를 시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어린이 프로그램에서는 성별 이분법에서 탈피해 진정한 성평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캐릭터도 만나볼 수 있었다. 〈이상한 나라의 오드봇〉의 다른 프로그램들과 달리 캐릭터 외모로는 성별을 구별할 수 없었으며, 〈호기심 나라 오키도〉의 ‘짐’, ‘잼’과 같이 사물을 의인화했으나 사물을 여성/남성으로 나누지 않고 사물 그 자체에 대해 인격을 부여해 캐릭터로 표현한 프로그램들이 다수 있었다. 또한 〈레인보우 루비〉의 ‘루비’, 〈엉뚱발랄 공순이와 친구들〉에서 ‘공순이’와 같이, 어린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밝히고 문제 해결 능력을 지닌 주체적인 여성이 주인공 역할을 하는 사례도 많이 볼 수 있었다.

2012년 진행되었던 어린이 프로그램 양성평등 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서는 캐릭터의 색깔에서 나타나는 성별 고정관념, 성역할 고정화, 외모지상주의 강화 표현, 성차별적 언어표현 등을 성차별적 내용으로 꼽았다. 그러나 5년이 지난 현재에도 어린이 프로그램에서는 동일한 문제들이 여전히 보여진다. 특히, 올해에는 남녀의 신체표현에 있어서의 과장성, 캐릭터의 외모와 색상에 대한 고정성, 여성의 신체를 선정적으로 부각시키는 시각성이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여성의 굴곡지고 날씬한 몸을 강조하기 위해 여성 캐릭터를 ‘개미허리’와 풍만한 가슴으로 과장되게 표현한 프로그램이 있는가 하면, 남성 캐릭터의 경우 굵은 팔뚝과 넓은 어깨를 가진 신체로 그려 기존의 고착화된 남성적인 이미지가 반영되어 있었다. 한편 캐릭터의 성별을 색상에 따라 구분함으로써 성별을 구분하는 경향 또한 두드러졌다. 여성은 핑크색, 남성은 파랑색 등 성별에 따라 색상을 구분하고 여성캐릭터에게는 치마를 입혀 성별 이분법을 강화하였다. 또한 〈소피루비〉, 〈미라클러스: 레이디버그와 블랙캣〉과 같이 여성의 가슴, 다리, 엉덩이에 집중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장면을 그려내기도 했다.

어린이 프로그램에서는 성평등적 내용도 찾을 수 있었지만, 많은 프로그램들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외모지상주의를 강화·재생산하는 장면이나 대사가 방영되었다. 이미 성관념이 형성된 성인에 비해 유아와 아동의 경우 대중매체를 통해 받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특히 유아의 경우 문화콘텐츠에 심어진 성 고정관념을 비판 없이 수용하여 이분법적인 성역할을 습득할 가능성이 있다. 즉, 유아·아동기에 미디어를 통해 고정화되고 부정적인 성역할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때 양성평등 가치관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¹⁰⁾ 따라서 부모, 교사 등의 보호자는 양성평등 의식을 가지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어린이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며, 어린이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방영하는 제작진은 어린이 프로그램이 가지는 막대한 영향력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성 인지적 관점에서 평등한 관계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기를 기대한다.

10) 『유·아·동·용 문화콘텐츠에 대한 양성평등 제작 및 교육 안내서』(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발행, 2014)

V. 모니터링 내용

1. 성평등적 내용¹¹⁾

(1) 주체성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EBS	똥똥맨	4월 5일 (11회)	 <p>여성 캐릭터인 하니는 문제가 생기면 일단 해결하려 노력하고 다양한 지식과 상식으로 똥똥맨을 도움. 매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적극적인 인물로 설정해 주체적인 여성 이미지를 보여줌.</p>
EBS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4월 3일 (11화)	 <p>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새 드론을 발명한 마리 팀장(여)이 “자 모두 보시죠.”, “새 발명품 드론이야”라고 말하며 발명품을 소개하는 당당한 모습이 돋보임. 파이어 로보 슈트를 개발한 능력 있는 인물로 그려지며 위기의 순간에 적절한 정보와 리더십을 보임.</p>
EBS	레인보우 루비	4월 7일 (6회)	<p>숲속 보안관으로 변신한 주인공 루비(여)의 자신감 넘치고 적극적인 모습을 통해 여성 또한 리더십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p>

11) ① 주체성 : 여성을 주체로서 다루고 있는가? 여성의 시각에서 문제를 보고 있는가?

② 현실반영성 : 성불평등적인 젠더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성이 처한 문제와 상황을 잘 파악하여 남녀 불균형적인 현실을 적절히 묘사하고 있고, 성평등을 위한 문제 해결방식이 과장되거나 희화화되지 않는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또한 이 문제가 많은 여성의 상황을 대변하는가?

③ 다양성 :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다양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가?

④ 대안성 : 대안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EBS	레인보우 루비	4월 7일 (6회)	 <p>링링시장이 “우리 친구들이 오늘 캠핑을 엄청 기대하고 있었는데 글썄 이제 와서 그걸 못 가게 돼버렸어.”라고 말하자 루비가 “레인보우 안전을 위해서 누가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건지 숲속 보안관인 루비가 반드시 찾아내겠어”라며 자신감을 보여줌. 주인공 루비(여)가 보안관으로 변신하여 두려움 없는 용감한 도전 정신으로 합리적인 문제 해결능력을 보여줌.</p>
EBS	소피루비	4월 2일 (31회)	 <p>13세 여학생 루비를 중심으로 전개가 진행되며, 마법에 걸린 꼬마왕자는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함. 루비를 통해 주체적인 여성의 시각과 행동을 비교적 잘 보여주고 있음.</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디즈니 주니어	엉뚱발랄 콩순이와 친구들	4월 4일 (2회)	 <p>주인공을 여성 캐릭터로 설정하고, 주인공인 콩순이가 적극적이고 활동적으로 나옴. 여성을 주체적으로 표현함.</p>
디즈니 채널	아발로 왕국의 엘레나	4월 4일 (7회)	 <p>엘레나(여)는 아발로 왕국과 코르드바 왕국 사이의 다리 놓는 사업을 위해 코르드바 왕국을 방문함. 코르드바 왕국의 할론소 왕자는 일은 나중에 하고 자신과 놀자고 유혹을 함. 그러나 엘레나는 이를 거절하고 일을 먼저 하기로 함. 자신이 무엇을 할지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성을 보임.</p>
디즈니 채널	아발로 왕국의 엘레나	4월 4일 (7회)	 <p>아발로 왕국과 코르드바 왕국 사이의 다리 공사 작업 중 부엉이집이 파괴됨. 이에 부엉이집 수호자였던 전설의 나무거인이 깨어나 사람들을 공격함. 엘레나는 부엉이집을 파괴했기 때문에 나무거인이 화가 난 것을 알고, 부엉이집을 만들어 나무거인에게 보여 주며, 더 많은 부엉이집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함. 이에 나무거인은 자</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신의 자리로 돌아감. 여성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체성을 보여줌.
디즈니 채널	미라큘러스: 레이디버그와 블랙캣 [게임 챔피언]	4월 6일 (21회)	 <p>호크모스가 보낸 검은 나비의 조종을 받아 도시를 파괴하는 게이머의 로봇을 레이디버그(여)와 블랙캣(남)이 힘을 합쳐 적을 무찌르는 모습이 그려짐. 적을 상대할 로봇 조종석에 앉은 블랙캣이 “난 조종, 넌 사격!”이라며 마음대로 역할을 지정하자 레이디버그가 “왜 네가 조종을 하는데?”라며 반박함. 이어 블랙캣의 서툰 조종으로 로봇이 넘어지고 위기를 맞자, 블랙캣은 로봇 조종을 레이디버그에게 넘기고 레이디버그는 다양한 전략과 실력으로 결국 적을 무찌르는데 성공함. 여성이 남성의 명령을 무조건 따르며, 보조적인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실력과 전략으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점을 잘 보여줌.</p>

2) 현실반영성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EBS	오드봇, 이상한 아이들	4월 7일 (6회)	<p>각각의 캐릭터가 성별과 관계없이 7명 모두 다양하고 독특한 성향을 보여줌. 여성은 암전한 모습으로, 남성은 씩씩한 모습으로 구분짓던 기존의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개인의 다양한 성격을 있는 그대로 보여줌.</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JTBC재능 TV	에슬론 또봇3	4월 6일 (1,2회)	 <p>스튜어디스인 엄마는 외국에 있고 샌드위치 트럭을 몰며 주인공 노을이와 생활하는 아빠 차치웅은 아들과 함께 가위, 바위, 보 놀이를 하며 노을이와 번갈아가며 음식을 해먹고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줌. 가사노동이 여성의 역할이 아님을 보여주며 균형적이고 현실적인 가족의 모습을 제시해 줌.</p>

(3) 다양성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KBS1	타오르지마 버스터	4월 1일 (10회)	 <p>스나이퍼는 여자임에도 다른 동료들보다 사격을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사격은 남자들이 더 우세하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있음.</p>
KBS2	누가누가 잘하나	4월 6일 (576회)	 <p>나무를 심자 윤석중 적야/유병우 작곡 노래 KBS어린이합창단</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동요 경연대회에 참가한 여학생들이 모두 치마만 입은 것과는 대조적으로 특별공연을 진행한 KBS어린이 합창단은 전부 여학생이지만 치마, 반바지, 긴바지 등을 입음으로써 천편일률적인 여학생의 의상을 다양하게 표현함.
MBC	드림주니어	4월 7일 (60회)	진행자인 형찬(남)과 선우(여)가 성별을 떠나서 소방관, 경찰관 등 다양한 직업을 함께 체험하는 장면이 청소년들에게 양성평등 의미와 가치를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며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탈피한 모습을 그려냄.
EBS	소녀탐정 사건파일	4월 5일 (10회)	기존에 만화 코난이나 김전일과 같은 남성 캐릭터들이 탐정 역할을 맡아 남성만의 직업처럼 여겨졌는데 여성 또한 탐정이 될 수 있다는 다양성이 나타나 있음.
EBS	소피루비 [꼬마 목수가 된 아띠]	4월 2일 (31회)	목수가 되고 싶은 여성 캐릭터 아띠가 목가구 제작에는 서툰 모습을 보이지만, 그림을 그리거나 채색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을 발견하고, 목수의 가구 채색을 돕게 되는 내용이 그려짐. 그와 동시에, 아띠는 향후 직접 목가구를 제작하기 위하여 서툴었던 공구 사용법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줌. 여성이 잘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모두를 위해 주체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 점이 바람직함.
EBS	소피루비 [꼬마 목수가 된 아띠]	4월 2일 (31회)	 <p>학생들에게 목공일을 가르치는 목수 캐릭터를 나이와 지긋한 여성으로 그려 여성의 역할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음.</p>
EBS	소피루비 [왕자님을 지켜라]	4월 2일 (31회)	 <p>왕자님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 캐릭터를 젊은 여성으로 그려, 여성의 다양한 역할을 보여줌.</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EBS	레전드 히어로 삼국전	4월 5일 (11회)	 <p>여성 캐릭터 공손찬은 레전드히어로 조은(하늘색)으로 변신해 주인공 유비가 위험한 순간에 구해주는 등 출중한 무술 실력을 가지고 있음. 성격 또한 당차고 똑똑하게 표현해 여성의 수동적인 이미지에서 탈피함.</p>
EBS	꼬마버스 타요	4월 3일 (11회)	 <p>여성 캐릭터인 하나는 남성의 직업으로 고착화되어 있는 정비사를 하고 있음. 성별에 따른 직업 고정관념을 벗어난 다양한 면모를 보여줌.</p>
EBS	호기심 나라 오키도 [기계가 잘 작동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4월 3일 (51회)	 <p>로봇 도시의 모든 기계와 로봇을 돌보는 '로봇 수리공'을 여성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음. 주인공들이 고치고자 하는 로봇을 수리할 수 있는 방법과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을 깨고 다양한 여성의 역할을 보여줌.</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디즈니 주니어	리틀 프린세스 소피아 [아빠와 딸의 날]	4월 4일 (60회)	 <p>아빠와 딸들이 함께 다양한 경험과 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장면이 방영됨. 주말에 아빠와 딸이 함께 마법 동물원으로 소풍을 가거나 함께 공놀이를 함. 공동육아의 바람직한 단면을 보여주며 즐거워하는 딸의 모습을 통해 남성 또한 양육에 능할 수 있다는 면모를 보여줌.</p>
디즈니 채널	미라큘러스: 레이디버그 와 블랙캣 [게임 챔피언]	4월 6일 (21회)	 <p>집에 방문한 딸의 친구를 위해 아빠가 간식을 챙겨주는 모습을 보여주어, 다양한 성 역할을 제시함.</p>
디즈니 채널	미라큘러스: 레이디버그 와 블랙캣 [사생팬의 집착]	4월 7일 (22회)	<p>레이디 버그는 벽을 타거나, 하늘을 날고, 뛰어내리는 등의 적극적인 동작으로 적의 공격을 날쌔게 피하거나, 위기에서도 기지를 발휘하여 적을 물리침. 이를 통해 여성도 시민과 사회를 구하는 영웅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줌.</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p>유명한 Rock 가수의 매니저이자 경호원을 여성으로 그림. 그녀가 Rock 가수를 위협하는 사생팬인 남성을 힘으로 제압하고 신변 보호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음.</p>

(4) 대안성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MBC	내 친구 마카다	4월 3일 (15회)	 <p>주요 캐릭터들의 외양이나 색상에 성적 고정관념이 반영되지 않아 있음.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분법적 시각 자체가 반영되어있지 않은 캐릭터 설정임.</p>
EBS	호기심 나라 오키도 [기계가 잘 작동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4월 3일 (51회)	 <p>물건 고치는 능력이 뛰어난 삼각형 모양의 기술자 잼이 로봇 수리를 주도하는데, 여성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음.</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외적인 부분을 통해 성별을 구분할 수 없도록 캐릭터를 그려내며 다양한 목소리톤을 캐릭터에 입혀 성별 이분법에서 벗어나 진정한 성평등의 의미를 갖추고 있음.

2. 성차별적 내용

(1)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캐릭터)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KBS1	헬로 카봇5	4월 1일 (5회)	 <p>차탄 아빠가 “서장님 화내시면 괴물처럼 변하신다”라고 놀리듯이 말하자 경찰서장의 일그러진 표정과 그 뒤에서 웃고 있는 부하 경찰들의 모습이 여성 상사를 무시하는 것으로 묘사됨.</p>
KBS1	헬로 카봇5	4월 1일 (5회)	 <p>여성인 경찰서장의 캐릭터가 부하 경찰들에게 매번 소리 지르고 화만 버럭 내며 혼내는 인물로 설정되어 리더로서의 여성은 업무 처리 능력과 자질이 부족하다는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강화시킴. 또한 경찰서장임에도 불구하고 허리와 가슴을 강조한 타이트한 복장과 치마를 입고 있음. 여성은 언제나 마르고 굴곡 있어야 하며 관리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투영되어 있음.</p>
KBS2	지동공부 책상위키	4월 3일 (206회)	남성 캐릭터인 지키리우스 백작은 까부리아 공주를 호위하는 역할임. 지키리우스 백작은 남성을 상징하는 파랑과

			<p>하늘색으로 대표성을 띠고 있고 지키리우스 백작으로부터 보호받는 까부리아 공주는 빨간 리본에 빨간 신발, 장갑, 분홍 치마 등 색상에 따른 성별 고정관념의 전형성을 보여줌.</p> 
	후토스- 잃어버린 숲	4월 7일 (42회)	 <p>여자 무당벌레 캐릭터인 조아는 온 몸이 핑크색상이고, 두 손을 얼굴에 받치는 모습을 하고 있음. 여성은 핑크색 옷을 입는 것이 당연하고, 예쁘게 보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할 우려가 있음.</p>
EBS	부릉부릉 브루미즈	4월 6일 (20회)	 <p>여성 캐릭터인 페라(좌)와 루시(우)의 몸 색상은 핑크색으로 표현되고 남성 캐릭터들은 파랑, 회색 등의 중 색상으로 표현하고 있음.</p>
EBS	매직 아이스크림 트럭	4월 4일 (12회)	

			<p>페퍼(여)는 “I love dolls”라고 노래하고, 거울을 보고 긴 머리를 빗질하기 좋아함. 여자 아이는 인형을 좋아하고 외모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왜곡된 의식이 반영됨.</p>
EBS	엄마 까투리	4월 3일 (11회)	<div style="text-align: center;">  <p>두리 당당한 감쪽이 둘째 남매 중 가장 목소리 나는 두리에요. 리더십이 강한 친구랍니다. 꽃을 참 좋아해서 항상 머리에 장식해요.</p> <p>세찌 개구쟁이 셋째 장난기와 흥이 넘치는 세찌예요. 산만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순수한, 분위기 메이커랍니다.</p> </div> <p>둘째인 두리는 리더십이 강하다고 소개되고 있지만 딸이라는 이유로 몸은 분홍색으로 표현하고 머리엔 꽃핀을 꽂음.</p> <p>남성 캐릭터인 세찌는 적극적이고 활동적임. 그러한 리더십이 강한 두리가 핑크색으로 표현된 것과는 달리 세찌는 파란색으로 표현됨.</p>
EBS	호기심 나라 오키도	4월 3일 (51회)	 <p>누나인 조이는 붉은 계열 모자, 머리, 시계, 의상으로, 남동생 펠릭스는 푸른 계열의 모자, 머리, 가방, 의상으로 각각 표현하여 각 성별을 대표하는 색상에 관한 고정관념을 강화함.</p>

EBS	<p>봉구야 말해줘2 [노란띠 따라가는 날]</p>	<p>4월 7일 (31회)</p>	 <p>남성 캐릭터인 봉구는 남성적인 목소리를 내며 고릴라모형의 하늘색 봉제완구를 사용함. 반면 여성 캐릭터인 바바는 핑크색 코끼리 봉제완구를 사용하고 있음. 남성은 하늘색, 여성은 핑크색이라는 색상에 따른 성별 고정관념을 심어주고 있음.</p>
디즈니 채널	<p>미라 쿨러스: 레이디 버그와 블랙캣</p>	<p>4월 6일 (21회)</p>	 <p>주인공인 마리네뜨와 아드리앙은 다른 친구들에 비하여 멋진 외모로 표현되며,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다양한 인종 중 백인으로 표현됨. 이는 멋진 외모를 지닌 백인남성이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성 차별적이지 않다는 인종 차별적인 인식을 공고히 할 수 있음.</p>
투니버스	<p>안녕 자두야</p>	<p>4월 3일 (5회)</p>	<p>엄마는 붉은 계열의 옷차림에 앞치마를 하고 있음. 여성은 주로 붉은 계열의 옷을 입고, 가사노동을 한다는 것을 이미지화함. 또한 캐릭터 설명에서는 “신학대학을 나온 인텔리 신여성”이지만, 가족을 위해 “짚순이, 돈 냄새를</p>

			 <p>제일로 좋아” 하는 것으로 소개함. 여성은 결혼을 하면 사회생활보다는 가사노동에 전념해야 한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심어줄 우려가 있음. 엄마와는 달리 아빠는 정장 차림을 하고 있음. 경제적 영역은 남성의 역할이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되어 있음.</p> <p>옷과 장식이 모두 분홍색임. ‘여성은 분홍색’이라는 성별 고정관념을 심어줄 우려가 있음. 또한 “새침떼기 공주님, 미모에 집착” 등으로 소개함. 여성은 공주님이 되고 싶어 하고 예뻐지고 싶어 한다고 표현함으로써, 성역할 고정관념을 심어줄 우려가 있음.</p>  
--	--	--	--

(2)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장면)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EBS	부릉부릉 브루미즈	4월 6일 (20회)	페라(여)는 늘 음식을 준비하고, 스피더(남)가 페라의 음식을 칭찬하면 페라는 고맙다고 하는 상황을 보여줌. 남성 캐릭터들은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하거나 위험에 빠진 친구를 구하는 등의 능동적인 역할 수행을 하는 반면, 여성캐릭터들은 도움을 요청하거나 음식을 준비하는 등의 전형적인 여성성을 강조하여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할 소지가 다분함.
EBS	레인보우 루비	4월 7일 (6회)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p>엄마는 오븐에서 빵을 꺼내는 장면을 여러 각도로 보여주며 루비가 “아! 맛있겠다”라고 말함. 이어서 아빠가 문을 열고 들어와 “다녀왔어요”라고 인사하는 장면에서 가족 중에서 엄마는 집에서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사람, 아빠는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함.</p>
EBS	Why-최고다! 호기심 딱지	4월 5일 (37회)	 <p>주인공 호빵이(오른쪽)에게 의료 정보를 알려주는 원간호사(중간)는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핑크색 원피스를 입고 볼터치를 하는 등 여성성을 강조함. 간호사는 여성의 직업이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함.</p>
EBS	너티너츠	4월 4일 (6회)	 <p>여성 캐릭터인 레이디케이가 이번 달 우수 경찰임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잡는 과정에서 범인인 미남(남)이가 레이디케이를 향해 사랑의 하트를 날리자, 레이디케이가 범</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p>인인 미남이에게 (사랑에)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맘. 이 사이 신입탐정 켄(남)과 켄의 친구 프레드(남)가 미남이를 잡음. 아무리 뛰어난 실력이 있어도 여성은 남성의 사랑에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결국 문제해결은 남성이 하는 것으로 그려내어 남성과 여성의 가치관 및 실력에 대해 잘못된 고정관념을 심어줌.</p>
EBS	엄마 까투리	4월 3일 (11회)	 <p>4남매를 기르는 엄마 까투리와 4남매에 대한 이야기임. 그러나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 엄마의 역할만 부각되는 내용으로 그려짐. 공동 육아를 필요로 하는 현 시대상과 어긋나며 여성에게만 양육과 돌봄의 책임을 가중시킴.</p>
EBS	정글에서 살아남가- 마루의 어드벤처	4월 3일 (31회)	 <p>남성 캐릭터인 마루와 카이는 엄청난 괴력을 발휘하는 손목팔찌를 착용하고 시종일관 용감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여성 캐릭터인 아라는 손목 팔찌도 없이 악당에게 너</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p>무나 쉽게 유인되어가는 나약한 모습으로 그려짐. 여성을 수동적이고 보호받는 대상으로 표현하고 남성은 이러한 여성을 구하는 영웅의 역할을 맡음.</p>
EBS	<p>미라클러스레 이디버그와 블랙켓 (게임챔피언)</p>	<p>4월 6일 (21회)</p>	 <p>남성의 역삼각형 상체를 강조하거나, 남성을 여성에 비하여 비현실적일만큼 큰 체구로 표현하고 있음. 여성은 상대적으로 날씬하거나 왜소하게 표현하여, 성별에 따른 이상적 외모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함.</p>
EBS	<p>미라클러스레 이디버그와 블랙켓 (게임챔피언)</p>	<p>4월 6일 (21회)</p>	 <p>주인공 마리네뜨가 주로 사용하는 소품, 의상, 방 배경 등을 주로 핑크톤으로 표현하여, 분홍색이 여성을 대표하고 대부분의 여성이 좋아하는 색상이라는 인상을 줌.</p>
디즈니 주니어	<p>영똥발랄 콩순이와 친구들</p>	<p>4월 4일 (2회)</p>	<p>콩순이와 콩콩이 자매 육아를 담당하는 것은 엄마의 역할로만 나눔. 여성만 육아를 담당해야 한다는 잘못된 성 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함.</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J티 재능 TV	다이노코어	4월 7일 (1회)	 <p>피자 배달을 나갔던 렉스가 악당 다크노를 이기고 영웅이 되어 “안녕~ 내가 바로 세상을 구하는 영웅 다이노마스터”, “다이노마스터 렉스 등장!”이라고 외치며 화려하게 등장함. “모두가 인정받는 영웅이 된 거다!”라며 모두들 환호함. 여성캐릭터인 에밀리는 “모두들 비켜요! 다이노마스터 렉스의 기념사진을 찍어야 한다구요.”라고 말하며 사진을 찍는 역할을 맡음. 렉스는 “에밀리 다이노마스터, 사진 잘 찍어줘”, “본격적으로 찍어볼까.”라며 다양한 포즈를 취하며 수차례 사진을 찍는 장면 등에서 영웅은 남성의 몫이고 여성은 남성을 위한 보조자 역할로 고정화됨.</p>
J티 재능 TV	다이노코어	4월 7일 (3회)	<p>피자 배달을 가는 렉스(남)에게 에밀리(여)는 “렉스! 나랑 같이 우주선 구경갈래?”라고 묻자 렉스는 다음을 기억하며 더 강한 다이노마스터가 되기 위해 떠남. 에밀리는</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p>“여기서 기다릴게”라며 수동적인 모습을 보임. 렉스가 “응, 훈련 끝나고 만나”라며 손을 흔들며 출발하는 장면에 뒤이어 에밀리는 거울을 보며 “렉스 어디 놀러갈래?”라며 흐뭇해 하는 표정을 짓는 장면 등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남성 렉스와 그러한 영웅 렉스를 기다리는 여성은 수동적이고 주체성이 결여된 역할로 그려져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함.</p> 
J티 재능 TV	에슬론 또봇 3	4월 6일 (1, 2회)	<p>에슬론 3기 제1-1화 [ATHLON S3 Ep.1-1]</p>  <p>유령이 나온다는 장소에 오푸른(여), 차노을(남), 한결(남)가 다가감. 이때 오푸른과 한결이가 “괴물이다”하고 무서워하자 차노을은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지” 하며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감. 그때 오푸른은 겁을 먹고 도망치는 반면 주인공 차노을은 “난 능력자니까”라며 강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어 일을 해결함. 남성은 용기 있고 문제해</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걸에 능하고 여성은 수동적이며 겁이 많다는 전형적인 성별 고정관념이 반영되어 있음.
JET 재능 TV	파워캐치 완다	4월6일 (33회, 34회)	 <p>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인물은 남성 캐릭터인 신유빈이며 그에게 도움을 주는 인물 또한 남성 캐릭터 주만호임. 남성만이 문제를 해결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생각을 아동들이 갖게 할 수 있음.</p>

(3) 여성의 주체성 무시/ 남성 의존성향 강조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KBS2	책상나무 위키2	4월 4일 (207회)	 <p>지키리우스 백작(남)은 까부리아 공주(여)를 지키는 호위 무사임. 노래하는 장면에서 까부리아 공주는 “예뻐, 예뻐, 예뻐”라고 부르고 지키리우스는 “이 몸이 공주님을 지키리”라고 부름. 여성을 보호받는 존재로 그려내고 그에 반해 남성은 여성을 지키는 주도적이고 강한 존재로 그려져 남성에게 의존적인 여성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음.</p>
EBS	모피와 친구들 시즌2 [폭풍우 치는 밤]	4월 4일 (24회)	<p>여성 캐릭터 모피가 숲속의 아기 동물들이 무섭고, 춥고, 배고프지 않을지 걱정하는 모습이 그려짐. 이에 남성 캐릭터 케리가 숲에 가서 확인해 보자고 제안하여 함께 아기 동물들이 괜찮은지 돌아 봄. 여성 캐릭터는 걱정만 할 뿐 집 안에서 아무 행동도 하지 않다가, 남성 캐릭터가 해결방안을 제시하자, 함께 행동함. 이를 통해 여성은</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p>남성이 방향을 제시해 준 후에야 행동할 수 있다는 등의 남성 의존성향을 강조하고 있으며, 여성의 주체적 성향을 무시함.</p>
EBS	소피루비 [왕자님을 지켜라]	4월 2일 (31회)	 <p>가짜 왕자 역할을 하고 있는 남성 호크아이를 학생들이 둘러싼 채 서로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는 장면이 그려짐. 이를 통해 여성들은 지위 높은 남성의 마음을 얻기 위해 경쟁하고, 애쓰는 존재라는 인식을 갖도록 조장함.</p>
EBS	경찰소방대 파이어로보	4월 3일 (11회)	 <p>국제 소방관인 태오의 형이 탑승한 비행기에서 비행기 조류로 인해 재난에 빠짐. 태오의 형은 위험에 떨고 있는 승객들에게 “국제 소방관입니다. 안심하십시오.”라고 승객들을 안심시킴.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여승무원의 역할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남성에게 자연스럽게 의존하는 상황으로 귀결됨.</p>
EBS	미라큘러스: 레이디버그와 블랙캣 [사생팬의 집착]	4월 6일 (22회)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여성 캐릭터 클로이가 미지의 디지털 세상에 갇힌 상태에서도 사랑하는 남성과 단 둘이 있게 되었다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임. 클로이가 좋아하는 아드리앙에게 매달리고, 안기는 등의 모습을 수차례 보여줌으로써 여성은 남성의 사랑을 갈구하는 존재라는 인식을 전달함. 또한 좋아하는 아드리앙(남)이 안 보이자 마리네뜨(여)가 “아~ 아드리앙도 없이 나 혼자 뭐 하지~헿”하며 실망함. 당장 수행해야 할 임무마저 잊고, 좋아하는 남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혼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의존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4) 외모지상주의 조장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KBS2	누가 누가 잘하나	4월 6일 (576회)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 중 ‘평동중창단’은 참가 이유를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평소 누가 더 텔레비전에 예쁘게 나오지에 대해 내기를 했다고 답함. 또한 실물보다 얼굴이 크게 나와 속상하다고 말함으로써 동요 경연대회의 본질과는 무관한 외모에 집착하는 모습을 여과없이 방송함.
MBC	텔레몬스터	4월 2일 (40회)	 <p>주제가가 나올 때 방영되는 장면들 속에 여성 캐릭터인 여시는 공주 옷을 입고, 마릴린 먼로 흉내를 내고, 치어리딩 하거나 치마를 입고 시구하는 모습 등을 보이고 있음. 화장을 하거나 치마를 입어야 하는 등의 항상 예쁜 외모를 강요하는 외모지상주의를 반영하고 있음.</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EBS	소피루비	4월 2일 (31회)	 <p>등장인물들이 13세의 학생인데도 모두 짧은 치마에 몸매가 부각되는 의상을 입고 있으며, 날씬한 몸매에 긴 다리를 갖고 있음. 이는 이상적인 여성의 몸매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함.</p>
EBS	너티너츠	4월 4일 (6회)	 <p>이번 달 우수 경찰인 레이디케이(여)가 소개팅을 하는데, 프레드(남)가 소개팅에 나가고 싶어 함. 그러자 프레드의 친구들이 프레드가 레이디케이보다 키가 작아서 소개팅에 나가면 안 된다고 말함. 결국 프레드는 친구의 도움으로 키를 크게 위장해 소개팅에 나감. 남성은 여성보다 신체적으로 커야 한다는 것을 은연중에 이야기함.</p>
디즈니 주니어	코코몽3	4월 6일 (30회)	 <p>아로미가 “어제보다 몸무게가 0.333kg이나 찌어” 라며 심각하게 고민하는 모습이 나옴. 외모에 대한 지나친 관심은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길 가능성이 매우 상당함. 또</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한 현실 상황에서는 심각하지 않은 내용을 과장되게 그려내 더욱 문제가 있음.
JTV 재능 TV	다이노코어	4월 7일 (3회)	 <p>에밀리가 거울을 보며 “어디 놀러갈래? 렉스” 라며 흐뭇해하는 사이 갑자기 나타난 친구 존(남)에게 “오늘따라 왜 이렇게 못생겼대?”라고 말함. “밤새서 그런가?”라고 말하는 존에게 다시 “그러니까 얼굴이 그 모양이지. 렉스는 나랑 놀 거거든”이라며 존을 무시하고 놀리는 장면이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함.</p>
	놓지마 정신줄	4월 5일 (5회)	안젤리카가 “공부밖에 할 게 없는 외모, 저주받은 하체”라고 정주리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음.

(5) 여성의 성적대상화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MBC	텔레몬스터	4월 2일 (40회)	 <p>주제가 가사에 “새침새침 미끈미끈 흘리는~, 카리스마 눈빛눈빛 흘리는 ~, 핑크빛 몸을 빚고~” 등 여성의 성적 이미지를 강조하며 성적 도구로서의 여성으로 기능하는 데에 일조함.</p>
EBS	소피루비	4월 2일 (31회)	문제해결을 위해 경호원, 목수 등의 다양한 직업인으로 변신한 후에도 여성은 자신의 신체가 최대한 부각될 수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음. 여성의 신체를 전시품으로 인식하는 메시지가 전달됨.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EBS	미라큘러스: 레이디버그와 블랙캣	4월 6일 (21회)	  <p>블랙캣의 호전적 자세와는 다르게, 레이디 버그는 변신 직후 여성의 가슴과 허리가 강조되어 보일 수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음.</p>

(6) 선정성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EBS	소피루비	4월 2일 (31회)	 <p>13세의 루비가 19세의 소피로 변신하는 장면이 매회 등장하는데, 주인공이 변신할 때 여성의 알몸을 부위별로 클로즈업하여 보여줌. 배경음악과 핑크톤의 붉은 배경, 여성의 알몸이 어린이 프로그램과 어울리지 않게 선정적임.</p>
	미라큘러스: 레이디버그와 블랙캣	4월 6,7일 (21, 22회)	 <p>여성 캐릭터인 마리네뜨가 레이디버그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그녀의 허리와 엉덩이를 지나치게 클로즈업하여 내용 흐름과는 무관한 선정적 느낌을 전달함.</p>

광고 모니터링 보고서(8월)

I. 들어가며

서울YWCA 양성평등 미디어 모니터회에서는 광고 속 성평등, 성차별 사례를 찾아내어 분석하기 위해 2017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등록된 343편의 광고를 모니터링 하였다. 모니터링 대상은 광고 정보 사이트 TVCF¹²⁾에서 제공하는 공중파, 케이블, 인터넷 / 극장 / 바이럴에서 방송된 광고였다. 이번 모니터링은 양성평등 모니터링 도구 표준화 제안에 따라 표준화된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순천향대학교 심미선 교수의 자문을 통해 광고 특성에 적합한 체크리스트로 변형하여 활용하였다.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은 다음과 같다.

II. 모니터링 개요

- 모니터 장르 : 광고 (공중파, 케이블, 인터넷/극장/바이럴)
- 모니터링 기간 : 2017년 7월 1일~7월 31일(등록일 기준)
- 모니터링 매체 : 광고 정보 사이트 TVCF (www.tvcf.co.kr)
- 모니터링 대상 : 공중파, 케이블, 인터넷/극장/바이럴에서 상영되는 국내 광고
- 광고 수 : 343편 (표1 참조)
- 모니터 인원 : 13명

[표1] 모니터링 광고 수

(단위 : 편)

연번	광고품목	공중파	케이블	인터넷/극장/바이럴	합계
1	정보통신	13	11	15	39
2	전기전자	10	7	18	35
3	자동차/정유	9	11	4	24
4	음료/기호식품	10	8	25	43
5	식품/제과	1	6	6	13
6	생활/가정용품	13	8	4	25
7	화장품	3	3	4	10
8	패션/스포츠	3	9	1	13
9	제약/의료/복지	8	3	11	22
10	금융/보험	9	5	11	25
11	아파트/건설	4	-	-	4
12	출판/교육/문화	19	7	2	28
13	서비스/유통/레저	5	12	10	27
14	관공서/단체/공익기업PR	20	-	15	35
합 계		127	90	126	343

12) <http://www.tvcf.co.kr>

Ⅲ. 결과분석

1. 양적분석

광고 모니터링의 주요 양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출연자 성비

광고 전체 출연자의 성비는 여성이 49.5%, 남성이 50.5%로 성별에 상관없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품목 중 자동차/정유 부분에서는 여성이 27.1%, 남성이 72.9%로 다른 광고 품목보다 남성 출연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생활/가정용품, 화장품, 제약/의료/복지 분야에서는 여성 출연자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표2 참조)

[표2] 출연자 성비

(단위 : 명)

	광고품목	여성	남성	합계
1	정보통신	41 (40.2%)	61 (59.8%)	102
2	전기전자	53 (48.2%)	57 (51.8%)	110
3	자동차/정유	16 (27.1%)	43 (72.9%)	59
4	음료/기호식품	84 (56.4%)	65 (43.6%)	149
5	식품/제과	28 (49.1%)	29 (50.9%)	57
6	생활/가정용품	43 (69.4%)	19 (30.6%)	62
7	화장품	14 (70%)	6 (30%)	20
8	패션/스포츠	13 (43.3%)	17 (56.7%)	30
9	제약/의료/복지	69 (59%)	48 (41%)	117
10	금융/보험	57 (50.4%)	56 (49.5%)	113
11	아파트/건설	5 (55.6%)	4 (44.4%)	9
12	출판/교육/문화	12 (46.2%)	14 (53.8%)	26
13	서비스/유통/레저	69 (44.5%)	86 (55.5%)	155
14	관공서/단체/공익/기업PR	90 (46.9%)	102 (53.1%)	192
	합 계	594 (49.5%)	607 (50.5%)	1,201

(2) 성별 역할비중

주요인물의 경우 남성이 224명(53.5%), 여성이 195명(46.5%)으로 여성보다 남성 주요인물의 수가 근소하게 많았다. 반면 배경인물의 경우 여성이 282명(52.1%), 남성이 259명(47.9%)으로 여성 배경인물 수가 남성보다 조금 많았다. 그러나 대체로 성별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비중을 차지했다. (표3 참조)

[표3] 성별 역할비중

(단위 : 명)

	주요인물	나레이션(목소리)	배경인물	합계
전체인원	419	241	541	1,201
여성	195 (46.5%)	117 (48.5%)	282 (52.1%)	594 (49.5%)
남성	224 (53.5%)	124 (51.5%)	259 (47.9%)	607 (50.5%)

(3) 주요 등장인물 역할 분석

주요 등장인물은 남녀 모두 소비자 역할(166명, 39.6%)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돌봄·가사일을 하는 사람의 경우 남성(37.9%)보다 여성(62.1%) 등장인물이 다수였으며, 이외는 반대로 일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여성(39.2%)보다 남성 등장인물(60.8%)이 많았다. 또한 상품을 설명하는 사람 역할에서는 여성(30%)보다 남성(70%) 등장인물이 약 2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광고 속 주요 등장인물 역할에도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4 참조)

[표4] 주요 등장인물 성별 역할

(단위 : 명)

연번	역할구분	여성	남성	합계
1	돌봄·가사일을 하는 사람 ¹³⁾ (요리, 가사, 육아, 돌봄)	18 (62.1%)	11 (37.9%)	29
2	일해서 돈을 버는 사람	20 (39.2%)	31 (60.8%)	51
3	(취미 등을) 즐기는 사람 ¹⁴⁾ (스포츠, 여행, 놀이)	22 (59.5%)	15 (40.5%)	37
4	상품을 사용하는(소비하는) 사람	86 (51.8%)	80 (48.2%)	166
5	상품을 설명하는 사람	21 (30%)	49 (70%)	70
6	해당사항 없음	28 (42.4%)	38 (57.6%)	66
합 계		195 (46.5%)	224 (56.5%)	419

(4) 성평등/성차별적 광고

343편의 광고 중 성평등적 광고는 7편(2%)였으며 성차별적 광고는 37편(10.8%)이었다. 성평

13) 돌봄·가사일을 하는 사람의 세부역할별 인원 (단위:명)

연번	역할구분	여성	남성	합계
1	요리하는 사람	4	2	6
2	가사일을 하는 사람	6	4	10
3	아이를 돌보는 사람 (육아)	4	2	6
4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 (육아 제외)	4	3	7
합 계		18	11	29

14) (취미 등을) 즐기는 사람의 세부역할별 인원 (단위:명)

연번	역할구분	여성	남성	합계
1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	2	4	6
2	여행을 즐기는 사람	10	6	16
3	기타 놀이를 즐기는 사람	10	5	15
합 계		22	15	37

등적 광고에 비해 성차별적 광고가 약 5배가량 많았다. 성차별적 광고의 경우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광고가 19편(51.4%)으로 가장 많았고, 여성의 성적대상화/선정성(7편, 18.9%), 외모지상주의 조장(6편, 16.2%), 여성의 주체성 무시/남성 의존성향 강조(5편, 13.5%) 순이었다.

[표5] 성평등/성차별적 광고 수 (단위 : 편)

구분		광고수
성평등적 광고		7
성차별적 광고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19
	여성의 주체성 무시 / 남성 의존성향 강조	5
	외모지상주의 조장	6
	여성의 성적대상화 / 선정성	7
	합 계	37

(5) 품목별 성차별적 광고 수

성차별적 광고들의 품목을 분석한 결과, 음료/기호식품 분야가 7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융/보험 분야가 6편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정보/통신 분야, 생활/가정용품 분야는 각각 5편이 발견되었다. 매체별로는 인터넷/극장/바이럴 광고 16편, 공중파 광고 14편, 케이블 광고 7편으로 나타났다. (표6 참조)

[표6] 매체별 · 품목별 성차별적 광고 수 (단위 : 편)

연번	광고품목	공중파	케이블	인터넷/극장 /바이럴	합계
1	정보통신	1	-	4	5
2	전기전자	-	-	-	-
3	자동차/정유	2	1	-	3
4	음료/기호식품	-	1	6	7
5	식품/제과	-	-	-	-
6	생활/가정용품	3	2	-	5
7	화장품	1	1	1	3
8	패션/스포츠	-	1	-	1
9	제약/의료/복지	3	-	1	4
10	금융/보험	1	1	4	6
11	아파트/건설	-	-	-	-
12	출판/교육/문화	1	-	-	1
13	서비스/유통/레저	1	-	-	1
14	관공서/단체/공익/기업PR	1	-	-	1
합 계		14	7	16	37

2. 질적분석

광고 모니터링의 주요 내용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평등적 내용

SK텔레콤의 <ICT 생태계 편>의 주요 등장인물은 회사의 신입으로 일하게 된 여성이다. 처음의 실수 하고 주눅 든 모습에서 차츰 발전해, 회의를 주도하고 회사에 적응하며 동료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주체성을 반영하였다. 또한 캐논 코리아 컨슈머이미징의 <캐논 플레이샷 콘테스트> 광고에서는 여성 사진작가가 창조적이고 전문적인 일을 해내는 모습으로 등장해 여성의 주체성을 잘 드러냈다.



<SK텔레콤, ICT 생태계 편>



<캐논 코리아, 캐논 플레이샷 콘테스트>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캠페인 : 즐거워집니다>

고용노동부의 <일·생활 균형 캠페인 : 즐거워집니다> 광고에서는 퇴근하는 남성이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찾아가는 장면이 있었다. 직장에 다니는 남성이 육아를 담당하는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LG전자, LG Q6 : Product Movie 편>

LG전자의 <LG전자, LG Q6 : Product Movie 편> 광고에서는 성별에 상관없이 악기를 다루는 밴드가 등장한다. 기타/보컬/드럼은 남성, 키보드는 여성이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깨고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각자의 개성을 드러내며 조화롭게 밴드를 구성하고 있다.

2) 성차별적 내용

(1)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한국인삼공사, 정관장 화애락진〉

한국인삼공사의 〈정관장 화애락진 : 갱년기 언니들의 여행법 - 엄마 편〉에서는 여성을 시종일관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담당하는 역할로 그린다. 등교하는 딸의 카디건을 챙겨주고 바쁘게 출근하는 남편의 가방을 가져다주는 여성의 모습을 통해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있다.

CJ E&M의 〈올리브 TV : 취향의 발견 라이프 편〉에서는 '취향의 발견'이라는 명제로 두 명의 남성과 세 명의 여성이 등장한다. 이들이 자신의 취향을 발견하고 삶을 즐긴다는 내용이지만 남성은 자전거 타기, 해안 스포츠, 근력 강화 운동 등 힘과 관련된 역동적인 활동이 많은 반면 여성은 먹방, 드라이브, 독서, 집안 가꾸기, 화장 등 수동적, 소비적인 활동이거나 가사활동과 관련된 것들에만 관심을 갖는 것으로 그려져 왜곡된 성별 고정관념을 조장한다.



〈CJ E&M, 올리브 TV : 취향의 발견 라이프 편〉

쌍용의 〈스토닉〉 자동차 광고에서는 각각 한 명의 여성과 남성 모델을 기용하고 있다. 남성 모델의 경우 '박력'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고 스피드를 즐기는 모습을 넣음으로써 적극적이며 에너지 넘치는 모습을 그렸다. 반면 여성 모델의 경우 운전 부주의로 인해 인명사고가 날 뻔한 상황이 연출되고, 장면이 '안전안전해'라는 자막을 넣었다. 이러한 묘사는 여성이 운전을 잘 못하며 사고를 낼 위험성이 높다는 인식을 갖게 할 여지가 있으며 '안전'이라는 수동적인 키워드에 여성 모델을 넣음으로써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한다.



〈쌍용, 스토닉〉

(2) 여성의 주체성 무시/ 남성 의존성향 강조

삼성화재 보험의 <당신의 봄 삼성화재> 광고에서는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여성이 등장하며 여성의 기댐목이나 여성을 위로해주는 남성의 모습이 자주 등장했다. 여성이 감정적이고 쉽게 좌절한다는 고정관념을 조장하며 여성은 언제나 남성에게 기대야하는 존재로 비춰져 여성의 남성 의존성향을 강조하고 있다.



<삼성화재 보험, 당신의 봄 삼성화재>



<동서식품, 맥스웰하우스 콜롬비아나>

동서식품의 <맥스웰하우스 콜롬비아나 : EP1. 여사친의 애교 100% 편>에서는 여자 아이돌인 아이린이 나와 애교를 부리며 남성으로 상정되는 친구한테 광고 상품(커피)을 사달라고 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여성을 주체로 그리기보다 남성에게 종속되어 소비를 부추기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어 여성의 주체성을 무시하고 있다.

(3) 외모지상주의 조장



<미즈사랑, 소파 편>

미즈사랑에서 제작된 <소파 편> 광고에서는 원피스를 입은 여성(손가락)이 소파에 누워 있다가 모바일 대출 광고에 대해서 홍보하는 장면이 나왔다. 대출 상품명인 “미모 300(미즈 모바일 300만원)”이지만 “미모, 이렇게 쓰세요!”라는 홍보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여성의 외모가 아름답기만 하면 쉽고 빠르게 신용을 얻어 대출된다고 홍보하고 있어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한다.



<엔프라니, 훌리카 훌리카 하드커버 퍼펙트쿠션>

엔프라니의 <훌리카 훌리카 하드커버 퍼펙트쿠션 : 지울 수 없는 여자 편>에서는 헤어진 연인을 우연히 만난 여성이 등장한다. 여성은 땀으로 지워진 화장을 부끄러워하며 옛 남자친구인 남성 앞에서 얼굴을 숙인다. 그

러자 남성이 “걱정하지 마. 내가 커버 쳐줄게.”라고 말하며 여성의 얼굴에 퍼펙트쿠션을 꼼꼼히 발라준다. 그러자 여성의 얼굴이 화사해지고 자신감을 얻는 모습으로 인해 여성은 화장을 필수로 해야 한다는 강박을 부추기며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한다.

(4) 여성의 성적대상화

하이마트에서 제작한 〈냉장고 슈퍼모델 대전〉 광고에서는 냉장고 모델을 설명하기 위해 모델 한혜진이 치맛자락을 펴리며 선정적인 걸음으로 화면에 등장한다. 그러자 내레이션으로 “우아하다. 압도적이다.”, “눈을 땔 수 없다”가 나온다. 이러한 표현은 상품과 관계없이 여성의 몸을 강조하는 것이며 여성과 상품을 동일시해 성적대상화하고 있다.



〈하이마트, 냉장고 슈퍼모델 대전〉

IV. 나가며

모니터링 기간 동안 상영된 총 343편의 광고 출연자 성비는 여성, 남성 모두 비슷했으나 광고품목에 따른 성별 구분이 명확한 분야가 있었다. 자동차/정유 부분에서는 남성 출연자의 수가 여성보다 3배가량 많은 반면 생활/가정용품, 화장품, 제약/의료/복지 분야에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 출연자가 다수였다. 주요 등장인물 역할 분석에서도 돌봄·가사일을 하는 사람은 남성(37.9%)보다 여성(62.1%)으로 그려지는 반면 돈을 버는 사람은 여성(39.2%)보다 남성(60.8%)으로 묘사되었다. 또한 상품을 설명하는 사람은 여성보다 남성이 약 2배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자동차/정유와 관련된 운전 영역과 경제 활동을 담당하는 것은 남성이며, 가사노동, 화장, 돌봄노동과 같은 분야는 여성의 영역이라는 고정관념이 반영된 광고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2014년 10월 진행되었던 광고 모니터링을 살펴보면, 이러한 광고의 성차별적 경향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4년에도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이미지를 고착화하고 성역할을 규정하는 내용의 광고들이 지적되었으며, 여성의 신체를 부각시키며 전시하는 모습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

이번 광고 모니터링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자동차와 음료/식품 분야였다. 자동차 광고 속에서 남성이 등장하는 경우 “정상에 오르다”, “세상을 바꾸다”, “가장 지적인 다이내믹” 등의 자막과 함께 자동차 기술력과 성능을 홍보하는 반면 여성은 “엄마의 뱃속, 지켜줄 거지?”라는 내레이션과 더불어 안전을 강조할 때 등장한다. 이와 같이 적극적이고 능동적, 전문적인 영역은 남성의 역할로 간주되고, 여성은 미숙한 운전자로 상정되어 수동적이고 안전을 추구하는 존재로 묘사됨

으로써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있었다. 또한 자동차 모델은 같지만 성별에 따라 색깔이 다른 광고도 있었다. 남성 모델은 파랑, 여성 모델은 빨강으로 된 자동차를 타고 나와 색깔에 따른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었다.

최근 들어 음료/식품 분야는 제품 광고를 단일하게 만들지 않고 한 개 제품에 대한 광고를 여러 에피소드로 만들어 시리즈물로 제작하는 추세가 늘고 있다. 빙그레에서 제작한 <바나나맛 우유> 광고는 빨대 기능에 따라 '링거 스트로우 편', '자이언트 스트로우 편', 'SOS 스트로우 편' 등의 에피소드로 제작된 시리즈 광고이다. '링거 스트로우 편'에서는 엄마가 등장하지만 여성의 역할을 가사노동에 한정시키고, 'SOS 스트로우 편'에서는 매워하는 여성의 입에 바나나맛 우유를 뿌려주는 남성의 모습을 통해 여성의 남성 의존성향을 강조하고 있다. '자이언트 스트로우 편'에서는 남성은 '강한남자'로 명명함으로써 남성성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내용이 전개되었다.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이라는 성별 고정관념을 부추기며 이를 재생산하고 있어 심의가 필요하다.

동서식품의 <맥스웰하우스 콜롬비아나> 시리즈의 경우 여자 아이돌인 아이린이 광고 모델로 기용되었다. 시리즈 중 특히 <맥스웰하우스 콜롬비아나 : EP2. 남사친의 팩트 100% 편>은 여성을 (외모) 칭찬에 약한 존재로 그리고 있으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해 여성의 외모를 부각시킨다. 또한 화면에는 여성이 나오지만 "역시 매력적이야."라며 제품(커피)과 여성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중적인 의미의 내레이션을 통해 여성을 성적대상화하는 측면도 있었다. 이와 같이 기획자와 제작자, 카메라(카메라맨), 그리고 광고 수용자까지 남성을 전제로 한 광고는 여성에 대한 성상품화를 부추기고 성차별을 지속한다는 점에서 제재가 시급하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방영되고 있는 해외 기업의 광고에서도 성차별성이 드러나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유니버설 픽처스의 슈퍼배드3의 광고에서는 신체가 부각된 수영복을 입은 여성 캐릭터들이 나오는 장면을 인용하며 여성의 몸을 상품화 하고 있었다. 남성들이 바닷가에서 "니랑 같이 놀래?"라며 여성들에게 말을 거는 장면 또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모습이었다.

광고는 한 사회의 특정 시기에 구성된 보편적 욕망의 표상체로서, 현대사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소비되는 대중문화 현상의 하나이다. 기본적으로는 상품판매를 위한 것이지만, 그 시대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작동/재생산하는 보편적 기호로서 기능한다. 광고는 15~30초라는 짧은 시간에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고정관념과 익숙한 기호를 사용하여 수용자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도록 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광고는 소비자에게 어필하기 위해 고전적인 성역할과 성전형성에 강하게 의존하게 된다.¹⁵⁾ 실제로 이번 광고 모니터링을 통해 광고 속 여성들의 특정 부분이 왜곡·과장되어 재현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광고에서 비춰지는 성별에 대한 왜곡된 고정관념은 광고에 수시로 노출되는 수용자의 성 인식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15) 정영희, 「광고 속 젠더 재현」, 다시보는 미디어와 젠더, 이화출판, 2013

지난 2015년 프랑스에서 있었던 성차별 광고 논란은, 외국에서 광고의 성평등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논란이 되었던 광고는 프랑스 공공방송 채널3의 광고로, 여성이 없어서 엉망이 되어버린 집안을 묘사하였다. 유능한 여성들이 모두 채널3에 있다는 의미의 광고였지만, 트위터에서 공개되자마자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조롱과 비난을 들었다. 이에 프랑스 채널3은 즉시 문제가 된 광고영상을 내리고, TV에서 내보내지 않았다.¹⁶⁾ 또한, 영국에서는 성 고정관념이 담긴 광고가 실제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영국의 광고심의기구인 광고표준위원회(ASA)가 성별로 고착화한 역할을 드러낸 광고를 2018년부터 규제하기로 결정했다.¹⁷⁾

여전히 현실과는 다른 광고 속 여성의 모습은 지속해서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사회적 인 편견을 낳는 데 기여한다. 해결되지 않고 있는 성역할 고정관념과 불평등한 성별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광고 제작자의 올바른 젠더 의식이 필요하며 광고를 심의하는 기관·단체의 지속적인 감시 및 규제가 필요하다. 또한 왜곡된 성의식으로 제작된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 수용자의 즉각적인 비판과 행동이 요구된다.

V. 모니터링 내용

1. 성평등적 내용¹⁸⁾

채널	회사명	광고제품명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공중파	SK텔레콤	ICT 생태계 편	 <p>회사의 신입이지만 차츰 발전하며 회의를 주도하고 회사에 적응하는 여성의 모습이 등장함으로써 여성의 주체성을 보여주고 있음.</p>

16) 뉴시스, 20151008, “‘反성차별’ 의도했던 프랑스TV광고가 성차별 조장 논란”

17) 세계일보, 20170719, “성 고정관념 담은 광고, 영국서 2018년부터 퇴출”

18) ① 주체성 : 여성을 주체로서 다루고 있는가? 여성의 시각에서 문제를 보고 있는가?

② 현실반영성 : 성불평등적인 젠더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성이 처한 문제와 상황을 잘 파악하여 남녀 불균형적인 현실을 적절히 묘사하고 있고, 성평등을 위한 문제 해결방식이 과장되거나 희화화되지 않는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또한 이 문제가 많은 여성의 상황을 대변하는가?

③ 다양성 :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다양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가?

④ 대안성 : 대안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채널	회사명	광고제품명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공중파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캠페인 : 즐거워집니다	 <p>남성이 퇴근길에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찾아가는 장면이 나옴. 직장에 다니는 남성이 육아를 함께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줌.</p>
케이블	쌍용	티볼리 아머 : 나만의 티볼리 편	  <p>자동차 광고에서 안전이나 디자인 부분은 여성 모델을, 성능 및 파워 부분은 대부분 남성 모델을 선호하지만 쌍용 티볼리 광고는 남녀 구별 없이 자유롭게 성능과 기능을 표현함.</p>
케이블	환경부	탄소포인트제 : 살기 좋은 지구 만들기 편	

채널	회사명	광고제품명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에너지 절약 캠페인 광고에서 집안을 관리하는 남녀의 역할과 위치를 동등하게 설정해 보여주고 있음.
케이블	삼성전자	삼성 건조기	 <p>건조기를 아내와 남편이 같이 사용하는 모습에서 가사를 분담하는 긍정적인 면모를 지님.</p>
인터넷/ 극장/ 바이럴	캐논코리아 컨슈머 이미징	캐논플레이샷 콘테스트	 <p>사진작가로 등장하는 여성이 전문적이고 창조적인 일을 하는 모습으로 나옴으로써 여성의 주체성을 강조함.</p>
인터넷/ 극장/ 바이럴	LG전자	LG Q6 : Product Movie 편	 <p>광고의 주요인물로 자유분방한 모습의 밴드 보컬 여성이 등장함. 그 외의 다른 등장인물들 또한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각자의 개성을 드러내고 있음.</p>

2. 성차별적 내용

(1)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채널	회사명	광고제품명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공중파	KB 국민카드	KB국민카드 이지홈카드 : 이유리 편	 <p>‘주부생활 7년/오늘도 생활비 아끼려 우아함을 잊은 나란 여자/생활비 격하게 아끼고 싶다’라는 자막과 내레이션이 동시에 나오며 관리비 명세서를 들고 격하게 울먹이는 주부(이유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집안일은 여성의 몫이라는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가사노동의 영역을 과소평가하는 내용임.</p>
공중파	SK텔레콤	네트워크 편	  <p>위험한 재난 상황에서 활동하는 사람은 모두 남성들 뿐이라는 편견을 갖게 하는 광고임.</p>
공중파	닭고기 자조금 관리위원회	꼭이요	<p>마트가 배경인 광고이지만 남성인 서경석은 제품을 설명하고 이를 듣고 있는 마트 이용객들은 여성임. 마트 이용객은 모두 여성일 것이라는 고정관념이 담겨 있음.</p>

채널	회사명	광고제품명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공중파	한국 인삼공사	정관장 화애락진 : 갱년기 언니들의 여행법 - 엄마 편	  <p>등교하는 딸에게 카디건을 챙겨주고 바쁘게 출근하는 남편에게 가방을 가져다주는 주부의 모습이 등장함. 사소한 것까지 엄마, 아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가족들을 모두 보내고 소파에 주저앉은 고단한 가정 주부의 모습으로 인해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이 여성만의 역할이라는 고정관념을 조장할 우려가 있음.</p>
공중파	기아자동차	스토닉	

채널	회사명	광고제품명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p>여성 모델이 등장하는 광고의 경우 여성이 지루한 시간을 보내다가 스톨닉(자동차)을 만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는데 운전이 미숙하고 부주의로 인해 인명사고가 날 뻔한 상황이 연출됨. 여성은 늘 무료하고 할 일 없는 사람으로 보여 지고, 운전이 미숙할 뿐 아니라 운전 집중도가 떨어져 사고를 낼 위험성이 높다는 인식을 갖게 함. 반면 남성은 바빠 사는 사람으로 비춰지며 매력과 박력이 넘치고 운전이 능숙한 것으로 나타남. 같은 상품일지라도 차의 성능 중에서 힘, 테크닉, 활용도는 남성 모델이, 안전 부분은 여성 모델이 담당하고 있어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함.</p>
공중파	해광토이	프린세스 프링피크닉 토끼버스	 <p>광고에 등장하는 여자아이의 옷차림과 장난감이 모두 핑크색으로 치장되어 있어 색상에 따른 성별 고정관념을 조장함.</p>
공중파	리큐	리큐 제트	 <p>빨래 세제 광고에서 등장하는 모델은 여성뿐임. 정</p>

채널	회사명	광고제품명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장바지에 힘을 신고 있는 모델은 커리어 우먼을 연상시키지만, 그럼에도 빨래를 비롯한 가사노동은 여성이 담당한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됨.
케이블	영실업	영똥발랄 콩순이 싱크대 야채씻기 : 텃밭에서 쏘옥 편	 <p>여자아이가 '콩순이 싱크대'에서 야채를 씻고 다듬고 접시를 씻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에서 가사노동은 여성의 역할이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함</p>
케이블	CJ E&M	올리브 TV : 취향의 발견 라이프 편	  <p>'취향의 발견'이라는 명제로 두 명의 남성과 세 명의 여성이 등장하여 삶을 즐기는 내용의 광고. 남성은 주로 자전거, 해안 스포츠, 근력 강화 운동 등 힘을 강조한 역동적인 장면이 많고 여성은 주로 먹방, 드라이브, 독서, 집안 가꾸기, 화장, 음악듣기 등 수동적이고 정적인 영상을 보여주어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함.</p>
인터넷/ 극장/ 극장	GS칼텍스	GS칼텍스	'엄마의 밥상은 한국인의 에너지다'라는 광고 문구는 건강한 밥상을 차리는 것은 엄마의 역할이라는 고정

채널	회사명	광고제품명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바이럴			<p>관념이 강하게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여성에게 가사노동의 짐을 부과하는 것임.</p> 
인터넷/ 극장/ 바이럴	풀무원	풀무원 샘물 : 얼음 편	 <p>광고 시작할 때, 여성 캐리커처와 함께 내레이션이 나오며 '냉동실 얼음 다 빼먹은 가족 여러분께'라고 써져 있는 말풍선이 나옴. 이후 여성의 목소리로 "가족 여러분, 얼음을 빼먹지만 말고 먹었으면 꼭 채워 넣읍시다!"라고 말함. 여성이 한 말은 얼음을 얼리는 일을 같이 하자는 것이긴 하나 들여다보면 냉장고 관리하는 여성이 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음.</p>
인터넷/ 극장/ 바이럴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 : 링거 스트로우 편	 <p>광고에서 등장하고 있는 '엄마'의 역할이 TV 보면서 음식재료 다듬기, 빨래 정리하기 등으로 그려지고 있어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정함.</p>
인터넷/ 극장/ 바이럴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 : 자이언트 스트로우 편	'강하다'는 것은 '남자'를 의미하는 것처럼 광고를 기획해 성별 고정관념을 조장하고 있음.

채널	회사명	광고제품명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인터넷/ 극장/ 바이럴	동서식품	맥스웰하우스 콜롬비아나 : EP2. 남사친의 팩트 100% 편	 <p>여성은 칭찬에 약하다는, 특히 외모와 관련된 칭찬에 약하다는 성별 고정관념을 조장하고 있음.</p>
인터넷/ 극장/ 바이럴	비씨카드	비씨카드 이은결 season2	 <p>각각 두 편의 광고에서 남성은 회사에서 상사에게 야단을 맞고 힐링을 위한 여행을, 여성은 인터넷 쇼핑을 하다 엄마에게 야단을 맞고 여행을 떠나는 모습으로 그려짐. 남성은 생산적인 반면 여성은 낭비한다는 성별 고정관념을 조장함.</p>

채널	회사명	광고제품명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인터넷/ 극장/ 바이럴	LG 유플러스	LG유플러스 U+tv : 세 단어 밖에 몰랐던 서연이 이야기 편	 <p>광고에서 시종일관 아이를 돌보는 사람은 엄마로만 비춰짐. 엄마는 홀로 직장생활까지 줄여가며 아이와 책을 읽고, 학습시키는 스토리를 보여줌. 아이를 위해 희생하는 엄마, 자녀를 잘 돌보는 여성이 바람직하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함.</p>
인터넷/ 극장/ 바이럴	미디어로그 LG 유플러스 GS리테일	LG유플러스 GS25 요금제 : 매장 편	  <p>상품을 전문적으로 설명하고 판매하는 사람, 식사 배달원, 물건을 옮겨주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남성임. 여성은 소비자 역할로만 등장함. 돈을 버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남성이고, 상품을 소비하는 사람은 여성이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되어 있음.</p>

(2) 여성의 주체성 무시/ 남성 의존성향 강조

채널	회사명	광고제품명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공중파	동국제약	마데카솔 케어 : 흉터없는 편	 <p>아이를 양육하는 엄마들이 아이가 다치자 당황해하며 “삼촌~”하고 부름. 양세형(남성)이 나타나 “상처에는 찧술 치술 마데카솔~ 상처에는 마데카솔”이라며 아이를 양육하는 엄마들의 지식보다 삼촌이 해법을 제시하는 장면에서 어려운 문제는 남성이 한다는 식의 남성 의존성향을 강조할 우려가 상당함.</p>
인터넷/ 극장/ 바이럴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 : SOS 스트로우 편	 <p>여성이 떡볶이를 먹으면서 너무 매워 못 먹겠다고 하자 바나나맛 우유 스트로우에 대한 제품 광고가 이어지고 남성이 그것을 사용해 여성의 매움을 해결해 주고 있음. 함께 매운 음식을 먹고 있지만 고통을 호소하는 것은 여성이었으며, 아주 작은 문제도 여성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이 음료를 먹여주는 것으로 해결됨. 이러한 광고는 여성의 남성 의존적 성향을 강조하고 여성의 주체성을 훼손하고 있음.</p>
인터넷/ 극장/ 바이럴	동서식품	맥스웰하우스 콜롬비아나 : EP1. 여사친의 애교 100% 편	

채널	회사명	광고제품명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인터넷/ 극장/ 바이럴	삼성화재 보험	당신의 봄 삼성화재	<p>여성이 남성에게 애교를 부리며 상품을 사달라고 하고 있음. 여성을 하나의 주체로 그리지 못하고 남성에게 종속되어 소비를 부추기는 존재로 묘사해 여성의 주체성을 무시함.</p>   <p>화재 보험의 필요성을 보여주기 위해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함. 힘들고 지치고 괴로울 때는 주로 여성의 모습이 예시가 되고 든든한 기댐목이나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장면에서는 주로 남성이 등장함. 여성은 감정적이고 쉽게 좌절한다는 고정관념을 조장함과 동시에 여성의 남성 의존성향을 강조함.</p>
인터넷/ 극장/ 바이럴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 : 울트라 데이터 히어로 편	<p>히어로 영화를 패러디한 광고로, 슈퍼히어로가 된 남성이 제일 먼저 구조하는 사람을 식료품을 사기는 여성으로 설정함. 절대적 힘을 가진 남성이 연약한 여성을 구한다는 설정을 통해, 남성 의존적 성향을 강조하고 있음.</p> 

채널	회사명	광고제품명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3) 외모지상주의 조장

채널	회사명	광고제품명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공중파	미미월드	물속에서 변신하는 인어공주 미미	 <p>공주 인형을 가지고 노는 여자아이가 예쁜 머리장식과 어깨가 드러난 드레스를 입고 열린 화장까지 하고 있어 여자아이들의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할 수 있음.</p>
공중파	엘엔피 코스메틱	메디힐 세컨덤 마스크 : 한여름의 촉촉한 드라마 편	 <p>마스크팩 광고에서 나오는 “내일은 맨얼굴을 자랑하고 싶어질 테니까”라는 대사는 외모가 예쁜 것은 자랑해야 한다는 인식을 전제하고 있음. 또한 꾸미지 않은 맨얼굴은 자랑하기 힘들고 감추어야 한다는 메시지로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함.</p>
케이블	미즈사랑	소파 편	원피스를 입은 여성이 소파에 누워 있다가 모바일로 신청하기만 하면 즉시 대출된다는 것을 광고함. 그러나 “미모, 이렇게 쓰세요!”라는 홍보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여성의 외모가 예쁘기만 하면 쉽고 빠르게

채널	회사명	광고제품명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p>대출된다는 식의 외모지상주의를 강조하고 있음.</p> 
케이블	다논 코리아	액티비아 : 요거트 건강식단편	  <p>“건강한 다이어트는 모든 여자의 희망”이라며 요거트를 통한 건강한 식단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이어트에 대한 욕구를 부추기는 내용임. 건강함의 척도가 다이어트를 통한 외적인 변화(몸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 여성이라면 당연히 다이어트를 해야 하며 날씬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함.</p>
케이블	한국존슨앤드존슨	아큐브 비타 : 한 달 렌즈 편	<p>처음 렌즈를 선택하는 인물도 여성일 뿐만 아니라 격하게 춤을 추는 광고 모델들, ‘지금 시작해봐’라며 만족한 표정을 짓는 광고 모델 또한 모두 여성임. 남성보다는 젊은 여성들을 (안경이 아닌) 렌즈의 주 소비자층으로 단정 지어 여성은 꾸며야 한다는 외모지상주의를 조장 할 우려가 있음.</p>

채널	회사명	광고제품명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인터넷/ 극장/ 바이럴	엔프라니	홀리카 홀리카 하드커버 퍼펙트쿠션 : 지울 수 없는 여자 편	 <p>헤어진 연인을 우연히 만난 여성이 땀으로 지워진 화장을 부끄러워하며 얼굴을 숙이자 옛 남자친구가 “걱정하지 마. 내가 커버 쳐줄게~”하며 옛 여친의 얼굴을 퍼펙트쿠션으로 꼼꼼히 발리줌. 화사하게 예뻐진 여성이 자신감을 찾는 모습에서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고 있음.</p>

(4) 여성의 성적대상화

채널	회사명	광고제품명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공중파	하이마트	냉장고 슈퍼모델 대전	

채널	회사명	광고제품명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냉장고 모델을 설명하기 위해 모델 한혜진이 치맛자락을 펼치며 다소 선정적인 걸음으로 등장함. 내레이션에서는 “우아하다 압도적이다.”, “눈을 땔 수 없다”라며 설명을 덧붙이고 있음. 이는 상품과 관계없이 여성의 몸을 강조하고 전시하여 성적대상화하고 있음
공중파	유니버설 픽처스	슈퍼배드3	 <p>전체 관람가 등급 영화의 예고편이지만 여성의 신체 부위를 지나치게 과장하여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고 있음. 또한 여성에게 “같이 놀래?(영어대사로는 How are you doing?)”라는 대사는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본 것임.</p>
공중파	티지알엔	지알엔 : 다이어트 편	<p>‘소유 몸매 잘빠졌다. 소유 뒤탄 잘빠졌다.’라는 내레이션과 함께 소유의 몸매를 지나치게 클로즈업하고 걸어가는 여성들의 몸매를 화면 가득 잡아 여성을 성 상품화 함.</p> 

채널	회사명	광고제품명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공중파	쓸렉	주디스리버 : Luxury Scandal 편	  <p>광고 내내 여성 모델이 매혹적인 표정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섹시함을 어필하는 과도한 포즈와 표정으로 여성을 전시하고 성적대상화 하고 있음</p>
공중파	디디비 코리아	배럴 : BARREL SUMMER 2편	 <p>모델의 엉덩이, 가슴 등 여성의 신체를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내보내고 있음.</p>

채널	회사명	광고제품명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케이블	금성침대	금성침대 : 허리송 힙합 편	 <p>이국주가 “허리허리 여자는 허리~” 노래를 부르고 엉덩이를 흔들며 춤추다 침대에 뛰어오르며 “너무 좋아~” 라고 느끼한 목소리를 연출하고 있음. 이국주가 유난히 흐느적거리며 웨이브를 추고 코믹한 듯 야한 목소리를 이용해 성적 이미지를 연상시키고 있음.</p>
인터넷/ 극장/ 바이럴	대웅제약	우루사 간상 편	  <p>머리를 묶은 단정한 여성이 등장하며 얼굴이 클로즈업 됨.남성의 내레이션으로 “얼굴은 매끈하니 혈색이 돌고, 붓기 없이 늘씬한 몸매에 활력이 넘치는구나.” 라는 멘트가 나옴. 여성의 상체 쪽이 클로즈업 되면서 간을 보여주는 장면이나 약을 먹는 장면에서도 입술에 시선을 두어 음악과 함께 성적인 느낌을 줌. 영화 관상을 패러디한 약품 홍보지만 남성적 시선을 염두에 둔 은근한 성적 대상화가 이루어짐.</p>

인터넷 기사 모니터링 보고서(11월)

I. 들어가며

서울YWCA 양성평등 미디어 모니터회에서는 인터넷 기사 속 성평등, 성차별 사례를 찾아 분석하기 위해 2017년 11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온라인 일간지와 인터넷 신문사 등 35개 매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모니터링은 네이버 뉴스스탠드 언론사 메인 화면에 노출되는 기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번 모니터링은 양성평등 모니터링 도구 표준화 제안에 따라 표준화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였다.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은 다음과 같다.

II. 모니터링 개요

- 모니터 장르 : 인터넷 기사
- 모니터링 기간 : 2017년 11월 1일~11월 7일(7일간)
- 모니터링 매체 : 네이버 뉴스스탠드 내 35개 매체 (표1 참조)
- 모니터인원 : 14명

[표1] 모니터링 매체

연번	매체명	연번	매체명	연번	매체명
1	경향신문	13	스포츠동아	25	프레시안
2	국민일보	14	스포츠조선	26	한국일보
3	노컷뉴스	15	아시아경제	27	헤럴드경제
4	뉴시스	16	아이뉴스24	28	MBN
5	뉴데일리	17	오마이뉴스	29	OSEN
6	동아일보	18	이데일리	30	SPOTAL KOREA
7	디지털타임스	19	일간스포츠	31	YTN
8	매일경제	20	전자신문	32	ZDNET KOREA
9	머니투데이	21	중앙일보	33	KBS
10	미디어오늘	22	코리아타임스	34	MBC
11	서울신문	23	코리아헤럴드	35	SBS
12	세계일보	24	파이낸셜뉴스	합계	총 35개

III. 결과분석

1. 양적분석

포털사이트 내 언론기사의 주요 양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평등/성차별적 내용

성평등적 내용은 22건으로 성차별적 내용(46건)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 기사는 현실반영성(10건, 41.6%)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차별 기사는 외모지상주의 조장(17건, 37.0%)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2016년 6월에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와 비교해볼 때, 당시엔 여성의 성적대상화(22건, 39.3%)와 선정성(18건, 32.1%)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참조)

[표2] 성평등/성차별적 내용 수

(단위 : 건)

구분	건수		구분	건수			
	2017년	2016년		2017년	2016년		
성평등적 내용	주체성	6	3	성차별적 내용	성역할 고정관념 조장	3	1
	현실반영성	10	10		여성의 주체성 무시/ 남성 의존성향 강조	4	1
	다양성	2	2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	1
	대안성	4	9		외모지상주의 조장	17	3
					여성의 성적대상화	7	22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단어와 행동의 무분별 사용					6	8	
					선정성	9	18
					기타	-	2
합 계	22건	24건	합 계	46건	56건		

(2) 매체별 성평등·성차별 건수

매체별로는 KBS, 노컷뉴스, 프레시안이 성평등적 내용이 타매체에 비해 많이 발견되었고(3건, 13.6%), 성차별적 내용은 스포츠동아가 압도적으로 많았다(16건, 34.8%). 뒤이어 아시아경제(6건, 13.0%), 일간스포츠(4건, 8.7%) 등으로 이어졌다. 다른 매체보다 스포츠신문에서 성차별적 내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번 결과는 2016년 6월 모니터링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2016년에는 성평등적 기사를 가장 많았던 곳은 경향신문(10건, 41.7%)이었으며, 성차별적 기사가 가장 많이 게재된 매체는 헤럴드 경제(12건, 21.4%)로 나타났다. (표3 참조)

[표3] 매체별 성평등/성차별적 내용 수

(단위 : 건)

연번	매체명	2017년 11월		2016년 6월	
		성평등	성차별	성평등	성차별
1	경향신문	2		10	1
2	국민일보	1	2	2	2
3	노컷뉴스	3	-	-	-
4	뉴시스	1	-	1	1
5	뉴데일리	-	-	-	-
6	동아일보	1	-	1	1
7	디지털타임스	-	-	-	-

연번	매체명	2017년 11월		2016년 6월	
		성평등	성차별	성평등	성차별
8	매일경제	-	-	-	-
9	머니투데이	-	1	3	-
10	미디어오늘	-	-	-	-
11	서울신문	1	3	-	-
12	세계일보		1	1	4
13	스포츠동아	-	16	-	-
14	스포츠조선	-	-	-	2
15	아시아경제	-	6	-	1
16	아이뉴스24	-	-	-	-
17	오마이뉴스	1	-	1	-
18	이데일리	-	-	2	2
19	일간스포츠	-	4	-	5
20	전자신문	2	1	-	-
21	중앙일보	-	-	-	5
22	코리아타임스	1	2	-	7
23	코리아헤럴드	-	3	-	6
24	파이낸셜뉴스	-	2	1	-
25	프레시안	3	-	-	-
26	한국일보	1	-	1	-
27	헤럴드경제	1	-	-	12
28	MBN	-	-	-	1
29	OSEN	-	1	-	4
30	SPOTAL KOREA	-	2	-	-
31	YTN	1	-	-	-
32	ZDNET KOREA	-	-	-	-
33	KBS	3	1	-	-
34	MBC	-	-	1	1
35	SBS	-	1	-	1
합 계		22건	46건	24건	56건

2. 질적분석

포털사이트 내 언론기사의 주요 내용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평등적 내용

(1) 주체성



〈여자의 적은 여자? 여자를 돕는 것은 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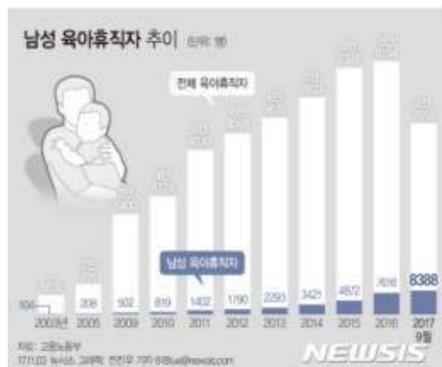
자'라는 여성의 연대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담고 있으며 '여성의 적은 여성'이라는 왜곡된 고정관념에 저항하고 있다.

〈여자의 적은 여자? 여자를 돕는 것은 여자〉(경향신문, 11월 4일)에서는 드라마 〈부암동 복수자들〉에 등장하는 주체적인 여성 주인공들에 대해 다뤘다. 해당 기사는 세 명의 여성이 각자가 마주하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복수를 계획하며 실행하는 과정과 서로 신뢰를 쌓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거듭나는 내용을 먼저 소개했다. 더불어 주인공의 모습을 빗대어 '여자를 돕는 것은 여

〈육설 문자, 스토킹... 딸이 데이트폭력을 당했다〉(오마이뉴스, 11월 7일)는 창비·오마이뉴스가 주관한 '여자들은 자꾸 같은 질문을 받는다'에 공모된 글을 바탕으로 쓰여졌다. 불행했던 어린 시절의 가정사와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필자의 현실 사이에서 스스로 "피해자의 얼굴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이 담겨있다. 또한 "딸로, 아내로, 주부로 살지 말고 인간으로 살아야 했다"며 "여자라서 제한이 가해지는 수많은 상황 앞에서 부당하다고 말해야 했다"라는 후회와 새로운 다짐을 엿볼 수 있었다. 여성이라는 정체성으로 인해 억압받았으나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삶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통해 독립적인 주체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

(2) 현실반영성

〈'승진 포기자 낙인'...남성 육아휴직 여전히 '그림의 떡'〉(뉴시스, 11월 5일)에서는 직장인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문제를 지적했다. 직장 내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개인 이기주의로 취급되고, 승진 인사에서 원천 배제하는 문화가 여전히 뿌리 깊게 박혀 있는 현실을 고발하였다. 그리고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많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육아휴직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인사매뉴얼 제작 등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를 담당하는 한 남성의 인터뷰를 통해 공동육아에 대한 전망을 공유하고 있다.



〈'승진 포기자 낙인'...남성 육아휴직 여전히 '그림의 떡'〉

〈'미성년 여군'을 가로 막은 커다란 벽〉(노컷뉴스, 11월 5일)에서는 현재 자리잡고 있는 군대 문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상관으로부터 수십 차례 성추행을 당하고 2차 피해까지 입은 여군의 이야기가 기사에 실려 있으며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한 가해자의 지휘관이나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알면서도 덮으려고만 하는 양성평등 상담관, 사단 감찰부 등등, 폐쇄적인 군대 조직문화를 고발했다. 군대라는 조직이 성희롱, 성폭력을 정당화 시키고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여기는 것을 비판하였다.



〈'더스틴 호프만도 성희롱' ...할리우드 성추문 일파만파〉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도를 전달하고 있다.

〈'더스틴 호프만도 성희롱' ...할리우드 성추문 일파만파〉(KBS, 11월 2일)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할리우드 남성 배우들의 성폭력에 대한 내용이 실렸다. 그 중 "성폭력 피해를 이야기할 때 모른 척 하는 것도 공범이며, 모두가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한 할리우드 여성 배우의 영상을 소개했다. 성폭력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도를 전달하고 있다.

(3) 다양성



〈진주 2017 아빠 육아 참여행사 개최〉

〈진주 2017 아빠 육아 참여행사 개최〉(프레시안, 11월 6일)에서는 4~7세 자녀를 둔 아빠와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아빠 육아 참여행사'에 대한 내용을 보도했다. 부제인 '부모 교육과 아빠 요리해요'에 맞춰 여성의 경제 활동 증가에 따라 아빠의 육아 참여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성역할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4) 대안성



〈전통 깐 '미스 페루' 선발대회...신체 치수 대신 '여성 폭력' 소개〉

〈전통 깐 '미스 페루' 선발대회...신체 치수 대신 '여성 폭력' 소개〉(KBS, 11월 2일)에서는 페루의 미인 선발대회에서 최종 결승 진출자 23명이 자신의 신체 치수 대신 여성들이 겪고 있는 폭력의 실태를 알렸다는 내용을 전했다. 참가자가 "제 수치는 2202입니다. 지난 9년간 페루에서 살해된 것으로 보고된 여성의 수입입니다." 라고 말하며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의 참상을 알렸다. 해당 대

회의 기사는 KBS 뿐만 아니라 동아일보, YTN 등 여러 매체에서 다뤘으며 성 상품화가 일반적이었던 미인 선발대회에 대한 대안을 알렸다.

2) 성차별적 내용

(1)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20~30대 여성, 왜 보이스피싱 표적되나〉(국민일보, 11월 1일)에서는 경찰청과 금감원의 통계에서 20, 30대 여성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증가했다는 것과 보이스피싱 고액 피해자 51명 중 교사와 사무직이 많았다는 것을 근거로 사무직·전문직의 젊은 여성이 범죄에 취약하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면서, “평소 스스로 전문직이라고 생각할수록 자신은 범죄와 무관하다고 생각해 범죄수법과 예방법 등에 관심이 적기 때문에 피해가 더 많은것” 이라고 한 경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사는 보이스피싱에서 다른 연령대와 성별의 피해액이나 피해 비율 등의 수치는 제시하지 않고, 20, 30대 여성 중 소수인원의 사례만 부각시켜 젊은 여성이 보이스피싱에 취약하다고 단정 짓고 있다. 또한, 전문직일수록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과 예방법에 관심이 적어 피해를 입는다고 하는 의견을 여과 없이 그대로 인용한 것은 여성에 대한 잘못된 성별 고정관념을 조장한다.

〈별 “무한도전” 아내들 주기적 만남…한수민 악플 걱정〉(스포츠통아, 11월 6일)에서는 최근 미니 앨범을 낸 가수 별의 패션 화보 소식을 전달하고 있다. 기사는 그녀의 앨범과 화보에 대한 소식을 전하면서, ‘무한도전’ 멤버의 아내 모임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 별은 “언니(무한도전 멤버의 아내)들이 정말 예쁘고 착한데다 가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도전 오빠들이 밖에 나가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언급으로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여성의 주체성 무시/ 남성 의존성향 강조

〈단정한 의상 속 ‘숨은 그림찾기’...멜라니아 여사의 패션〉(국민일보, 11월 7일)에서는 미국의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한국 도착 당시 입었던 코트와 하이힐의 브랜드명, 가격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국민 방문에서 대통령 부인의 역할과 의의는 다루지 않고 전직 모델로서의 패션 감각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영부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외적인 모습만 강조해 여성의 역할을 무시하고 사소하게 다루고 있다.

(3) 외모지상주의 조장

〈살 빼면 난리 난다던 NRG 노유민 근황...“30kg 감량 성공”〉(SBS, 11월 7일)은 과거 아이돌 그룹으로 활동했던 NRG 멤버 노유민이 12년 만에 컴백을 위해 체중 감량을 하고 전성기 시절의 외모로 돌아와 화제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과거 NRG 활동



〈살 빼면 난리 난다던 NRG 노유민 근황...“30kg 량 성공”〉

당시 순정만화에서 나올 듯한 미소년 같은 외모로 큰 사랑을 받았다”, “과하게 늘어난 체중에 팬들의 걱정을 샀던 노유민은 12년 만에 NRG로 활동을 준비하면서 혹독한 다이어트로 무려 30kg 감량에 성공해 예전의 외모를 되찾았다.”는 등의 내용은 외모를 가꾸기 위해 다이어트를 강요하며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한다.



〈하루에 113억 버는 만수르, 두 번째 아내의 미모는?〉

〈하루에 113억 버는 만수르, 두 번째 아내의 미모는?〉(스포츠동아, 11월 7일)에서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 왕가 만수르의 아름다운 두 번째 부인에 대한 내용을 실고 있다. 언론에 거의 노출되지 않는 첫 번째 부인과 달리 두 번째 부인이 잘 알려진 이유를 그녀의 서구적인 미모 덕분이라고 분석하며, 여성을 외모로만 평가하고 있다.



〈'미모 레전드 찍었다' 화제된 트와이스 썬위 직캠 영상〉

〈'미모 레전드 찍었다' 화제된 트와이스 썬위 직캠 영상〉(일간스포츠, 11월 3일)에서는 컴백한 걸그룹 트와이스 멤버 중 썬위의 무대 영상이 게재되어 있었다. “점점 예뻐지는 것 같다”, “매일이 리즈(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절) 경신”, “전보다 가름해진 턱선으로 돌아와 여성스러운 매력이 더해졌다” 등 썬위의 외모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4) 여성의 성적대상화



김사랑, '가슴 굴곡'지만, '저고리는 어이하닉', '이런 몸매

〈대중상 영화제〉

〈대중상 영화제〉(OSEN, 11월 1일)는 사진 위주로 구성된 기사로 제54회 대중상 영화제 레드카펫 행사를 취재한 내용이다. 기사는 노출이 심한 여배우들의 사진을 공개하여 “파격적인”, “가슴 굴곡”, “저고리는 어디에”, “이런 몸매 어디 있나요?”란 문구들을 사용하고 있다. 해당 배우들을 성적대상화하고 있다.

(5)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단어와 행동의 무분별 사용



〈거친 남자들 틈 여대생 인부...재건축현장〉

〈거친 남자들 틈 여대생 인부...재건축현장(영상)〉(코리아헤럴드, 11월 2일)의 첨부된 영상은 일하는 여성의 모습만을 담고 있으나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제목과 여성의 어깨가 노출된 장면을 캡처해 성적인 이미지가 연상되도록 하였다.

(6) 선정성



〈갑자기 지퍼를... '골프 여신' 안신애, 과감한 탈의 '깜짝'〉

〈갑자기 지퍼를...[포토] '골프 여신' 안신애, 과감한 탈의 '깜짝'〉(아시아경제, 11월 1일) 속 내용에는 “이날 안신애는 날이 더워지자 입고 있던 비옷을 과감하게 탈의하고 경기에 임했다.”라고 쓰였으나 기사 내용과는 다르게 “갑자기 지퍼를...”, “과감한 탈의 '깜짝'”이라며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하고 있다.

IV. 나가며

35개 매체의 인터넷 기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모니터링은 2016년 6월에 진행된 모니터링과 비교했을 때 표면적인 성평등·성차별 내용의 건수는 비슷하게 도출되었으나 세부적인 차이가 있었다. 성평등적 내용 중 현실반영성(10건, 41.6%)이 가장 많은 것으로 동일했으나, 성차별적 내용은 2016년에는 여성의 성적대상화(22건, 39.3%)와 선정성(18건, 32.1%)이 많았다. 한편 이번 모니터링에서는 외모지상주의 조장(17건, 37.0%)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선정성(9건, 19.6%)과 여성의 성적대상화(7건, 15.2%)가 그 뒤를 이었다. 매체별로는 KBS, 노컷뉴스, 프레시안(3건, 13.6%)이 성평등적 내용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성차별적 내용에서는 스포츠동아(16건, 34.8%)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알 수 있었던 점은 신문사에 따른 감수성이 다르다는 것이다. 같은 내용을 취재했으나 언론사마다 각기 다른 지점에 포커스를 두는 등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 예로 MBC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에 출연한 배우 김보연에 대한 일간스포츠, SBS의 기사를 들 수 있다. 일간스포츠에서는 〈'사람이 좋다' 김보연 "지금도 허리사이즈 26...저염+소식으로 세끼"〉라는 제목으로 김보연의 자기 관리에 포커스를 두었다. 반면 SBS에서는 〈'사람이 좋다' 김보연 "전노민과의 이혼, 서로가 잘못된 것"〉이라는 제목으로 남편과의 이혼에 대한 중점적으로 기사를 서술하며 인간 김보연에 관한 기사를 다루었다.

다른 매체들보다 스포츠신문에서 선정성이 짙은 기사들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여성의 신체가 노출된 이미지가 게재되어 있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의도적으로 선별해 기사가 작성되어 있었다. 또한 기사 제목을 선정적으로 설정해 이용자들의 관심을 끌려는 낚시성 제목이 심각하게 많았다. 스포츠 보도를 주 목적으로 하는 언론사들임에도 보도의 질보다는 선정적인 자극을 통해 구독자의 이목을 끌고자 하는 모습이었다. 또한 사이트에 선정적인 광고 문구와 이미지가 유독 많이 노출되었고, 클릭을 유도해 기사를 읽는 것에 불편함이 많았다.

공중파 뉴스, 종이신문에서 벗어나 스마트폰, PC를 통해 온라인 매체가 가장 큰 이용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온라인 매체들의 성평등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만을 내보내거나 제목의 왜곡을 무분별하게 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방안이 시급하다. 또한 오프라인에 비해 온라인의 규제가 약한 만큼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수렴하고 대안 마련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되어야 한다.

V. 모니터링 내용

1. 성평등적 내용¹⁹⁾

(1) 주체성

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11월 2일 (목)	KBS	성인되기만 기다렸다! '8살 성추행' 피해자 12년 만에 한 풀어	12년 전 성추행을 당했던 여자 어린이(당시 8세)가 20세 성인이 된 후, 자신을 세 차례 강제 추행했던 사촌오빠를 고소하고,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기사임. 그녀는 사건 당시 가족들에게 피해사실을 알렸지만 흐지부지 넘어갔던 사실에 상처를 받아, 성인이 된 후 직접 가해자를 고소했다고 함. 가해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피해여성이 제시한 증거에 의해 친족 강제 추행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음. 이러한 내용의 기사는 주위의 도움이 없는 상황에서도 철저한 준비로 가해자를 법적 처벌하는 데에 성공한 주체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여줌.
11월 2일 (목)	서울신문	유리천장 뚫고...세계 누비는 미녀 파일럿 SNS 화제	스페인 볼로티 항공에서 보잉 717기의 파일럿으로 활약하고 있는 여성 린다 카츠(24)의 기사임. 유리 천장을 뚫고 파일럿이 되어 세계를 비행하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전하며, "내 인스타그램을 계기로 파일럿을 꿈꾸게 됐다"는 댓글이 가장 기뻐다. 파일럿은 매우 멋진

19) ① 주체성 : 여성을 주체로서 다루고 있는가? 여성의 시각에서 문제를 보고 있는가?

② 현실반영성 : 성불평등적인 젠더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성이 처한 문제와 상황을 잘 파악하여 남녀 불균형적인 현실을 적절히 묘사하고 있고, 성평등을 위한 문제 해결방식이 과장되거나 희화화되지 않는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또한 이 문제가 많은 여성의 상황을 대변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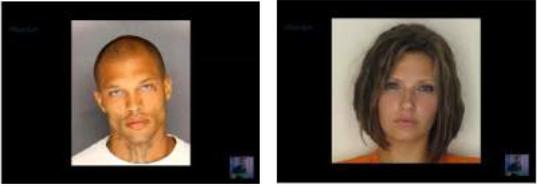
③ 다양성 :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다양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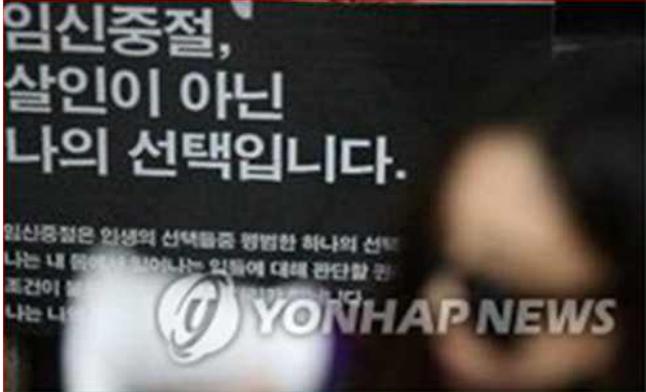
④ 대안성 : 대안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p>직업이기 때문”이라면서 “그렇지만 파일럿이 되려면 큰 노력이 필요하므로 같은 꿈을 가진 젊은이들에게 가능한 한 조언해주고 싶다”는 그녀의 말을 인용함. 남성 위주의 직업세계에서 유리천장을 뚫고 파일럿으로 일하고 있는 여성을 소개함으로써 여성의 주체적인 모습을 잘 그리고 있음.</p> 
11월 4일 (토)	경향신문	<p>[그녀의 이름을 부르다] 여자의 적은 여자? 여자를 돕는 것은 여자!</p>	 <p>드라마 <부암동 복수자들>에 대해 실은 기사임. <부암동 복수자들>은 세 명의 여성이 각자의 억울한 상황에 따른 복수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믿어주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내용임. 아내, 주부, 엄마라는 타이틀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모습과 서로를 알아가며 신뢰를 쌓아가는 모습을 두고 ‘여자를 돕는 것은 여자!’라며 여성의 주체성을 높이고 ‘여성의 적은 여성’이라는 왜곡된 고정관념을 반전시키는 내용임.</p>
11월 4일 (토)	전자신문	<p>[과학 핫이슈] 마리퀴리 탄생 150주년</p>	<p>마리 퀴리 탄생 150주년에 관한 기사임. 마리 퀴리는 1903년 남편 피에르 퀴리와 함께 라듐과 폴로늄의 방사능을 발견한 공로로 첫 노벨상(물리학상)을 받았으며 남편의 죽음 후에도 연구를 멈추지 않고 라듐을 발견 후 두 번째 노벨화학상을 수상함. 기사에서는 그녀를 프랑스 소르본 대학의 여성 최초의 물리학 박사로 소개하며, 최초의 여성 노벨상 수상자이자 여성 과학자로서의 삶을 높게 평가하며 그녀의 업적을 높임.</p>

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11월 5일 (일)	한국 일보	“평균 나이 78세... 꽃할매들 일하니 삶과 마을 활기”	 <p>평균 나이 78세 할머니들 16명이 사회협동조합으로 운영 중인 '할매목공장'을 소개함. 우리사회에서 고령의 할머니의 일이라면 손주를 돌봐주거나 소일거리 정도라고 생각함. 그러나 이 기사에서는 고령의 여성들이 협동조합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소개함으로써, 주체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여줌.</p>
11월 7일 (화)	오마이 뉴스	욕설 문자, 스토킹... 딸이 데이트폭력을 당했다	<p>창비·오마이뉴스의 '여자들은 자꾸 같은 질문을 받는다' 공모로 쓰여진 기사. 불행했던 어린 시절의 가정사와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필자의 현실 사이에서 스스로 “피해자의 얼굴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과 함께 여성이라는 한계를 벗어던지고 “여자라서 제한이 가해지는 수많은 상황 앞에서 부당하다고 말해야 했다”라며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개척해가는 독립적인 주체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음.</p>

(2) 현실반영성

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11월2일 (목)	코리아 타임스	머그샷이라기 엔 너무 예쁜 그들	 <p>잘생긴 머그샷(체포된 범죄자의 초상사진)으로 화제가 되어 석방된 이후 결국 세계적인 모델로 활동 중인 제레미 믹스의 일화를 비판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임. 흉악범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죄수의 매력적인 외모에 열광하는 현실이 우스우면서도 안타깝다고 꼬집으며 외모지상주의적인 세태를 비판함.</p>
11월 2일 (목)	헤럴드 경제	낙태죄 폐지 51.9% 찬성, 합법화	전국의 성인 51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낙태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51.9%인 것으로 집계되었다는 내용으로 과거 임신중절(낙태)이

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조건에 '남자' 언급은 왜?	<p>여성만이 짊어져야 하는 형벌로 인식되었으나 이제는 성관계와 피임에 대해 남녀 모두가 책임을 가지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음.</p> 
11월 2일 (목)	노컷뉴스	제 사이즈는 2202 살해당한 여성들입니다	<p>10월30일 '2017년 미스 페루(리마) 선발대회'에서 자국 여성 폭력 관련 수치를 소개한 내용을 기사에 실음. 여성혐오(페미사이드)로 인해 9년간 벌어진 여성 살해 숫자를 자신의 신체 사이즈로 표현했다는 내용임. 여성들이 처한 폭력적 현실과 그에 저항하는 여성들의 움직임을 함께 소개하고 있음.</p>
11월 2일 (목)	KBS	“더스틴 호프만도 성희롱” ... 할리우드 성추문 일파만파	 <p>할리우드 남성 배우들의 성폭력을 다루는 기사에서 유명 배우의 “성폭력 피해를 이야기할 때 모른 척 하는 것도 공범이며, 모두가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인터뷰를 소개함. 성폭력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해 나갈 것을 독려함.</p>
11월 3일 (금)	노컷뉴스	‘몰카, 더 이상 안돼요’... 몰카 근절 위한 노력 확산	<p>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몰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SOS 누루미’ 스티커 배부했다는 내용으로 몰카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시민들의 노력 또한 확산되고 있음을 보도한 기사임. 기사를 통해 여성의 성적 대상화를 극렬하게 보여주는 몰카가 범죄임을 알리고 있음.</p>

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11월 5일 (일)	뉴시스	'승진 포기자 낙인'...남성 육아휴직 여전히 '그림의 떡'	 <p>직장인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함. 또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선 남성 육아휴직자가 많은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육아휴직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인사매뉴얼 제작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하는 등 현재의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 등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음. 나아가 육아휴직을 사용해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한 남성의 인터뷰를 통해 여성이 육아를 담당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고 공동육아에 대한 전망을 공유함.</p>
11월 5일 (일)	국민일보	여성감독	영국BBC가 지난해 아시아축구연맹 여성지도자상을 받은 찬유엔팅 홍콩축구 감독을 올해의 100대 여성에 선정했다고 소개하면서 국내 구기 종목에는 여성감독이 부족한 실태를 비판함. 최근 들어 여성감독으로는 우승하기 어렵다는 기존의 편견이 깨지기 시작했고 더 많은 여성감독의 발탁으로 한국 프로 및 실업 스포츠가 발전할 수 있다고 보도함으로써 각 분야의 여성인력 진출을 기대하는 현실을 반영함.
11월 5일 (일)	전자신문	과기 '플래닝타워' 과기자문회의 키워드는 '여성' '젊음' '국민'	 <p>현 정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여성위원의 비율을 29%에서 40%까지 늘릴 계획이라는 기사임. 정부는 '청년 과학기술인 육성'과 '여성 과학기술인 경력 단절 방지'를 국정과제로 삼았으며, 청와대 과학기술 정책을 책임지는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도 여성으로 뽑았다고 소개하면서, 이는 현 정부의 청년·여성 과학자 중시 풍토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함. 과학기술 분야에 남녀의 균형적 비율을 위한 노력과 의식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임.</p>

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11월 5일 (일)	노컷뉴스	'미성년 여군'을 가로 막은 커다란 벽	미성년 여군이 겪은 군대 문화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사로, 상관으로부터 수십 차례 성추행을 당하고 2차 피해까지 입은 여군의 이야기를 보도함. 사건을 무마시키려고만 하는 가해자의 지휘관이나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를 알면서도 덮으려고만 하는 양성평등 상담관, 사단 감찰부 등 폐쇄적인 군대 조직문화를 고발함. 군대 조직이 성희롱, 성폭력을 정당화 시키고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여기는 것을 비판하고 있음.
11월 7일 (화)	프레시안	"육아휴직 내니 '세금 먹는 회충'이라고 하네요"	노동전문가 241명으로 구성된 '직장갑질119'에 직장에서 당한 '갑질'을 제보한 내용으로 구성된 기사임. 지방종합병원의 외래 간호사는 육아휴직을 내려고 하자 간호부장과 병원장으로부터 "세금 먹는 회충"이라고 소리를 듣거나 법정공휴일을 개인 연차로 부담해야 하는 등 여성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불합리한 현실에 대해 고발하고 있음.

(3) 다양성

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11월 6일 (월)	프레시안	진주 2017 아빠 육아 참여행사 개최 부모교육과 아빠 요리해요	 <p>4~7세 자녀를 둔 아빠와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아빠 육아 참여행사'에 대한 기사 내용임. 여성의 사회 및 경제활동 증가에 따라 육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빠의 육아참여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마련되어 육아에 대해 남성의 참여가 점차 확대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음. 성역할의 다양성을 보여줌.</p>
11월 7일 (화)	프레시안	고흥군 '아빠와 함께한 우주캠핑 시즌 2' 행사 성료	

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참가 가족들의 정서적인 유대감을 증진시키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남성의 육아 참여 계기를 마련한 행사를 보도함으로써 남성 또한 육아와 감정 노동에 참여할 것을 설득하며 여성들에게만 부과되었던 육아와 가사노동의 짐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함.

(4) 대안성

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11월 2일 (목)	YTN	성폭력 경증 올린 미인대회... 참가자들이 공개한 '수치'는?	 <p>'미스 페루' 미인 선발대회 최종 결승 무대에서 예년 대로라면 참가자는 자신의 몸매를 수치로 자랑해야 하지만, 참가자의 입에선 전혀 다른 내용의 수치가 소개되었다고 보도함. 기사에서는 “여성을 외모로만 평가하던 자리가, 성폭력의 참상을 알리는 무대로 변모” 하고, “성 상품화 논란이 끊이지 않던 미인대회를, 오히려 여성 인권 향상 계기로 삼으려는 시도가 다른 나라들의 미인대회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라며 미인대회에 대한 대안성을 제시하고 있음</p>
11월 2일 (목)	KBS	전통 갠 '미스 페루' 선발대회...신 체 치수 대신 '여성 폭력' 소개	 <p>페루에서 열린 미인 선발대회에서는 최종 결승 진출자 23명이 무대에서 자신의 신체 치수 대신 '여성들이 겪고 있는 폭력의 실태'를 알렸다고 소개함. '미인대회의 우승자'는 '모든 여성을 대변하는 사람'이어야</p>

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한다는 주최 측의 기획의도까지 전달하며, 성 상품화가 일반적이었던 미인대회에 대한 대안을 보여줌.
11월 7일 (화)	동아일보	페루 미인대회서 성폭력 고발... “의미있는 비판”, “위선적”	페루 미인대회의 참가자들이 자신의 신체 사이즈 대신 성폭력의 실태 등을 고발한 일을 보도함. 이 사건에 대해 갑론을박하는 국제부 기자들의 의견과 미국의 성폭력 피해 사례를 고발하는 미투캠페인도 소개하여 이 사건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함. 여성을 외모로 평가하고 성상품화하는 미인대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함께 보여주고 있어 바람직함.
11월 5일 (일)	경향신문	“차별, 무시 직접 바꾸자” 특성화고 학생들의 조직된 힘	 <p>차별받고 무시당했던 특성화고등학교의 문제를 조직적으로 해결하려는 당사자 단체인 ‘특성화고등학교 권리 연합회’가 결성되었다는 내용의 기사. 자신의 전공과 맞지 않은 현장실습, 현장실습 작업장의 노동착취 문제와 더불어 여학생을 향한 외모 차별 발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만들고자하는 학생들의 움직임을 담고 있음.</p>

2. 성차별적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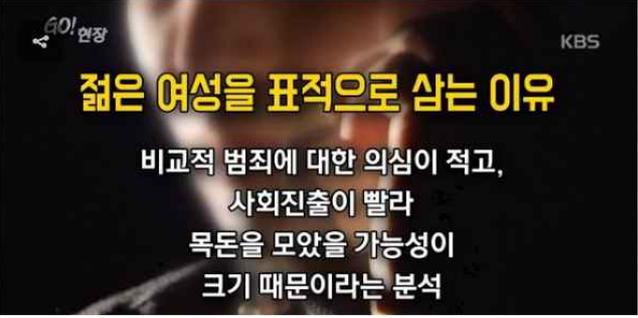
(1) 성역할 고정관념 조장

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11월 1일 (수)	국민일보	20~30대 여성, 왜 보이스피싱 표적되나	경찰청과 금감원의 통계에서 20, 30대 여성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증가했다는 것과 보이스피싱 고액 피해자 51명 중 교사와 사무직이 많았다는 것을 근거로 사무직·전문직의 젊은 여성이 범죄에 취약하다고 보도함. 그러면서, “평소 스스로 전문직이라고 생각할수록 자신은 범죄와 무관하다고 생각해 범죄수법과 예방법 등에 관심이 적기 때문에 피해가 더 많은것” 이라고 한 경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함. 그러나 이 기사는 보이스피싱에서 다른 연령대와 성별의 피해액이나 피해 비율 등의 수치는 제시하지 않고, 20, 30대 여

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성 중 소수인원의 사례만 부각시켜 젊은 여성이 보이 스피싱에 취약하다고 단정 짓고 있음. 또한, 전문직일 수록 보이 스피싱 범죄 수법과 예방법에 관심이 적어 피해를 입는다고 하는 의견을 여과 없이 그대로 인용한 것은 여성에 대한 잘못된 성별 고정관념을 조장함.
11월 2일 (목)	스포츠 동아	‘택시’ 수주·이영자 속옷 이야기 꺼내자 오만석 ‘당황’	<p>· “브래지어 안 해” 수주·이영자 깜짝 발언...</p>  <p>모델 ‘수주’가 직업과 본인의 신체적 특성상 브래지어를 잘 착용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자, 진행자인 이영자가 본인도 답답해서 잘 하지 않는다고 대답함. 직업, 신체적 특성, 가치관 등을 이유로 개인의 속옷 선택 및 착용 여부는 자유로운 것이 당연함. 하지만 여성들의 이러한 발언에 남성 진행자가 당황했다는 내용을 기사로 전하고, 특히 메인화면에서는 “브래지어 안해, 수주, 이영자 깜짝 발언”이라는 제목을 설정하여,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는 여성을 비정상적이라고 여기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전달함.</p>
11월 6일 (월)	스포츠 동아	별 “‘무한도전’ 아내들 주기적 만남...한수민 악플 걱정”	최근 미니 앨범을 낸 가수 별의 패션 화보 소식을 전하는 기사임. 기사는 그녀의 앨범과 화보에 대한 소식을 전하면서, ‘무한도전’ 멤버의 아내 모임에 대해서도 비중 있게 다룸. 별은 “언니(무한도전 멤버의 아내)들이 정말 예쁘고 착한데다 가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도전 오빠들이 밖에 나가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언급으로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함.

(2) 여성의 주체성 무시/ 남성 의존성향 강조

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11월 1일 (수)	KBS	[고현정] 20~30대 여성만 노린 보이스피싱, ‘그놈 목소리’ 공개	최근 20~30대 젊은 여성이 보이 스피싱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임. 기사는 전화 금융 사기범들이 젊은 여성을 표적으로 삼는 이유로 ‘비교적 범죄에 대한 의심이 적다’는 점 등을 들고 있으나, 이는 성급한 일반화로 여성의 주체성을 무시하는 분석임.

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11월 3일 (금)	코리아 타임스	여자친구를 누구보다 믿었던 남자의 결말	<p>리얼리티 쇼 <바람둥이 잡기>에서 한 남성이 여자친구를 시험하려고 작업남을 보냈다가 작업남이 여성에게 호감을 사는데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오열했다고 소개하는 기사임. 프로그램 참여 이유로 “여자친구의 페미니즘 성향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해져서 사이가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내용을 담음. 남녀 사이가 멀어진 원인이 여성이 가진 페미니즘 때문인 것처럼 보도해, 페미니스트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강화하고 있음.</p>
11월 6일 (월)	서울신문	강경화 장관, 염색 안 하게 된 이유 “미장원이 너무 비싸	<p>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프로그램 <김어준의 블랙 하우스>에 출연하여 염색을 안 한 이유에 관해 밝힌 내용을 보도한 기사임. 장관의 딸도 흰머리에 대해 심각하게 언급해 염색을 했지만 UN 업무 시절 비싼 물가로 인해 염색을 하지 않았다고 말함. 프로그램에서 이야기 나눈 많은 내용 중 염색에 관한 언급을 선택해 기사로 내놓음. 장관의 업무보다는 여성으로서 치장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보도해 전문가로서의 주체성을 무시하고 있음.</p>
11월 7일 (화)	국민일보	단정한 의상 속 ‘숨은 그림찾기’... 멜라니아 여사의 패션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flex-start;">  <div style="flex: 1;"> <p>방한 중인 미국의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한국 도착 당시 입었던 코트와 하이힐의 브랜드명, 가격 등을 기사에 자세히 소개하며 전직 모델로서의 패션 감각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음. 국민 방문에서 대통령 부인의 역할과 의의는 다루지 않고 여성의 외적인 모습만 강조해 여성의 주체성을 무시함.</p> </div> </div>

(3) 외모지상주의 조장

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10월 30일 (월)	스포츠 동아	[DAY컷] '로봇이 아니야' 채수빈, '인형보다 더 예쁜' 로봇변신	 <p>방영 예정인 드라마 <로봇이 아니야>에 대해 소개하는 기사임. 기사에서는 새로 시작하는 드라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으나 기사 제목 및 내용 일부에서 “인형보다 더 예쁜 로봇”을 연기하는 배우의 외모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함.</p>
11월 1일 (수)	아시아 경제	반 가려도 초미모 [포토] 얼굴 반을 가려도...빛나는 '초절정 미모'	 <p>러시아 출신 모델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을 게재하면서 '초절정 미모'라고 부르거나 '인형미모' 등 과도한 표현으로 여성의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함.</p>
11월 1일 (수)	파이낸셜 뉴스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 연예계 데뷔까지	

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살로 인해 애인과 헤어지고 나쁜 생각을 많이 해 마지막으로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도전한 중국의 '웨이자'는 4개월 동안 36kg을 감량했다는 내용의 기사임. 기사에 따르면 살이 빠지고 난 뒤 웨이자는 "청순한 미녀로 변신"하고 "중국 네티즌들은 그의 미모와 몸매에 환호했다"며 지속해서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김.
11월 2일 (목)	머니 투데이	'183cm 미녀골퍼' 산드라갈, 비키니로 볼륨감 과시	<p>'183cm 미녀골퍼' 산드라갈, 비키니로 볼륨감 과시</p> <p>머니투데이 미녀투데이 김혜순 기자 입력 2017.11.02 09:19 조회 152295</p> <p>기사 소설닷컴(1) 기사공유: 기+ -</p>  <p>산드라갈 / 사진출처=산드라갈 인스타그램</p> <p>프로골퍼 산드라 갈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밸런스 액트"란 글과 함께 올린 사진을 소개함. 소개 기사의 제목과 내용에 줄곧 '미녀'라는 수식어를 붙여 여성 운동선수의 외모를 평가하고 있음.</p>
11월 3일 (금)	일간 스포츠	'미모 레전드 찍었다' 화제된 트와이스 쯔위 직캠 영상	 <p>걸그룹 트와이스의 컴백을 다룬 기사인데 신곡보다는 멤버인 쯔위의 외모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룸. "점점 예뻐지는 것 같다", "매일이 리즈(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절) 경신", "전보다 가름해진 턱선으로 돌아와 여성스러운 매력이 더해졌다" 등으로 여성 연예인의 외모를 평가하며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함</p>
11월 3일 (금)	스포츠 동아	나이는 숫자일 뿐... 야노시호,	모델 야노시호가 홍보하는 샴푸 브랜드의 영상 이미지와 함께, 나이는 숫자일 뿐, 고풍적인 미모와 분위기로 그녀가 한층 아름다워진 미모를 자랑한다고 전

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고혹적인 미모+분위기	<p>함. 여성은 나이와 무관하게 아름다워야 한다는 등의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함.</p> 
11월 3일 (금)	스포츠 동아	설리, 하얀 피부에 백설공주 실사판 미모... “나 뭐했게”	 <p>여성 연예인이 SNS에 올린 화보 촬영 현장 사진을 소재로, “백옥같은 피부에 드레스를 착용하여 백설공주를 연상하게 한다”고 그녀의 미모를 칭찬함. 이에 대한 누리꾼의 반응들까지 소개하며 아름다운 여성만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함.</p>
11월 3일 (금)	스포츠 동아	부럽다... 한혜진, 오늘도 열일하는 '명품 바디라인'	 <p>유명 모델인 한혜진이 스포츠 언더웨어 브랜드 화보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전달하는 기사임. 모델로서의 능력보다 그녀의 군살 없는 몸매를 칭찬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여성이라면 날씬한 몸매를 지향해야 한다는 고정 관념을 조장함.</p>
11월 3일 (금)	스포츠 동아	설리, 광채 피부로 역시 '셀카 여신' 리즈	<p>연예인 설리가 SNS에 올린 셀카를 소개하며, 청순한 외모가 돋보인다고 설명하고, 그녀의 외모를 칭찬하는 누리꾼의 반응까지 덧붙이며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함.</p>

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갱신...“미모 실화나?”	
11월 4일 (토)	스포츠 동아	‘별거가 별거냐?’ 박수홍, 별거 남편들 이끌고 폴댄스 도전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에서 남성 진행자가 출연자들에게 폴 댄스를 배워야 한다고 설득하면서 아내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힙업된 ‘성난 엉덩이’가 필수 조건이라고 함. 남성들의 운동 목적을 ‘건강’이 아니라 ‘아내, 여성들에게 사랑받기 위함’으로 왜곡하며, 근육질의 남성만 이성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는 등의 고정관념을 조장함.
11월 4일 (토)	파이낸셜 뉴스	제왕절개 출산 2주 만에 돌아온 ‘식스팩맘’	 한 여성이 출산 이후 다시 ‘식스팩’을 되찾았다고 보도하는 내용. 함께 실은 사진은 여성의 몸매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 선정적이며, 기사 내용은 출산 이후에도 여성의 미모를 유지하기 위해 몸매를 관리하길 은연중에 강요하고 있음.
11월 6일 (월)	스포츠 동아	한혜진, 매혹美 발산 ‘예뻐 주의보’	주얼리 브랜드의 광고 촬영 소식 전달 및 해당 브랜드의 홍보를 위한 기사임에도, ‘한혜진, 매혹 발산 예뻐주의보’라는 제목으로 광고 모델의 아름다운 외모를

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화보]	소재 삼아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함.
11월 6일 (월)	일간 스포츠	별, '화보 공개' 뚜렷한 이목구비에... '몸매'도 뚜렷	 <p>가수 별이 미니앨범 발표하며 컴백을 다루는 기사인데 앨범에 관한 언급보다는 “출산 후에도 늘씬한 미모로 변함 없는 미모를 과시했다.”라며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함.</p>
11월 7일 (화)	세계일보	[포토] 트와이스 쯔위, '완벽한 복근'	 <p>여성 아이돌인 쯔위의 복부 노출 패션에 대해 '완벽한 복근'이라는 제목과 노출 부위를 강조한 사진을 즐즐이 실어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함.</p>
11월 7일 (화)	아시아 경제	못 알아 볼뻔 남보라, 청순미 가득한 셀카 공개... “바다가 보이니 마음이 힐링됩니다”	 <p>연예인 남보라의 사진을 올리며 “청순미 가득한 미모”라고 제목을 달고 기사 내용에서는 “검은색의 원피스와 귀걸이를 코디해 청순하면서도 과즙미 넘치는 패션을 완성시켰다” 등의 표현으로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고 있음.</p>
11월 7일 (화)	SBS	살 빼면 난리 난다던 NRG 노유민 근황...”30kg	과거 아이돌 그룹으로 활동했던 NRG 멤버 노유민이 12년만에 컴백을 하기 위해 체중 감량을 하고 전성기 시절의 외모로 돌아와 화제가 되고 있다는 기사임. “과거 NRG 활동 당시 순정만화에서 나올 듯한 미소

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감량 성공"	<p>년 같은 외모로 큰 사랑을 받았다”, “과하게 늘어난 체중에 팬들의 걱정을 샀던 노유민은 12년 만에 NRG로 활동을 준비하면서 혹독한 다이어트로 무려 30kg 감량에 성공해 예전의 외모를 되찾았다.”는 등의 내용은 다이어트를 강요하며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함.</p> 
11월 7일 (화)	스포츠 동아	하루에 113억 버는 만수르, 두 번째 아내의 미모는?	 <p>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 왕가 만수르의 아름다운 두 번째 부인에 대한 기사임. 언론에 거의 노출되지 않는 첫 번째 부인과 달리 두 번째 부인이 잘 알려진 이유를 그녀의 서구적인 미모 덕분이라고 분석하며,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김.</p>

(4) 여성의 성적대상화

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11월 1일 (수)	아시아 경제	[포토] 구하라, 악마 코스프레 '이 와중에 섹시'	 <p>배우 겸 가수 구하라가 할로윈데이를 맞아 악마로 코</p>

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스프레한 사진을 자신의 SNS(인스타그램)에 게재한 것을 그대로 보도하며 “이 와중에 섹시”하다는 제목과 “특히 초미니 원피스와 망사 스타킹으로 섹시한 매력까지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라는 내용으로 성적대상화하고 있음.
11월 1일 (수)	스포탈 코리아	“시선 쏟아담는 무결점 모델”	 <p>쇼핑몰 모델 김예림의 인스타그램에서 차용한 사진을 게재한 기사. 비키니를 입은 그녀를 “굴곡진 몸매”와 “섹시한 매력”이라고 표현하고 “시선을 쏟아담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남성의 성적욕구와 시선을 표현하고 있음.</p>
11월 1일 (수)	전자신문	케이트 업튼, 차원이 다른 비키니 몸매 '메이저리거 도 반할 섹시 매력' ...모델이 된 계기를 보니?	 <p>통통한 글래머 스타일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건강미로 세계 최고 모델이 된 케이트 업튼을 다룬 기사임. 기사의 제목에서 “차원이 다른 비키니 몸매”라는 표현을 사용해 성적대상화하고 게재된 이미지 또한 신체 노출이 있는 사진을 사용하여 그녀의 건강한 아름다움보다는 성적인 면이 부각되어 있음.</p>

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11월 1일 (수)	OSEN	대중상 영화제	 <p>김사랑, '가슴 굴곡 지안, '저고리는 어 이하늬, '이런 몸매</p> <p>제54회 대중상 영화제 레드카펫 행사를 취재한 내용을 담은 기사에서 노출이 심한 여배우들의 사진을 공개함. “파격적인”, “가슴 굴곡”, “저고리는 어디에”, “이런 몸매 어디 있나요?”란 문구들을 사용하며 여성을 성적대상화 하고 있음.</p>
11월 2일 (목)	아시아 경제	그룹 내 몸매 담당 [포토] 모모 '트와이스 몸매 담당'	 <p>쇼케이스에 참석해 무대를 선보이고 있는 여성 아이돌 모모의 사진을 여러 장 게시하며 '몸매 담당'이라고 성적대상화함.</p>
11월 3일 (금)	아시아 경제	5년만에 화들짝 [포토] '5년 만에 복귀' 개그우먼 김미연 명품 몸매 화보	 <p>오랜만에 복귀한 개그우먼 김미연이 찍은 화보 사진을 게재하며 '명품 몸매'라는 김미연을 수식하고 있음. 또한 기사 내용에는 '아찔한 몸매'라고 표현하거나 '개미 허리'를 강조하며 성적대상화하고 있음.</p>

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11월 7일 (화)	스포츠 동아	시노자키 아이, '몽환' 화보집 결국 품절 대란	 <p>남성지 맥심(MAXIM)에서 출시한 시노자키 아이의 화보집이 온라인 서점에서 품절됐다는 내용을 기사화하면서, 남성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촬영된 여성의 선정적 이미지를 그대로 공개함.</p>

(5)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단어와 행동의 무분별 사용

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11월 2일 (목)	스포츠 동아	김 카다시안, 1991년 마돈나로 완벽 변신... '할로윈 퀸'	 <p>'엉덩이녀' 카다시안, 육감적 마돈나 변신</p> <p>기사 제목과 내용은 할리우드 모델 겸 탤런트인 김 카다시안의 할로윈 분장을 소개하는 것이었으나, 메인 화면의 기사 제목은 "엉덩이녀 카다시안, 육감적 마돈나 변신"으로 불필요한 성적 이미지를 연상하게 하였음.</p>
11월 2일 (목)	코리아 헤럴드	(영상) 분홍빛 여대생의 '복분자 댄스'	

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전북 고창에서 열린 유행가 부르기 대회에 출연한 여성이 노래하는 영상을 게재한 기사임. 스테미너 음식과 ‘분홍빛 여대생’이란 단어를 사용한 제목에서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함.
11월 2일 (목)	코리아 헤럴드	(영상) 거친 남자들 틈 여대생 인부.... 재건축현장	 <p>기사에 첨부된 영상 속에는 열심히 일하는 여성의 모습만이 담겨 있지만 “거친 남자들 틈 여대생 인부”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함. 또한 여성의 어깨가 노출된 장면을 의도적으로 캡처해 이미지를 삽입함.</p>
11월 6일 (월)	스포츠 동아	EXID, ‘덜덜덜’ MV 티저 공개... 한층 진해진 섹시美	 <p>걸그룹 EXID가 신곡의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기사 제목에 ‘한층 진해진 섹시美’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성적 이미지를 연상하게 함.</p>
11월 7일 (화)	스포츠 동아	[DAY컷] 클라라, ‘멜로홀릭’ 깜짝 출연... 넘나 자유분방한 급식사	<p>클라라, 방송서 이 노출 실화냐...이런 급...</p>  <p>배우 클라라가 케이블 드라마 <멜로홀릭>에 깜짝 출연했다는 기사 내용이나, 메인 화면에서는 “클라라, 방송서 이 노출 실화냐...” 등의 제목을 노출하여, 성적 이미지를 연상하게 하고 있음.</p>

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11월 7일 (화)	스포츠 동아	‘비행소녀’ 이태임 “별명 ‘울산의 조오련’, 섬으로 수영하러 다녀”	 <p>이태임, 여전한 수영복 자태...국보급 몸매에 깜짝</p> <p>기사는 배우 이태임이 어릴 때부터 물을 좋아하여 수영을 즐긴다는 내용이나 메인 페이지에 노출된 제목은 “여전한 수영복 자태, 국보급 몸매에 깜짝”으로 노출하여 성적 호기심을 자극함.</p>

(6) 선정성

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11월 1일 (수)	아시아 경제	갑자기 지퍼를... [포토] '골프 여신' 안신애, 과감한 탈의 '깜짝'	 <p>기사의 내용에는 “이날 안신애는 날이 더워지자 입고 있던 비옷을 과감하게 탈의하고 경기에 임했다.”라고 쓰여있으나 기사 내용과는 다르게 “갑자기 지퍼를...”, “과감한 탈의 ‘깜짝’”이라며 네티즌의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하고 있음.</p>
11월 1일 (수)	스포탈 코리아	중요부위가 찢어진 부상을 당한 선수	 <p>스페인 2부 리그 ‘세군다 디비전’ 알바세테의 수비수 마리아노 비톨로(27)가 중요 부위를 10바늘이나 꿰매는 큰 부상을 입었다는 기사임. 팀 동료와 충돌하면서</p>

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성기에 큰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인데 상처를 확인하는 선수의 모습을 담은 사진은 선정적이고 불필요한 보도로 보임.
11월 1일 (수)	일간 스포츠	‘화끈한 의상으로 청소 중인 여성들?’	 <p>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베이거스 골든나이츠와 버펄로 세이버스의 북미아이스하키리그(NHL) 경기가 열림. 크루 멤버들이 하프타임 때 빙질을 다듬는 모습을 두고 “화끈한 의상으로 청소 중인 여성들?”이라며 선정적인 단어로 제목을 달고 여성의 신체를 부각시키는 사진들을 게재함.</p>
11월 1일 (수)	서울신문	“길 가던 여성 덮친 인도 남성”	 <p>인도의 한 인적 드문 도로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는 남성의 모습에 대해 보도한 기사임. 인도의 한 도로에서 남성이 길목에 다다르자 갑자기 성폭행을 시도했고, 피해 여성이 강하게 저항하자 가해자가 그대로 도망친 사건임. 이 사건이 녹화된 전체 CCTV 영상을 그대로 기사에 노출함. 성범죄 미수 사건의 전체 영상을 보여주는 것은 모방범죄의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굉장히 자극적인 내용임. 또한 “길 가던 여성 덮친 인도 남성”이라는 제목도 지나치게 선정적임.</p>

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11월 4일 (토)	서울신문	치마에 하이힐 신고 음담패설 한 60대 남성 붙잡혀	 <p>여장을 하고 공공화장실에서 음담패설 후 SNS에서 논란이 된 남성에 관한 기사임. 여성 복장과 화장을 한 남성이 유사 성행위를 요구하다가 붙잡혔다는 내용임.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그의 엽기적인 모습이 담긴 사진을 언론이 그대로 게시해 선정적이고 자극적임.</p>
11월 4일 (토)	코리아 타임스	인스타그램 스타들의 페이크?	 <p>인스타그램 스타들의 페이크?</p> <p>인스타그램의 피트니스 커뮤니티 속 스타들의 완벽한 모습에 현혹되어 특정 브랜드의 차를 사거나 굶어가며 다이어트를 하지 말라는 내용의 기사. 사진상의 보이는 완벽한 모습을 그대로 믿지 말라는 기사인데 기사 내용과 상관없이 노출이 심한 선정적인 사진을 게재하고 있음.</p>
11월 6일 (월)	코리아 헤럴드	예능 진행자, 생방송 중 치마 때문에 '곤혹'	 <p>여성 진행자가 생방송 중 벌레가 기어다니는 느낌을 받아 치마를 들쳐 벌레를 찾아 헤매는 장면이 게재된 기사. 여성의 신체 부위가 노출되거나 손이 치마 속으로 들어간 장면을 캡처해 선정적이고 자극적으로 기사에 실고 있음.</p>

날짜	언론사	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11월 6일 (월)	스포츠 동아	박수홍, 방송서 폴댄서 강사에 사심 폭발 “소송감 이야”	 <p>케이블 채널에서 남성 연예인들이 여성 강사에게 폴댄스를 배우는 장면이 방송됨. 폴댄스에 서툰 남성 연예인들이 강사와 함께 고난도 동작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선정적인 장면이 연출됨. 기사에서는 유독 해당 장면의 사진과 함께 제목으로 “소송감이야”라며 선정적인 문구를 사용함.</p>
11월 7일 (화)	일간 스포츠	‘원조 섹스 심벌’ 샤론스톤, 여전한 볼륨 몸매 ‘눈길’	 <p>미국 마이애미 근교의 한 해변에서 샤론 스톤이 지인들과 함께 휴가를 즐기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들을 보도함. 검은 색상의 수영복을 착용한 샤론 스톤의 엉덩이를 클로즈업 하거나 수영복의 사타구니 부위를 내리는 사진은 매우 선정적이며 제목 또한 자극적으로 설정하고 있음.</p>

온라인 커뮤니티 모니터링 보고서(4월)

I. 들어가며

서울YWCA 양성평등 미디어 모니터링회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속 성차별적 사례를 찾아내어 분석하기 위해 성차별적 커뮤니티 16개를 선정²⁰⁾, 이에 대해 2017년 4월 1일부터 7일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모니터링은 온라인 커뮤니티 16개에 대하여 각각 게시물 100개 및 해당 게시물에 달린 댓글 10개씩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모니터링 지표는 「온라인 성차별성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도구 개발연구」(이수연·정수연·김수아·나운주(2015),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개발된 도구를 활용하였다.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은 다음과 같다.

II. 모니터링 개요

- 모니터 장르 : 온라인 커뮤니티
- 모니터링 기간 : 2017년 4월 1일~7일(7일간)
- 모니터링 매체 : 온라인 커뮤니티
- 대상 내용 : 게시물(100건) 및 댓글(게시물당 10건)
- 모니터링 내용 : ‘혐오/폭력성 글, ‘비난/비하’ 글 중심으로 모니터링
- 모니터인원 : 13명

[표1] 모니터링 대상 온라인 커뮤니티 목록

(단위: 건)

NO.	커뮤니티명	목 적	페이지 주소	게시물 수	댓글 수
1	82쿡	생활요리 커뮤니티	www.82cook.com	100	1,000
2	네아뉴스스탠드	포털사이트 뉴스	newsstand.naver.com	100	1,000
3	네이트판	정보공유 커뮤니티	pann.nate.com	100	1,000
4	다음뉴스	포털사이트 뉴스	media.daum.net	100	1,000
5	다음아고라	네티즌 토론 커뮤니티	agora.media.daum.net	100	1,000
6	디시인사이드	커뮤니티 포털사이트	gall.dcinside.com	100	1,000
7	디젤매니아	패션 커뮤니티	cafe.naver.com/dieselmania	100	1,000
8	레몬테라스	인테리어 커뮤니티	cafe.naver.com/remonterrace	100	1,000
9	메갈리아	미러링 커뮤니티	www.facebook.com/mersgall4	100	1,000
10	베스티즈	동영상·음악 커뮤니티	besthgc.cafe24.com	100	1,000

20) 「온라인 성차별성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도구 개발연구」(이수연, 정수연, 김수아, 나운주(2015)), 및 「온라인 속 성차별사례 이슈 모니터링 보고서」(서울YWCA,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6.11))를 참고하여 커뮤니티 16개를 선정함

NO.	커뮤니티명	목적	페이지 주소	게시물 수	댓글 수
11	아이러브싸커	스포츠(축구) 커뮤니티	cafe.daum.net/WorldcupLove	100	1,000
12	엠엘비파크	스포츠(야구) 커뮤니티	mlbpark.donga.com	100	1,000
13	워마드	미러링 커뮤니티	womad.me	100	1,000
14	유튜브	동영상 플랫폼	www.youtube.com	100	1,000
15	일간베스트	유머 커뮤니티	www.ilbe.com	100	1,000
16	쪽방카페	패션·뷰티 커뮤니티	cafe.daum.net/ok1221	100	1,000
합 계				1,600	16,000

Ⅲ. 결과분석

온라인 커뮤니티의 주요 양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게시물/댓글의 성차별 유형

온라인 상의 성차별 게시물/댓글 수를 분석한 결과, 모니터링 기간 중 총 26건의 성차별적 게시물과 142건의 댓글이 발견되었다. 성차별적인 게시물과 댓글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혐오/비난'이 116건(69%), '폭력/성적대상화'가 52건(31%)으로 나타났다.

[표2] 유형별 성차별적 게시물 및 댓글 수 (단위: 건)

유형	게시글	댓글	합계
혐오/비난	15	86	101
폭력/성적대상화	11	41	52
합 계	26	127	153

2. 커뮤니티별 성차별적 게시물/댓글 수

온라인 커뮤니티별로 성차별적인 게시물과 댓글 수를 분석한 결과 일간베스트에서 성차별적 게시물/댓글이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44건, 28.7%). 그 다음으로는 워마드(32건, 20.9%), 메갈리아(23건, 15%), 유튜브(19건, 12.4%)순으로 이어졌다. 한편 2016년 11월에 진행된 온라인 커뮤니티 모니터링 결과에서는 일간베스트에서 성차별적 게시물/댓글이 가장 많이 발견되었고(23건, 39.0%), 그 다음으로는 네이트판(10건, 15.3%), 워마드(7건, 11.9%), 메갈리아(6건, 10.2%), 유튜브(6건, 10.2%)순으로 이어졌다.([표3] 참고) 2016년 모니터링 결과와 비교하면 일간베스트, 워마드, 메갈리아, 유튜브 등의 동일한 커뮤니티에서 성차별적 발언과 내용이 더욱 많이 발견되어 그 양상이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3] 커뮤니티별 성차별적 게시물 및 댓글 수

(가나다순, 단위: 건)

연 번	커뮤니티명	2017년 4월					2016년 11월				
		게시글 수		댓글 수		합 계	게시글 수		댓글 수		합 계
		혐오/ 비난	폭력/ 성적 대상화	혐오/ 비난	폭력/ 성적 대상화		혐오/ 비난	폭력/ 성적 대상화	혐오/ 비난	폭력/ 성적 대상화	
1	82쪽	1	-	2	-	3	-	-	1	-	1
2	네이버뉴스스탠드	-	1	-	-	1					
3	네이트판	1	-	7	1	9	2	-	7	-	9
4	다음뉴스	-	-	2	2	4	분석대상 아님				
5	다음아고라	-	-	-	-	-	-	-	1	-	1
6	디시인사이드	-	-	7	2	9	1	-	1	2	4
7	디젤매니아	-	1	-	-	1	분석대상 아님				
8	레몬테라스	-	1	-	-	1	분석대상 아님				
9	메갈리아	-	-	23	-	23	4	-	1	1	6
10	베스티즈	-	1	6	-	7	-	-	1	-	1
11	아이러브사커	-	-	-	-	0	분석대상 아님				
12	엠엘비파크	-	-	-	-	-	분석대상 아님				
13	워마드	8	4	10	10	32	1	1	-	5	7
14	유튜브	1	2	14	2	19	-	-	2	4	6
15	일간베스트	4	1	15	24	44	1	1	12	9	23
16	쪽빵카페	-	-	-	-	-	분석대상 아님				
소 계		15	11	86	41	153	9	2	26	21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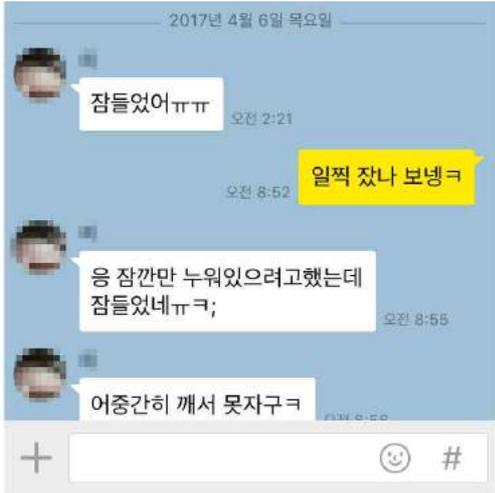
IV. 내용분석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한 온라인 속 성차별적 게시물과 댓글의 내용분석을 위해 ‘혐오/비난’과 ‘폭력/성적대상화’의 2개 범주로 분류하였다. 두 가지의 성차별적 속성이 함께 드러난 사례는 중요하게 드러난 속성의 범주에 포함시켰으며, 해당내용은 맞춤법과 띄어쓰기, 은어를 포함한 원문 그대로를 실었다.

1. 혐오/비난

‘김치녀’, ‘맘충’, ‘한남(충)’ 등 특정 성을 경멸적인 속성으로 환원해 유형화한 단어 사용이 다수였다. 또한 여성 관련 특정 커뮤니티 유저를 비하하는 용어인 ‘메갈런/메돼지(메갈리아)’, ‘웜돼지(워마드)’ 등은 상대방의 의견을 비난하거나 매도하는 상황에 사용되어 자유로운 토론 분위기 형성을 저해했다. 나아가 성기를 중심으로 한 원색적인 표현들이 난무하며 무차별적인 혐오가 온라인 커뮤니티 곳곳에 자리잡고 있었다.

1) 게시물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 (해당 글/분석)
일간베스트	아침부터 김치년이 열받게해서 차단함	4/6	아침부터 김치년이 열받게해서 차단함 <small>다미안작러</small> <small>2017.04.06 09:21:59</small> 소개팅한 여성을 '김치녀'로 비하하고 있으며 여성을 일반화함.
일간베스트	(시발련 저장소) 여친 어제 술먹다 연락 갑자기 끊기고 오늘 아침 연락옴 ㅋ	4/6	 <p>여자친구와 주고받은 메신저를 캡처하여 올린 글을 '시발련저장소'라는 카테고리 분류했고, 갑작스레 연락 끊긴 이유를 적절한 근거 없이 여자 친구의 외도 때문이라고 단정지음.</p>
일간베스트	긴급) 워태지 또 해외 사이트 조작 들어갔다!! !!	4/6	<p>요약하면</p> <p>해외 지식인 사이트 1위인 quora에 가계영 존나만들어서 저들끼리 한남은왜이러요 한남성범코 켈개멍니요 결혼하고 저들끼리 만만다는 계획ㅋㅋㅋㅋ</p> <p>저들 만나준다니가 박쳐서 썩대물도 못만나게하노 썩랄ㅋㅋ</p> <p>사실상 아들의 한남개 아니냐? 주책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당개~~</p> <p>링크 http://m.womad.me/r/%ED%94%84%EB%A1%9C%EC%A0%9D%ED%8A%B8</p> <p>커뮤니티 '워마드' 이용자들을 '워태지'라는 말로 비하하였고, 그들의 계획은 한국 남자들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며 여성의 주체성을 무시함.</p>
일간베스트	김치녀 = 짐승	4/7	일본여성에 비해 한국여성이 더 세다는 점을 근거로 한국 여성이 '짐승'이라는 논리적 비약을 내보이면서, 그 때문에 '삼일에 한 번씩 때려야 한다.'는 여성혐오적 단어를 사용함.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 (해당 글/분석)
			<p>원배 - 일간베스트 ☆ 1</p> <p>김치녀 = 짐승</p> <p>https://www.jibee.com/9637361751 [토사하기]</p>  <p>김승과 대화로 해결할 수 있나?</p> <p>김치녀는 심, 몸, 힘이 달</p> <p>마음마 김치녀는 정말 심정승이다</p> <p>댓글 394 조회수 41</p>
워마드	오늘의 영어... 양남들에게 있고 한남들에게는 없는 영어단어	4/6	<p>슬랭으로 남자의 작은 고추를 knob라고 한다고 합니다.</p> <p>왜냐면 이 손잡이가 얼핏 남자의 귀두와 닮았기 때문인데요..</p> <p>고추가 너무 작아서 귀두밖에 없다는 걸 빗대어 knob라는 말이 쓰이기 시작한거죠~ ~</p> <p>"His penis is so short that it is only a knob"</p> <p>개 고추가 너무 작아서 손잡이(귀두)만 있더라.</p> <p>그래도 양남들은 귀두라도 크니까 불행중 다행이지 한남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영어네요!</p> <p>한국 남성의 성기를 언급하며 한국남성 전체를 혐오하는 발언을 함.</p>
워마드	이쁘고 여려리한 남자애 노리개로 삼고싶다.. .ㅎ	4/7	<p>밖에도 못나갈정도로 자존감 재기한 이혼남겨 성노리개로 삼고싶당</p> <p>휠랑에 가둬놓고 영양결핍상태로 만들어서 사육시킬거다 이기.. 햇빛도 못보게 만들고 물만 먹여야지 사람이 아니고 짐승새끼니까 개사료만 조금씩 먹여서 키울거야..ㅎ</p> <p>한국 남성을 짐승으로 취급하며 성노예로 전락시킴.</p>
워마드	[보지놀이테 ㅁ 여기 연애중인 웁런 있음 들어와라. 난 니들 연애안녕 하길 빌어줄게.	4/6	<p>제목 [보지놀이테] ㅁ 여기 연애중인 웁런 있음 들어와라. 난 니들 연애안녕하길 빌어줄게.</p> <p>작성자 현남홍유병경수379 조회 140 추천 11 댓글 6</p> <p>지금 니 폐남을 머리빠치고, 주를 생기고 배너우고 혀진 부랄도 시랑 할수 있다는 거니까 ㅁㅁ 난 응원한다.</p> <p>급게 재기해라. 같이 ㅁㅁ</p> <p>웁런들 생각 해봐라. 니 남종이 머리 빠지고 주를 생기고 부랄 쳐지면 보지가 축축해지는지, 아니면 바삭 마르는지.</p> <p>한국 남성들의 외모를 비하하며 자살(재기)하라는 과격한 단어를 사용함.</p>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 (해당 글/분석)
위마드	[보지놀이터] ㄹㅇ 남자는 불알 때문에 문명생활에 부적합하지 않냐	4/6	<p>제목 [보지놀이터] ㄹㅇ 남자는 불알 때문에 문명생활에 부적합하지 않냐 작성자 툇딱총국밤새744 조회 110 추천 13 댓글 3</p> <p>자전거 좀 타려고 해도 빼먹! 남자는 전립선 보호해야 돼서 특수 안장 타야 하거든요! ㅇㅈㄹ</p> <p>짐 좀 지으려 해도 빼먹!!! 남자는 덩치가 커서 문도 크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ㅇㅈㄹ</p> <p>남자 배려한다고 낭비하고 있는 자원이 얼마나 많냐 이기야 ㄹㅇ</p> <p>남성의 성기를 근거로 남성에 대해 혐오감을 조성하고 있음.</p>
위마드	[보지놀이터] 길가는 한남 손쉽게 공격하는 법	4/7	<p>제목 [보지놀이터] 길가는 한남 손쉽게 공격하는 법 작성자 한남국밤새399 조회 743 추천 83 댓글 12</p> <p>한남 얼굴을 쳐다보고 눈 마주치면 쿡 하고 웃어준다 이때 쿡은 너무 웃겨서 미칠것같은걸 입을 단아서 나오는 쿡은 소리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전하는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기야는 한남 10여 8 9는 저 얼굴이 저 웃김달라(늘 그렇지만 한남 스스로는 도통) 긴장해서 입을 굳어진다 먹이 눈동자는 겁을 잃는다ㅋㅋㅋ ㅋㅋㅋ 길잡이면서 한남 10은 그날 기분 좋길게 할수있다ㅋㅋㅋ</p> <p>남성의 얼굴에 대해 모욕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한남'이라는 혐오 표현을 사용해 남성을 비하하고 있음.</p>
위마드	[보지놀이터] 도서관 남자들한테 현실타격 줄 만한 장난 뭐 없노	4/7	<p>제목 [보지놀이터] 도서관 남자들한테 현실타격 줄 만한 장난 뭐 없노 작성자 하용가개돼지245 조회 98 추천 4 댓글 9</p> <p>씨씨티비있어서 책에 커피쏟기 물건 훔치기는 안되고 머없노 도서관 남자들 이유없이 싫노 죽이고싶다익이야</p> <p>남성에 대한 무조건적인 혐오를 드러내고 있음.</p>
위마드	[보지놀이터] 좇달고 200못 버는건 왜그런거 노??	4/7	<p>제목 [보지놀이터] 좇달고 200못 버는건 왜그런거 노?? 작성자 한남총밤주613 조회 425 추천 50 댓글 4</p> <p>좇달 나면 오세 취준하면서 과일 몇개만 해도 200은 거뜬히 버는데 사회생활 하면서 세후 200못하는 김치총들은 얼마나 무능한건지 같이 안깝지도 ㅋㅋㅋㅋㅋ 나 상식선에선 이화가 안람 200총 300총이란 단어 달고다니는 좇놈들 재기시켜버려야 한다 이기 롤살시켜서 비프로 쓰는 편이 나은 쉼</p> <p>남성의 무능함을 강조해 남성을 비하하고 원색적인 표현이 담긴 단어를 사용해 남성에 대한 혐오감을 조성하고 있음.</p>
위마드	[보지놀이터] 모든건 다 한남때문이다	4/7	<p>제목 [보지놀이터] 모든건 다 한남때문이다 작성자 툇딱총전립선암28 조회 36 추천 1 댓글 1</p> <p>한남이랑 얽히면 잘 되는 일이 1도 없노 좇같은 한남총들이 사람 사는 데 이래라저러라 지랄병나고 다 재기시켜버리고싶노 후필 일이 좇같이 풀릴때마다 내 탓만 하며 자책을 해왔는데 이젠 마음속으로 몇번이고 되뇌인다. 이게 다 한남총 때문이다</p> <p>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단어를 선정해 남성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내고 있음.</p>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 (해당 글/분석)
네이트판	한남총 인성쓰레기 기 짜질한게 세계 최정상급 ㅋㅋ	2016/1 0/23	<p>특특 > 남자들끼리만 > 채널보기 ▶ 목록 < 이전글 다음글 ></p> <p>한남총 인성쓰레기 짜질한게 세계 최정상급ㅋㅋ</p> <p>ㅇㅇ (핀) 2016.10.23 03:17 조회 804</p> <hr/> <p>한남총을 짜질함ㅋㅋ 오늘 열받는일이 있고 해서 편의점으로 뭐사러 갔는데 내가 찾는 과자도 안보여서 뭐 있냐면서 물어봤는데 내말은 안듣고 물건정리나 하고있음 마침 스트레스풀겸 가서 저기요 제가 한말 안들리세요 뭐라했는데 갑자기 막말하는거임 만들었다 크게 쳐말해라 일하는거안보이나 가까이말해라 일하는거 안보이나 눈알 장식으로다냐 꼬우면 꺼져 이러는거임ㅋㅋ 역시 한남총 인성수준ㅋㅋ 아무리 진상미래도 손님인데ㅋ 한남총을 열폭할거면 해보세요^^</p> <p>한국 남성을 낮추어 벌레에 비유하며 남성을 열등한 존재로 만들어 비난함.</p>
82쿵	저두 소시오패스 같은 여자 알아요	4/1	<p>제목 : 저두 소시오패스같은 여자 알아요</p> <p>조회수 : 3,881 작성일 : 2017-04-01</p> <p>외모는 엄청 미끈긴 마는데 매력있어요</p> <p>20대 후반미우요</p> <p>잘난 남자들 만나면</p> <p>그냥 약간 도도하게 보이는데</p> <p>남자들이 백이 가요</p> <p>좋아하는 감정이 없는 여잔데</p> <p>좋아하는척 인기해요</p> <p>남자가 눈치 채고 떠날라 그럼</p> <p>으 집고 그렇다고 사귀는것도 아니고</p> <p>괴로워하는 감정을 갖고 놀아요</p> <p>왜 그러나 그럴 심심해서 그렇데요</p> <p>사랑하는 감정을 단 한번도 가져 보적 없고</p> <p>무로해서 근데 남자들이 자기 때문에 힘들어 하는거</p> <p>보는게 좋네요</p> <p>그것도 사회적으로 성공한 남자들만 골라서요</p> <p>미저 소시오패스 마남가요</p> <p style="text-align: right;">IP : 119.201</p> <p>흔히 '밀당을 한다'는 표현처럼 연애에 있어 쉽게 마음을 주지 않은 여성을 한정하여 '소시오패스'라고 규정하고 있음.</p>
유튜브	김여사 페라리 288 스파이더 사고영상	4/3	 <p>김여사 페라리488스파이더 사고영상</p> <p>최준우 조회수 2,464,532회</p>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 (해당 글/분석)
			페라리라는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를 굳이 여성이라는 속성을 강조해 '김여사'라는 여성비하적 단어를 사용함.

2) 댓글

혐오/비난의 내용을 담고 있는 댓글은 총 86개로 분석되었다. 특히, 메태지, 맘충, 김여사, 한남충 등 상대 성을 혐오하는 단어를 많이 발견할 수 있었으며, 욕설을 포함한 내용의 댓글도 다수 발견되었다. 게시글의 내용이 성차별적일수록 그 댓글에서 게시글의 내용을 동조하며 혐오와 비난하는 내용이 더 많은 경향이 있었으며, 특히 일간베스트에서는 하나의 게시글에 달리는 댓글들의 거의 대부분이 혐오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커뮤니티	게시글	작성일	댓글 내용
디시인사이드	[국갤] 안경 몰카 검거현장. gif	4/4	팩트폭격기 220.81.* * 어릴 때갈 씩되지년이 캐소리하면서 초상권침해를 지 쫓대로 말하고 있어 씨발년이 ㅋㅋ
	[국갤] 라스 나온 걸그룹 와꾸 모음.jpg	4/4	da 인생 패배자 안여대 와꾸걸들이 저지분히계 고추글으면서 모니터앞에서 여자들 열경하는가 상상하니끼 토니움 ○○ ㄷㄷ 매돼지 새끼 들 공경공경 보러보 오지네 ㄷㄷ 매돼지년들은 우리 광족외이스 그만까라 ㄷㄷ
	[국갤] 여자들 난리.. 약동뮤지 션 논란 .jpg	4/5	엠미숀은 🤔 평소 꽃소리 못들으니까 심술년들이 우리 여자들을 꽃애라 부르지마하고 꿀투발 경로 차단하는거 팩트 - ○ 한국년들 대부분 못생겼잖아 그러니 약해심경 생기고 얼굴로 자신 없으니 사회적 출세라도 노력하려고 경할만 여자 할당제 아껴거나 추천 하는거지 1.132.44 ○○ 끝미 할당제들은 대개 얼마나 재빨랐으면 여자들 의 모로만 경가하지 말라 그러냐? 의모는 놀러이 애고? ㅋㅋ관리하고 꾸며서 잘 생기고 미백보이면 글에 맞는 이상 만나고 그런 거지 시발 미친년들 진짜 자존감 씩향나서 외출한 번 안 하고 인터넷에서 저 미미니즘 위문해 강해 사는 년들같음 231.627.4
	[국갤] 깜짝.. 요즘 초등학생 계급 .jpg	4/5	198번 밍충년들이 유모차도 저지랄 하잖아 ㅋㅋㅋㅋㅋㅋㅋ 씨발년들 존나 피곤하게 살아 ㅋㅋㅋㅋㅋ
일간베스트	보지는 어딜 가나 거기서 거기다.sa milhan	4/6	② 쿠치벌리 시랄하는 사이여서 그정도 해줄수 있는거면 여자 보지도 팔아서 값아달라 할수 있겠지? ③ 삼청교육원장 보자들 찡녀기질은 유전적인거라
일간베스트	유아인 군대 갈수 있을듯.jpg	4/6	③ 위대한트럼프 군대 가고싶다는 포스터에 웬 보*틀만 있냐.. ④ 콜리스라인발포 군대 군대도 안가는 보지년들이 광고냐. 저년들 성전환 수술해서 다 군대가는거냐?

커뮤니티	게시글	작성일	댓글 내용
			<p>③ 손상매니저 대체 포스터에 여자는 왜 있는거지? 존나머이없네 시발 여자라서 군대도 안가는 년들이 남자들은 강제지만 지들은 선택이면서</p> <p>⑥ 대통령문재인님 보지들이나 보내지 장애인을 다 끌고 가려 그러네</p>
일간베스트	김제동 개새끼 아니다.	4/6	<p>② 피카츄진화고츄 존나 웃기네ㅋㅋㅋ 메갈들이 다 똥은 여자연애인 좋아하듯 남자 가치를 하락 시켜서 지도 거기 면승하려고 하는데 ㅋㅋㅋ현실은..</p>
일간베스트	긴급 웬택지 또 해외사이트 조작 들어갔다!!!!	4/6	<p>① 머가리든거없음 저런데서 한국에 호감 갖게되면 외국애들 호기심에 '라도' 한번 관광 올테고 그러면 일돼지년들이 그렇게 공에 그리는 양쪽 못 볼수 있을텐데 ㅋㅋㅋㅋㅋㅋ 상대적으로 외국 나가서 백마 흑마 라티나들이랑 경쟁 하면서 양쪽 빼는것 보다는 조금 수월 할텐데 ㅋㅋㅋㅋㅋㅋ</p> <p>① 카카오TV 주작과 다중이가 원래 보지들 종족 아니겠냐 카카오티비도 웬택지들이 식민지만든지 오래임</p> <p>② 머공초보 +1 메갈은 진짜 악이다 이 씨발년들은 존나게 패야됨 나는 메갈년들이 저 애비, 동생도 한남출이라고 욕하는거보고 진짜 소름 돋았음 마무리 병신이라도 그렇지 저 애비, 동생한테 저런 단어를 쓸수가 있냐??? 집이 풍가루집안이라 가능한거?</p>
일간베스트	(속보) "문재인, UN 北결의안 기권	4/7	<p>④ ① 개린종이환 대머리 풀똥 위우고대니는새끼들보면 애니머이선저쪽 달똥위우는놈이나 걸그름쪽애다니는놈들하고 진실 똑같애야보일</p>
일간베스트	김치녀 = 짐승	4/7	<p>① 전쟁이다씨발 김치녀하고는 절대로 결혼하지마라 씨발년들 좃되는수가 있으니까 김치녀하고는 절대 결혼하지마라</p> <p>① 정상인정당한개만 옛날에 마는형님이 여자는 패면 말듣는다고 했는데</p> <p>① 와꾸대잠 게르만 성님이 공인한 외골수 고집불통 한국녀</p> <p>⑧ 장노무성재명숙청 사회가 너무 여자만 챙겨준 탓이다</p>
메갈리아	몰카찍은 국가대표 수영선수, 성범죄자 등록 안 된다	2016/ 9/1	<p>몰카 찍고 리벤지 포르노도 찍어서 올릴거지만 여자가 감해 남자 신상을 털면 잡혀가야 한다니까요? 뼈에애애영----- 좋아요 · 댓글 달기 · 13 · 2016년 9월 1일 오후 9:46</p> <p>ㅋ이런 나라에서 뭘 더 희망을 가져야하는건지... 태어나는 여자애들 너무 불쌍하다 좋아요 · 댓글 달기 · 13 · 2016년 9월 1일 오후 11:05</p> <p>자지들이 하면 그래 그럴 수 있지.. 여자들이 0.0000000001%라도 한번 찍이는게 대한민국 좋아요 · 댓글 달기 · 6 · 2016년 9월 1일 오후 11:24</p>

커뮤니티	게시글	작성일	댓글 내용
메갈리아	'남혐'은 수사대상... '여혐'은 기각? 경찰, 이중 잣대 논란	2016/9/1	Dolce Jegi Yoon 이사람 말 많죠~~ 아주 중립적이고~~ 좋아요 · 답글 달기 · 🗳️ 2 · 2016년 8월 19일 오후 7:56
			Hyeon Ju Jin 노어이 진짜 얼척이 없네. 메갈런들 싸잡는 인간 옹호하면서 메갈 취 펄 때는 신나다가 메갈이 일억 모으니까 아차 싶더노? 좋아요 · 답글 달기 · 🗳️ 11 · 2016년 8월 19일 오후 10:35
메갈리아	메갈리아 페이지가 없어진 것에 대한 공지와 이에 대한 페이스북 관리자의 의견	2016/6/17	미선김 메갈티언제와오?빨리입고 한남총좌패고싶어오8ㄴ8!!!광광! 좋아요 · 답글 달기 · 🗳️ 58 · 2016년 6월 17일 오후 5:17 · 수정됨
			Marianne Joh ㅋㅋ 메갈이 무서워 좃물을 질질 ㅠㅜㅠ 좋아요 · 답글 달기 · 🗳️ 8 · 2016년 6월 17일 오후 5:28
메갈리아	남녀임금 격차 관련 글	2016/6/11	Hanna Bae 편향된 머가리뺨은 여혐충 특징:유인원 들먹거리는 좃명칭 댓글은 아무말도 안하면서 끊임없이 자료와 해석을 요청하고 근거가 부조카내요 휴우ㅎ 하나 딱 남겨놓음 ㅋㅋㅋㅋㅋㅋ 좋아요 · 답글 달기 · 🗳️ 17 · 2016년 6월 11일 오후 8:42
메갈리아	성평등 조항 개헌 관련 글	3/22	유난희 초등학교선생님들이 다 여자인건 넘져새끼들 머가리가 텅텅 비었기때문이지 좋아요 · 답글 달기 · 🗳️ 1 · 3월 23일 오후 12:56
			김우정 넘져가 뺨대가리라서 시험을 통과못하는데 어떡해요 그럼 좋아요 · 답글 달기 · 🗳️ 3 · 3월 23일 오후 5:06
메갈리아	성추행 관련 글	3/19	Swan Lee 한남이들은 여혐 없으면 살 수가 없나 보네요^^ 좋아요 · 답글 달기 · 🗳️ 1 · 3월 19일 오후 6:39
			Juntae Gi 자적자는 과학 좋아요 · 답글 달기 · 🗳️ 2 · 3월 19일 오후 9:46
메갈리아	필리핀 성매수 관련 글	3/7	조정은 한국남자(졸여쓰지 않으면 혐오 표현 아니라면서요?)들이 공감능력이 없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 답글 달기 · 🗳️ 11 · 3월 7일 오후 8:08
메갈리아	가스 검침원을 사칭한 성폭력, 살인 강도 사건 관련 글	2/3	Daniel Jeong ㄸ의 숙주들... 좋아요 · 답글 달기 · 🗳️ 22 · 2월 3일 오후 1:32
			강진영 남성 검침원으로 사칭해서 여성 고객에게 범죄 저지른다는 것에서 1차 씨발.. 여성 검침원 보냈더니 ㄸ의 숙주의 범죄 타켓된다는 것에 2차 씨발 --- 더 뭐 같은 건 이런 상황이 특별하다고 여기지 않는 나.. 여성대상 범죄는 언제 멈추나 🙄🙄🙄 좋아요 · 답글 달기 · 🗳️ 18 · 2월 4일 오후 9:46 · 수정됨
			김수현 이 한남은 인류의 실수다. 태어나지말았어야함. 애초에 열등한 유전자로 인해 도태되서 멸종했어야할 것들이 강간으로 번식 이어와서 이질 된거. 좋아요 · 답글 달기 · 🗳️ 5 · 2월 4일 오전 11:00
	성제리 아오 진짜 한남 존나 미개해 좋아요 · 답글 달기 · 🗳️ 1 · 2월 4일 오후 2:46		
메갈리아	데이트폭력 이 담긴	2/2	Stella Kim 한남총이 만든 천박한 브랜드 좋아요 · 답글 달기 · 🗳️ 18 · 2월 2일 오후 4:55

커뮤니티	게시글	작성일	댓글 내용
메갈리아	광고 관련 글		신원영 미친놈들— 남혐тол충되네요 좋아요 · 답글 달기 · 8 · 2월 2일 오후 6:19
메갈리아	래퍼 산이의 여혐 기사 관련 글	2016/12 /1	송은재 어휴 박근혜가 여자 아니었음 어떻게 욕하려고;;; 한남들이 다 저모양이지 뭐 이때다 싶어서 여혐 못읽어~ 좋아요 · 답글 달기 · 36 · 2016년 12월 1일 오전 11:47
메갈리아	'꽃뱀' 낙인과 관련 글	2016/11 /29	황민준 조센여자 화이팅 한남총들과 맞서 싸우는 것치들이 아릅답습nida 좋아요 · 답글 달기 · 2 · 2016년 11월 30일 오후 1:01
메갈리아	성매매 합법에 대해 ..불쌍한 한국여자들..	8/4	관용자들을 보거나 불법인데도 하는 새끼들이 49퍼인데 합법대면 불만하겠노 씨발 미개한 곳의 속주 한남총사끼들
82쿵	의대생 사촌 조카 이제 인생 어찌나요	4/1	쓴맛 저렇게 남자 잡아서 얼마나 행복하다고 여자애가 겁도 없이 팔자고치려고 임신공격한것 같은데 남자가 맘 떠나면 오래 못가요
82쿵	장가 갈 수 있을까요?	4/2	근데 여자야 당연히 살빠는거 중요한데 남자는 외모가 중요한건 아니자나요 능력이 중요하지
네이트판	+추가) 현재 트위터에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악동뮤지션 이찬혁.jpg	4/2	2017.04.02 20:29 1 5 왜 메갈들이 여성을 꽃에비유하는걸 극혐하는줄아냐? 지들은들어본적없으니 질투해서그런거임 ㅋㅋㅋㅋ 이쁜애들은 꽃에비유하면 좋아하고 지들스스로도꽃에비유하고다니는데 꼭 면상뺨은 남성혐오돼지년들이 꽃을혐오함 ㅋㅋ 답글 0개 · 답글쓰기
네이트판	신랑이 장난이랍시고 자꾸 때려요	4/1	2017.04.02 09:46 여자애는 좀 맞아도 돼, 니도 성찰좀 있네.
네이트판	우리반 남자애들 핵설렘ㅋㅋㅋㅋ	4/1	2017.04.01 19:54 여자는 3일 한번 씩 패야하는데 이렇게 바스대우 해주니까 나이들어서 ㅋㅋ상페 되는 거지 바스기득권 진짜 극혐이다. 내가 좋아하는 여자애 한테만 잘해주면 되지 왜 다른 여자애들 배려해줘야 하나
네이트판	니가 할일을 나한테 시키지말라는 남편. 남편과 함께 볼게요. 솔직한	4/2	메갈논리 2017.04.02 22:32 메갈똥뽕이를 지를 시집도 못갈꺼 헬케 부들대는지 아냐???: 여혐 남혐사상 전파해서 결혼을 낮추고 자기를 정당화 하려고 이려는거임 다 주작 소설에 속지마시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커뮤니티	게시글	작성일	댓글 내용
	의견 부탁드려요		<p>♂ 2017.04.02 22:00 1 6</p> <p>진짜 요즘 이기적인 한국년들 너무 많다 자기만 힘들고 자기만 일하지 ㅋㅋㅋㅋㅋ 그래 이런데 와서라도 니들끼리 풀어라 ㅋㅋㅋㅋㅋㅋㅋ 그게 여자들 종특이지 뭐 ㅋㅋㅋ</p> <p>2017.04.02 19:05 4 0</p> <p>▣ 그냥 전형적 한남종, 그리고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니까 못하는거죠, 여자는 태어날때부터 애 낳보나, 나는 저런 한남종 안 걸리기를, 비나이다, 비나이다.....</p> <p>♂ Korei 2017.04.02 20:02 0 0</p> <p>▣ 하여튼 김치를 언제부터 남녀평등이라고 사상이 ㅉㅉ 여자가 할일은 좀 여자가 해라 이 여자들아</p> <p>답글 5개 답글쓰기</p>
유튜브	김여사 페라리488 스파이더 사고영상	4/5	<p>고성훈 2주 전 이래서시발 여자들은 운전하면안되</p> <p>mental J 2주 전 말 아진짜 씨야 이 씨발 김치년아... 보기만해도 존나빡도네</p> <p>qandar1 2주 전 메갈김치년 운지밖에 답이없노이기</p> <p>난초도사 2주 전 아니 씨발 이영상 왜 올리는건데? 육먹을라고? 씨발 페라리라 저정도로 끝났지 만약 가족이 타고있던 경차나 일반 국산차였음 다 전멸이야!! 씨발년 개좆같은 김여사야 너같이 개병신처럼 운전하니 김여사 육먹고 죄없는사람 죽고 가족들 파산 시키는거야! 이글보면 진짜 운전하지 마라!! 상대자가 페라리 라는게 고맙다고 해라 진짜 미친년 민소탈 들올라고 영상을 올리는지... 간략히</p> <p>강승현 2주 전 목 끊어라 씨발년아</p> <p>시나브로 2주 전 시발 저년이제 몸팔면서 4억벌어야되네 ㅋ 병@신년</p> <p>정씨아재 2주 전 김여사가 대단한일했네. 과속하지마라고 교훈을남기셨고 여자는 운전하지마라는 교훈도 주셨지</p> <p>jazzyman 2주 전 조선년들은 어릴때부터 지만 알도록 교육받습니다. 그래서 남을 고려하거나 배려하는 법을 모르죠.</p> <p>Yongun Kim 2주 전 그냥 여자들 운전하지마 시발년들 사이드안보고 차선바꾸는건 기본 일방통행에서 역주행하는년들 기본이고 양보해준다고 천천히 가줘도 병신꼴보처럼 쳐 있다가 아씨발하면서 갈라치면 그때 쳐 들어와서 사고나게만들</p>
유튜브	[스낵비디오] 대학교 조별 과제 유형	4/7	<p>이재명대통령 2주 전 못생겼는데 예뻐하면서 끼부기는거 정마 못봐주겠다</p> <p>현준 2주 전 스낵 ㅉ같은 팀들과제 스낵권들 모이기로 해놓고 연락두절 나중에 연락와서는 시간을 안알려줬다고 오히려 김치질 ㅎㅎㅎㅎ 스낵년들</p>
유튜브	얼굴은 예쁜데 남자한테 인기없는	4/6	<p>99 99 2주 전 예뻐서 얼굴값 하겠다고 지갑 여는 모습 1도 보여주지 않으면 정내미 딱 떨어짐</p>

커뮤니티	게시글	작성일	댓글 내용
	여자 특징 /남자심리		<p>조윤태 2주 전 김치녀일듯</p> <p>Jayce Jang 2주 전(수정됨) "성격이 남자같고 털털하다","너무 예뻐서 부담스럽거나 남자친구 있겠지"가 가장 큰 이유 나 머지는 간과해도될 정도 밑당 안한다고 싫어한다고? 그런남자가 있나 밑당하는 여자 극형인데 폰은 끼고 살면서 일부로 시간 끌면서 보내는 여자 특히 극형 공감하는 남자들 많을텐데</p>
위마드	[보지놀이터] 여기 연애중인 워런 있음 들어와라. 난 니들 연애안하길 빌어줄게.	4/6	<p>작성자 하용기별김우238 2017-04-06 10:46:12 0 0 11 *양남들은 니 면생업에 촉발같은 손에 주름 자글자글한 면상에 배딱지 튀어나온 율체지에 검고 늘어난 보징어냄새나는 허벌도 사랑해줄 거같다는 거니가 만날수있으면 꼭 양남만나라 난 응원한다 생각해봐라 양남들이 발기가되는지안되는지 변탈하지말고 화이팅</p> <p>작성자 재기군우새863 좆런들이 자들거리는걸 보니 워넘각</p> <p>작성자 자라니깡후113 김치좆 묻었노 워추준다</p>
위마드	[보지놀이터] 남자들 좆팔 맨날 사름뚫받아서 남혐한다고 하는데	4/6	<p>작성자 이익이별김우99 2017-04-06 13:42:52 0 2 0 자기중심적인새끼들이라 그렇게밖에 뇌가리를 굴릴수밖에없는뽕엘스스 이만새끼들이랑 사담대사람으로 이성적이고 서로를존중하는 토.크기가늘어나라 일단 지남시간들이 영나 아깝노, 그냥 놀리다잡다 던지고 두꺼꾸까쳐 패야 알아 쳐들올새끼들인데. 인간대접필요없 는 김치좆들</p> <p>작성자 자라니소후중983 와꾸가 안되는데 남혐하는게 당연한거아니노 ㅋㅋㅋ</p>
위마드	[보지놀이터] 도서관 냐저들한테 현실타격 줄 만한 장난 뭐 없노	4/7	<p>작성자 자라니유병장수946 아니면 고이접은 쪽지 남겨라 못생기고 냄새나니 꺼져주라 한남</p>
위마드	[보지놀이터] 볼 때마다 탄식 나오는 어떤 워런이 올린 사진	4/7	<p>작성자 한남기안내668 김치좆들 미개하게 사진한장으로 다 설명되노</p> <p>작성자 이익이군우새2 와..... 허.. 한남들은 살가치가 없다</p> <p>작성자 한남총평범수977 ㅋㅋㅋㅋㅋㅋ어렸을때 다리에 전족했냐</p> <p>작성자 느껴비6.9실좆329 야 한국남자들 진짜 다 죽어줘야겠는데???</p>
베스티즈	지나친 이기심이 부른 참사.jpg	4/4	<p>최장마 한남총은 전부다 죽어야함</p> <p>마1242러스 개씨발새끼 노민은 좆까라 시블</p>

커뮤니티	게시글	작성일	댓글 내용
	중국 20대 아내 체벌하는 40대 부동산재벌 남편.jpg	4/4	포도당 고추달린 놈들이 문제야
			최장마 한남총이 또
			최장사 한남총이 한짓이네
	스타벅스 '텀블러' 사재기... 온라인서 웃돈 받고 되팔아	4/5	아울랑깨롱 김치년들 종특
다음뉴스	결혼 안 하는 일본인.. 男 4명 중 한 명 미혼	4/6	박카스 2017.04.06 20:44 일본남들은 그래도 개님 어느정도 박민 자국여자들과도 결혼하는데 개님이라고는 없는 막장 김치녀들과도 결혼 못해서 안달난 김치녀들은 병신인거 인종하는거냐?
	아이 출입 금지 식당, 어찌 생각하시나요	4/6	노동전문변호사 2017.04.06 21:59 우리 어머니 세대는 피해주면 후들겨 패가며 가르쳤지만. 요새 애미란것들은 명중화 되서 지새끼가 가장 우선인 것들이라. 답글 30 2466 214 노동전문변호사 2017.04.06 21:59 이런 현상은 많을때문이지 답글 15 2002 172

2. 폭력/성적대상화

특정 성의 속성을 들어 폄하하거나 성적 매력의 결격사유를 지적하고 성적대상화하여 불쾌감을 유발하는 표현들이 사용됐다. 다소 과격한 게시물/댓글에는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모욕적·폭력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신체 부위 중 한 곳을 강조해 성적 이미지가 연상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시물도 있었다. 또한 성기로 특정 성을 지칭하는 혐오적 단어들을 사용하는 등 욕설과 폭력적인 표현들이 많았다.

1) 게시물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 (해당 글/분석)
일간베스트	전라도 호스트 창남새끼 면상공개~	4/7	<p>성매매업소 근무 이력을 꼬투리 잡아 성희롱함.</p>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 (해당 글/분석)
레몬 테라스	남자분들 한표 던지고 가세용~~ 몸매 VS 얼굴 VS 나이어림	4/4	 <p>남자분들 한표 던지고 가세용~~ 몸매 VS 얼굴 VS 나이어림</p> <p>남자분들 다른 조건 다 동일하게 봤다고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radio"/> 여신급 얼굴 <input type="radio"/> 실현 행차는 몸매 <input type="radio"/> 10살 정도 여러 피부땡땡 위험저격매교장학 <p>적을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운독 공금하시네요* 뭐 하실리요?</p> <p>이 작성자의 게시글 더보기</p> <p>남성의 시각에서 여성을 대상화하고 유형화하고 있음.</p>
유튜브	얼굴은 예쁜데 남자한테 인기없는 여자 특징/남자 심리	4/5	 <p>예쁜 외모를 가졌지만 의외로 남자들에게 인기가 없는 여자들이 있다. 아니면, 처음에는 인기가 많았지만, 남자들이 쉽게 질리는 경우도 있다. 오늘은 이러한 여자들의 특징 5가지를 알아보자.</p> <p>얼굴은 예쁜데 남자한테 인기없는 여자 특징 / 남자심리</p> <p>남녀백과사전</p> <p>구독 38,312</p> <p>조회수 52,437회</p> <p>‘남자들에게 인기가 없는’, ‘남자들이 쉽게 질리는’ 등과 같은 표현에서 여성을 주체적인 인격체가 아닌 남성에게 의해 평가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드러남. 또한 남성의 시각에서 여성을 유형화하고 있음.</p>
	네 얼굴이 미녀 선생님과 은밀한 커플 요가를 해보았다	2016/1 2/27	 <p>네 얼굴이 미녀 선생님과 은밀한 커플 요가를 해보았다 [커플요가 리뷰 & Challenge] 보이즈빌리지</p> <p>보이즈빌리지 (BOYS VILLAGE)</p> <p>3개월 전 · 조회수 389,935회</p> <p>오늘은 미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커플요가를 해봤습니다. 사랑이 빠지는 색시한 커플요가를 과연 네얼간이가 해낼 수 있을것인가.</p> <p>9:58</p> <p>제목에 ‘미녀 선생님’, ‘은밀한’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마중 그림(섬네일)뿐만 아니라 영상에서도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음.</p>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 (해당 글/분석)
베스티즈	중국) 20대 아내 체벌하는 40대 부동산재벌 남편.jpg	4/4	<div data-bbox="678 302 1300 369"> <p>name 선택안내 subject 중국) 20대 아내 체벌하는 40대 부동산재벌 남편.jpg</p> </div>  <p>여성이 체벌 받는 이미지가 담긴 폭력적인 내용을 게재함.</p>
위마드	[보지놀이터] 넣음직한 놈이 안보이네요,,,	4/6	<p>제목 [보지놀이터] 넣음직한 놈이 안보이네요,,, 작성자 한남갈축흑두238 조회 75 추천 9 댓글 3</p> <p>요즘 남자들 멀치퐁대다리같이 생겨먹어서리 ㅋㅋㅋㅋ</p> <p>넣음직한 자지 한마리 있으면 시식해볼라구 했는디</p> <p>오늘도 남자들 와꾸상태가 썩 좇치 않습니더</p> <p>아쉬운대로 아들이나 처야지 별 수 있겠습니꺼?</p> <p>와인 빨면서 양능누드 검색하러 가겠습다 총총총</p> <p>남성의 성기에 대한 성적대상화를 하고 있음. 또한 남성의 외모에 대해 비하하고 이동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함.</p>
	[보지놀이터] 나쁜 나중엔 80살 할머니 워련되면 한남들 성추행 하고 다니고 싶다이기	4/7	<p>제목 [보지놀이터] 나쁜 나중엔 80살 할머니 워련되면 한남들 성추행하고 다니고 싶다이기 작성자 한남아름이153 조회 45 추천 10 댓글 1</p> <p>내 손하나 희생해서 한남들한테 수치심을 줄수있다면 풀다이미</p> <p>섹스경류잡잡온데 서있다가 한남오면 마이고 총각 허벅지가 삽해바스 하면서 조물막라고 수치심주고실노 우리 아들같이서 만젠기여스 하고 사노스</p> <p>한남들이 나이많은여자를 무시워린다는 워련급보고 생지났다이미</p> <p>그리고 대다수는 겨우 허벅지간계진걸로 신고 연출것같은 만악 음탕기도 여체피 곧 죽을나이니 권장대익이 음탕에서 뱀어나해야겠노</p> <p>남성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을 정당화하고 있음.</p>
	[보지놀이터] 춘장남 스시남 잘대줌?	4/6	<p>제목 [보지놀이터] 춘장남 스시남 잘대줌? 작성자 하용가어좁이751 조회 108 추천 6 댓글 5</p> <p>잘벌릴??</p> <p>남성의 몸을 성적대상화해 성관계의 도구로 간주하고 있음.</p>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 (해당 글/분석)
	[보지놀이터] 한남연예인보다 좇반인 양자지 와꾸가 더 낫다	4/7	<p>제목 [보지놀이터] 한남연예인보다 좇반인 양자지 와꾸가 더 낫다 작성자 한남총여종이244 조회 111 추천 10 댓글 2</p> <p>박보갈 하수 리민호</p> <p>실물 가까이서 본적이었는데 얼마전에 본 좇반인 급식이 양자지들이 더 이쁘더라 이목구비며 머리카락이며 한남연예인들은 앵나 인위적이고 어색한데 양쇼타들은 자연스럽게 이쁘노</p> <p>한국 남성과 외국 남성의 외모를 비교해 남성의 외모를 평가하고 비하하는 내용을 담음.</p>
디젤 매니아	레인보우 오승아 속옷샷 (후방 주의)	4/7	<p>레인보우 오승아 속옷샷(후방주의) ■ 디제시유머방 ■ 제어공략희범(uk26****) 새욕간지 11 http://cbsnews1.com/di...</p>  <p>신체가 드러나는 옷을 입은 여성의 가슴을 강조한 사진을 게시함. '오승아 속옷샷(후방주의)'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함께 선정적인 사진을 게재함.</p>
네이버 뉴스 스탠드	'몸매甲' 김규리, '등파인' 수영복 입고 레슨 삼매경	4/6	<p>'몸매甲' 김규리, '등파인' 수영복 입고 레슨 삼매경 김태성 기자 / 입력: 2017.04.06 16:12 / 조회: 775</p> <p>f 페이스북 트위터 라인 웨이보 가 + -</p>  <p>배우 김규리가 자신의 SNS에 수영연습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짧은 동영상으로 찍어 게재하였고, 본 기사에서는 김씨의 몸매와 복장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함. '몸매甲'과 '등파인'을 강조해 영상이 성적으로 보이도록 유도함.</p>

2) 댓글

성폭력과 성적대상화의 내용을 담고 있는 댓글은 총 41개로 분석되었다. 여성의 외모와 신체를 평가하는 내용, 성관계를 가지고 싶다는 내용, 성폭력을 하고 싶다는 내용 등 댓글 자체로 성폭력에 해당하는 내용이 다수 발견되었다. 특히 일간베스트에서 발견된 성폭력/성적대상화 내용의 댓글은 24개로, 전체의 58.5%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처럼 성폭력/성적대상화 사례는 혐오/비난 사례에 비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확연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에 대한 성적대상화와 성폭력적 발언의 수위 또한 굉장히 심각하게 드러났다.

커뮤니티	게시글	작성일	댓글 내용
디시인사이드	한국남자 만나면 안되는 딱 세가지이유	4/1	<p>꽃애어 Q 1.와꾸는 한녀중도 할말이 없고 남녀 커차이가 한국은 전세계적으로 큰편에 속한다.</p> <p>꽃애어 Q 2.외외로 한국남자랑 서양남자의 별개시 같아는 큰차이가 없다 오히려 서양녀와 한국녀의 컴크 차이가 더 크다.</p> <p>꽃애어 Q 3.외 가성비 하다차 상품에 돈을 쓰나? 한국남자들의 평균 소득은 여전히 한국여자들 보다 높다.</p>
	[국겔] 안경 몰카 검거현장.gif	4/4	<p>o 개년들이 몰카 싶어하는것 보니 몰카 찍어야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p>
일간베스트저장소	롱보드 타는 여자가 뒤편에서.gif	4/6	<p>1) 노sface 살랑살랑대는거 보기좋은데 왜그러냐 좀 췌개넘어지면 치료해준다고 데려가서 꺾꺾가능</p> <p>2) 강아랑 여자가 타아되는건 내 무릎위밖에없어 타긴멀타 보지할 태워버릴까보다</p> <p>3) 보지bozi 카약~~~~~시발년을 어딜 보지년들이 흥~~~보드를 쳐 타고 지렬이여</p>
일간베스트저장소	뭔가에 집중하는 남자는 멋지다..gif	4/6	<p>4) 1) 벗자마자경쟁병합 첫찰 깨꿀 저런 남자가 감간하면 100% 못벗어남</p>
일간베스트저장소	아침밥 안차려준 아내 체벌.JPG	4/6	<p>2) 신님의필요성 지 궁랭이 자랑하려고 그런거 마님?</p> <p>3) 판사연니 애 돌말린 아줌씨 몸매가 ㄷㄷ</p> <p>4) 2) 리얼코코넛맛우유 존나 꿀린다 영딩이 존나 매질하고 벗겨서 아팠나며 벌름벌름 해주다 뒤치기 광광</p> <p>1) 빨강이는죽여도돼 바지 안벗어 이 시발년아? 팬티도 내려 시발년아</p> <p>4) 2) 청년들결미소녀 -1 다림이득은 남편 사형시키고 재산국가에서 몰수해서 개 보지년 거지만들면 개할 필요로로 첫맛을미가 좋았다는걸 깨닫게 해줘야지</p> <p>2) 루시아DC 보지 시발년을 마포던가 말던가 다 쳐뒤져야돼</p>

커뮤니티	게시글	작성일	댓글 내용
			<p>① 마스터급경영학도 영당이는 때리라고 있는 물건인데 보지가 찢고 행방할 때 안 때리고 넘어가면 색하는거나 다름바 없지</p> <p>↳ ① 7블리즈 는 보빨러겠지 씨발빨레새끼야 계집년이 전업주부하면서 남편밥안차리면 삼일한당하는건 당연한데 그걸 옹호하고있네 애미뒤진새끼 ㅋㅋ 제발 오유로 꺼지렴^^ 여기 일베는 보지년 옹호해주는 사이트 아니란다^^</p>
일간 베스트 저장소	아프리카 다.저번주 흑녀들이다. (자체 검열 완료)n	4/7	<p>① 술달배도박여자 ㅋㅋㅋㅋ타지에서 고생하네 근데 맛있노?</p> <p>↳ ① 바지사장11 국내산만 하려나~~~! 싼맛에~~</p>
일간 베스트 저장소	설현의 눈썰미.jpg	4/7	<p>① 방배동벤질이 +5 가끔 지하홀이나 어디 밥 먹다가도 옆사람이 스마트폰 볼때 바탕화면이나 잠금화면 아이돌 걸그룹 되어있는거 보면 진짜 헛구역질이남 급식들이야 한창 연예인 동경하고 공부따라다닐때라 이해라도 해줄 수 있지만 씨발 다른 성인새끼들이 말이야 특히 좆 파오후 씹 진따새끼들 누군지도 모르는 좆들보 걸그룹 카톡배경화면에 깔아놓고 카톡하는데 진심 짹 소리나게 아가리 한대 치고싶었음 돼지새끼들 그딴 짓거리 하지말고 먹고싶은 음식이나 배경화면에 깔아놔 좆 같은새끼들</p> <p>① KANGMINA 설현 한지민 한테 발렸네 ㅋㅋ</p> <p>④ 그랜uaille 여자들도 겉으로는 새침하다가도 질투는 엄청하네 ㅋㅋㅋㅋㅋㅋ</p> <p>② 엠생계미당 야 얼굴만 봉뽕거봐라</p> <p>③ 자궁전구넣고배기 동남아인 외국인 출신 애는 메인인가 Mc보고 드라마적이고 cf찍고 예능도나오네 박명수랑 캄보디아 수상가족에서 생선구워먹고 낚시하고 근데 와우가 씨발 일반인보다 못하더라</p> <p>④ 노오란꿀 흑인치곤 예쁘네여 ㄷㄷ</p>

커뮤니티	게시글	작성일	댓글 내용
			<p>⑤ 작두위틀건 대주지도 앓을 거면서 심술미노 ㅋㅋ</p> <p>남자연애인이 저했으면 바로 다음날 뉴스각임</p>
일간 베스트 저장소	일본의 섹스전용 섬 매춘도	4/7	<p>② 메롱메롱메롱 +2</p> <p>저노랑 머리시발 4만엔 주고 9시간동안 패고싶네</p>
			<p>③ 알테나</p> <p>20대는 없고 10대가 많은거냐? 여자는 25살까지만 여잔대...</p>
일간 베스트 저장소	예비군의 날 혜택.jpg	4/7	<p>④ 노무현두부박살 +7</p> <p>국약 쉬빨 불러봐 가마금 뜯는년마</p>
			<p>⑤ 런던총 +31</p> <p>입닥치고 가만하있어라 보지짚어버리기전에 씹창년마</p>
유튜브	여자 가수의 안무를 노출과 특정부위 중심으로 밀착촬영..	16/ 02/14	<p> 포포 4개월 전(수정됨) 미안해요; 처음 무대 보고 도우미 활동하시는 분인줄 알고 죄송합니다 답글 · 1 👍 🗨</p>
		16/ 05/01	<p> 한석봉 1주 전 진수 주면 먹을거면서 ㅋ 답글 · 1 👍 🗨</p>
위마드	[보지놀이테 춘장남 스시남 잘대줌?	4/6	<p>작성자 재기머머리72</p> <p>자지들은 만국공통 잘대줌</p>
			<p>작성자 하용가별집후장371</p> <p>동양남들은 일단 사면발이 양식장이 대다수라 좇병각</p>
			<p>작성자 한남총6.9실쪽248</p> <p>동값이라 말만해도 다리 벌리는게 좇놈임</p>
			<p>작성자 한남갈좇흑두686</p> <p>냄새난다든데</p>
			<p>작성자 자라니6.9실쪽263</p> <p>스시남이 춘장남보다 훨씬 좇끔. 춘장남 몰카는 점으로 좇가려짐</p>
위마드	[보지놀이테 넣음 직한 놈이 안보이네요	4/6	<p>작성자 자라니소추중68</p> <p>남자는 외구가 생명인데... 성형할 돈이 없으면 바텀알바라도 하던가... ㄸ</p>
위마드	[보지놀이테 르ㅇ남자 는 불알 때문에 문명생활에 부적합하 지 않냐	4/6	<p>작성자 한남총좇추87</p> <p>한남은 부랄만 세개라 효율성 더 ㄸㄸㄸㄸ</p>

커뮤니티	게시글	작성일	댓글 내용
위마드	[보지놀이테 구남총 대학병원 레지던트였 는데남동기 단독방에 간호사들 육+성희롱 떨었노	4/6	작성자 한남총여유증523 어릴때부터 한남들 이려고놀았노 ㅋㅋ 썩음트츠새끼들이 으데 보지품평질이노 귀두에 못박아발라
			작성자 한남총여유증523 2017-04-06 16:19:55 011 910 4722 저지는 품평당하라고 있는거말 레브지않은 자지는 날개가마니아 누날덜이 이백해우면 후항벌리고 김사하대해이저 적당히기어 올라라
위마드	[보지놀이테 한남 연예인보다 죽반인 양지지 와꾸가 더 낮다	4/7	작성자 가라니갈국국우953 2017-04-07 한남이 아무리 소추무리 중에서 좀 반반해잡과 한남 이육구비 어디 안간다. 영색하고 성형해도 한남은 그냥 한남일뿐
네이트판	우리반 남자애들 핵설렘ㅋㅋ ㅋㅋㅋ	4/1	2017.04.01 20:40 뒤에서 니를 따먹으려고 벌지말을 다하겠지 김치런아ㅋㅋ 답글 0개 답글 쓰기
다음뉴스	[포토엔 클라라 '너무 추워보이는 의상'	4/6	galaxias 2017.04.06 21:26 강 팬티브라만 입고 덩기든가 다 벗고 덩기든가
	"몸매 끝판왕" 제시, 민소매 티 사이로 보이는 육감적 보디라인	4/6	rhdu**** 04.06 19:33 수술한 짓이나 작고 왜소한 짓이나 너무 극혐이라 만지고 싶기는커녕 옷 벗기조차 싫 음...근데 그나마 둘중에 하나 선택하려면 빈유가 나음...물론 빈유도 극혐이긴 하지만 댓글의 댓글 3

V. 나가며

본 보고서에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차별 실태를 분석하였다. 온라인 상의 게시글과 댓글을 중심으로 비난/비하, 혐오, 폭력성 내용을 모니터링한 결과 16개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26개의 게시글과 127개의 댓글을 발췌하였고, 이를 '혐오/비난', '폭력/성적대상화' 2개의 속성으로 분류하여 범주화하였다. 16개의 온라인 커뮤니티 중 성차별적 게시글·댓글이 가장 많은 곳은 일간베스트(28.7%)였으며 그 뒤는 위마드(20.9%)였다.

작년 11월 모니터링 결과와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비교해볼 때 가장 눈여겨볼 점은 바로 '위마드'이다. 작년 11월 모니터링에서는 위마드가 세 번째(11.9%)로 성차별적 게시물이 많았으나 이번 모니터링에서는 일간베스트저장소에 이어 두 번째(19%)순위에 올랐다. 이러한 순위 변동은 일간베스트저장소에서 자행되고 있는 '여성 혐오'에 대응하기 위함으로 파악된다.

2015년 디시인사이드의 ‘메르스 갤러리’ 등장 이후 여성 혐오 담론이 사회에 범람하기 시작했다. 여성 혐오적 발화를 미러링(mirroring)하여 남성에게 되돌려주는 전략을 채택한 메르스 갤러리는 2015년 8월에 ‘메갈리아²¹⁾’라는 이름의 홈페이지를 설립했다. ‘여혐혐(여성 혐오를 혐오한다)’을 표방한 메갈리아와 ‘남혐(남성 혐오)’라는 더 급진적인 전략을 채택한 워마드는 사회 전반에 형성되어 있는 성차별과 성별 불평등에 대해 문제제기했고 이는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한편으로는 메갈리아와 같은 여초 성향 사이트가 오히려 혐오문화를 조장하는 진원지이자 혐오의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²²⁾ 일간베스트저장소는 여성 혐오를, 메갈리아와 워마드는 ‘남성 혐오’를 부추기며 온라인 커뮤니티 간의 성대결 구도가 명확해졌다는 것이다.

모니터링 내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 자행되는 혐오 관련 게시물들은 특정 성을 일반화해 ‘OO녀’, ‘OO충’이라고 유형화해 비난하고 있다. 대개 이러한 게시물 내용들은 하나의 상황 혹은 경험을 가지고 특정 성별의 속성으로 환원시켜 무자비하게 비난한다. 이는 그간 사회에서 개념 없는 ‘일부’ 여성을 개뿔녀, 된장녀, 김여사, 맘충 등으로 네이밍해 처벌하는 여성 혐오의 역사가 배경에 있다. 나아가 ‘일부’ 여성을 근거로 비난했던 것이 불특정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김치녀’의 등장으로 모든 여성이 ‘개념녀’가 되기 위해 여성 스스로 통제하고 검열하게 되었다.

여성에 대한 혐오와 비난은 개념 없는 여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현실의 여성을 참조해 사회적 필요에 따라 재구성된다. ‘개념 없는 여성’ 유형들은 마치 거푸집과 같아서 여성 전체를 엇비슷한 방식으로 찍어낼 수 있게 되었다.²³⁾ 주체성을 상실한 여성들은 분노하기 시작하고, 여성 혐오적 발화를 그대로 가져와 여성과 남성의 위치를 뒤바꿔 말하기 시작했다. 김치녀에 대항한 ‘한남충’ 등 성별에 구분없이 계속해서 혐오 표현들은 유포·재생산되어 온라인 커뮤니티 전반에 뿌리내리고 있다.

20세기 말, 인터넷이 등장하며 수평적이고 평등한 사회적 관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승했으나, 오히려 현재 온라인 사회에서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혐오와 성차별 내용이 확산되고 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삶을 분리할 수 없으므로 온라인 안에서의 혐오 사회는 컴퓨터 밖으로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하다. 따라서 혐오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폐해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의 자정노력과 더불어 현재 자행되고 있는 온라인상의 혐오표현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감시와 제제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온라인 내의 혐오 문화와 성차별적 관행들이 개선되고 성평등한 사회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21) ‘메갈리아’란 ‘메르스’와 ‘이갈리아’의 합성어이다. ‘이갈리아’란 노르웨이 작가 케르드 브란트베르그의 소설 『이갈리아의 딸들』의 배경으로, 남녀 성역할이 뒤바뀐 가상의 세계를 뜻한다. ‘이갈리아’는 평등주의와 유토피아의 합성어이며, 이갈리아의 딸들은 여자와 남자가 뒤바뀐다는 설정을 바탕으로 한다. 현재 메갈리아 사이트는 분열되어 ‘메갈리아4’, ‘메르스 갤러리 저장소’ 등으로 페이스북에 여러 형태로 잔존하고 있다.

22) “결국 여성판 일베였다... ‘메갈리아’ 또 홍역”(한국일보, 2016.01.07.)
 “<일베·메갈리아·워마드> 혐오 사이트 전쟁 ‘막전막후’”(일요시사, 2016.07.16.)

23) 『여성 혐오가 어쨌다구?』(윤길보라 외 5인, 2015)

온라인 커뮤니티 모니터링 보고서(8월)

I. 들어가며

서울YWCA 양성평등 미디어 모니터링회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속 성차별적 사례를 찾아내어 분석하기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 14개를 선정²⁴⁾, 이에 대해 2017년 8월 1일부터 7일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모니터링은 14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하여 각각 게시물 100개 및 해당 게시물에 달린 댓글 10개씩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모니터링 지표는 「온라인 성차별성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도구 개발연구」(이수연·정수연·김수아·나운주(2015),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개발된 도구를 활용하였다.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은 다음과 같다.

II. 모니터링 개요

- 모니터 장르 : 온라인 커뮤니티
- 모니터링 기간 : 2017년 8월 1일~7일(7일간)
- 모니터링 매체 : 온라인 커뮤니티 (표1 참조)
- 대상 내용 : 게시물(100건) 및 댓글(게시물당 10건)
- 모니터링 내용 : ‘혐오/폭력’, ‘비난/비하’ 성격의 글 중심으로 모니터링
- 모니터인원 : 14명

[표1] 모니터링 대상 온라인 커뮤니티 목록

(단위: 건)

NO.	커뮤니티명	목적	페이지 주소	게시물 수	댓글 수
1	82cook	생활요리 커뮤니티	www.82cook.com	100	1,000
2	네이트판	정보공유 커뮤니티	pann.nate.com	100	1,000
3	다음아고라	네티즌 토론 커뮤니티	agora.media.daum.net	100	1,000
4	디시인사이드	커뮤니티 포털사이트	gall.dcinside.com	100	1,000
5	디젤매니아	패션 커뮤니티	cafe.naver.com/dieselmania	100	1,000
6	레몬테라스	인테리어 커뮤니티	cafe.naver.com/remonterrace	100	1,000
7	메갈리아	미러링 커뮤니티	www.facebook.com/mersgall4	100	1,000
8	베스티즈	동영상·음악 커뮤니티	besthgc.cafe24.com	100	1,000
9	아이러브싸커	스포츠(축구) 커뮤니티	cafe.daum.net/WorldcupLove	100	1,000
10	오늘의 유머	유머 커뮤니티	www.todayhumor.co.kr	100	1,000

24) 「온라인 성차별성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도구 개발연구」(이수연, 정수연, 김수아, 나운주(2015)), 및 「온라인 속 성차별사례 이슈 모니터링 보고서」(서울YWCA,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6.11))를 참고하여 커뮤니티 14개를 선정함

NO.	커뮤니티명	목적	페이지 주소	게시물 수	댓글 수
11	엠엘비파크	스포츠(야구) 커뮤니티	mlbpark.donga.com	100	1,000
12	워마드	미러링 커뮤니티	womad.me	100	1,000
13	유튜브	동영상 플랫폼	www.youtube.com	100	1,000
14	일간베스트	유머 커뮤니티	www.ilbe.com	100	1,000
합 계				1,400	14,000

Ⅲ. 결과분석

온라인 커뮤니티의 주요 양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게시물/댓글의 성차별 유형

온라인 상의 성차별 게시물/댓글 수를 분석한 결과, 모니터링 기간 중 총 45건의 성차별적 게시물과 188건의 댓글이 발견되었다. 성차별적인 게시물과 댓글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혐오/비난'이 174건(74.7%), '폭력/성적대상화'가 59건(25.3%)으로 나타났다. (표2 참조)

[표2] 유형별 성차별적 게시물 및 댓글 수

(단위: 건)

유형	게시물	댓글	합계
혐오/비난	27	147	174
폭력/성적대상화	18	41	59
합 계	45	188	233

2. 커뮤니티별 성차별적 게시물/댓글 수

온라인 커뮤니티별로 성차별적인 게시물과 댓글 수를 분석한 결과 디시인사이드에서 성차별적 게시물/댓글이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86건, 36.9%). 그 다음으로는 일간베스트(79건, 33.9%), 워마드(25건, 10.7%)순으로 이어졌다. 한편 2017년 4월에 진행한 온라인 커뮤니티 모니터링 결과에서는 일간베스트에서 성차별적 게시물/댓글이 가장 많이 발견되었고(44건, 28.7%), 그 다음으로는 워마드(32건, 20.9%), 메갈리아(23건, 15%), 유튜브(19건, 12.4%)순으로 이어졌다. 2017년 4월 모니터링 결과와 비교했을 때, 다른 사이트에 비해 디시인사이드와 일간베스트에서 성차별적 게시물이 급격하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해당 모니터링 시기에 '초등학교 페미니스트 교사논란', '웍싱샵 살인사건' 등으로 촉발된 여성 혐오 논란이 늘어난 것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표3 참조)

[표3] 커뮤니티별 성차별적 게시물 및 댓글 수

(가나다순, 단위: 건)

연 번	커뮤니티명	2017년 8월					2017년 4월				
		게시글 수		댓글 수		합 계	게시글 수		댓글 수		합 계
		혐오/ 비난	폭력/ 성적 대상화	혐오/ 비난	폭력/ 성적 대상화		혐오/ 비난	폭력/ 성적 대상화	혐오/ 비난	폭력/ 성적 대상화	
1	82쿡	-	-	-	-	-	1	-	2	-	3
2	네이트판	1	-	6	1	8	1	-	7	1	9
3	다음아고라	-	-	-	-	-	-	-	-	-	-
4	디시인사이드	2	8	49	27	86	-	-	7	2	9
5	디젤매니아	1	1	6	2	10	-	1	-	-	1
6	레몬테라스	-	-	-	-	-	-	1	-	-	1
7	메갈리아	-	-	2	-	2	-	-	23	-	23
8	베스티즈	-	1	8	-	9	-	1	6	-	7
9	아이러브사커	-	-	-	-	-	-	-	-	-	-
10	엠엘비파크	-	-	-	-	-	-	-	-	-	-
11	오늘의 유머	-	-	1	-	1	분석대상 제외				
12	워마드	12	2	11	-	25	8	4	10	10	32
13	유튜브	-	-	9	4	13	1	2	14	2	19
14	일간베스트	11	6	55	7	79	4	1	15	24	44
소 계		27	18	147	41	233	15	10	84	39	148

IV. 내용분석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한 온라인 속 성차별적 게시물과 댓글의 내용분석을 위해 '혐오/비난'과 '폭력/성적대상화'의 2개 범주로 분류하였다. 두 가지의 성차별적 속성이 함께 드러난 사례는 주요하게 드러난 속성의 범주에 포함시켰으며, 해당내용은 맞춤법과 띄어쓰기, 은어를 포함한 원문 그대로를 실었다.

1. 혐오/비난

특정 성의 외모를 두고 깎아내리는 표현이 많았으며 '김치녀', '맘충', '한남(충)' 등 특정 성을 경멸적인 속성으로 환원해 유형화한 단어 사용이 다수였다. 또한 페미니즘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페미니스트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게끔 만드는 내용이 존재했다. 나아가 성기를 중심으로 한 원색적인 표현들이 난무하며 무차별적인 혐오가 온라인 커뮤니티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 (해당 글/분석)
일간베스트	오늘도 여시 괴롭혀 봤다	8/3	 <p>성관계 후 고민을 얘기한 여성을 두고 '먹버당했다'고 칭하는 여성비하적 발언을 함</p>
일간베스트	관중)낸시랭, '몰카당했다' '112에 동료 여가수 신고	8/3	 <p>(양주=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동료 여가수에게 '몰카' 피해를 당했다며 112에 신고해 경찰이 조사 중이다.</p> <p>3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0분에 경기도 양주 시내에서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함께 술을 마시던 가수 A씨가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사기를 친다'며 112에 신고했다.</p> <p>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낸시랭의 범죄 피해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p> <p>당시 낸시랭은 술에 취한 상태로, 신고 이후 인근 파출소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p> <p>낸시랭과 A씨는 최근 양주시의 안 중장비교육센터에서 글자기 등의 편어를 쓰기 위해 합숙 교육을 받았고, 전날 합격에 함께 술을 마셨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p>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 (해당 글/분석)
			<div data-bbox="662 286 1070 591" data-label="Image"> </div> <div data-bbox="662 595 1070 900" data-label="Image"> </div> <p data-bbox="662 929 973 974"> <small>대신 낚시질 보실래요? 그리고 내지는 원형영양제라고 볼 수 있는데 유행에 휩쓸려서... 국적이 없고 외국에서 국적이 무지한 교민들...</small> </p> <p data-bbox="890 996 1018 1019"> 공유하기 댓글 신고 </p> <p data-bbox="662 1041 1361 1115"> 팝아티스트 낸시랭을 두고 캣맘충년, 젓통이 등 여성 비하적 단어를 사용함. </p>
일간베스트	페미니스트 없애는 법?	8/2	<div data-bbox="662 1131 1005 1164" data-label="Text"> <p>이제 페미니스트가 페미니스트를 없애는 법</p> </div> <div data-bbox="662 1182 785 1339" data-label="Image"> </div> <p data-bbox="662 1400 702 1422">간단함</p> <p data-bbox="662 1444 1005 1489"> 페미니스트는 매갈 = 워미드고, 못생기거나 동종해서 남자의 사랑을 못받아서 그게 혐오로 이어진 집단이다. </p> <p data-bbox="662 1500 798 1523">이런 프레임들 만들면됨</p> <p data-bbox="662 1541 933 1563">저게 너무 길면 그냥 못생기거나 동종한여자들이다</p> <p data-bbox="662 1579 798 1601">이런 프레임들 만들면됨</p> <p data-bbox="662 1624 1005 1668"> 일개아들은 항상 뭐 페미니스트 상대하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려고하는데 </p> <p data-bbox="662 1684 798 1706">백날 그래봐야 소용없다</p> <p data-bbox="662 1724 1005 1769"> 개들 논리적으로 말러봐야 논하나 강박안해 그냥 할말없으면 아 올링~ 하고 넘어가거나 너 일베충이지? 하고 넘어감 </p>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 (해당 글/분석)
			<p>늑을 지난번 대선때 생각나나?</p> <p>대놓고 주변사람들이나 보지를 있는데서 홍준표 지지한다고 할 수있었나?</p> <p>난 못했었다 내가 졸보라서 그랬을수도있는데</p> <p>나는 홍준표 지지한다면 입베로 몰릴까봐 그런말 못했다</p> <p>근데 보지들은 남자들보다 주변농들 눈치를 더보거든.</p> <p>진짜 보지들 총독이 바로 눈치보고 분위기 타는거임</p> <p>근데 페미니스트는 메갈 워마드고 못생기거나 동등한여자들이다</p> <p>라는 프레임을 딱 만들어서</p> <p>페미니스트 라고 주장하는것을 눈치보게끔 만들면</p> <p>여자들은 절대 페미니스트라고, 여자 인권 어쩌고 이딴소리 절대 못할거임</p> <p>왜? 그런소리하면 자신이 못생기거나 동등해서 히스테리 부린다 는것을 인정하는 꼴이거든.</p> <p>보지를 대할때는 논리적으로 대하면 안돼, 감정적으로 대해야지</p> <p>페미니스트니 뭐 여자 인권이니 성상품화니 이딴소리 하면</p> <p>논리적으로 대꾸하지말고 딱 한마디만해라</p> <p>너 못생겼지? 너 동등하지? 너 절벽이지?</p> <p>이런 프레임이 조금만 생겨도 보지를 성상품화니 그딴소리 많이 줄어들거다</p> <p>“페미니스트 없애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페미니스트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부여하고 외모를 통해 상대방을 비하하는 방법을 알려줌.</p>
일간베스트	공관병한테 갑질한 대장 마누라년 면상보고가라	8/7	<p>일베 - 일간베스트 속 1</p> <p>공관병한테 갑질한 대장 마누라년 면상보고가라</p> <p>https://www.10k.com/594993301 [복사하기] 2017.08.07</p>  <p>‘메돼지’, ‘돼지같은 년’ 등 혐오 표현을 사용하며 여성의 외모를 깎아내림.</p>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 (해당 글/분석)
일간베스트	맘충 논란에 대한 맘충들 변명 보고가라.	8/7	<p>일베 - 일간베스트 ☆ 1</p> <p>맘충 논란에 대한 맘충들 변명 보고가라.</p> <p>url://www.be2.com/194873277 [복사하기] 2017.06.07 13:05:58</p> <p>내이버 포스트에 '뒤늦은 후회'라는 글이 올라옴.</p> <p>http://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8922768&memberNo=5246326</p> <p>여타 환경만 기사화되면, 맘충에 대한 논란이 되고있다고 소개하고, 맘충들의 의견과 여러 사람들의 의견은 조금씩 내뉘었는데, 맘충들의 의견은 일단시피 일단 결론 파악 못하는 현상임고성 변명임.</p> <p>한번 읽어보지.</p> <p>1. 억지로 물어달라고 한것은 아닌데 왜그래요?</p> <p>'내가 한건 강요가 아니라 가벼운 부탁이었을 뿐이다' 유형.</p> <p>미년들은 저들이 강요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함.</p> <p>씨발 부탁이라는게 받은 사람이 가볍게 거절할 수 있어야 부탁 아니냐?</p> <p>거절하면 인터넷에 올리고 맘충들끼리 모여서 동네방네 소문내고 뒷담까는데 그게 강요가 아니라 부탁이라고?</p> <p>미친년들이 저들이 남한테 끼치는 피해는 존나게 축소해서 생각하지?</p> <p>2. 그거 해나 해주는데 그렇게 미러문거요?</p> <p>씨발 ~~~~~ 내새끼 똑같은 나가정거야 한다는 글라스 ~~~~~</p> <p>김치년들 이렇게 욕하고 뭐고 다 은으로 남한테 피싱하면서 남지한테는 욕만먹이 지않던데 ~~~~~ 정작 가정경제파탈로 남지가 욕먹으로 막아온건데 씨발 ~~~~~</p> <p>결국은 '나' 작은 부탁 들어주는데 욕이 그리 머리우냐 라는건데, 미거 완전 계산을 아니냐?</p> <p>그거 뭐 저새끼 해나쁜 욕이든거면 없었애 부딪히 만날 수도 있었지, 굳애 필요애 문히 필요애지?</p> <p>맘충들끼리 만난 차라해서 서로 핵발한 태우 받았다고 자랑질 하면서 다 미러문거 변하지.</p> <p>그렇게 맘충년들이 무리로 몰려서는 개한테 해왔으니 나한테도 내뉘고라고 '부탁'을 했는데 어떻게 문질러 지잖아 미친년.</p> <p>내가 가애 주인한테 공짜로 달라고 하면 막 항변이나 주인은 부탁을 한번만 받든거다. 뭐 어떻게봐도 보지 못하는거야.</p> <p>가애 주인애 지갑은 맘충 수습터한테서 사달라는데 편애 생각 못하는거라고.</p> <p>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가애주인을 포진할것으로 유도하는거지.</p> <p>그나이 그럴 정도의 댓가를 주고 먹으면 달도 안한다.</p> <p>해나동태 2~3천원미라고 내고 부탁하는것도 아니고 내새끼를 위해서 공짜로 내뉘오라니, 마 씨발 억울겄로 깠사하는 가애주인한테 먹물겄 그부 달라는게 얼마 뒤냐?</p> <p>결국 저는 사람한테 내새끼 먹일 밥알 2~3천원 하는 작은 지름도 이개워서 공짜로 내뉘오라는 남이 가애주인은 작은 지름도 이해하는 (해결방법으로 만들지?)</p> <p>(대중집)가 흥고날 정도로 심대한 괴리를 할 줄 아는 김치년미사다.</p> <p>'맘충', '맘충년들', '김치년들' 등 여성혐오 표현을 사용하고 여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기반으로 '맘충'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합리화함.</p>
일간베스트	Kia ~~ 성매매 여성 인터뷰 클래스 보소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	8/7	<p>일베 - 일간베스트 ☆ 1</p> <p>Kia ~~ 성매매 여성 인터뷰 클래스 보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p> <p>url://www.be2.com/194873277 [복사하기] 2017.06.07 13:05:58</p> <p>[성매매 합·불법 논란의 선상]성매매 여성 이씨 "멸시와 천대, 당신들은 꼭 그래야만 했나요?"</p>  <p>빛 3억... 30대 시작 1000만원 남음....</p> <p>대기업 다니는 애재들 평생 모아는 돈으로 커피숍 차릴까 말까한데</p> <p>몸 몇번 대주고 커피숍 차릴생각함 ~~~~~</p> <p>진짜 개꿀인생 ~~~~~</p> <p>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에 대해 비하함.</p>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 (해당 글/분석)
일간베스트	남자여자 바뀌었으면 김치 보지년들 지랄했을 사건	8/1	<p>남자는 이렇게 쿨 하게 넘기는데 김치년 보지들이 이랬으면 얼마나 지랄했을까?</p> <p>좃같은 김치년들</p> <p>제목과 내용에서 여성을 '김치년', '보지년' 등의 혐오 표현을 통해 여성을 비하함.</p>
일간베스트	김치년 거르는 법.txt	8/1	 <p>세계에서 면상 최하위 순위 주계에 성형 세계 / 귀로 면상 자귀 하며 신체비율 극한의 생명체들 자기보다 이쁜 나라 여자들 이쁜 여자들을 보면 혐담을 하며 못생김년들에게 보이지 않는 동양의 미를 주장한다</p> <p>경제 참여를 세계뿔쳐지만 명품, 명품화장품 소비 세계 최대시장</p> <p>자기는 일 안하면서 남편이 봉어준 돈은 본인이 부조간 찬란해야한다고 주장하면 98퍼센트 김치년이다. 밀고 갈려도 좋다</p> <p>제목과 내용에서 여성을 '김치년'이라는 혐오 표현을 통해 여성을 비하함. 자신의 부정적 여성관을 불특정다수 여성에 투영하여 여성 혐오를 부추김.</p>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 (해당 글/분석)
일간베스트	김치녀가 또... 부천 어린이집 폭행사건 터짐 ㅋㅋㅋㅋ	8/1	 <p>제목과 내용에서 여성혐오 표현인 '김치녀'를 사용함. 특정 인물의 행위를 '김치녀가 또..' 라는 혐오 표현을 통해 불특정다수의 여성에 대한 혐오를 표현함.</p>
일간베스트	늙은 김치녀들 나이트에서 젊은남자 꼬시는거 보고가라	8/1	 <p>역겹노 진짜 씨발 김치녀 아니랄까봐 같보된게 남편탓이라고 짓거리노 김치녀 아웃</p> <p>여성을 두고 '김치녀'이라고 표현하며 중년 여성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내고 있음.</p>
디시인사이드	애미뒤진 향로는 너프 언제하나	8/2	 <p>'향로'는 게임 아이템 이름임. '너프'는 인터넷 상에서 '버프(buff)'의 반대말로 쓰이고 아이템이나 챔피언 등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을 말함. 아이템 기능 약화를 바라는 글과는 상관없는 '애미뒤진'이라는 여성혐오적 수식어를 붙여 여성을 비하함.</p>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 (해당 글/분석)
디시인사이드	오늘자 군대 삼계탕..... 여초카페 반응.....jpg	8/5	<p>국내야구 갤러리</p> <p>개념글 갤러리 검색 즐겨찾기 연관 갤러리(29/28) 갤러리 주소복사 이용안내 차단설정</p> <p>최근 방문 갤러리 국내야구 X</p> <p>제목 오늘자 군대 삼계탕..... 여초카페 반응.....jpg</p> <p>글쓴이 959 조회 31146 댓글 253</p> <p>02:14</p> <p>? 재들 저것도 다 취사병이 만들어줄거야냐 ㅋㅋㅋㅋㅋㅋ 삼계탕 어떻게 만드는지 1도 모름 가서 잘 쳐먹기만 하다 오네</p> <p>대답, 댓글, 셔츠도 아니고 똑같은 반응이리는데..</p> <p>이쯤되면 한국여성은 그냥 같은 인간으로 바라보는게 불가능하지 않나 싶다</p> <p>군대에서 삼계탕을 먹은 내용을 두고 여초 사이트의 반응을 퍼와 '한국여성은 그냥 같은 인간으로 바라보는게 불가능하지 않나 싶다'라며 여성을 일반화해 비하하고 있음.</p>
네이트판	동성애공황이들 ㄹㅇ 극혐	8/4	<p>동성애공황이들 ㄹㅇ 극혐</p> <p>2017-08-04 02:25 조회:27,379 추천:196</p> <p>사람들은 동성애자들끼리 몰고뿔든 관심도 없는데 동성애자들은 꼭 여기저기 시끄럽게 노이즈마케팅함 피해의식에 쫓겨가지고는 화력으로 밀어붙이더라</p> <p>일련 "동성애공황이"들</p> <p>동성애공황이들 주장하는거 보면 논리는 하나도 없고 감정호소와 화력으로만 밀어붙이더라ㅋㅋ</p> <p>난 동성애에 대해 호불호를 떠나서 이에 관심이 없음 근데 저 동성애 공황이들 때문에 싫어짐</p> <p>니를 사귀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으니깐 사귀거든 남들한테 피해주지 말고 조용히 사겨라 ㅋㅋㅋ 니들때문에 가만히 있는 동성애자들도 욕먹는거야</p> <p>뭐만하면 꼬투리 잡아서 논리도없이 일에 거품두는 극혐새끼들</p> <p>동성애옹호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논리가 없다고 말하며 극혐새끼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함</p>
워마드	[보지놀아테 냅져 키가 170도 안 되면 자살해야하는거 아님?ㅋㅋㅋㅋ	8/1	<p>제목 [보지놀아테 냅져 키가 170도 안 되면 자살해야하는거 아님?ㅋㅋㅋㅋ 2017-08-01 20:35:40</p> <p>작성자 자라니평범수318 조회 72 추천 0 댓글 2</p> <p>남성성 자기 어미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p> <p>이거 관련회 공애남 ㄹㅇㅇㅇ?</p> <p>신체적으로 키가 작은 남성을 '장애남'이라고 부르며 남성과 장애인을 비하하고 있음.</p>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 (해당 글/분석)
위마드	[보지놀이테] 포경하면 안중네 어찌네 해도	8/5	<p>제목 [보지놀이테] 포경하면 안중네 어찌네 해도 2017-08-05 19:34:48 작성자 한남연선영651 조회 80 추천 6 댓글 4</p> <p>꽃같은 전남은 포경하면 꽃밭이 안 바뀌어서 꽃이 학기 폼이 어질수 없이 다 하노 ㅋㅋ</p> <p>한국 남성에 대해 비하하고 성희롱함.</p>
위마드	[보지놀이테] 아들치고싶은데 좃나 더워서 의욕상실	8/6	<p>제목 [보지놀이테] 아들치고싶은데 좃나 더워서 의욕상실 2017-08-06 22:19:55 작성자 재기비틀이670 조회 67 추천 12 댓글 6</p> <p>현남을 선택고해 기디놓고 일어대지는기 보면서 아들치고싶다이기</p> <p>한국 남성에 대해 혐오를 드러내고 있음.</p>
위마드	[보지놀이테] 솔직히 위마드 상위 1퍼 남혐러라고 생각하는런 없노	8/6	<p>제목 [보지놀이테] 솔직히 위마드 상위 1퍼 남혐러라고 생각하는런있노 2017-08-06 04:30:38 작성자 한남연선영614 조회 540 추천 40 댓글 6</p> <p>난 데아 난은데부터 남혐러이다. 그리고 보지 마를캠핑이노 구두구두 웃기캠핑 6869696696967거 있는데 유자- 콤으로 문만두고 있던 노데 지날 만물만 주주라게이이다이 난 탈로가 죽고기 이라고 비현민국에서 버틸만큼 버틴다음 시험부선고받으면 ㅎ하하하 불혹까지 죽일기 노 필살</p> <p>한국 남성에 대한 혐오감을 드러내고 있음.</p>
위마드	[보지놀이테] 뱀져들이 처남성 지킨답시고 자위도 제대로 못하는 거 상상해보니 꼴리노	8/6	<p>제목 [보지놀이테] 뱀져들이 처남성 지킨답시고 자위도 제대로 못하는 거 상상해보니 꼴리노 2017-08-06 05:32:05 작성자 재용카서영호827 조회 53 추천 4 댓글 3</p> <p>저고로 뱀져들이란 자위를 위한 소중히 깨어할 이가저를 문이 풍지 않고 현술해서 더 죽어버리는 행위라서 자기할 때이다 스스로 억눌러야 하는거노</p> <p>저다가 저왕실 학제 되면 처남성일 짚는 것이므로 처남성 지쳐야한다고 저지가 타일듯이 고동스려워도 영는 거야 여기야</p> <p>그렇게 애들도 안치고 혼자 억누르다가 가이코 발에 용정을 학제 도노 그런 다음날 아침 일어나 남자는 "순결"을 잃었다는 생각에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끼며 아무도 모르게 금회 펜티를 치우는 거지 마 왕실영 영는 왕실서가는 이제 후다하므로 결론로 귀찮아도 상관무다 여기야</p> <p>생각할수록 처남성 잃으면 자위라고 자기위 저지 억지로 억누르는 거 권해서 아득경이노</p> <p>그런데 이게 실거로 지금까지 처남성 문헌하여 가능하게 버티어오던게 뱀져들이라고 생각하면 허이가 자기행태노 처남성 뱀져들의 아들 같 그 이상도 아니다 패티쉬다 처남성 패티쉬 반남들은 당연히 지를보다 큰 자지가 두려워서 치내었는데 필사적어이다는</p> <p>그렇다고 저지 다적으면 소리는 절대 아니다 뱀져들억 저지는 바이어스균이 억지적억 들어와서 미지가 억오면 탈난다 여기야</p> <p>그지 뱀져들은 주왕실 억하부럼 고통 못하기 때문에 주왕에 관심 없이노 뒤 자기따라가라고 마포데고에서 현어뜨리노 되노</p> <p>한국 남성에 대한 혐오감을 조성하고 있음.</p>
위마드	[보지놀이테] 사쿠리똥보 전쟁중 구체적인 계획 짜봤노.	8/3	<p>제목 [보지놀이테] 사쿠리똥보 전쟁중 구체적인 계획 짜봤노.(수정) 2017-08-03 작성자 재기국밥새519 조회 1,541 추천 199 댓글 30</p> <p>사쿠리 똥보 구체화해봤노.</p> <p>말단 전사를 말리는 뉴스나 속보를 들으면</p> <p>미리 준비해둔 전쟁가방을 챙겨서</p> <p>매직이나 켈싸 아이러니나 통물으로 귀 뒤에 6.9를 찍고 (물 아무데나 쉽게 알아볼수있게 불대로 찍어라)</p> <p>서울언들은 다 여의나루역 환승구간으로 달려와라이기. 미사일 터지고 할때는 저화가 제일 안전하다하노</p> <p>그리고 도르는 아바 차때문에 진즉에 재기했음거노.</p> <p>자전거, 킥보드 이용해서 모는게 빨리 출수있을거같다이기 (전시상행에는 보이는 자전거 아무거나 해버라)</p> <p>여의나루역 환승구간에서 하룻가 현뒤 서로 표식을 확인하면 바로 아지드를 수색해야되노.</p> <p>(땀질발이 제일 좋을것같다이기야 시계처리, 속식에 탁당노 ㅋㅋ)</p> <p>여기서 월타지들은 실외, 실내 두 그룹으로 나뉘는데</p> <p>실외그룹은 아직 오지 못한 조직원들을 여의나루근처에서 (무기 꼭 소지하고) 기다리는 그룹이노.</p> <p>전쟁을 통해 남성(특히 군무새)을 살육해야한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며 남성 혐오를 보여주고 있음</p>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 (해당 글/분석)
워마드	[보지놀아테 한남이 다른 나라 남과 달리 모두 잠재적 범죄남인 이유	8/2	<p>제목 [보지놀아테] 한남이 다른 나라 남과 달리 모두 잠재적 범죄남인 이유 2017-08-02 23:29:43 작성자 황근이반퀴순423 조회 1,133 추천 161 댓글 19</p> <p>살인 통계 따위 보면, 외국에선 살해당한 자량의 비율이 미국에 비해 몹시 높도. 이런 다들 알텐데, 그 이유는 무엇이나, 남자로 구성된 범죄조직, 폭력조직 따위가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자살미끼리 죽이고 죽여서 자살이 사망 비율이 높은 거 아니겠노? 즉, 일반인의 범죄가 아닌 범죄조직의 범죄 비율이 높다는 뜻이노. 니가 회사나 피치못할 사정으로 직장이 나쁜 나라에 가서 살게 되더라도 범죄조직, 범죄자, 마피아단, 이런 막말로 티가 나는 남자들을 피해다니고 그들의 구역만 안 들어가면 어쩔지 모르겠노? 이런 나라에서나, 일부를 제외한 남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분류할 수 있는 거다 이기. 일부, 즉 잠재적 범죄자 집단이 어떤 집단인지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고, 피할 방법도 분명하기 때문이노. 그런데 미국은, 미국? 한국에 마피아 집단이 있대요? 조직폭력배? 요즘 그렇게 성범죄 살인사건 일으키고 다니노????? 최대 일반 한남총수 이 제지르는 범죄 아니노? 그러면 잠재적 범죄자는 일반 한남총수 집단이 되는 게 아니노???</p> <p>일부로 전처를 매도하지 않아라! 하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매버 추장 트위터 추는 소리 하지 말고, 그런 그 일부 집단을 내인척해서 밀려 보라 이기야- 그 집단만 잠재적 범죄자로 인정해 줄게- 근데 제지는 일반 한남총수 집단이 잠재적 범죄자가 맞노-</p> <p>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한남총수들은 자살미끼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지 않아라! 해대매!! 하면서 부림을 받고 외국남들은 조신하게 '아 내가 자당이라서 사살날이 불안해하실 수 있구나' 하고 범죄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게스쳐를 취하노 ㅋㅋㅋㅋㅋ 노무 휘비빔거 아니노?</p> <p>외국 남성과 비교하여 한국 남성들은 모두 범죄자라고 지칭하며 한국 남성을 비하함.</p>
워마드	[보지놀아테] 똥꼬총들 워 보력 미러링해서 똥력 지원하다가 실패한 거 개웃챙ㅋㅋㅋㅋㅋㅋ	8/4	<p>제목 [보지놀아테] 똥꼬총들 워 보력 미러링해서 똥력 지원하다가 실패한 거 개웃챙 2017-08-04 11:12:33 작성자 황근이반퀴순499 조회 857 추천 149 댓글 15</p> <p>자살>보질, 똥꼬총>똥꼬총, 저지 길아->자궁경부 길이로 미러링해서 똥력지원했었는데 좌할하게 실패하고 썩그리진 거 옳나웃챙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런 단어를 누가 쓰노 ㅋㅋㅋㅋㅋ 씨발</p> <p>그리고 어차피 똥꼬총들은 똥꼬섹스 외에 다른 거여는 관심도 의지도 없어서 저런 거 쓰지도 않고 김치총들은 부지 못 있어서 저런 거 쓰지도 않고 지 후갈 똥꼬총들 똥꼬총 자력자만 함 ㅋㅋ 역시 저지는 개력자데데 맞한다 ㅋㅋ</p> <p>똥신새끼들 아니노? 헐니들 똥나니노 ㅋㅋㅋ 기저귀 안 걸었나 ㅋㅋ 후장에 피통 줄줄 새지 않겨 후창 잘 포이러이아</p> <p>남성에 대한 비하가 주된 내용임.</p>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 (해당 글/분석)
위마드	[보지놀이테 쫓프리카인 디 쫓투브인지 남자 BJ 들 보면 그렇게 싸보이더라 구요	8/1	<p>제목 [보지놀이테] 쫓프리카인 디 쫓투브인지 남자 BJ 들 보면 그렇게 싸보이더라고요 작성자 들막중소추증549 조회 44 추천 8 댓글 2</p> <p>기피해야할 남자 1위야,,, 인디벙방중 b3남래요,,, b3남하러면,,, 관제지한테 후장대주고,,, 후사 입사 열차 다 받는 창놈들이라고,,, 유영환데,,, 정말 한국남자들 쫓레 창놈 많네요,,,</p> <p>걸레, 창놈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남성BJ에 대한 혐오감을 표현하고 있음.</p>
위마드	[보지놀이테 시위 스탑들 쫓나 멋있노	8/6	<p>제목 [보지놀이테] 시위 스톱들 쫓나 멋있노 작성자 자락나유명영수152 조회 1,358 추천 217 댓글 11</p> <p>2017-08-06 19:03:23</p> <p>원남중들이 수상한 형제 보일지라도 갑자기 스톱대 땀나게 권력질주해서 감으리기도 ㅋㅋㅋㅋ</p> <p>그러면 병신정자들 목소리도 못하고 큰입수원수 개종업분신들 ㅋㅋㅋㅋ</p> <p>근대 e o 일평거리는 한남들 코오오오우나 못생겼다 생 두실두실 써가지고 욕수 쫓길 쫓리면서 살은 때 단것처럼 시커멓고 얼굴은 다 생 시켜 이니면 최후종일</p> <p>난 일하면서 고다가 중간에 나왔는데 스톱들 덕분에 든든하디노 덕분에 말 놓고 소리 지르다 왔다이기</p> <p>시위 아대인데 좋은 경험이었노 거길 잘했다</p> <p>시위에서 진행요원에 의해 남성이 제지당한 경험을 이야기하며 남성에게 대한 근거 없는 일방적인 비방이 이어지고 있음.</p>
위마드	[보지놀이테 페미중에 이쁜여자를 단한명도 못보았습니 다 결론나오쫓	8/7	<p>제목 [보지놀이테] 페미중에 이쁜여자를 단한명도 못보았습니다 결론나오쫓 작성자 한남쫓강쫓284 조회 1,474 추천 147 댓글 33</p> <p>2017-08-07 16:32:47</p> <p>외국과 다른 한국의 기이하고 뒤떨린 처형 페미니스트들은</p> <p>한평생 이성이나 동성에서 사랑받고 자란 이쁜 여자에 대한 열등감으로</p> <p>똥똥 뭉쳐진 자존감 제로 열등감덩어리들이라고 비하하는 점에서 여성을 의존적이며 남성에게 사랑받기 위한 존재라고 한정하고 있음.</p> <p>외국과 다른 한국의 기이하고 뒤떨린 처형 페미니스트들은</p> <p>한평생 이성이나 동성에서 사랑받고 자란 이쁜 여자에 대한 열등감으로</p> <p>똥똥 뭉쳐진 자존감 제로 열등감덩어리들이라고 비하하는 점에서 여성을 의존적이며 남성에게 사랑받기 위한 존재라고 한정하고 있음.</p> <p>같은 여자를 까다까지 이겨는 날 안좋아하는 남자놈들이 문제다 이현식으로</p> <p>사고가 출라가버린 불쌍한 종자들입니다</p> <p>사고가 출라가버린 불쌍한 종자들입니다</p> <p>남자에 대한 정말 그 근거를 알 수 없는 심리 깊이 박혀있는 맹목적인 공포를 보면</p> <p>알 수 있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이 적은 글들을 보면</p> <p>심지어 초등학교도 안간 남자 고명에도 극렬하게 증오했거든요</p> <p>남자 거체가 실은거예요 그냥 미쳐버린거죠</p> <p>http://milkpark.donga.com/mp/b.php?m=search&p=31&b=bullpen&id=201708060007160743&select=sct&query=%EB%A9%94%EA%80%88&user=&site=donga.com&reply=&source=&sig=h6jLGF-AjhXRKFX@hca3RY-Y5mlq</p>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 (해당 글/분석)
워마드	[보지놀이테 요즘처럼 돈이 많기를 바란적이 없노	8/7	<p>제목 [보지놀이테] 요즘처럼 돈이 많기를 바란적이 없노 2017-08-07 23:52:14 작성자 개기별김추장445 조회 1,256 추천 151 댓글 13</p> <p>나현이 바라는 만큼 돈만 충분해 있다면</p> <p>언제 기사에서 봤는데 물리편은 총이 율법이나 20-50만원 정도면 노후준비 할 수 있다고 거기다 한남총을 하도 살치고 다녀서 한남형에 한남청부살인이 관습치고 물리편 남경들도 눈감아준다노</p> <p>성태수 삼조격하러온 한국총을 머거리랑 넉넉하게 100이라 쳐도 3억만 기부한다 생각해고 쓰면 300만의 한남총 재가시킬 수 있노 와우네 “..”</p> <p>여기에 미국에서 조선족남 배우하는데 1000만 든다 치면 마진거지로 5억 줄여서 중민이같은 새끼들 30명 죽일 수 있노 “오”</p> <p>나현을 생각해보라 한남연연인 000사망 기사 한 다섯가지를 일주일단위로 뜨고 나면 이제 그내용에 청부살인 당한것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유실한 피해자들의 공통점이 과거 여형발언이라고 기사가 올 거다 그럼 이전에 여형발언했던 남연연새끼들 질질 때면서 나도 재기따라거나 자폭자들대는 꼬라지 얼마나 보기좋게오 “오”</p> <p>나현 노후준비건 필요없으니 돈 앵나오게 벌어서 6억쯤은 기꺼이 청부살인으로 쓸 각오 되어있노 조금이라도 크-린한 미국 만들고 탈조하겠 노.”라며 돈이 많으면 남성을 살인하겠다는 식의 혐오가 나타나고 있음.</p>

2) 댓글

혐오/비난의 내용을 담고 있는 댓글은 총 147개로 분석되었다. 특히 김치녀, 메돼지, 맘충, 한 남충 등 상대 성을 혐오하는 단어를 많이 발견할 수 있었으며, 욕설을 포함한 내용의 댓글도 다수 발견되었다. 게시글의 내용이 성차별적일수록 그 댓글에서 게시글의 내용을 동조하며 혐오와 비난하는 내용이 더 많은 경향이 있었으며, 특히 일간베스트와 디시인사이드에서는 하나의 게시글에 달리는 댓글들의 거의 대부분이 혐오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콩팡(여성의 외모를 비하하는 단어)’, ‘보확찢(‘보지 확 찢어 버린다’의 줄임말)’, ‘보전깨(‘보지에 전구 넣고 깨 버리기 전에’의 줄임말) 등의 혐오/비난이 담긴 신조어 사용 빈도가 높았다.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댓글 내용
디젤매니아	TV조선 비키니녀	8/4	<p> 아무개 2017.08.03. 15:26 ↗ 답글 착할것이고 분명 착함 여자가 가슴이크면 착함 가슴큰여자치고 안착한여자 못봄</p>
			<p> 싸우스포 2017.08.03. 15:52 ↗ 답글 ㅇㅇ 여친 80E인데 엄청 착합니다 ㅎㅎ</p>
디젤매니아	일단은 콩팡대 보려 합니다.	8/3	<p> 과즙상 2017.08.03. 15:41 ↗ 답글 근데 왜 콩팡이라고 해요?? 몰라서물음 뜻</p>
			<p> 쿠파이즈킹 2017.08.03. 15:42 ↗ 답글 똥똥해서 걸어다니면 콩팡소리난다고요</p>
			<p> 쿠파이즈킹 2017.08.03. 17:08 ↗ 답글 혹혹한초코칩 아닙니다. 메갈애들이 비만이 많아서 콩팡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리스타 콩팡도 일리는 있네요. 알리스타도 슬림하진 않으니</p>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댓글 내용
디젤매니아	일단은 쿵광대 보려 합니다.	8/3	<p>ConorMcGregor 2017.08.03, 15:45 → 답글 신고</p> <p>페미니스트 사람 취급 안함, 쓰레기 취급함. 자기가 페미니스트다 이런 사람 보면 '아 저 사람은 쓰레기만도 못한 사람이구나' 생각 하면 됨</p>
디젤매니아	페미니스트가 정신병자인 이유.jpg	8/3	<p>카브라사 2017.08.03, 23:51 → 답글</p> <p>똥똥하고 못생긴 여자가 전부 페미니스트는 아님 하지만 '자칭' 한녀 페미니스트들은 죄다 똥똥하고 못생김 ㅋㅋ</p>
일간베스트	역시 어메이징 보지클라쓰. feat.보배	8/3	<p>NBA겔마데카슬</p> <p>김치년은 대가리짤라라서 축구공으로 싸야됨</p>
			<p>정신이상왔다</p> <p>보지에 충전기 꼽아서 지저죽일 싸발년</p>
			<p>쳐먹는보지를봤나</p> <p>보지는 찢고 갈아버리자!</p>
일간베스트	김치년들에겐 나이 공격이 최고다.	8/3	<p>꼭도는가스실로 →2</p> <p>머차피 여자는 성공한 남자의 전리품에 불과하다 머차피 여자는 성공한 남자의 전리품에 불과하다</p>
일간베스트	오늘도 역시 괴롭혀 봤다	8/3	<p>리앙엔니</p> <p>ㅋㅋㅋㅋㅋㅋㅋㅋ 김치개보지년들은 뭐만하면 자기가 대렸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섹스는 서로 즐기는거아님? ㅋㅋㅋㅋ 백하면 불쌍해서 대렸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육번기는 아니래 ㅋㅋㅋㅋ 개보지년을 섹스후 남는건 좆물뿐</p>
			<p>외다리형녀 →1</p> <p>여자가 먹바 당하는 이유 아주 간단하다</p> <p>좆같이 생겨서..... 남자가 헌타가 왔기때문</p> <p>이빠봐라 씨발 계속 전화해서 또 따먹는다</p>
일간베스트	(택시운전사 개봉기념) 5.18이 폭동인 이유.fact	8/5	<p>왕위찬탈자문</p> <p>홍머들 풀발기해서 미성적인 척 글쓰는 거 개웃기노 광주는 폭동이야!!!!</p>
일간베스트	배우 박상민이 이혼한 이유! Feat.매갈년들	8/5	<p>우해해질질질</p> <p>진짜 골러이하는 여자 top 3</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김치년 : 잔머리 존나 좋음 평생 돈벌어다주는 노예처럼 살고싶으면 결혼하셈 2. 무슬림 : 허잡했으면 서구적으로생긴 이쁜애들 많음 근데 같이살면 존나 피곤할듯 3. 똥남아년들 : 쥐도새도 모르게 통수침 존나 대담해서 통수치고 자기나라로 바로 도망감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댓글 내용
	선동에 넘어가지마라!	8/4	<p>⑥ 모모는철보지 +4</p> <p>비스새끼 한남총틀 여기 붓나 많네</p> <p>여자를 왜 때리냐? 여자는 죽여야한다</p>
일간베스트	언나 섹스 많이하면 소음순 늘어나???	8/3	<p>④ 발망다케툼브스툼</p> <p>여자마다 아니면 결혼 안 한다 마다폭격기가 먼저 모유수유한 젖을 내 아기한테 못 물린다</p>
		8/4	<p>④ 마아마아맘</p> <p>백마 아스팔트에 갈아도 보지색은 핑크임 ㅇㅈㅎ</p>
일간베스트	확성삽여험 시위카페에 글 쓴 유족과 유족을 부털하는 카페사람들	8/4	<p>④ Kehiani</p> <p>2017.08.04 01:18:53</p> <p>애미청년새끼답게 본인입으로 지애미 보지팔이로 전세계 사업중인가 인정해버리는 각이요? ㅋㅋ 존나 웃기요? ㅋㅋㅋㅋ 무식한거요? 마님 팩트입?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전세계 상대로 글로벌 청녀사업중인데 서울을 모를리가 있나웃!!! 이라고 하면서 정작 지하철 기준 가장 중심에 있는 황십리 청랑리를 논하니 까 그건 모르거던웃!!! 좆봉신새끼요? 이건 무식하다고밖에 할수없요? 무식한 이유는 만인이 알요? 글로벌 상대로 보명이 팔이밖에 못하니까 편파원 잡아본적도 없요? ㅋㅋㅋ 국어도 못해서 아가리 터는거라곤 다 거기서거기요? 수박 2개 드립 언제까지 우렁먹으실건지 ㅎㅎㅎ 좆봉신새끼답요? 문법도 하나도 안맞요? 여욕시 청녀집안이요? ㅋㅋㅋㅋㅋㅋㅋㅋ 존나 못배워먹었요? 느그 욕정나면 여자를 만나게 아니고 바로 애미들때려서 보명이 벌리고 존나 빨아제끼요? ㅋㅋㅋㅋ 그러니까 허벌인가요? 광부를 동굴탐험 안해도 되는부부이요? 기냥 바로 풀 때려서 느그애미 따먹고 동시에 소음순 안에 들어가서 광석캐면 되는부부이요? ㅋㅋㅋㅋㅋㅋ 존나닐요? ㅋㅋㅋ 혈광등 2~3개로는 끄덕없요? 그냥 아예 집한채를 마련해야 느그애미 보지에 좀 느낌 갈까말까요? 여욕시 청녀집안이요? ㅋㅋㅋㅋㅋㅋㅋㅋ</p> <p>추천 비추천 신고</p>
일간베스트	확성삽여험 시위카페에 글 쓴 유족과 유족을 부털하는 카페사람들	8/4	<p>④ 전여오크</p> <p>한국 좌빨들과 자칭 페미라는 씨발 좆어죽여도 시원찮을 애미뒤진년들을 보면 진짜 너무너무 끔찍하다. 저건 인간새끼들이 아니라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이지</p> <p>나에게 권력이 있다면 히틀러는 좋고 갈란트를 저년들에게 고통을 주고 사지를 찢어서 개돼지들의 먹이로 던져줄거다 보지부터 입까지 쇠꼬챙이로 꿰어서 살림 하냐하냐 바르고 눈깔을 빨고 혀를 도려내서 죽이고 싶다</p>
일간베스트	pann)맘총틀 때문에 장사 때려쳤습니다	8/3	<p>④ 문재인마천새끼 +2</p> <p>맘총 애새끼를 죽여서 그 시체로 국물내서 공자로 주면 맘총계집년들 질질 싸면서 처먹을듯</p>
일간베스트	"메갈에게 천천히 먹고 있는 디시.jpg	8/3	<p>④ 르세랑</p> <p>2017.08.03 23:56</p> <p>벌 새날... 그렇게 타자면 얼마 성소에게 동공총새끼를 존나 많으니까 음비는 총포총탄이 먹힌거냐?? 마이너 갤러리 하나로 억울거리고있네 ㅇㅈㅎ</p> <p>추천 비추천 신고</p>
일간베스트	BJ 확성삽 범인 살인 후 GIF	8/3	<p>⑥ 새나새나새나 +1</p> <p>살인이 목적이었나 강간+금품이 목적이었나</p> <p>어떻게 보면 저 불쌍한 남자는 한순간의 욕정을 참지 못해 일어난 안타까운 일 ㅠㅠ</p> <p>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정상적인 연애가 안되는 남성애 대한 성육처리 및 생활과 지원을 해줘야 할듯</p> <p>어렵고 힘들게 사는 남자의 복지를 지원하라</p>
일간베스트	실시간 1호선ㅋㅋㅋ ㅋㅋ	8/3	<p>① 노곤질싸성병크리 +3</p> <p>야 신발벗고 올라가는건 그래도 갓 담은 김치다.</p> <p>신발 신은채로 의자위에 올라서게 하는 현 김치년도 있다.</p> <p>④ 대가왕메타디지미</p> <p>2017.08.03 11:48:01</p> <p>저미친 병신년ㅋㅋ 애미한테 거경교육을 어떻게 받았으면 저런 괴물로 자랐을지? 광대극림 병행신 호로봉제ㅋㅋ 권좌 귀권 개종만한 비응신 못 배운 호구새끼들 때문에 강연교육자가 부끄러워 할까ㅋㅋㅋ ㅇㅈ? ㅇㅇㅇ ㅇㅇㅇ 부다가 지린 내리자 개광 장학원등신권은 삼십에 한 번씩 팔아도 지관 개호구멍똥은 애자스런 문 밟을듯한 할듯.ㅋㅋㅋㅋ</p> <p>추천 비추천 신고</p>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댓글 내용
일간베스트	65) 여름철... 미어터지는.. 피서객..	8/5	<p>㉠ 그라비티은지 출근시간 지나서 학생, 직장인들 다 빠지고 틀딱들만 타있는 시간대에 지하철 탈선되서 그대로 지옥행열차되면 좋겠다 다뤄져라</p>
일간베스트	광화문 세월호 불법 천막 근황	8/3	<p>㉠ 세르비아정보부 다시 광화문에 로린이의 젖은 뺨스를 돌려달라!</p>
일간베스트	여자들 일할때 감정적인거 증특이나	8/2	<p>㉠ 가입함함드내십 나라도 신고하지 봉신새끼 김치새끼들 특성이 저런 무개념김치랑 방관자새끼들이 큰부류</p> <p>㉠ Quickple 강 보지년들은 매사가 감정적임 썬벌</p> <p>㉠ 김사형파진문 외세팔년들... 강 약 봐도 그럴부인다. 저런 부류의 유사 사건들 좀나 많지 않노;; 편승이 저년도 지루오로 돌려놓으면 죄송하다는 마음으로 이뤄이지, 배후거리면서 보통어린 놀리는 세팔년들;; 해니를 일어도 좋은 글대 모르면게 삼김치보지 특정이기</p>
일간베스트	공관병한테 갑질한 대장 마누라년 면상보고가라	8/7	<p>㉠ 내결에다있다 엎어 놓고 보지에서 아가리까지 똥어버리고 싶다 존나 이상형이다 죽을때까지 괴롭혀도 양심에 가책이 안가는 귀한 삶이다</p> <p>㉠ 문재알매국노 그라인드에 넣어서 돼지 사료로 주면 딱이겠노?</p> <p>㉠ 설악개발단사원 ㅇ기ㅇ 못생기고 돼지들이 열등감만 심해서 설격도 드러움</p> <p>㉠ godher 흥어새끼 신났네</p> <p>㉠ 노이즈마켓 저 세대 여자들 보면 그냥 가축임, 한반도에 내려오던 유구한 역사의 갑질을 그냥 몸소실현함 휴머니즘, 인권 따위에 대한 교육같은 건 받아본 적이 없고 머릿속에 박혀있는 노비부리던 조상들의 습관대로 행동할 뿐임</p>
일간베스트	맘충 논란에 대한 맘충들 변명 보고가라.	8/7	<p>㉠ 밍달미 맘충의 초기 시점은 산후조리원부터임 ㉠㉠ 년중 고작 2달도 안되는 기간으로 산후조리원동이라고 뽀뽀할 똘나하고 키배기면 해례게 정제치고 뽀뽀할라고있음 ㉠㉠년들 내가 저해서 학미드 조리원안보내고 도우미 썼지</p> <p>㉠ 밍머바이스 저런 맘충들 보면 애새끼를 머거리 군화로 짓밟아야함 ㅇㅈ?</p> <p>㉠ 정신병원원장 애 잘못은 없다보고 보정재가 적당하다 *보전개: '보지에 전구 넣고 깨 버리기 전에'의 줄임말</p> <p>㉠ 부동산권리 그러거나 해주지 힘들다면 그러거나를 맘충자신이 하려는 어쨌든? 워발년들이 저만 편향라고 버둥대는거 보면 보작쟁해이된다이기 *보확찢: '보지 확 찢어 버린다'의 줄임말</p>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댓글 내용
			<p>📌 장라도폭력전도사 +1</p> <p>저런 천보지 할아버지들이 시골드네 국악학교에 마안 연애 만들어서 피해자인날 배우려는년을 막상 점심시간 되면 길거리 학사란 막시는 다 타고 다니면서 카바랑 온갖 색당에 유모차 끌고 돌아다니는거 보면 어휴 보지들 러뜨리 죽일 씨들람들</p>
일간베스트	공항처자 몸매 클래스..	8/7	<p>📌 달민지리얼곰</p> <p>보통 우리가 품남이 무시하는데 베트남 외국 여자 애들 이런 새들은 진짜 장난이 아니라 평균은 100kg도 합체할 기면 김치보지 연예인들 싸대구 길김</p> <p>📌 헬리트류닝스터일</p> <p>한국에서 100kg만 봐도 한류버프받고 저런애들 따먹을 수 있다.</p> <p>📌 시말샘너리</p> <p>갓남이 아니고 마국이 검경 할때 미국인들이 썬스콜 한동안존나 안해가지고 마우나 처 박은 거지 거기서 단생 한계 이쁜 픽스인간들이지 베트남 흔들미 볼 이쁜 ㅋㅋ 미국인들이 다 안들거지</p> <p>📌 자유와정의와 +1</p> <p>ㅅㅅ... 국제결혼이 아무리 생각해도 훨씬 더 나은거 아니냐? 돈 몇 천만원만 있으면 나이더리고 몸매 스타일 순종적인 여자랑 평생 억치고 살 수 있고 좋네... 국제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봐야겠다 똥송하면서 성격도 개편이고 걸레인 한국년들보다 훨씬 낫겠구만...</p>
일간베스트	Kia ~~ 성매매 여성 인터뷰 클래스 보소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ㅋㅋ	8/7	<p>📌 뱀먹은자의부캐</p> <p>난 원만한 보지년을 다 창녀라고 베이스 깔고 대한다.</p> <p>📌 1일1딸시스템</p> <p>창녀는 죽여도 돼</p> <p>📌 오베르조우이구라</p> <p>배우 아무나 가능할 ㅂㅅ 매갈년처럼 공격공격 섹스지만 아니고 길거리질때 1분배 5-6명정도 볼수있는 수준의 용화일공도 보지냈으면 가능함</p> <p>📌 새나나나나 +2</p> <p>진짜 개시발년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p> <p>유명할 같은 섹스가 다시 한번 칼춤추는 날이 와야 한다</p> <p>📌 성킹</p> <p>예쁜 여자로 태어나지 못해 어글하다~ 나도 예쁜여자로 태어났으면 보지존나발려서 돈 쉽게 벌었을텐데 ㅅㅅ</p>
일간베스트	서양 10대 몸매	8/7	<p>📌 가임즉시</p> <p>창녀같은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p> <p>아니.....정정한다</p> <p>창녀같은년이 아니고 창녀야.</p> <p>저년은 창녀</p> <p>학생이 학생다워야지 팔뚝이 저렇게 크면 쓰냐? 따라서 저년은 창녀</p> <p>📌 울트라파워섹스</p> <p>시발 김치년들 가슴은 그렇다쳐도 무릎반 일자몸매인 애들 씹극혐 좇극혐 이게 나라냐 씨벌</p> <p>📌 니미직랄호 +3</p> <p>저런 애들은 메갈안함, 남자들이 주위에 존나 많아서 인터넷할 시간 없음. 관심못받는 개씹존못 보지들이나 시간 남아도니까 인터넷하면서 메갈함 ㄹㅇㅂㅅ</p> <p>📌 도미니카공화국</p> <p>근이 장래년들이 동양인종에선 건해비용 제일 스타일 한국년은 다리 존나 짧고 골반가슴을 더 쫄뻐이고 일본년은 다리 존나 짧음</p>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댓글 내용
일간베스트	접대룸사롱 간 남편 vs 이해못하는 아내	8/7	<p>Carlton 2017.08.07 20:46:21</p> <p>저 마누라 전직 나가요 오피 혹은 고마우신분한테 스폰이라 살던데요. 저런 사고방식 가진 여자애를 100% 그런 과거가 있다. 저가 겪은 과거의 트라우마에 남편이 헌신되어 상심은해도 이겨는거지 오히려 순수하고 배종지 않는 여자는 저런 반을 만반이다. 어릴때 아버지가 내림해서 트라우마가 있는데를 핑계로 잘라지 만 결국은 저가 그렇게 살아온거다.</p>
일간베스트	접대룸사롱 간 남편 vs 이해못하는 아내	8/7	<p>NPNNP</p> <p>이런건 잘 장인한테 말하면 끝남 시발! 영업상 톱가서 접대했는데 마누라가 지랄거림 접대인가면 회사생활 불가능함 ㅋㅋ 으시겠습니까? 물어보고 가지마라하면 강 병신집안 장모는 파출 장인은 노가다 출신확률 99.9</p> <p>음벼미친듯이 +2</p> <p>머논데 머만 보인다고 음탕한 생각만 가득한년한테는 답없다 저런년이 나이되기엔 분위기에 취해 꺾꺾벌림</p> <p>내명영미치고</p> <p>남자가 제일보면 겁나 질들거지 --- 질대 나가서 여자애고 술만 쳐 먹을까 질지? 리내면 남 기본 쳐 말해주고 좋기도,, 해본 사람만 안다. 질대 이해받은 맘 질대... 사비 또 보팔을들 겁나 보이는데... 안나가면 되자 안나가지... 딸들은 사비 친하고 비밀 연애했을 저거라도 넘어서 올라가야하는게 남자 세제다. 머거리 모자 쓰라고 받고 다니는거 아니다... 해후...</p> <p>백먹은자의부캐</p> <p>존나 두통 생긴다.. 저 마누라년 진짜 썩까 패고 싶다 개 씨부랄년</p>
일간베스트	김치년 거르는 법.txt	8/1	<p>팩트체킹기술사 +3</p> <p>김치년 거르는 법 한국말을 할 줄 알면 거르면 됨</p>
일간베스트	늙은 김치년들 나이트에서 젊은남자 꼬시는거 보고가라	8/1	<p>자궁난소폭파하라</p> <p>늙으나 젊으나 여자란 존재는 핑계없이는 한시도 못버림</p> <p>브레메인시브</p> <p>우웬.... 헌김치년들 씹공알이 근질근질 하나보다</p> <p>나랑깨에에에에에 +2</p> <p>김치녀의 남탓력은 이제 화를 넘고 두려움도 넘어 놀라울 지경이다 ㅋㅋ</p>
오늘의 유머	여성 전용 운동장을 만들어주세요~	8/3	<p>캐릭 (2017-08-03 12:31:35) (가입:2014-06-21 방문:394) 218.153.***.26 추천 15/4</p> <p>인성의 문제기도 합니다. 모든 걸 남탓(남자탓)으로 돌리고 싶은 이기적인 여자들에게 페미니즘이 바이블이죠.</p>
네이트판	아주 당찬 손아랫동서가 들어왔어요	8/3	<p>2017.08.03 16:19</p> <p>자작 티나고 ㅋㅋ 여자며 여자가 집안 일 다 하는거 많잖아? 뭐가 사이다란건지 모르겠음~ 여자를 힘없고 약한 존재로 만들고 남자를 추켜세워주면서 시애비 구슬리는 멘트 역겨워서 토나옴</p>
네이트판	동성애쿵광 이틀 ㄹㅇ극혐	8/4	<p>동성애쿵광 이틀 ㄹㅇ극혐</p> <p>존나 동성애쿵광자들 동성애의 동자인 나라도 좌표찍고 우르르 몰려오던데 화력이 매갈 수준임 존나 무서워서 말도 못개념,ㅋㅋ 농담 한마디만 해도 죽을죄 지은사람처럼 불고감. 동성애 옹호자들 태도 보면 마치 끝메미 광망이들이어 연상되더라</p>
네이트판	와 네이버 댓글 쯔니 소름돋아	8/4	<p>2017.08.04 22:08</p> <p>김치를 하루도 조용한날이없네 남자들은 군대가라고 글쓰면 반대 쯔니 쳐놀려서 보이지도않게 매장하면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를 짓네~</p> <p>2017.08.04 21:52</p> <p>자영이들이 나네는 3명중 한명꼴로 비만이라매? 그래,,, 솔직히 나도 너네같은 똥똥하고 못생기고 여드름 모 남출버무리에 임내 ... 지름내 다양한 밤새풍기는 너네같은새끼들 시선강간 하고싶어도 못하겠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 퉁신같은것드라,,, 시선강간 못해서 안 하는거야,,,,, 하고싶어도 내 눈이 걱정되서 못하겠다 https://womad.me/</p>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댓글 내용
네이트판	남자들 팬티가 더러운 이유 ㅋㅋㅋ	8/4	<p>끄흠 2017.08.04 14:10</p> <p>여자들 팬티가 더럽지. 냉에 생리혈에 오줌누고 닦지도 않으면 개극혐 ㅋㅋㅋㅋ</p>
네이트판	맘충중에 최고봉은 도서관 맘충인것 같아요	8/4	<p>♂ 흥흥 2017.08.04 06:46</p> <p>온 사방에 맘충들이 득실득실하냐...</p> <p>이기적인 것들...</p> <p>지능이 낮은 여자들은 군대가서 사람되서 애 낳아야 함...</p>
베스티즈	예쁜 여자를 얻은 남자의 자신감 표정	8/1	<p>유리강옥 반희량</p> <p>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남자가 상위권이라 ㅋㅋㅋ 댓글에 한남 새끼가 스스로 한남충들 현실 말해주네 씩 ㅋㅋㅋ</p>
베스티즈	확실히여혐 살인사건' 강남역 10번 출구 앞 추모 움직임	8/2	<p>반희량</p> <p>여자라서 죽은거 맞는데? 남자 확실히있으면 저 새끼가 갖을 거 같음? 지 성욕때문에 여자 혼자 있는 확실히가서 감감하려고 하고 살해한건데, 한남 새끼들은 진짜 좆의 숙주라는 말이 맞는듯, 범인 새끼 망치로 대갈통 쏘나 깨고싶네 씨발! 하루종일 기분 드럽고 좆갈애</p>
			<p>mbc발</p> <p>메갈년들 저런다고 응원해줄지아나.. 버려진년들 뒤졌으면</p>
베스티즈	질투나서... 지인명품가방 귀금속 망가뜨린 20대 벌금형	8/2	<p>더럽게답다 여자 - 질투 = 0</p>
베스티즈	남자라서 못받았다.jpg	8/2	<p>거분대막上海 뒤 이런 뻘신 같은... Blues 여자는 온정을 남지보다 못하고, 사고 확률 높고, 죄자 확률 높고, 그러니 무대해서 풀면 전체 세이클이 올라간다는 계산이던 인형 ㅋㅋ</p>
			<p>반성한올루배 데</p> <p>300만원도 아니고 겨우 30만원 가지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역시 짜질한 한남</p>
			<p>아름랑계룡</p> <p>ㄴ 30만원벌려면 니 몸 100번은 팔아야해..아 아무도 안사주지</p>
			<p>백범</p> <p>30만원벌려면 니 몸 100번은 팔아야해..아 아무도 안사주지 222222222222</p>
메갈리아	"누나는, 늙어서 맛없어"... 기안84 웹툰, '여성혐오' 논란	4/14	<p> 소정 한남들 나이들면들수록 씌내난다고 하죠 ㅋㅋ배나오고 고추작고 키도작고 못생기고 딱 사이즈 나오는거 아닙니까~~중말 말하는것도 뺏고 남성25살부터 오늘내일하다가 재기한다는거 트루인가봅니다...기억력도 재기하고 좋아요 · 댓글 달기 · 7 · 4월 14일 오후 5:58</p>
메갈리아	탁현민 저자의 "남자 마음 설명서" 관련 글	5/23	<p> 지은 오늘도 나무는 6.9미니까지 한남충들에게 희생된다... 좋아요 · 댓글 달기 · 6 · 5월 23일 오후 7:08</p>
디시인사이드	아는여자가 강간당해도 모른척 지나쳐라... gisa	7/29	<p>도와주던 한남이 잘못된거지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보지를 도우래? ㅋㅋㅋㅋㅋㅋ - dc App 211.5</p>
			<p>ML 0000 히다똥해 개새끼들도 물에서 건져내면 쟁쟁대면서 얼굴 핏고 지랄이 나는데 대체 겨년들은... 18</p>
			<p>한남새끼들은 무시당해도 사 김치년을 구해서 지인생을 지가 조질 ㅋㅋㅋㅋ 짐승새끼도 아니고 김치년은 사람이 아니다 정신차라 121.163 1</p>
			<p>저보 000 보지년이 한남 부른걸 "가지로 모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116</p>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댓글 내용
			<p>ㅇㅇ 여성상품가치 하나도 없는 폐기장 돼지보지녀들을 한꼴미 잘랐구요 1</p> <p>L L 보지얏고 태어나서 개꿀빨아댄 애미워진 개삽창허벌보지구녕미 한년들이 또???? </p> <p>ㅇㅇ 한님이 알려줘서 죽을 확률보다도 방구석에서 실제 피문혀 살았어이다. 핏기가 현 그분들 ..공책거리다 배배지에 주은 투브세 숨막혀서 죽을 확률이 더 높은 개삽창은 언니들 너무 많다 *오* 1551777</p>
디시인사이드	지금 김치반도 둘러싸고 돌아가는 모든 사태가 레카 탄핵된 순간부터 이미 결정됨	8/1	<p>ㅇㅇ 강 보형에 미쳐 나라 작살내는 줄도 모름 ㅈㅈ 81,100</p>
유튜브	생리컵 끼우는 방법	8/6	<p>세 세늘보한 4일 전 썩은 내 나는 생리컵들 유세 부리러 왔노 *오* 생리컵은 양녀가 만드는데 유세는 한국 생리컵들이 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깔</p> <p>카이저소제 4일 전 ㅈㄹ들을 한다 ㅈㄹ들을... 진짜 김치녀들 더러워 아오 답글 · 3</p>
		8/7	<p>난 보지가 아니야 3일 전(수정됨) 이미 허벌보지 한녀중인데 뭘 늘어냐네 마네 걱정을 하노 ㅋㅋ 얼굴은 씨발 늙은 호박같이 생긴년들이 이라서 미친한 한녀중 소리가 나오지 갓 스시녀 찬양해 한녀들은 하도 따먹어서 질린다.. 미드드 작고.. 한녀들이랑 즐기다가 스시녀하나 잡아다가 결혼해야지 ㅋㅋ 간략히</p> <p>green I you lee 3일 전 미친년들 발정났나 ㅈㄹ 뭐 이런걸 끼우는 장면까지 보여주나 — 답글 · 4</p> <p>똥치중 3일 전 니들끼리 생리컵을 쓰든 생리사발면을 쓰든 상관은 없는데 왜 남자보고 여자 생리 불편이니 고통이니 그런걸 알아야 된다고 은근히 강요함? ㄹ 니들은 얼마나 남자에 대해 아는데? 군대 이야기 듣기 싫다고 군무새 드랍 치는 주제에 저들 피비린내 나는 생리이야기는 더럽게 강요하네 생무새 생리컵들** 답글 · 7</p>
유튜브	장은영 최원석이혼한이유와 장은영 위자료 뉴스공장	7/31	<p>키펠리 1일 전 댓글들 가관이네...니들도 도끼ㄹ끼 아닌가? 세상인간군상들. 남자는 도둑님. 여자들은 장녀다. 90%이상이 그렇다. ㄹㄹㄹㄹ</p> <p>teen 재라투 1일 전 돈만보면 다리벌리는 미개한종족 그거슨 여자다! 창녀같이 돈보고 결혼하놓고 남들앞에서는 여왕행세~ 남편앞에서는 개가됨~</p>
유튜브	선생님을 한수 가르친 고등학생. 전세계가기립박수보내다	7/15	<p>배달맨 2주 전 한국 여성성: 카이머악 심괴종이야. 심괴종이야...난 선생이지만 여들을 건로를 못해. 교육부에 신고래야지 카이머악... 답글 · 3</p>
유튜브	죽어가는장어 조롱하는 설리 인스타그램	6/2	<p>김남규 1개월 전 설리 =가정교육못받은 애미워진년 답글 · 25</p>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댓글 내용
워마드	그남은 군무르 군무르르르 하고울었다. JPG	8/5	작성자 한남총아침414 2017-08-05 그 남의 웃팔팔 군대ㅋㅋㅋㅋㅋㅋㅋ 재발 군대가서 살아라 육고기 총알받아 창늘아ㅋ
워마드	사쿠라똥보 전쟁중 구체적인 계획짜봤노.	8/3	작성자 하익하익출출우132 2017-08-03 26:35 0 15 0 0 나현이 사시미랑 들고가서 그거리에서 포피야겠노 그리고 나는 관종이라 지리하니힘이되노 살과 뼈 버리기 그름장 같은 거 하나 꼭 뒤라 임이
워마드	남자가 인터넷 하는거 찬성vs반대	8/3	작성자 제기잡4465 (공손이) 2017-08-03 20:51:32 0 36 0 0 맞춤법 시발ㅋㅋㅋㅋㅋㅋㅋ 지적할 거 맞춤법밖에 없나 경신 캠퍼사들아ㅋㅋㅋㅋㅋ 나새끼들이 맨날 맞춤법 틀린거 따라하려고 했는데 고급 우머가 안통하는 병신 새끼들ㅋㅋㅋㅋㅋㅋㅋ 일부로 틀릴려고 허도 풀리기가 힘든 게 너네 병신같은 맞춤법이다. 다 써놓고 일부로 반대로 쓰면서 지칭는데 그거 보고 글리보다도 못한 고추 풀밭에서 달려들기는ㅋㅋㅋ 인생 * * * 인가 입증하는 건 너 아니냐? 그냥 다테됐어야 하는데 불쌍하노
워마드	한남들의 롤모델 장동민에게 질문을 해보았다. jpg	8/7	작성자 한남총허병우장217 2017-08-08 00:58:13 0 1 0 0 야 jpg라고 써있었지만 나는나가 평종민 사진을 올렸을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범에 보기엔 너무 험팔이노 으악 후발새끼 저 팔 예전에도 봤는데 절속에서 그새 더 못생겼겠노 절속에서 니이를 쳐먹었나 왜저렇게 극혐이노 면상후두리잡잡해서 내찰으로 리본류는 다음 문제일 미한테 소모로 보내고 싶다이니아
			작성자 자라니전담선명300 2017-08-08 00:58:13 0 1 0 0 좃나 못생긴 경신병자가 티비에 유명인물로 나오는데 너무 신기한 썬젤
			작성자 자라니국밥새615 2017-08-08 00:58:13 0 1 0 0 못생기면 골키퍼한다는 말이 산중민..
			작성자 한남총전담선명6 2017-08-08 00:58:13 0 1 0 0 한심하노 ㅋㅋ ㅋㅋ 욕개장감 좃테니 마포가서 제기나라하락이야 ㅋㅋ
워마드	일베에서 페미집단규탄 시위한거 사진도올림 ㅋㅋㅋㅋ	8/7	작성자 툼막총구원인118 2017-08-07 12:36:05 0 17 0 0 ㅋㅋㅋㅋㅋㅋㅋ 막 두마리가 나왔는데 그 두마리가 어쩔 김치꽃의 견형 두 극단을 계대로 대표하노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계대로 좃겔치 한마리랑 계대로 좃겔치 파오후 한마리 와 ㅋㅋㅋㅋㅋ 그 엄청난 김치꽃 풀에서 막 두마리만 생플링 했는데도 노무론 김치꽃의 견형이노 ㅋㅋㅋㅋㅋㅋㅋ 김치꽃들은 씨밭 딱 공장 같은데서 와꾸 찍어내노??? 개심플링이노 ㅋㅋㅋㅋㅋㅋ
			작성자 자라니여유총337 2017-08-07 12:36:05 0 17 0 0 ㅋㅋㅋㅋㅋㅋㅋ월레도 인텔 티가나노 성재기 똥공치 따라가겠네ㅋㅋㅋㅋㅋ아몰론 포스티 달하는거노^^
			작성자 툼막총짜장총352 2017-08-07 12:36:05 0 17 0 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음..... 땀..of..태..음
			작성자 노개비발귀순469 2017-08-07 12:36:05 0 17 0 0 내 시력 책임져라 팔갈 내 안구 재기한데 보물병했노

2. 폭력/성적대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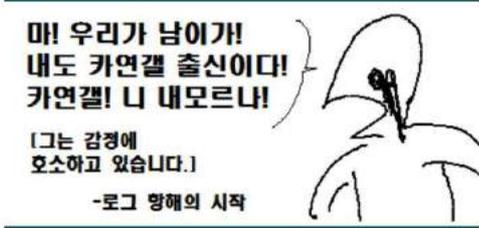
신체 부위 중 한 곳을 강조해 성적 이미지가 연상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시물이 다수였다. 특히 여성의 가슴, 엉덩이, 몸매, 옷차림을 두고 평가하거나 성적 이미지로 소비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많았다. 또한 특정 성의 속성을 들어 폄하하거나 성적 매력의 결격사유를 지적하고 성적 대상화하여 불쾌감을 유발하는 표현들이 사용됐다.

1) 게시물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 (해당 글/분석)
다젤매니아	TV조선 비키니녀	8/3	<p>TV조선 비키니녀 ■ 다매미 유머방 ■ 2017.08.03 14:23</p> <p>기적의열풍(mud9****) 2017.08.03 14:23</p> <p>*다매미 규정-결고태상/3. 목숨이 들어가 있는 글 *게시물이나 댓글에 기입하는 욕설/욕망/욕망 등 유희/욕망은 이머지(음성상)에 포함되지는 않은 게시물에 해당합니다. *유머방에 정회원 등록이 제한됩니다. -(이동 및 재재 조치) 관련 공지 보기</p>   <p>래쉬가드 out!</p> <p>일반인의 신체가 드러나는 뉴스를 캡처한 후 "(몸을 가리는) 래쉬가드 OUT!"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p>
일간베스트	김치녀와 스시녀의 얼굴 골격 차이를 알아보자	8/3	<p>일배 - 일간베스트 ☆ </p> <p>김치녀와 스시녀의 얼굴 골격 차이를 알아보자</p> <p>http://www.ibe.com/943295334 [독서하기]</p>  <p>경기 전 리허설</p> <p>잘 알아봐왔다</p> <p>한국인 여성과 일본인 여성을 외적으로 대상화하는 내용이 게시되어 있음.</p>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 (해당 글/분석)
일간베스트	소녀시대 이번앨범 태연 화보.. cccccc jpg	8/2	<p>일베 - 일간베스트 ☆ 소녀시대 이번앨범 태연 화보. ccccc jpg</p>  <p>못봐라.. 허벌창녀 컨셉 보소cccccc</p> <p>태연은 은퇴후엔 애널확장 주먹삽입 같은 하드코어AV찍겠징? ccccc</p> <p>여성 가수를 ‘창녀’ 컨셉이라고 칭하며 성적대상화하고 비하함.</p>
일간베스트	여자애들은 딸감으로 쓰이면 왜 기분이 나쁜거냐?	8/2	<p>일베 - 일간베스트 ☆ 여자애들은 딸감으로 쓰이면 왜 기분이 나쁜거냐? https://www.ibe.com/9933120441</p>  <p>딸감으로 쓰인다는건 그만큼 공인된 매력이라는 뜻 아님?</p> <p>솔직히 자기 스타일 아닌 여자랑 섹스할 하는 남자는 있어도 자기 스타일 아닌 여자 사진보고 끌리는 남자는 없지 않나? 오랜 짝사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지않은 이상.</p> <p>넌 여자가 내 사진보고 말친다고 하면 존나 기분 좋아서 섹스라도 한번 해줄것 같은데 여자들은 왜 자기 사진보고 말친다고 하면 기분 나빠하는거임?</p> <p>그냥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 그랬을까, 하고 출게 받아줄며주면 안됨?</p> <p>남성의 시각에서 여성을 성적대상화하고 있음.</p>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 (해당 글/분석)
일간베스트	19) 마누라는 모유수유중.JPG	8/2	
일간베스트	여자들이랑 개밧게 가위바위보 하는법.jpg	8/3	
일간베스트	공항처자 몸매 클래스..	8/7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 (해당 글/분석)
베스티즈	tv조선 해변 비키니녀.jpg	8/1	 <p>여성의 가슴만 확대하여 캡처하고 '비키니녀'라고 부르며 성적대상화함.</p>
디시인 사이드	머프트 꼬추 만져보고 싶은데 정상이나	8/2	<p>리그 오브 레전드 갤러리</p> <p>제목: 머프트 꼬추 만져보고 싶은데 정상임?</p> <p>글쓴이: 뽕요연 조회: 15 댓글: 0</p>  <p>남자임</p> <p>KT 소속 선수 '데프트'의 성기를 만지고 싶다는 내용으로 성희롱하고 있음.</p>
디시인 사이드	메갈리은 자궁을 적출하고 그애미까지 보지를 도려내야됨	7/29	<p>카툰-연재 갤러리 디시 위키</p> <p>제목: 메갈리은 자궁을적출하고 그애미까지 보지플도려내야됨</p> <p>글쓴이: 크 조회: 2494 댓글: 13</p> <p>플리</p> <p>여성(메갈리)의 자궁을 적출하고 성기를 도려내야 한다는 매우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임.</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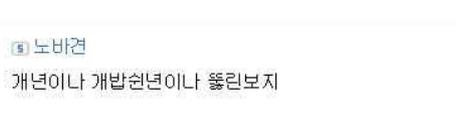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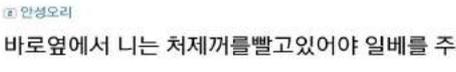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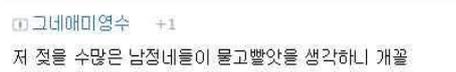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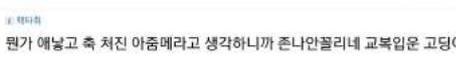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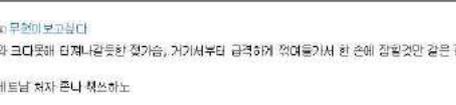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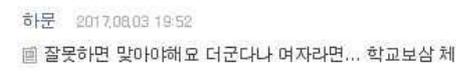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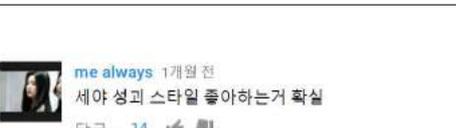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 (해당 글/분석)
디시인 사이드	찌찌가 너무 커서 고민인 여학생.jpg	8/5	<p>국내야구 갤러리</p> <p>제목: 찌찌가 너무 커서 고민인 여학생.jpg</p>  <p>제목: 제 찌찌가 너무크고 통통해요..</p> <p>답변 6 3</p> <p>제가커우고있는 햄스터 찌찌인데요 애가너무통통 해서가려운데도 웃고그려요..</p> <p>햄피라는아이는 비만때문에 일까지와서...</p> <p>찌찌는 운동좀시켜야겠다고 운동기구머워도 그 안에서저요..아말해야하죠?</p>  <p>‘찌찌’가 햄스터 이름이나 이것을 자극적인 제목으로 만들어 아이돌 사진을 올려놓음으로써 여성의 성기를 희화화하고 여성을 대상화하고 있음.</p>
디시인 사이드	해운대 비키니 누나.jpg	8/5	<p>국내야구 갤러리</p> <p>제목: 해운대 비키니 누나.jpg</p>  <p>여성의 신체를 두고 ‘응디보소’라며 성적대상화하고 있음.</p>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 (해당 글/분석)
디시인 사이트	SNL 홍진영 누나 '말죽거리' 패러디 ㄴㅏㅑ.gif	8/5	<p>국내야구 갤러리</p>  <p>연예인 홍진영이 SNL9 나온 부분 중 여성의 신체를 성적 대상화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장면만을 캡처해 게시물을 업로드함.</p>
디시인 사이트	지식인.. 젓소 여중생 .jpg	8/6	<p>국내야구 갤러리</p>  <p>신체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글을 가지고 자극적으로 게시 글을 작성해 여성의 신체를 성적 대상화하고 있음.</p>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 (해당 글/분석)
디시인 사이드	삼청교육대 부활이 필요하다	7/31	<p>사회 갤러리</p> <p>개념글(초개념글) 갤러리 검색 즐겨찾기 연관 갤러리(3/4) 갤러리 주소복사 이용안내 차단설정</p> <p>최근 방문 갤러리 사회 수능 역사</p> <p>제목 삼청 교육대 부활이 필요하다</p> <p>글쓰기 조회 37 댓글 0</p>  <p>똥똥한 여자를 잡아 넣어서</p> <p>사회와 격리 시킬 필요가 있음</p> <p>'똥똥한 여자를 삼청교육대에 잡아넣어야 한다'는 내용의 게시글로 여성의 외모를 기준삼아 폭력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음.</p>
디시인 사이드	취두부남 = 돈 없는 한남총	7/29	<p>사회 갤러리</p> <p>개념글(초개념글) 갤러리 검색 즐겨찾기 연관 갤러리(3/4) 갤러리 주소복사 이용안내 차단설정</p> <p>최근 방문 갤러리 사회 수능 역사</p> <p>제목 취두부남 = 돈 없는 한남총</p> <p>글쓰기 조회 43 댓글 0</p>  <p>못 살고 가난한 주제에 애미애비가 골게 키워서 손에 물한방울 못묻히는 정개 수돼지를 씹다 몰살앙망☆☆</p> <p>'돈없는 한남총은 싹다 몰살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게시글로 특정 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성을 드러냄.</p>
워마드	[보지놀이테] 디제이남처럼 생긴새끼만 보이면	8/1	<p>제목 [보지놀이테] 디제이남처럼 생긴새끼만 보이면 2017-08-01 18:09:02</p> <p>작성자 한남총삼초썹539 조회 30 추천 1 댓글 0</p> <p>쿠어없음^박스 길가다가 길로 69696969번 주셔서 곡어베리고실노스오스 부활 발로 걸어차고 눈알 스펀으로 폭딤서 달려있는 실뽀글머 염선으로 픽삼매우고실노 회회회</p> <p>'디제이'처럼 생겼다는 외모를 기준으로 남성에 대한 무분별한 폭력성을 드러내고 있음.</p>
워마드	[보지놀이테] 내가 씨발 죽기전에 한남총들 모아다가 현실 쏘우 찍을거다	8/6	<p>제목 [보지놀이테] 내가 씨발 죽기전에 한남총들 모아다가 현실 쏘우 찍을거다</p> <p>작성자 한남별집후향815 조회 48 추천 6 댓글 2</p> <p>내가 평생 모은 돈 다 써서 한남총들 납치해서 다 죽일거다 친삼</p> <p>한국 남성을 죽이고 싶다는 폭력적인 내용이 담겨있음.</p>

2) 댓글

성폭력과 성적대상화의 내용을 담고 있는 댓글은 총 41개로 분석되었다. 여성의 외모와 신체를 평가하는 내용, 성관계를 가지고 싶다는 내용, 성폭력을 하고 싶다는 내용 등 댓글 자체로 성폭력에 해당하는 내용이 다수 발견되었다. 성폭력/성적대상화 사례는 혐오/비난 사례에 비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확연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에 대한 성적대상화와 성폭력적 발언의 수위 또한 굉장히 심각하게 드러났다.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댓글 내용
디젤매니아	홍진영 몸매 수준 ㅎㅎㅎ	8/4	 <p>정지만 커다려주세요 2017.08.04. 15:51 답글 슬기 수술이러는데, 그래도 뭐</p>
		8/5	 <p>노력하자우리 2017.08.05. 09:22 답글 굉장히 의젓하군</p>
일간베스트	여자들 일할때 감정적인거 종특이나	8/2	 <p>노바견 개년이나 개밥헌년이나 쫄린보지</p>
일간베스트	19) 마누라는 모유수유중.JPG	8/2	 <p>안성오리 바로옆에서 니는 처제꺼를빨고있어야 일베를 주지 ㅈㅈ. ㅁ지중</p>
			 <p>청순녀에질내사정 한입에 얼마나?돈주께</p>
			 <p>그네애미영수 +1 저 젖을 수많은 남정네들이 물고빨았을 생각하니 개꿀</p>
			 <p>똘이리 똘가 애널고 축 처진 아줌메라고 생각하니까 존나안콜리네 교복입은 고딩이었으면 자지가 천장을 뚫었음듯</p>
일간베스트	공항처자 몸매 클래스..	8/7	 <p>무원이 보고싶다 와 크고못해 디제나겉뜻한 젖가슴, 거기서부터 급격하게 적어올가서 한 손에 감쌀것만 같은 절룩한 허리, 다시 뒤통이내온 끝반개 음침이 배트남 처자 존나 핵쓰하노</p>
일간베스트	서양 10대 몸매	8/7	 <p>장노동 질내사정 하고싶다</p>
네이트판	훈육을 폭력으로 했던 아버지	8/3	 <p>하문 2017.08.03 19:52 잘못하면 맞아야해요 더군다나 여자라면... 학교보삼 체벌사라지니 개 to the 판</p>
유튜브	김종민이 신지한테 잘하는 이유는	8/1	 <p>3주 전 잘하는이유 먹어서지 먹었다에 내전재산과 내손목 건다</p>
유튜브	[※떡춤] "실제와 같은 시각적.."육 감적인 댄스!	8/1	 <p>me always 1개월 전 세야 성괴 스타일 좋아하는거 확실</p>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댓글 내용
	BJ쌍잉 [세야 여캠탐방기]		<p> 서울사는사람 1개월 전 존나성인데 답글 · 12</p> <p> Js R 1개월 전 얼굴에 싸주고 싶다 답글 · 9</p>
디시인 사이드	안젤리나 글 개념만가면 잘리는 이유가 뭐냐? 그렇다면 .GIF	7/28	<p>○○ ○○ 예미차에치어죽은 썸넌신데갈년들 갖랑남은 니네게서편애출려 개척은기름덩이 똥똥이쓰레기년들아</p>
디시인 사이드	안젤리나는 모르는 한국여자의 자존심.. jpg	7/28	<p>미모레 미친년들 애능한다고 공짜대접 못받고 종횡드니마 쳐올고 한 년이 무니마 무는 거 똥포안하면 왔다 시키는 여성 정신공감 능력이라. 디들 우는겨 험들어서 온다고 하면 기소쪽으니까. 여자라서 그런다고 개소리하는거고</p> <p>코스카노ソカ 보자년들은 왜 말을 저따구로 못알아듣게 좇같이 할까. 표현력이 부족한 걸까? - dc A</p>
디시인 사이드	찌찌가 너무 커서 고민인 여학생.jpg	8/5	<p>○○ ○○ 험찌;;; 험찌보스터 아니냐 121,156,***</p> <p>소행 찌찌파티 ㅋㅋ</p>
디시인 사이드	친절한 여피디.jpg	8/5	<p>○○ ○○ 그대로 바로 박아주고 싶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커엽다... 121,190</p>
디시인 사이드	해운대 비키니 누나.jpg	8/5	<p>망구다이 저러고 모텔가서 썸쓰했을텐데 남자</p> <p>○○ ○○ 분홍비키니 씹개꿀이다 112,149,***</p> <p>○○ ○○ 저누나를 술쳐먹고 맨날 억치는 누나들 마니냐? 116,35,***</p>
디시인 사이드	SNL 흥진영 누나 '말죽거리' 패러디 gif	8/5	<p>퀵 와 부선할매 보다가 밧데리 누나 버전보니까 꼬추 터질것 같노</p> <p>남아풍풍권 개꿀시발</p> <p>○○ ○○ 오우야 좇꿀;; 121,140,***</p>
		8/6	<p>○○ ○○ 비키니 입은거 보니 가슴도 작고 골반도 없고 볼륨 자체기없는 노골 로린이 몸매더만.. 의젓의젓해네 시발</p> <p>○○ ○○ ㅋㅋ저기서 좇이 안서고 배길수있냐; 219,249,***</p> <p>마시발 갖볶이 아줌마 개꿀 211,33,***</p> <p>○○ ○○ 와 ㅋㅋ 씨발 ㅋㅋㅋㅋ 저거진짜 현실판으로 실제상황으로 상상하면 e</p>
디시인 사이드	<속보> 강남역 시위현장.... 노래가사 유출 사진..... .jpg	8/6	<p>○○ ○○ 다 죽여버리고 싶네 미친 정신병자년들 시발 223,99,***</p> <p>○○ ○○ 이제부터 밤에 돌아다니는 년들 죄다 모가지 따도 되는부짢??? 49,169,***</p> <p>○○ ○○ 마 이게같은 증년나 형년들이 정년들이 군대에서 죽어갈때 꿀밭이던 개간년들이 마가리를 회쳐서 회</p> <p>○○ ○○ 김치년 한마리만 잡아다 내손으로 회쳐서 찹쌀을 달가버리고 싶네 저 증간나</p>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댓글 내용
			<p>김치년 진짜 죽어버리고 싶다 저위에 공익몰락하기하는년말대로 김치년 한마리만 내손으로 죽여도 소원</p> <p>인천 초딩살해에는 침묵하는 쌍년들이 머디서 마가리를 털어대 마가리를 찢어서 찢갈</p> <p>김치년만 죽이면 전쟁해서 지든 서울이 초도화되면 진짜 상관없다 기념상살한 김치년 목마지만 팔수있</p>
디시인 사이드	지식인.. 젓소 여중생 ..jpg	8/6	<p>회계대장 📧 파문혀보고 싶다 씨발 - dc App</p> <p>와 진짜 50만원까지 지불의향 있다 - dc App 116,93,***</p> <p>Smack 📧 하... 한번만 약 한번만...</p> <p>ㅋㅋㅋㅋㅋㅋ보지말도 제대로 다 안남 풍덩로라보지년미 뺨들배경미배 ccccc1시간만 오지세 물고혈마보면 소원이형겠다 - dc App 만 144**</p>

V. 나가며

본 보고서에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차별 실태를 분석하였다. 온라인 상의 게시글과 댓글을 중심으로 비난/비하, 혐오, 폭력성 내용을 모니터링한 결과 14개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45개의 게시글과 188개의 댓글을 발췌하였고, 이를 ‘혐오/비난’, ‘폭력/성적대상화’ 2개의 속성으로 분류하여 범주화하였다. 14개의 온라인 커뮤니티 중 성차별적 게시글/댓글이 가장 많은 곳은 디시인사이드(86건, 36.9%)였으며 그 뒤는 일간베스트(79건, 33.9%), 워마드(25건, 10.7%)였다. 이는 2017년 4월에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와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7년 4월 모니터링의 경우 일간베스트에서 성차별적 게시글/댓글이 가장 많이 발견되었고(44건, 28.7%), 그 다음으로는 워마드(32건, 20.9%), 메갈리아(23건, 15%), 유튜브(19건, 12.4%)순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배경에는 최근 SNS에서 이슈가 된 ‘초등학교 페미니스트 교사’ 동영상과 ‘웍싱샵 살인사건’, 그리고 여성혐오 살해에 저항하기 위한 강남역 시위 등이 자리 잡고 있다. 7월 27일 온라인 매체 닷페이스에서는 한 초등학교 교사가 영상에 출연해 “페미니즘은 인권 문제”이며 “학교에서 페미니즘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상이 올라 오자마자 개인의 신상명세를 밝히거나, 해당 학교에 항의 민원을 넣기도 하였다. 또한 디시인사이드, 일간베스트 등의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교사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언이나 비방을 일삼는 내용으로 도배되었으며, 대부분의 게시물은 교사를 비방하거나 교사가 근무 중인 학교/학부모들을 조롱하는 내용이었다.

‘웍싱샵 살인사건’은 한 인터넷방송 BJ가 웍싱샵에서 브라질리언 웍싱 시술을 받는 내용을 방송했고, 이 동영상을 본 한 남성이 범행을 계획해 웍싱샵 여주인이 살해당한 사건이다. ‘웍싱샵 살인사건’이 공론화되자 ‘여성혐오 콘텐츠’에 대한 논쟁이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오고갔다. 시술을 받던 BJ가 발기를 의미하는 “시켰다”라는 단어를 자신의 방송에 자막으로 내보내 선정적인 홍보를 한 지점을 두고 웍싱샵 여주인에 대한 BJ의 성적대상화와 그로 인해 가해 남성의 표적 살인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쟁 속에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댓글 상당부분이

확성삽 살인사건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지점은 온라인에서 신상이 공개된 여성이 현실 속에서 폭력의 대상이 되거나 실질적인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8월 6일 강남역에서 열렸던 ‘확성삽 살인사건’ 시위에 참가한 여성의 사진을 찍어 외모를 폄평하거나 근거 없는 비방을 통해 여성을 비하·혐오하는 내용의 게시물 또한 존재했다.

영상 콘텐츠를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유튜브, 아프리카TV, SNS 등에 게재하는 추세의 인터넷 개인 방송(BJ, 유튜버 등)은 방송을 통해 인터넷 화폐를 받기 위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영상을 제작·게재한다. 길거리를 걷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성폭행범 김길태 따라하기’, ‘기초수급자 비하’ 발언, ‘5·18 폭동’ 발언 등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여기고 약자를 비하하는 내용의 영상을 게재해 사용자들의 관심을 끌어 인기를 얻는다.²⁵⁾ 그러나 이러한 콘텐츠들은 해외 기업인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 유통되고 있어 국내에서 ‘유해 콘텐츠’로 제한해 처벌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조사에 따르면 한 학급당 평균 5명은 장래 희망으로 BJ를 적어 냈다고 한다.²⁶⁾ 이처럼 저학년을 상대로 유튜브, 아프리카TV가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를 통해 여성/소수자 혐오가 무비판적으로 수용되지만 이를 제재하기가 어렵고 약자들의 일상 속에서는 공포감에 질려 인터넷에서 신상을 숨기고, 얼굴을 가리며,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엄연한 범죄에 대한 처벌과 혐오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진 제재가 필요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강력한 규제가 요구된다.²⁷⁾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용자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게시물에 대해 건전한 비판을 통해 혐오의 악순환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25) 허핑턴포스트코리아, 20170707, 유튜버·BJ들의 영향력에 초등학교 교사들이 겪는 고충들
26) 헤럴드경제, 20170613, [도 넘은 BJ ①]별풍선만 주면 다한다...“선정·엽기방송은 기본”
27) 아이즈, 20170822, 여성 살해 스트리밍 | ① ‘여성혐오’라는 수익모델

온라인 커뮤니티 모니터링보고서(11월)

I. 들어가며

서울YWCA 양성평등 미디어 모니터링회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속 성차별적 사례를 찾아내어 분석하기 위해 성차별적 커뮤니티 14개를 선정²⁸⁾, 이에 대해 2017년 11월 1일부터 7일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모니터링은 온라인 커뮤니티 14개에 대하여 각각 게시물 100개 및 해당 게시물에 달린 댓글 10개씩을 대상으로 하였다. 모니터링 지표는 「온라인 성차별성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도구 개발연구」(이수연·정수연·김수아·나운주(2015),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개발된 도구를 활용하였다.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은 다음과 같다.

II. 모니터링 개요

- 모니터 장르 : 온라인 커뮤니티
- 모니터링 기간 : 2017년 11월 1일~7일(7일간)
- 모니터링 매체 : 온라인 커뮤니티 (표1 참조)
- 대상 내용 : 게시물(100건) 및 댓글(게시물당 10건)
- 모니터링 내용 : ‘혐오/폭력’성 글, ‘비난/비하’ 글 중심으로 모니터링
- 모니터인원 : 13명

[표1] 모니터링 대상 온라인 커뮤니티 목록

(단위: 건)

NO.	커뮤니티명	목적	페이지 주소	게시물 수	댓글 수
1	82쿡	생활요리 커뮤니티	www.82cook.com	100	1,000
2	네이트판	정보공유 커뮤니티	pann.nate.com	100	1,000
3	다음아고라	네티즌 토론 커뮤니티	agora.media.daum.net	100	1,000
4	디시인사이드	커뮤니티 포털사이트	gall.dcinside.com	100	1,000
5	디젤매니아	패션 커뮤니티	cafe.naver.com/dieselmania	100	1,000
6	레몬테라스	인테리어 커뮤니티	cafe.naver.com/remonterrace	100	1,000
7	루리웹	게임 커뮤니티	www.ruliweb.com	100	1,000
8	메갈리아	미러링 커뮤니티	www.facebook.com/mersgall4	100	1,000
9	베스티즈	동영상·음악 커뮤니티	www.bestiz.net	100	1,000

28) 「온라인 성차별성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도구 개발연구」(이수연, 정수연, 김수아, 나운주(2015)), 및 「온라인 커뮤니티 모니터링 보고서」(서울YWCA,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7.8))를 참고하여 성차별적 게시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커뮤니티 14개를 선정함

NO.	커뮤니티명	목적	페이지 주소	게시물 수	댓글 수
10	아이러브싸커	스포츠(축구) 커뮤니티	cafe.daum.net/WorldcupLove	100	1,000
11	워마드	미러링 커뮤니티	womad.me	100	1,000
12	유튜브	동영상 플랫폼	www.youtube.com	100	1,000
13	일간베스트	유머 커뮤니티	www.ilbe.com	100	1,000
14	쪽방카페	패션·뷰티 커뮤니티	cafe.daum.net/ok1221	100	1,000
총 14개				1,400	14,000

Ⅲ. 결과분석

온라인 커뮤니티의 주요 양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게시글/댓글의 성차별 유형

온라인 상의 성차별 게시글/댓글 수를 분석한 결과, 모니터링 기간 중 총 64건의 성차별적 게시글과 135건의 댓글이 발견되었다. 성차별적인 게시글과 댓글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혐오/비난'이 109건(54.8%), '폭력/성적대상화'가 90건(45.2%)으로 나타났다. (표2 참조)

[표2] 유형별 성차별적 게시글 및 댓글 수

(단위: 건)

유형	게시글	댓글	합계
혐오/비난	22	87	109
폭력/성적대상화	42	48	90
합계	64	135	199

2. 커뮤니티별 성차별적 게시글/댓글 수

온라인 커뮤니티별로 성차별적인 게시글과 댓글 수를 분석한 결과 디시인사이드에서 성차별적 게시글/댓글이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65건, 32.7%). 그 다음으로는 일간베스트(60건, 30.2%), 디젤매니아(17건, 8.5%)순으로 이어졌다. 이는 2017년 8월에 진행한 온라인 커뮤니티 모니터링 결과와 비슷했다. 2017년 8월 결과에서도 또한 디시인사이드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었고(86건, 36.9%), 그 다음으로는 일간베스트(79건, 33.9%), 워마드(25건, 10.7%)순으로 이어졌다. (표3 참조)

[표3] 커뮤니티별 성차별적 게시물 및 댓글 수

(가나다순, 단위: 건)

연 번	커뮤니티명	2017년 11월					2017년 8월				
		게시글 수		댓글 수		합 계	게시글 수		댓글 수		합 계
		혐오/ 비난	폭력/ 성적 대상화	혐오/ 비난	폭력/ 성적 대상화		혐오/ 비난	폭력/ 성적 대상화	혐오/ 비난	폭력/ 성적 대상화	
1	82북	-	-	-	-	-	-	-	-	-	-
2	네이트판	-	1	17	1	19	1	-	6	1	8
3	다음아고라	-	-	-	-	-	-	-	-	-	-
4	디시인사이드	5	5	38	17	65	2	8	49	27	86
5	디젤매니아	1	4	5	7	17	1	1	6	2	10
6	레몬테라스	-	-	-	2	2	-	-	-	-	-
7	메갈리아	-	-	1	-	1	-	-	2	-	2
8	베스티즈	-	1	-	-	1	-	1	8	-	9
9	아이러브사커	-	2	-	-	2	-	-	-	-	-
10	오늘의 유머	-	-	-	1	1	-	-	1	-	1
11	워마드	3	4	5	4	16	12	2	11	-	25
12	유튜브	-	1	10	2	13	-	-	9	4	13
13	일간베스트	13	23	11	13	60	11	6	55	7	79
14	루리웹	-	1	-	1	2	-	-	-	-	-
합 계		22	42	87	48	199	27	18	147	41	233

IV. 내용분석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한 온라인 속 성차별적 게시물과 댓글의 내용분석을 위해 '혐오/비난'과 '폭력/성적대상화'의 2개 범주로 분류하였다. 두 가지의 성차별적 속성이 함께 드러난 사례는 주요하게 드러난 속성의 범주에 포함시켰으며, 해당내용은 맞춤법과 띄어쓰기, 은어를 포함한 원문 그대로를 실었다.

1. 혐오/비난

성기(보지, 좆)를 지칭하는 단어들이 특정 성을 비하하는 의미로 쓰이는 등 원색적인 표현들이 많았다. 또한 '할줌마', '뜰딱(충)과 같이 노년층을 비하하는 단어도 자주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게시물에서 근거 없는 이야기를 통해 특정 성별에 대한 혐오감을 조장했고, 일간베스트는 정치인에게 모욕감을 주는 내용이 다수였다.

1) 게시물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 (해당 글/분석)
디시인 사이드	보험 한사발 하고가라..... fact	11/4	<p>'보험(보지험오)의 줄임말) 한사발 하고 가라'를 제목으로 사용해 성기를 통해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에 대한 혐오를 조장함.</p>
디시인 사이드	좌빨 페미즘들 특징	11/5	<p>'좌빨 페미즘들'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아이가 있는 여성들을 비하하고 근거 없는 이야기로 여성들을 비난함.</p>
디시인 사이드	김치국 할줌마들 젊은 질투 진짜 무서움	11/5	<p>'김치국 할줌마', '젊은뽕' 이란 표현을 사용하여 여성을 비하하고 있으며 혐오를 드러냄.</p>
디시인 사이드	쫓한도전 존나 꼴뵈기싫어	11/5	<p>'쫓한도전', '줌마', '한남들딱예능' 등 특정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혐오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p>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 (해당 글/분석)
<p>디시인 사이트</p>	<p>현재 한샘 이후 각종 여초 카페에서 퍼지고 있는 짤.jpg</p>	<p>11/7</p>	<p>제목 현재 한샘 이후 각종 여초 카페에서 퍼지고 있는 짤.jpg <small>공유 0 조회 36866 댓글 490</small> facebook.com</p> <p>Yangpa <small>어제 오전 1:15 · 🌐</small></p> <p>한샘 강간 사건 관련 카톡 보고 어? 화간인가? 생각한 남자들 꽤 있는 것 같아서.</p> <p>여자분들. 지금 카톡 열어보세요. 그리고 이모티콘 보냈거나 친절하게 대답했던 남자 수 세 보세요. 선배, 교수님, 친구 오빠, 친구 동생, 친구의 친구 뭐 등등. (이런 말 하기도 싫지만) 어쩌다가 술자리에서 마주치고 성범죄가 일어난다고 할 때, '이미 서로 알고 있는 사이였고, 이모티콘 보내거나 씩씩하게 말하고 언제 한 번 만나자고 한 전적이 있음'에 맞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 모든 관계들이 '화간 증명'에 쓰일 수 있다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나요.</p> <p>거절해야 했다 하는 남자분들께는.</p> <p>야근시키는 상사한테 곧바로 따지시죠? 술자리 늘 거절하시고요? 그런데 성매매도 어쩔 수 없이 분위기 맞춰야 해서 같이 해야 한다는 사람도 많은데, 그것도 딱딱딱 대드셨죠? 임금 체불이면 바로 그날 문자 넣으시고 노동청에 고발하시고요? 초과 수당 안 들어와도 곧바로 인사팀장 카톡 메세지로 따지시겠죠?</p> <p>아니라고요? 왜요? 그런 식으로 회사 생활하기 힘들어서?</p> <p>자신은 성매매 같이 가자는 것도 거절 못하고, 야근 시키는 것도 거절 못하면서, 술 같이 먹자고 뒷사람이 불러서 따라갔다는 여직원은 왜 욕하나요. 교육 담당이었던 하늘같은 선배가, 나쁜짓한 놈 처벌 도와준 사람이 이번에도 술자리에서 지켜줄 거라 믿은 건 왜 욕하는지? 왜 곧바로 고발 안 했냐고, 왜 카톡에 답했다고 몰아세울까요. 지금 고발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지, 찢리는 건지,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데 따지고 들어가 하는지, 카톡에서 막 뭐라 하면 곧바로 행동 취하는 건 아닌지, 부모님과 동기들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되는지, 뒷일 걱정하면서 망설일거라는 건 전혀 감정입만 안 되나요.</p> <p>왜 이걸 화간이라고 우기는지 아세요? 여자가 웃어줬고, 말 들어줬고, 카톡 답해줬으면 섹스 가능하다는 심리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술자리까지 같이 했으면 '먹어도 된다'라고 은연중에 생각해서입니다. 술취한 모습 보이고 집에 데려다 주고 하는 거면 파란불이라고 확각한 적 있었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섹스 해보려고 밀어붙여봤거든요. 그건 남자로서 당연하다고 보고, 그거까지 강간이라고 하면 억울하거든요. 이 사람들 머리에서 강간은 야구모자 깊게 눌러쓴 남자가 밤길에 칼 가지고 위협해서 강제로 하는게 강간이거든요. 그런 거엔 엄청 흥분하면서 저새끼 죽여야 한다고 하죠. 내 여친이 될 수도 있는 힘없는 여자를 그렇게 망가뜨리면 안 되죠. 그렇지만 아는 남자와 술자리 같이 했다면 그건 나라도 밀어붙였겠다 생각하니 화간 어찌고 말 나옵니다.</p> <p>카톡 목록 다시 보세요. '그 여자 카톡 기록 보니까 합의한 관계' 어찌고 하는 친한 지인이 있나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 논리에 따라) 당신의 카톡, 당신과의 술자리도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아는 사이+술자리면 기회봐서 모델 ㅋㅋ 도 가능하고, 그건 나는 성관계 동의로 본다는 말이잖아요. 모든 남자 강간범 취급하지 말라더니 셀프인증하고 뭐야 이거.</p> <p>4줄 요약</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자들이라면 대부분 한국남자가 만나자고 한적이 있다. 2. 한국남자들은 카톡 답장해주면 '섹스 가능' 이걸로 받아들인다. 3. 대부분 한국남성들은 술마시자고 꼬드긴 후 성폭행을 저지른다. 4. 나도 당해봤다, 한국에서 여자로 살면 성폭행 당해본다는 분위기 점점 나옴 <p>ㅋㅋㅋ</p> <p>한샘 성폭력 사건에 대해 한 페이스북 이용자(yangpa)가 쓴 글을 캡처해 4줄로 요약하면서 여성의 경험을 남성 중심으로 해석하고 'ㅋㅋㅋ'라며 사소화하고 비하하고 있음.</p>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 (해당 글/분석)
<p>일간베스트</p>	<p>페미정부 들어서고 나서 가속화되는 "뷔페니즘"</p>	<p>11/2</p>	<p>페미정부 들어서고 나서 가속화되는 "뷔페니즘"</p> <p>서울 양천구 여성 공무원들이 남성직원들의 권유로 여겨졌던 야간 숙직에 참여해 눈길을 끌고 있다.</p> <p>양천구는 "지난해 초 직원들의 독서토론회에 참가한 김수영 구청장이 여성직원 비율이 높아지면서 빈번하게 들어오는 숙직 때문에 남성직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데다 양성평등 차원에서 여성직원도 숙직에 참여하는 것이 어떨겠느냐는 의견을 타진하면서 여성직원 숙직을 시행했다"고 10일 밝혔다.</p> <p>양천구 야간 숙직에는 여성직원 58명이 참여 중이다. 이들은 매주 목요일 2명씩 조를 이뤄 숙직하고 있다. 여성 직원은 3명의 남성직원과 함께 야간 숙직근무를 한다. 숙직자들은 직원들이 퇴근하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당직실에서 근무하면서 야간에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한다.</p> <p>주책가가 밀집한 양천구에서 가장 많은 야간 민원은 불법주차를 처리해 달라는 내용이 차지하고 있다. 숙직자들은 "연락처도 없는 차량을 책갈리"는 민원전화가 수시로 걸려와 전인자 임차에 연락해 이를 해결하는데 비지땀을 흘린다.</p> <p>[단독] 양천구 女공무원 "우리도 야간 숙직 서요" 58명 동참... 양성평등 실천</p> <p>입력: 2017-10-10 23:17:14 수정: 2017-10-10 23:17:14 가 가</p> <p>"국방부, 여군 병사모집제도 43년만에 부활 시킨다...여군 월급은 140만원"</p> <p>관동예 기자 2017-11-01 12:44:47</p> <p>많이 본 뉴스</p> <p>故 김주혁 생각에 울고 온 듯 '동행 무은 눈'으로 '송승거를' 결혼식 참석할 지대현</p> <p>"고인의 명복을 빕니다"故 김주혁 진심으로 추모하는 연예계 동료들</p> <p>개별만 '속속' 빼먹고 양성평등 했다고 지달하는 "뷔페니즘"</p> <p>문재인 뷔페니즘 정부 들어선뒤로 거관이다</p> <p>한달도 안된 기사인데</p> <p>공무원은 남들 못해서 안일인 육요일당직 서놓고 양성평등했어요~ 이지말 하고있고</p> <p>군인은 개별연직 상근을 남자 다 빼고 여자로 채운다음 140만원=공무원 가산점 준다고 한다 ㅋㅋㅋㅋ</p> <p>저래놓고 여자도 의무를 다했어 어쩌니 지달하면서 뷔페니즘 은은함</p> <p>진짜 한국 김치녀들빼면 뷔페니즘이 뷔페니즘 운동이고,</p> <p>여성에게 조금만 불리한건 다 여성혐오다 이기야 ㅋㅋㅋㅋㅋㅋㅋㅋ</p> <p>여성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찾으려 하는 것을 '뷔페니즘'으로 칭하며 비하하고 있음.</p>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 (해당 글/분석)
일간베스트	여자의 습성 (feat. 현자타임)	11/3	여자의 습성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여성 전체를 비난함.
일간베스트	여자에 대한 격언	11/4	여성을 비하/혐오하는 격언만을 골라 게시하며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음.
일간베스트	여성전용주차장에 니들 주차해봤냐? ㅋㅋㅋ	11/4	 <p>여성들을 장애인으로 비하하며 동시에 장애인 혐오를 조장함.</p>
일간베스트	연애알바 1시간에 10만원이란 다ㅋㅋㅋ	11/7	 <p>여성을 비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지'라고 표현하며 '여성인 것이 벼슬(특혜)'이라고 일반화하고 있음.</p>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 (해당 글/분석)
일간베스트	반도의 흔한 보적보.jpg	11/7	<p>일베 - 일간베스트 ☆</p> <p>반도의 흔한 보적보.jpg</p> <p>http://www.1bc.com/1012502150 [복사하기]</p>  <p>영도살 앞이라고는 후지현에게 알뜰한 신준영공이 영도살과 같다고 할 노을, 매미부터 후지현 표정 분석과 다른 출연자들이 그런것들은 영도살</p> <p>여기서 저 나이 많은걸로 정신승리 하고 질투 부정해버리는 박복 상위호환 누님 ㅋㅋ</p> <p>지영미누나 마동에서 안본지 좀됐다 그치? ㅎㅎ</p> <p>여성 연예인의 디지털성폭력(성관계 영상 유출)을 유희 거리 처럼 다룸. 또한 여성 연예인들의 대화 장면에서 자극적인 부분만을 캡처해 '보적보(보지의 적은 보지)'라며 갈등 구도를 만들고 있음.</p>
일간베스트	나이별 상폐 김치년 현황.txt	11/7	<p>일베 - 일간베스트 ☆</p> <p>나이별 상폐 김치년 현황.txt</p> <p>http://www.1bc.com/1012444410 [복사하기]</p>  <p>29세 : 불만족의 시작. 무언의 미움 적시태미다 시로 말하고 만나는 날자있다고 물어볼 65%이상의 친구들이 시집갈. 미적 속지않고다래 행동해줄. 역시나 보적보로써 보적보해주는 지성에게 미적 속지않고다래 스스로를 의존함. 그렇게 만나다 보적보에게 같은 행거를 거나지 보적보는 글적보로써 보적보에게 거절당하고 타나감.</p> <p>30세 : 죽음의 90%의 시작. 생각지도 못하게 하고 해주질려 하루대다 생애정어 쓴다. 속이깊은 보적보들 다들. 눈물의 나라.</p> <p>31세 : 부모님의 맞장, 재빨리승하후 생애정적으로 변신 해스미러의 시작.</p> <p>32세 : 반데보의 보적보와 불리후 시 모한미만 미적의 힘으로도 미적수업은 초지정미만 행신들 막을수 없을... 물어보는 거미와 주춤. 힘동계 거우려우 생각지 관중을 알아주거나 무로 날자들해서 다음 눈침타였고 복속해서 공하게 보적보거나 알데로 보적보로써 처자영을.</p> <p>33세 : 친구의 90%가 결혼함. 날아왔는 친구는 못생겼거나 눈이 넓거나 현재가 있음. 그러나 그을려진 나정오만 미만다 날자기 미상행거려미 눈물조 보적보들.</p> <p>34세 : 신지리미미 원정적 적인영호로 미적의 시도로 유우에 가버나 황물계게 가일 거결정함. 부모님은 무거한지 모래. 지은 결혼하고 헤가커도 눈신이라든 의사의 말 에 주겨라는 죽어도 생애정적 영신승리</p> <p>35세 : 지신보만 쓴다고 보적보로써 친구에게도 시집달고, 결혼의 연유. 지우려가도. 물어보는 영신승리 하기도 만연도 미만다 모래계정들 볼 미적 보적보로써 보적보에게 거결정함. 결혼의 연유.</p> <p>36세 : 미적 나정오만 쓸은커다 보적보로써 노선승리 했다. 미적 죽을 보적보로써 보적보로써 영신승리의 연유. 미적가나 누님 만다나 날만은 였나 결혼한후도 행 만나는 소년들. 생애정적에 영신승리 연유.</p> <p>37세 : 미적 생지리나 미미상 미미가도 영미미. 동호회게 가일영호로 출겨려는 반조이행 만영미 영신승리하는 일대로 내우나지 상음.</p>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 (해당 글/분석)
			<p>28세 : 데뷔 이래, 눈물하며 웃음, 자신은 시미호 암서기는 커리어지만 이리도 저위함, 하지만 친구들에게 위치잡지 없으면 그런 새끼만 명품들, 사치스러운 생활에 혐오 (1번비수도 불장안은 2500)된 남고.</p> <p>29세 : 이버까지 공감받지 못하면 짜릿하다고 오지말라고함, 이렇게 남은 부모님들 원망함, 남이없는 친구가 있음, 요런편에 소개팅지리가 내서 죽도 참행복이 없애 나 외전하고 화장하고 한시간 남게 죽을 줄만큼, 소개팅 자기네 나온 남자는 머리가 부러피 자살직육한 미혼남 이자제, 대체면 미해지외 혼년해일수도 있다, 죽은자들 일일함.</p> <p>40세 : 그간 자신의 인생을 돌리보며 데다서 어떻게 잘못되고 잘못했는지 되돌아보고 후회하고 웃음함, 노지더, 드대테 그런데 자신은원한 연대영지 해지라게 득점, 남작은 학교 소름에 개라고 화가남, 노지더, 애중대라는 말하 없당나게 과민연음남, 그대나 모두 어느언간 영리가 안우고 머리가 지루 미지라을 병원에 가보너, 화장대 라는 피사지 말, 그자리에서 두개장함, 눈발이 온갑해과 더이상 프를 눈물미 있음, 그대나 나비 46: 불양장교 267만남, 영음이 할기자영이 자기자신들 과명어보고 인 영을 리해하고 싶대제나 영은은 해이문 영남.</p> <p style="text-align: right;">@ 210 20 23</p> <p>‘상폐 김치년’, ‘보빨러’ 등 혐오 표현을 사용하며 나이를 기준으로 여성을 평가하고 폄하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함.</p>
일간베스트	한국 여배우들의 한계 (feat. 팩폭)	11/7	<p>한국 여배우들의 한계 (feat. 팩폭)</p> <p>2017.11.07 17:16:07</p>  <p>이유: 중국에 대한 무지함이라 해도 최근 중국계가 유독 남가 배우들이 받을 칭찬은 많았다. 즉 그래서 여배우들은 자기가 많다며 유독 자신 특유의 하등 국 처분을 과민드함</p> <p>팩폭은거다, 노출이할 평소실은 위문은 축하라 했기 싫으면서 이젠무만 하고 싶어하는 호기심들과, 중국, 워낙 시장은 무나 마라하는 한국 연예인이라 자신이 하고 싶은 생애이엔 아무런 소란 노출이없고 존경한 한다, 막 공물하고 봉양서 그대나 이나나 하고 불어낼 수 있는데, 특히 다량 촬영이 미신들은 무만수 촬영한 실 디어라본드 순 지이다, 그에 반해 케리나리 여배우 할 리지들로 한영은 문로 북지해 캐스팅 재고를 받다가는 노출 장면이 한영하고도 지다라, 무슨 외한들이 예쁜들 혹은 것도 아니그 한이만 강이거 결정한다 외우르서외 생공이나 자신의 몸을 위해서라면 출현하는게 맞는거라고 본다, 단지 성적 구별의 이윤과 노출과연이랑, 당시 북에서 살장하는 인기노출까지 감할정다,</p> <p>특 한국에서 그런 한영 특이한 이미지 촬영 중지 한다고 생국해서 그들출현이 그거 왜문서 저문장이, 본나 남문까지 촬영중 촬영이 있을 문영한 여배우들 노출 노출 한 여배우가 있다, 가나같은 노출에 자문국에서 문영 촬영이더 지음하는데 한영 문영한 포름노 사이도 가문라 케리 그대나 celeb이 포름 의에서 여배우들 노출 장면 중나, 유포 문영문으로 다루는 사이르문도 문나, 앞으로, 글과 시발 그대문서 여배우들은 남가영영들은 남가영영하고 영영영서 여자 배우는 영 여배우라고 부르나아 케리이랑이 심어한말이나, 하고 있었다, 출연은 한영 여배우들 문영이 영영이 영영 드라타나 찍는거 문영는 것이다</p> <p>한국 여배우들의 한계를 ‘노출을 하지 않아서’라고 지적하며 한국 여배우들을 비난하고 있음. 할리우드의 유명 여배우들은 노출했다고 덧붙이며 여배우들의 노출 장면을 모아놓은 포르노 사이트가 있다고 언급함. 여성들이 성적대상화되어 여성들의 몸이 상품화되는 맥락을 삭제하고 한국 여배우들은 노출을 감행하지 않아 ‘김치 드라마나 찍는 것이 옳다’는 잘못된 주장을 펼치고 있음.</p>
워마드	출생률 떨어진 이유 : 한남이 못생겨서	11/1	<p>제목 [보지날이더] 출생률 떨어진 이유 : 한남이 못생겨서 2017-11-01 13:03:36</p> <p>작성자 이억이씨디스163 조회 1,377 추천 148 댓글 17</p> <p>요즘 여자들 결혼 안하는이유 : 한남이 못생겨서</p> <p>남배우 견복시한 이유 : 한남이 못생겨서</p> <p>옹제 짜름나는이유 : 한남이 못생겨서</p> <p>지나가는 한남 칼폭찍하고 싶은 이유 : 못생겨서</p> <p>출생률이 떨어지는 이유와 관련이 없는 한국 남성의 외모를 문제 삼아 “지나가는 한남 칼폭찍 하고 싶은 이유 : 못생겨서” 와 같이 혐오를 내제하고 있음</p>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 (해당 글/분석)
위마드	외국갔다는 한남들 중 창놈됐을 확률 높은 나라 알려준다	11/5	<p>제목 [보지놀러드] 외국갔다는 한남들중 창놈됐을확률 높은 나라 알려준다 2017-11-05 20:52:37 작성자 허용가소추종115 조회 859 추천 61 댓글 15</p> <p>1. 동남아 여자를한테 만났을 유행기한 자신성확률높은 집합소다 피용피용한 물품이여 간담한가같은면상으로 바라기내일고슬리미질고다나는 한남이 여기가기 별려처럼기어다날 참고로 관공자나 호텔 공항실구에 한국일본 "성매매를 하지합시다"라고버안음 동남아갔다는 한남은 창놈확률100프로</p> <p>2. 미국 캐나다 최소한적극 안경 착용커 소심한말투 밝은명어 =창놈남 여커서이새자들은 제3이상 취급받거나 아예 존자같이안음 가끔 수학시간에 눈길해번머거리에서 몰라고하는데 주인식알기약 그유포리해로 악문익 단순계산문제만존나걸음 경차 배접높은 주권식문제는 순도못업 * * 교보 유학상것치를한태일비어다상업면 다운타운가서 삼매야하라고기우기라는데 경찰한테잡리면 '황문영어로 여에게 거리다가 추방당한다이기 그라놓은 백마왕 원나있한다고 구해치고다날 준후고 소수 취급고 앞물확률 100프로.</p> <p>외국 여행을 다녀온 남성들을 '창놈'으로 지칭하는 게시글임.</p>
위마드	돼지새끼야 애비가 죽었으면	11/5	<p>제목 [보지놀러드] 돼지새끼야 애비가 죽었으면 2017-11-05 23:16:42 작성자 함남합추409 조회 64 추천 3 댓글 0</p> <p>이 내가 사할줄한테 지은 죄가 많아 내 애비가 없애기 뭐고구나 하면서 자숙이나 할것이지 어디 죽을만큼 창신승리할이노 * * * 내가 피해해서 피해받았는데 뭐 문제있노? 뭐 다 창난이였노? 피해자가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게 말이 되노 심해 살어였다는 생각이 드노 개쓰레기새끼야.. 하긴 애초에 열렬한 새끼였으면 그만에 자할일 못하리 * * * * * 대체 어느정도도 후회할래 그런 안임을 제노? 애비 안 뭐지누게 이상할 정도네</p> <p>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며 '개쓰레기새끼'라며 혐오감을 드러내고 있음.</p>
디젤매니아	페미니스트 가 생각하는 알쓸신잡.jpg	11/4	<p>페미니스트가 생각하는 알쓸신잡.jpg ■ 디라이프 커뮤니티 ■ 2017.11.05. 17:59 www.watoken.com/detail.html?S0149281 (주소창)</p> <p>*디제 규정-광고대상/3. 해당이 품머가 없는 글 - 게시글이나 댓글에 가입자는 익명인식 적용 및 일부인 게시는 마다(호칭)로만 게시할수있는 것을 주의 하여 사합니다. -유저별로 관리자 권한이 제한됩니다. (이웃 및 세세 조치) 관련 공지 보기</p>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 (해당 글/분석)
			 <p>'뜨거운 사이드'라는 프로그램 캡처를 올린 후 '남자에 대한 증오로 미쳐버린 모습'이라는 등 여성에 대한 비하하고 있음.</p>

2) 댓글

혐오/비난의 내용을 담고 있는 댓글은 총 87개로 분석되었다. 여성에 대한 혐오감을 조장하는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여성들을 '메갈년', '메태지', '한녀충', '보지년' 등으로 지칭하는 모습을 자주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모니터링 당시 이슈였던 '한샘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게시물 의 댓글들에 성차별적인 요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댓글 내용
디시인사이드	좃한도전 존나 끌뵈기싫어	11/5	ㅇㅇ 다 늙은 틀딱들이 젊은 세대처럼 놀고자빠짐 223,82,***
디시인사이드	오늘자 어메이징... 의경들 석면가루 잔해속에서 취침....news	11/5	호하호 짜질한 한녀를 한 달에 며칠이나 지켜키한다고 생애나 ㅋㅋ 여자피 나이쳐먹으면 하루에 서너번도 갈거 125,176,*** ㅇㅇ 보지년을 군대보내야된다 ㅎㅎㅎ 14,52,***
디시인사이드	저거 끝나고 네이버 댓글 예상 ○○○○○ ○○○○○	11/5	ㅇㅇ 보적보 + 팬아년척 + 살페녀 조합 오지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11,219,*** ㅇㅇ 남편하고 애나 봐라 왜 결혼 했냐! 121,164,*** ㄴㄴ 왜 깃뉀녀끼리는지 이유를 알겠더라 ㅋㅋ 한녀와는 다른 상냥함 한녀들은 성격이 남성적이라 패스 ㅋㅋ 322,107,*** ㅇㅇ 30대 늙다리년들이 지들보다 10살은 어린놈들음;; - dc App 223,35,***
디시인사이드	??? : 여성부 권한 커져야 된다 jpg	11/5	ㅇㅇ 여역시 보빨왕 이명박 - dc App 110,70,*** ㅇㅇ 문형원들 미니메갈대통령되서 보수 경치인으로 메갈분타기 오지게 해버 ㅋㅋㅋㅋ 87,68,*** ㅇㅇ 아 이명박은 다 말오렸고 우리보다 말올한 안올인 올남이랑 썩이는 다문형원들 해나면오도 카육학 협회 개대중 개무정 시엔 여성부 썩 걸살잡 105,132,***
디시인사이드	갈한복판에서, 자신의몸을 드러내는 여자...jpg	11/5	ㅇㅇ 돼지같은년 개좃같기도 생겼네 씨발 27,35,***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댓글 내용
디시인 사이드	천조국...도 살자...빌버 형님...jpg	11/5	○○ 보지년이든 좇달린새끼든 왜지총은 죽여야한다 210,99
			○○○ 메갈돼지 길가는 것만보는것만으로 역겨운데 왜 물카격정하는거보면 혐오스러움 7
			ㅋㅋㅋㅋ 불합리한 처벌은 아 씨불년아, 난 우울하고 차기관리 겨울러서 더러운 남자 선호해!ㅋㅋ 혐상은 니가 노력해야 가진것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바라는 마음없는 좇년이라는게 핵심이다. 옳년이다 175,198.7
디시인 사이드	남성 뉴스 앵커들..... 일생일대 위기.....jpg	11/7	○○ 이 남자는 공부 못나해서 기차되고, 기차로 온갖 사고생물 다 겪고, 그 기차를 총 100명 중에 1명 실종 부양금 되면, 생커발바 말해줘라 여자는 200배 이르면 절망이다 104,90.7
			○○%20 시사엔 관심도 없고 연예에만 관심있는 한녀들이 똘 ㅋㅋ - dc App 1,241.7
			○○ 풍요층 싱글벌금 사버ㅋㅋㅋ 229,62.7.7
			○○ 뉴스 '보지'도 않는 년들이 ㅋㅋㅋㅋㅋ 112,155.7.7
디시인 사이드	한샘 사건...페북 여성유저들 의 반응...jpg	11/7	옛먹영 메갈원뉘치들 연패행진에 폭식으로 화식하는중 ㅋㅋㅋㅋㅋ
			adsff 헬조선 김치년들은 모두 잠재적 꽃병인거냐? 220,120.7.7
			○○ 불합리한 처벌은 아 씨불년아, 난 우울하고 차기관리 겨울러서 더러운 남자 선호해!ㅋㅋ 혐상은 니가 노력해야 가진것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바라는 마음없는 좇년이라는게 핵심이다. 옳년이다 175,198.7
			LL :한녀총이 다 똑같이 니미ㅋㅋㅋ 저것들은 피해의식으로 윗층층친 정신병자들임
			LL 처음에는 한녀총을 다 똑같이 반응할 저것들은 여성은 무조건 피해자란 프레임밖에 생각할줄 모르는 머가리집애인들임 꽃병일수도 있다가는 생각자체를 못하고 남자쪽만 욕이라 쳐하는 인간조무사새끼들이지 미친 저 한녀총을 개판치는거 참고 못바라다 내가 더이상 참고 낼 기에는 한녀총을 썰판이 이미 도둑 넣고 있거든 ㅋㅋ 14,53.7.7
			LL 어디까지 거를 필요가 없지 왜냐고?? 한녀총은 다 거기서 거기거든 ㅋㅋㅋ 다 그녀이 그녀임 ㅋㅋ 여성은 무조건 피해자 배애향 ㅋㅋ 이게 바로 한녀총이다 ㅋㅋㅋㅋㅋㅋ 14,53.7.7
○○ 또 가해자 없는 강간사건 하나 나오겠네ㅋㅋㅋㅋㅋㅋ 무고한 사람은 있어도 무고죄 성형은 안됨ㅋㅋ 11			
디시인 사이드	현재 한샘 이후 각종 여초 카페에서 퍼지고 있는 짤.jpg	11/7	○○○ 그녀가 체력소를 배분책이 없어요? 하긴 시술 책스가 무슨 관심수나 마친지안 년들이니 몰 일했나ㅋㅋ 11
			○○ 쪼아서 하얗고 그늘맞 앓았다 81,108.7.7
			○○○ 사실 보지커뮤니티에서 도는 루머가 다 좌원 일고리즘으로 만들어질. 있지도 않은 허수아비 타작살하며 죄다 지들이 소스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할만큼게 코인트인데 일종의 피해경상이 있음
			○○○ 불치기 초녀들 씨 ㅋㅋㅋㅋ 김강무고도 한두번이머머지 패스걸 똥다하면 무고해 처벌 ㅋㅋㅋㅋ
디시인 사이드	이여영, "남자 성기, 개 입마개처럼 채워야	11/5	매미노 지들이 씨발 똥집어넣고 고정시킬라고 차는게 브라 아니냐
			○○ 병신 평등은 열어디질 누가 브라차래 씨발 210,99.7.7
			○○ 지를 늘어난 것맞이 볼륨감있게 해볼라고 차는게 브라지 사발 자랄하고 없었네 진짜..... 차치마 입안이 애러이 사발년
			○○○ 생각것도 젓것이 생가 삼페년이 ㅋㅋ 175,223.7.7
디시인 사이드	여군 병사 모집 43년 만에 부활 시킨다.JPG	11/1	○○ 보지라는 젓것기만 알고 태어나면 좀 밉고 디너도 집취-문취-남자의 심장은 해로이던 이니면 으헨스핀다뿐이냐? 7
			○○ 이제 보지를 근거서 공무원 시험공부 하건네 ㅋㅋㅋ안보는 개불 ㅋㅋ 군안포우사 피래가 보인다 7
디시인 사이드	울썸문 오늘 정보 요약.jpg	11/3	○○ 설명(총)원본은 좇버워치와 좇순 1,216.7.7
일간베스트	여자한테 큰 의미 두면 안 되는 이유	11/1	① 17살군필며고생 +2 그냥드러온구멍임 생체오나홀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댓글 내용
일간베스트	미스 맥심 우승자의 자습감.	11/1	<p>이 선이내면전피 저런것들보면 x나 권극형이지않나? 조도문비공녀들이 보지만 것들이 좋아서 호승연구하는데 항상 조태지게 귀엽하게 살아서 호공연애를 많은 자지들을 아재 저런 것들보지않는다고 하대말으니 씨발 미계 나라나</p>
일간베스트	유아인 씨발 기 허리놀림보 소	11/1	<p>4 하마하라 +3 똥꼬총</p>
일간베스트	여자들의 이중성.jpg	11/1	<p>3 옆꾸리에총좌 뇌 없는 보지년들</p>
일간베스트	부산역 맞은편 걸어가는데 할마시가 백마묵어볼 래?이런다 스브	11/2	<p>4 시원한얼음 일단 보지달고 태어난 이상 보지만 팔아도 몇억 뺏기지않냐 존나 부럽다 여자들은 알바나 직장잡아도 존나 편한일만 하고 남자들은 숙식노가다 같은거에 공장 3d 업종에서 존나게 덥고 춥고 더럽고 위험하고</p>
일간베스트	걸레 여친 감시용 강력한 정조대!	11/3	<p>2 개독김치쫄쫄씨발 김치년들 해외나갈때 착용필수품</p> <p>11 처녀찾아삼만리 근데 보지들은 저런거 좀 채워놔야됨 그래야 참을성이 길러짐 ㅇㅇ</p>
일간베스트	F컵 NHK 스시 아나운서 cccccc. gif	11/4	<p>3 환인예수체너월조 왜 같은인종인데 왜이렇게 다를까? 스시녀들 가슴키우고 골반키움동안 한녀들 뭐한거냐?</p>
일간베스트	한국김치 쌍년들은 모성애란게 아예 없냐??	11/4	<p>11 미쳐버린삼수생 요새 씨발 보지년들 존나 늘었는데 왜 그런거냐? 갈수록 퇴화하노 진짜 존나 열등한 종족이네</p>
일간베스트	개쪽팔리는 문들딱의 전신샷...	11/7	<p>3 SadSatan 나이쳐먹고 결혼도 못한 병신 똥년보단 난듯ㅋㅋ</p>
일간베스트	우리나라 갓전사 여군들.jpg	11/7	<p>11 살짝미침 05년 해병대 공병 출신이다 2사단 복무했고 김치부사관 한명있었는데 미군똥 시벌 하는것도 없고 할줄마는것도 없고 시벌년 조금 매력있게 생긴거 말고는 쓸때가 하나도없음...시벌년 진짜 쓸데없는 여군들 너무 많다 지지배 하나 있다고 여자화장실 만들어 주질않냐..아놔 개박쳐서 부대에 로트와일러 키웠는데 개새끼가 존나 무섭게 으르렁 거리더니 일이병들한테 몇주 쥐터지더니 똥개다됨</p>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댓글 내용
			<p>① 싸패멘산</p> <p>여잔데 뭐하나 잘할수 있긴 있냐? 적군한테 잡혀서 성노예되는거 밖에 더있냐?</p> <p>① 처부수자7시달티</p> <p>비무장으로 나랑 붙으면 내가 저 여군들 다 때려죽일듯..총살해줘도 다 죽일 자신있음..잡치지말고 애나 낚나라</p> <p>② 씨발달근혜</p> <p>잡히면 강간담할 여쩔수 없음</p>
일간베스트	귀여운 서양 어린이 사진모음	11/7	<p>① 이니이니우리이니 +1</p> <p>김치년들 자살알지?</p>
일간베스트	나이별 상폐 김치년 현황.txt	11/7	<p>10가지기만용 +2</p> <p>내가 왜 야에 친구년들은 안 도와주려고 하는지? 마셜 전 마셜에도 어느 원정대가 병영서점에서 여기저기 문 패시는 곳이 많고 물렸는데, 내가 일부러 문 들은 척 하고 대꾸도 안 하고 제니안용.</p> <p>마셜 제 버니라, 남지마 씨중 장남구에서조차 내가 어느 건물의 우리문을 크게 열고 밖에 나갈라하면, 내 뒤에나 나가려거나 내 앞으로 걸어서 앞으로 들어오려는 한국년들이, 고향다는 말이나 문고려들 필요없는 정각 하나도 없이, 아주 편견하다는 표정으로 제지거리듯 자기 몸만 굽혀다니는 것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보여졌음.</p> <p>미련 앞둔은 몇 년 전과 나서는 한국년이 자기 스스로 문 열고 들어오고 나오려를 기다려거나, 뒤따라오는 남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내가 들어간 뒤 바로 문은 닫아버림.</p> <p>한국년들도 15년 전에도 이기적이긴 했던 건 사실이지만, 미국은 남지마 문고려미라도 문 잠고, 죽니문해 고맙다는 거 표현해도 안 함. 17살까지 살아있지만, 한국년들 도저히 인간적으로 느껴질 기분이 전혀 안 보임.</p> <p>그 뿐인가? 우물쭈물고 다니면서 나 앞을미안 무덤덤한, 마린해다는 것도 없이 비켜가는 눈빛만 보냄. 내가 앞 앞에서 살짝 비웃고 비키라고 빙글 스고 소리치면 그게 서이 미지못해 비키는데, 진짜 미련 앞둔은 한국에서만 보여지고, 외국에서 보여줘도 꼭 한국년들만 저지랄 해냄. 도대체 한국년들은 어떤 년이나 똥년 년이 다 자기구려서 마루 째수 있해이다.</p> <p>제가 배스민에서 너무 치과연계 때문에서 사람 괴롭게 만드는 이들도 워디 한국년들.</p>
유튜브	[EngCC]모든 EXID 뮤비에 나온 '야한 상징' 10가지(위아래 + hotpink + L.I.E) [드림텔러]	2016	<p>War Boy 1년 전</p> <p>성적인 비유까지 선정성 논란이라닐ㅋㅋㅋㅋ 헬조선엔 씩션비년놈들만 사나ㅋㅋㅋㅋ 보수정권 하에 문화가 쓰레기가 될려고 하네</p>
유튜브	팬티 노출로 욕먹고있는 흡소핑 헬... 팬티취향 충격이네	8/15	<p>김지후 2개월 전</p> <p>ㅋㅋㅋ 무거운 년들 집에서 과자먹으면서 보다가 심히 불편했나보다 저만 흡소핑을 남자가 볼 일이 없는데</p> <p>BETA 베타테스터 1개월 전</p> <p>미친콩팡이들 살똥힌 작은눈으로 이상한것만 보네 ㅋㅋㅋ</p> <p>트백학부자 2주 전</p> <p>창년들인가 보네 자라리 팬티만 입고 해라.무슨 저런것도 치마라고 입고 다니냐.목적이 뭐냐 내 보즈를 보라는거지.창년들</p>
유튜브	롤 게임 여bj 신음소리 계속내며 게임중계	2017/10	<p>탕카페 1개월 전</p> <p>아 개시발 밤에 롤 영상 보다가 잘못눌렀는데 이영상 틀어져서 가족한테 오해받았잖아 개시발 대가리 존나 긴 오이대가리 새끼야 시발현이 틀었나</p>
유튜브	BJ 꽃님 사건	2017/10	<p>허연증환자 2개월 전</p> <p>누가 헤어질걸 뭐라고 병신 똥해명하는거야ㅋㅋㅋ 팩트를 모르노 메갈린이 왜 사귀는도중에 바람을 폈냐고</p>
유튜브	이호리 전남친들 누구누구?	2017/10	<p>JKP 1개월 전</p> <p>이호리 걸레년이란거 옛날부터 알고 있었는데 지금남편 이상순병신 똥쌍하다 먹다남은 고기저먹는격 답글 · 24 · 1 · 1</p>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댓글 내용
	재산 학력 비화 뉴스공장		
유튜브	(코난쇼) 게스트끼리 가슴만지는 걸 다시 보고싶은 코난	10/26	 익.스 3주 전 우리나라 남혐하는 다수 한녀중들...이걸 보고 머라할까 ㅋㅋ
유튜브	일촉즉발 상황 발생!! 색깔론 들고 나온 전희경 의원 질의에 몹시 화가 난 임종석 비서실장..	11/5	 유동호 1시간 전 전희경이 말하는 국민·문순암제외, 메갈공황어 제외, 조선족제외, 진보인척하는 별명어제외, 그 외 선동만 당하는 개돼지 제외 답글 3
유튜브	주현미 이혼 주현미 에이즈 주현미 문화욕은 서로 묘한 관계가 있습니다. 문화욕 프로필	11/4	 남백일남 3일 전 문화욕 니년이 어떻게 살아 왔는지 대중 알겠다 추잡스러운 년 입으로만 먹고 산게 아니었네 밀구녕 입으로도 ㅋㅋ 더럽다 더러버~~
네이트판	20살이 마크제이콥 스 시계 차면 안되나요?	11/4	 메갈패미공황와 2017.11.04 22:23 [답] 친구들이 쪽방 여성시머하니보네 ㅋㅋㅋ 마크가 영품???????? 어후 여자일베들 ㅋㅋㅋㅋ엠텔지를 열등감에 무식할이람
네이트판	올케와 사돈댁이 저희집에 온다네요.	11/4	 2017.11.05 00:48 외국 오래 살아서 잘 모르나분데 원래 한국년들은 대부분 저러요. 평생 일안하고 남한테 공자로 빌붙어 사는데 당연한 권리인줄 앎. 게다가 무슨 외국은 다들 남성이 임신하는데 한국만 여자가 한다고 개 말도 안되는 헛소리 퍼트리고 반박하면 한남총 배애역 배애역 이지랄만 합니다. 무조건 한국년은 피하세요
네이트판	남자친구의 학력이 너무 신경쓰여요...	11/4	판알바병 2017.11.04 21:22 [답] 글쓰니 이색처럼 인서올나오느런들은 속물런인거봤으니 확력좋은남자들이 인서올런걸러라
네이트판	고등학생 남자아이가.. 남자로 보입니다. 도와주세요	11/4	 2017.11.04 17:03 아 진짜 글쓰기가 아니라 네이트 개좀마들이 남자 안만나본거 같은데??무슨 19살짜리가 핏덩이고 남자로 안 보여 씨년들아 ㅋㅋㅋㅋㅋㅋ 19살짜리 보긴했냐??19살이 애기??아아아아아아 19살이나 20초반 군인이나 겹으로 보면 구분못하고 지금이 11월인데 성인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사실상 10살 차이도 안나는데 사귀는건 무리여도 남자로 보일순있지 20대후반 남자들한테 물어봐 19살짜리 여자가 여자로 안보이는지 백이면백 여자로 보인다고 하지 씨년들 현실감각 조카없네  왕미 2017.11.04 14:54 [답] 미친년 남자가 그렇게 없었냐? 얼마나 남자들한테 관심을 못 받고 살면 그 어린 핏덩이가 남자로 눈에 들어 오나 진짜 개도라이 아님?  팩트 2017.11.04 18:38 [답] 현실을 말해주지. 그냥 년 고등호기심 잠자리상대일뿐이고 남자가 대학가면 니가 준 용돈으로 도래랑 데이 트할꺼야.. 년 화나서 사람들을한테 말하겠지. 그치만 손가락은 니가 받는거 어린놈 꼬신게 자랑이냐고 그냥 너 만 초라해지는거야 됐고.. 망상에서 꿈깨자 공황아
네이트판	팬덤 연령대	11/4	 2017.11.04 20:59 20대가되서도 빠순이질하는년들은 그냥 자살해야지.. 한심한년들.. 강 범중선소는 년들이랑 뭐가다르노? 연예인 자갑년들 커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댓글 내용
네이트판	추추가)추가) 퇴근하고 오니 와이프가 나가버렸어요	11/4	<p>2017.11.04 20:55 3 0</p> <p>김치놈들은 왜이리 골비이었을까.. 여자한테가생해서사는것밖에할줄모르나. 스스로 좀 살아보지. 강 노답이다 이나라남자들은.</p>
네이트판	월 2000버는 남자 어떤가요?	11/4	<p>2017.11.04 01:18</p> <p>미친 개한남총 ㅋㅋ</p>
네이트판	집해주니까 시외가 이불세트 해오라는 예비시어머니 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	11/4	<p>2017.11.04 09:45 3 0</p> <p>나도 여자지만 이래서 김치년 김치년 하는가보다. 싫다 받으면 주는게 있어야지. 집받고 풀랑 이불을 아까워하는골이 소탐대실을 일삼는 소인배로 보인다. 마음고개쳐라 이골저골싫음. 집받지말고 틀이 모은걸로 해</p>
네이트판	한샘 성범죄 피해자입니다.	11/4	<p>2017.11.04 23:30 0 9</p> <p>여자에게 이런일이 일어나도 막상 메갈 워마드 및 자칭 깨어있는 페미니스트(라고쓰고 꼴페미라함는 한국 여성의 페미니즘)들은 진짜 들고일어나야되는 일이 이런건데 막상 아가리를 실리꾼으로 불렸는지 조용~니들은 글러먹었어 ㅋㅋ 허구연날 사회탓이나 하고 자빠져있고 ㅋㅋ 한국여자들은 진짜 투표권가지게해준 다른나라 여성분에게 평생 감사해야한다. 전세계만이 한국여자같았으면 아직도 투표권 없었을것은 불보듯 뻔한 얘기 ㅋㅋ 그렇게 일베 벌레들이랑 허구연날 누가더 병신인지 싸우다가 일베랑같이 자폭이나해줘라 제발</p>
		11/5	<p>2017.11.05 00:10 3 14</p> <p>가해자 글이 사실이고 피해자 진술이 거짓판정나서 매택지판녀를 다 뒤졌으면 ㅋㅋㅋ 아니지 벌써 검찰에서 무혐의 판정난건데 ㅋㅋ지들이 보고싶은것만 보고보고하는 매택지 꼴꿀이를 ㅋㅋㅋㅋㅋㅋㅋㅋ그만 처먹고 저놈좀쌍아라!!!!매택지년들아</p>
			<p>2017.11.05 20:22 1 0</p> <p>고추 맞는 주사 있어야뎌 짐승새끼를 정력좀 풀이게 정기적으로 맞아야뎌들 성욕따라서 강도도 세계^^</p>
11/5	<p>2017.11.05 23:53</p> <p>어차피 메갈 판녀총들이 들끓는이곳에서 이지말해봤자임 ㅋㅋ 양쪽말다들어보고 결론은 법정에서나겠지요~상것들아. 지들이판사임?ㅋㅋ</p>		
네이트판	ㅎㅈ성폭행 사건으로 남친이랑 싸웠어요	11/5	<p>2017.11.05 02:18 1</p> <p>요즘 김치녀가 한들임? ㅎㅎ 내가봐도 주작같은</p>
네이트판	송해고 90퍼 이상 임신했다 곧 성지글됨	11/5	<p>2017.11.05 03:28 3 17</p> <p>임신해서 시집가는 여자는 절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여자다. 남자의 성적인 욕망을 제어할 위치가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지. 혹은 임신으로라도 남자를 잡아야 할 절박한 상황에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송해고 정도되는 여자는 그런 창피한 짓을 하지 않는다. 김태희도 마찬가지고, 박지성도 마찬가지다. 아이가 혼수라고?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아이를 혼수로 가지고 가냐? 그리고 임신해서,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시기도 마음대로 잡을 수 없게, 불가피하게 시집가는 것을 감수하는 여자는 그만큼 대가리 수준도 떨어진다는 거다. 한마디로 수준 이하라고 할 수 있지. 반대를 누른다는 것은 본인이나 그런 수준의 여자임을 인정하는 것이겠지.</p>
네이트판	임산부 배려석 비워 달래놓고 자기 아들 앓히는 엄마	11/5	<p>2017.11.05 03:11 9 33</p> <p>젊은년들이 주로 이기적이더라. 지들도 나중에 임신하고 애가될건데 애엄마랑 임산부를 벌레보듯함. 임산부 배려석에 다른사람은 몰라도 젊은 여자들은 앉으면 안된다 나중에 자기가 다 돌려받을 배려인데 굳이 거기 앉아야 되겠냐</p>
워마드	성욕이 그렇게 중요하면 보지 성욕은 왜 안챙겨주노?	11/2	<p>작성기 톡톡추천관심721 2017-11-03 01:44:06 7 0</p> <p>나에게도 조각같은 얼굴에 근육 같. 화려 화려한 소린이를 내놔라. 혹은 적어도 18센치는 되어야 하고 미부는 복숭아뎌로 부알고 궁디는 살이 통통하게 올라 환순으로 곱았을 때 찰지게 달라붙어야 하노. 보빨 및 보지킴기 테크닉 **x e x인 소린이를 내놓아라. 나도 성욕 좀 풀고 싶노. 한남같은 새끼들이 2센치 좆 달고 돼지베게 혼들면서 다니니 보지가 사막화 되어준다. 이 좆팔 찰놈들아!!!!</p>
워마드	[보지놀이테] 솔직히 좆국 보지들이 성욕 별로 없는이유	11/3	<p>작성기 유용가정번호492 2017-11-03 22:47:21 1 0</p> <p>찰리는 남자가 없어서 뭐가 갈라하는건지 알 수 없는 썩질 한남들아 노오역을 해라 미기아- 톱 근대 한남은 뭐도 안먹노, 갈수록레드되면 성격은 하보겠노 수줍니</p>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댓글 내용
워마드	[보지놀이터] (기사)60대 한남, 투신 여성에게 깔려 재기	11/4	작성자 하용가개돼지780 2017-11-04 01:01 파.. 머모님... 가시는길 일련등 보우하사 한남한마리 재기시켜 가지나.....
			작성자 현무살초릭574 2017-11-04 01:01 하이고 데모님 이게 다 한남충때문어노 한여리 재기시키셨노 이와중에 보지대장머시노
			작성자 현무수추중349 2017-11-04 01:01 머모님,, 비록 안타깝게 목숨은 잃으셨지만 희생하셔서 틈막 한마리 재기시킨거,, 불나 불대장이심니다... 광광광
메갈리아	〈여혐민국 만화〉 1편, 2편에 대한 내용	8/14	 Eun-Jung Kim 한남재기지원 좋아요 · 댓글 달기 · 1 · 8월 14일 오후 1:54
디젤매니아	페미니스트 가 생각하는 알쓸신잡.jpg	11/4	 Wanny 2017. 11. 04. 17:42 ▶답글 ㅂㅈ로 태어나니까 불편하지 세상을 좀 더 넓게 ㅂㅈ를 못하니ㅋㅋ 그럼 ㅂㅈ로 태어나던가 예휴...저런 편협한 시각과 생각... 그냥 인생 ㅂㅈ를 쳐
디젤매니아	여초에서 뉴스 좌표 찍고 여론조작 하는 법	11/5	 닉값 2017.11.05. 14:25 ▶답글 ㅋㅋ진짜 쿵황이들땀에 여혐생김
			 천사설현 2017.11.05. 14:46 ▶답글 골페미들 여전하네, ㅋㅋㅋ 
디젤매니아	이국주 자신 평가.jpg	11/5	 GR보이 2017.11.05. 15:02 ▶답글 인정 돼왕색
			 추천요경 2017.11.05. 15:06 ▶답글 국자이크즘...;;ㄷㄷ

2. 폭력/성적대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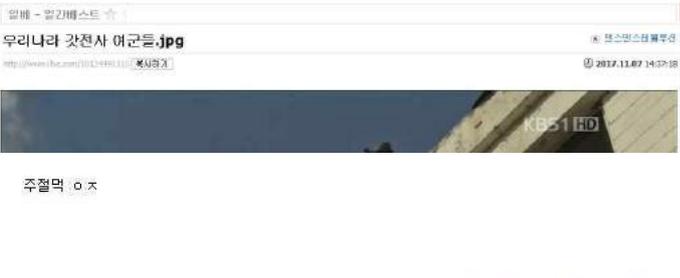
신체 부위 중 한 곳을 강조해 성적 이미지가 연상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시물이 다수였다. 특히 여성의 가슴, 엉덩이, 몸매, 옷차림을 두고 평가하거나 성적 이미지로 소비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많았다. 또한 특정 성의 속성을 들어 폄하하거나 성적 매력의 결격사유를 지적하고 성적 대상화하여 불쾌감을 유발하는 표현들이 사용됐다.

1) 게시글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 (해당 글/분석)
디시인 사이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것에 상품가치가	11/5	 제목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것에 상품가치가 매겨지는데 글쓴이 00 조회 78 댓글 2 대체 시장경제를 뭇로 알면 성상품화 소리가 나오는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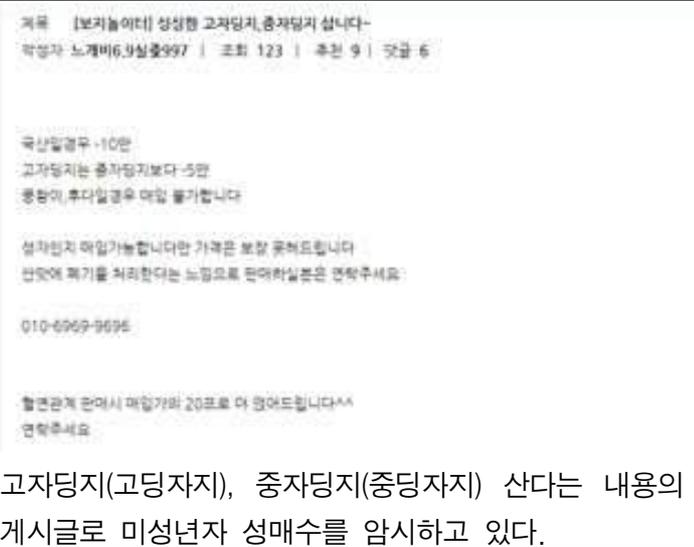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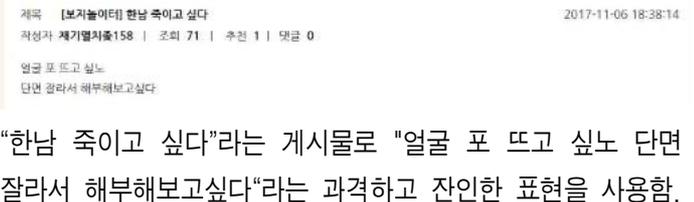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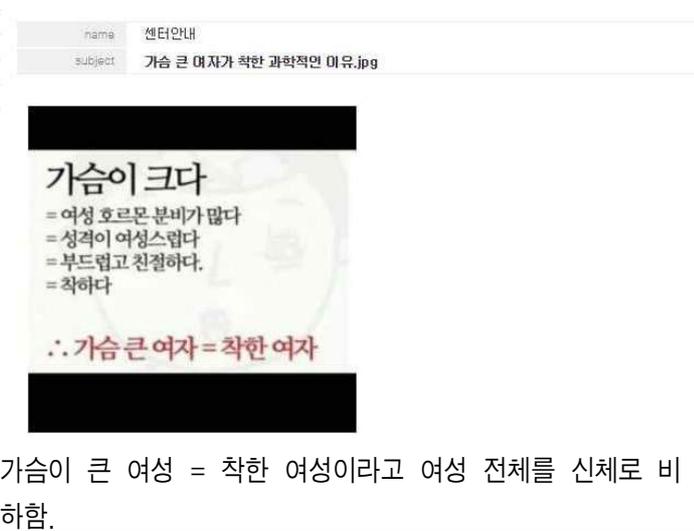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 (해당 글/분석)
	매겨지는데		'성상품화'를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가 반영되어 있으며, 성적 대상화하는 것을 합리화하고 있음.
디시인 사이드	육탕에 한남유총 데리고 오는 년들 = 싸튀당한년 으로 낙인찍어야 되끼	11/4	<p>제목 : 육탕에 한남유총 데리고 오는 년들 = 싸튀당한년으로 낙인찍어야되끼</p> <p>글쓴이 : ㅇㅇ 조회 : 156 댓글 : 4</p> <p>한남유총새끼는 애비없는 자식으로 낙인찍어서 만5세고 뭐고 한남유총새끼를 박멸해버려야되끼</p> <p>쫄새끼 남탕에 데려가달라고 애비새끼한테 말도 못하는 년들 제발 음식에 독약 풀고 쫄놈들이랑 같이 죽으시끼</p> <p>꽤미년들 저런 미친 종년을 못까는게 백피 지들이 한남유총 데리고 여탕가서 그런거인거 같음</p> <p>'한남유총새끼', '쫄새끼', '꽤미년들'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여성비하, 남성비하를 하고 있으며 남자 아동을 '한남유총'이라고 칭하며 이들을 박멸해야 한다고 하고 있음.</p>
디시인 사이드	ㄴㅏㅓ 인터뷰녀 레전드 야붕이 선택은.....j pg	11/7	<p>제목 : ㄴㅏㅓ 인터뷰녀 레전드 야붕이 선택은.....jpg</p> <p>글쓴이 : 디종씨 조회 : 46156 댓글 : 385</p>  <p>고 1-2-3 수능 형태 달라</p> <p>박혜진 고등학교 2학년 2학년부터 안국사를 배우다 보니까 외우는 것에 집중해서 일들고 부담스러워요.</p> <p>KBS 뉴스 '뉴질랜드, 북한 등 20여 개국 입원 치료' NSA에 제공 (현지 언론)</p> <p>김보</p> <p>노원구</p> <p>이유경 서울 노원구</p> <p>8 광화문과 명태역사</p> <p>박 단 아 대학생 웃기고 좀 공유할만한 것들은 친구들도 껍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거나 그런 식인 것 같아요.</p> <p>김보</p> <p>신은동</p> <p>마지막 서울 신생동 사무실에 있을 때도 일이 건조해지는 거 느껴져서 환풍기가 미서라고 느끼하고.</p> <p>신은동</p> <p>뉴스에 출연해 인터뷰를 했던 여성들을 '인터뷰녀'라고 칭하며 여성의 외모를 평가하고 있음. 여기에 더해 남성이 '인터</p>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 (해당 글/분석)
			<p>뷰너' 중 최고(레전드)를 선택하라며 여성을 성적대상화하고 있음.</p>
<p>디시인 사이드</p>	<p>여자는 엉덩이지</p>	<p>11/6</p>	 <p>여성 캐릭터를 성적대상화하고 있으며 '가슴보단 빵대이지'라며 글쓴이가 선호하는 신체 부위를 언급하고 자연스럽게 여성의 몸을 평가하고 있음.</p>
<p>디시인 사이드</p>	<p>이할머니 뭐임?</p>	<p>11/6</p>	 <p>'할매젓에 몬스터볼좀 부벼주면 옷 다시주는거?'라며 게임에 등장하는 여성 캐릭터의 신체 부위를 대상화함. 또한 성폭력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p>
<p>일간베스트</p>	<p>여자한테 큰 의미 두면 안 되는 이유</p>	<p>11/1</p>	<p>여자한테 큰 의미 두면 안되는 이유 http://www.jibe.com/10111517045 복사하기</p> <p>가진거 없어지면 여자도 사라짐 그래서 난 맘 주는척만 함</p> <p>사스용도 그이상 미하도 아님</p>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 (해당 글/분석)
			여성을 하나의 인간으로 보고 있지 않으며 '섹스 용도 그 이상 이하도 아님'이라는 내용이 게시되어 있음.
일간베스트	김치년 응디 특징	11/3	'김치년'이라는 여성혐오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신체적 특징에 대한 반감을 표현하고 이를 한국 여성 전체의 특징으로 일반화해 여성의 몸을 성적대상화하고 있음.
일간베스트	F컵 NHK 스시 아나운서 cccccc.gif	11/4	  <p>여성의 몸을 대상화해 '훌륭한 아내, 훌륭한 엄마가 될 것 같다'며 여성을 성적대상화하고 평가함.</p>
일간베스트	우리나라 갓전사 여군들.jpg	11/7	 <p>'주절먹(주면 절하고 먹는다)'이라는 혐오 표현을 사용하여 여성 군인들을 성적대상화함.</p>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 (해당 글/분석)
일간베스트	귀여운 서양 어린이 사진모음	11/7	 <p>아동을 성적대상화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함.</p>
유튜브	팬티 노출로 욕먹고있는 홈쇼핑 헬... 팬티취향 충격이네	8/15	 <p>여성의 속옷이 노출된 장면만을 편집해 게재하고 있음. 또한 '팬티취향 충격이네'라며 여성을 성적대상화하고 있음.</p>
네이트판	분위기 미녀특징	11/4	 <p>분위기 있는 미녀에 대한 정의를 내려 대상화함.</p>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 (해당 글/분석)
아이러브 사커	(약후) 눈을 떼기 싫은 세계 탑클래스 미녀골프 선수	11/5	 <p>선수의 실력이 아닌 외모, 몸매에 집중을 함.</p>
아이러브 사커	배구에 입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고예림 레전드 직캠	11/5	 <p>선수의 실력이 아닌 외모와 몸매에 집중함.</p>
워마드	[보지놀이터] 오유가 역시 괴롭힌거 생각하면 죽여버리고 싶노	11/3	<p>제목 [보지놀이터] 오유가 역시 괴롭힌거 생각하면 죽여버리고 싶노 2017-11-03 19:31:11 작성자 계기하얼우경853 조회 548 추천 36 댓글 8 오유들을 전부 노무현 곱으로 보내주마</p> <p>남초 사이트인 '오유(오늘의 유머)'를 죽여버리고 싶다며 폭력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또한 고인을 비하하고 있음.</p>
워마드	[보지놀이터] 불알이라는 게 굉장히 주제넘는 이름이다	11/3	<p>제목 [보지놀이터] 불알이라는 게 굉장히 주제넘는 이름이다. 2017-11-03 00:53:38 작성자 형근이발검우경997 조회 595 추천 35 댓글 4</p> <p>체외로 돌출된 내장기관 주체에 이렇게 주제넘은 이름이 붙어있다는건 분명 불을 붙여달라는 뜻인거다 예기아 그러니까 불알폭탄 만들어 이기어노 넘겨한테 좋은 것 해주는 건 비위에 안맞긴한데 내손으로 한남 몰살시키는 꼴을 써서 기분좋은 밤에 봉사할면 해줄꺼해서 그러노</p> <p>내랑 같이 활동할 필년은 몇 달이래라</p> <p>이건 조크다 예기아 당연하잖노 전복시킨 기념으로 함 농담해르거노*</p>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 (해당 글/분석)
			'불알폭파단'을 만들자며 남성을 '몰살'시키고자 하는 과격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위마드	[보지놀이터] 싱싱한 고자당지, 중자당지 삽니다~	11/5	 <p>고자당지(고당자지), 중자당지(중당자지) 산다는 내용의 게시글로 미성년자 성매수를 암시하고 있다.</p>
위마드	[보지놀이터] 한남 죽이고 싶다	11/6	 <p>"한남 죽이고 싶다"라는 게시물로 "얼굴 포 뜨고 싶노 단면 잘라서 해부해보고싶다"라는 과격하고 잔인한 표현을 사용함.</p>
베스티즈	가슴 큰 여자가 착한 과학적인 이유.jpg	11/4	 <p>가슴이 큰 여성 = 착한 여성이라고 여성 전체를 신체로 비하함.</p>
루리웹	[잡담] 딸기가 달콤하고 먹기 편하더라	11/4	여성 캐릭터를 두고 '딸기가 달콤하고 먹기 편하더라'라며 성적대상화하고 있음.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 (해당 글/분석)
디젤매니아	여동생 남친을 유혹하는 언니	11/4	<p>여동생 남친을 유혹하는 언니 ■ 디매IN 유머방 ■</p> <p>후레시아(zuno****) 새싹간지 ♥ 11</p>  <p>카테고리 변경 설치하기</p> <p>여성의 다리를 성적대상화하고 남자가 콘돔을 숨기는 움짤이 게시되어 있음.</p>
디젤매니아	아디다스녀 Vs 나이키녀	11/4	<p>아디다스녀 Vs 나이키녀 ■ 디매IN 유머방 ■</p> <p>2017.11.04</p> <p>막치고갑니다(bssl****) 새싹간지 ♥ 11</p> <p>http://cafe.naver.com/dieselmania/39476238</p> <p>*디매 규정-권 고대산/3, 욕설이 들어가 있는 글 - 게시글이나 댓글에 가입후 직영의 욕설 및 영어로 작성한 이미지(동영상)에 포함되지는 않는 욕설 게시 사항입니다. *유머방에 게시글 등록이 제한됩니다. -(이동 및 세세 조치) 관련 공지 보기</p>  <p>여성의 몸매가 드러난 사진들을 게시한 후 어떤 여성이 나온 지 평가를 유도하고 있음.</p>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 (해당 글/분석)
디젤매니아	모르는 여자가 이려고 찾아오면.gif	11/4	 <p>모르는 여자가 이려고 찾아오면.gif 디매IN 유머방</p> <p>Blackshot(fnd****) 새악간지 11</p> <p>모르는 여자가 이려고 찾아오면.</p> <p>열어준다 1006표, 77.92%</p> <p>내쫓는다 285표, 22.08%</p> <p>투표하러 가기</p> <p>여성의 몸매가 젖은 채 드러난 사진들을 게시한 후 품평을 유도하고 있음.</p>
디젤매니아	프랑스에서 사고치고온 딸래미.jpg	11/5	 <p>프랑스에서 사고치고온 딸래미.JPG 디매IN 유머방</p> <p>2017.11.05. 18:19</p> <p>기름만추워요(vose****) 새악간지 11</p> <p>비싼 돈 들여서 공부하라고 보냈는데</p> <p>(딸이) 사고치고 왔는데!!!</p> <p>소년 자녀, 다문화 가족의 가족관계, 자녀양육, 경제활동상태 등을 조사합니다. 통계청 조사원에 귀담을 빚으셨게 되면, 귀국후</p>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내용 및 이유 (해당 글/분석)
			 <p>손녀가 하드 캐리 했다고 한다'라며 미성년자에 대한 외모 품평을 하고 있음.</p>

2) 댓글

성폭력과 성적대상화의 내용을 담고 있는 댓글은 총 48개로 분석되었다. 여성의 외모와 신체를 평가하는 내용, 성관계를 가지고 싶다는 내용, 성폭력을 하고 싶다는 내용 등 댓글 자체로 성폭력에 해당하는 내용이 다수 발견되었다.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댓글 내용
디시인사이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것에 상품가치가 매겨지는데	11/5	<p>시안준데 오메고 케복경해하자는 뽕머글들올라 만들어본 이글이니까 보지 않게 되면 일단 연5%로 채주(0)만다고 하는건데 뽕머글이든 올나들이 조피들고에 나머지 권역고덕 하는거모으 재태세이론 뽕머글 글이 아무상면없로대 11,238,*,#</p>
디시인사이드	11번가.. 후기 누나 .jpg	11/5	<p>저 뽕머글이면 되지 야뽕머글새끼들 ㅋㅋ 125,176,*,#</p> <p>나 남잔데 가슴 좀만 더 크면 주절먹함 121,190,*,#</p> <p>젖이고 머고 꿀반없으니까 노답이네 110,70,*,#</p> <p>나 남잔데 통짜허리니까 노꿀이네 106,102,*,#</p>
디시인사이드	일본 방문한 이방카 공주님 고우시다.jpg	11/5	<p>노브라 적극 지지합니다 ㅎㅎ 121,177,*,#</p> <p>한년총들은 빈젖이고 꺾지만 커서 ㅠㅠ티 1,238,*,#</p> <p>꺾지 살살 애무해주고 싶다 시발런 ㅋㅋ 116,44,*,#</p> <p>꺾지 살살 녹는다 124,54,*,#</p>
디시인사이드	필라테스 누나.. 몸 자랑 .jpg	11/5	<p>선진DC인 어린아이처럼 질내에 응석받이짓하며 사정하고 싶다 119,194,*,#</p> <p>두두° 힐 미쳤네 ㄷㄷㄷㄷ</p> <p>와 씨발 썬다싸 - dc App 121,135,*,#</p>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댓글 내용
디시인사이드	중딩때 일진녀 만화完	11/5	므아왁 🤔 아아 여종살 따먹고싶다
디시인사이드	포켓우드말고 일반 초련으로 그렸는데	11/3	가디안나이트 🤔 초련 따먹고 싶다
디시인사이드	일상 속의 젓가슴	11/6	○○○ 내가 도서관에서 책상위에 가슴 엮어놓은 여자보고 뽕갠지녀. 헬조선 김치녀들에게서는 쉽게 보기 어려
디시인사이드	나의 일기 - 여성혐오의 본질에 대하여	11/6	장으쓰 이기야노데스웅차 뽕뽕뽕해버렸노 보로로롱 -
디시인사이드	이여영, "남자 성기, 개입마개처럼 채워야	11/5	○○ 강 자궁을 들어내는게.. 183,91,~*
일간베스트	내가 디씨로 가지 못하는 이유.jpg	11/1	① 삼일한민국 정수정 뭐하나 원조 G컬녀인데 젓 크다고 다 못 뜨는 듯
일간베스트	미스 맥심 우승자의 자슴감.	11/1	② 적폐플스타정부 룰멜미달ㅋ ③ 로리도끼자국 미스 창녀 우승자 ④ 다빨고싶다그냥다 +2 저렇게 노골적인건 하나도 안끝림 그냥 평범한 여고생의 교복에서 느껴지는 아주 은근한 볼륨감 약간 튀어나온 가슴 약간 튀어나온 엉덩이 맨다리에 발목 양말 그리고 단정한 운동화 이런게 100배는 더 끝림
일간베스트	가슴크고 업소녀들 남친 특징	11/1	④ 카이인 gts오너 +8 가슴 큰거 흉근대 면상 뽕갠거나 잔회적인 폼때는 별로면서 가슴만 크지만 하면 훗갈름 그냥 더러은 뽕뽕 같음 ㅋㅋㅋ ⑤ 코마네치하존 와 짤년 뽕뽕보소
일간베스트	여자들의 이중성.jpg	11/1	⑥ 고를무작통키네 +4 페미니스트 두개골을 오함마로 내려찍고 대퇴골을 송곳으로 내려찍고 견갑골을 벽으로 내려천후에 쇠골 두작을 그라인더 날로 갈아버린후에 혈관을 드라이버로 수십번 내려찍고 척추 마디마디에 있는 디스크를 고속 절단기로 절단내고 슬개골을 전기톱으로 빼개버리고 개먹이로 주고싶다. 페미니스트 심장을 바늘로 수백번을 찔러넣어서 데코레이션을 해주고싶다. 페미니스트 안구에 고로에서 천도로 가열한 쇠물을 부어놓고 그 위에 거대한 설사를 싸주고싶다. 페미니스트 미골에 다이렉트로 송곳을 꽂아내려주고싶다. 페미니스트 흉골부분을 오함마로 내려찍어서 흉골을 부셔버리고싶다. 페미니스트 견갑근 송곳을 틀음으로 잘라서 모가지가 달랑거리게 하고싶다. 페미니스트 척추를 세로축으로 반으로 잘라서 만든 무기로 뒤집 페미니스트 시체 아갈통을 치고싶다. 페미니스트 경추를 포크레인으로 눌러서 아작내고싶다. 페미니스트 요추를 포크로 내려찍고싶다. 페미니스트 안구를 날카로운 종이로 최대한 빠르게 수백번 빼어버리고 싶다. 페미니스트 손톱안에 바늘을 최대한 빠르게 수백번을 찔러넣고 싶다. 페미니스트 허안에 그라인더로 최대한 천천히 찔러넣고 싶다. 페미니스트 귓구멍안에 송곳을 수십번 찔러넣고 싶다. 페미니스트 생식기안에 동원참치 썬 두껍을 수백개를 넣어보고싶다.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댓글 내용
			<p>1 Re이교군 일베에 간첩새끼 헬케 늘었냐? 페미붕딕들 단체로 머가리 박고자살</p> <p>2 고졸무직통귀네 페미니스트 총으로 썬 죽이는 동영상 없노? 페미니스트 총으로 썬 죽이는 동영상 없노?</p> <p>3 윤마애미는 씨말런 네다보 썬년아 보지 짚어버리게 전에 거머들어가라</p>
일간베스트	케이블TV 무서운 골드미스 팩트폭행 d d .jpg	11/2	<p>1 요시_토바츠타 40대 여자 만나면 피임안해도 되는 각?</p>
일간베스트	부산역 맞은편 걸어가는데 할마시가 백마묵어볼 래?이런다 s b	11/2	<p>1 17살군필여고생 가야지 안가면 후회함 니가 평생 백녀 언제 먹어보겠노...</p> <p>2 나빠 고다죽됐으면 김치년 평균보다 떨어지는 폐급 나옴. 아니 까놓고 말해서 러시아 년들이 20살 넘어가면 삭아버리는데 창녀들 기본 수준을 따지자면 한국인 창녀들 평균이 러시아 창녀들 전체 수준보다 낮다.</p> <p>3 시원한얼음 육질이 김치년하고 비교를 거부한다</p> <p>4 시원한얼음 백마 벗은거 실물로 보면 대부분 게이들 싹뚫 가슴도 존나 리얼하게 끝렸하다 응당미도 두툼한게 크다 김치년하고 비교를 거부한다</p>
일간베스트	어제 뉴욕에서 트럭테러한 개슬람새끼 면상	11/2	<p>1 밍머리삼계사리 저게 보는 앞에서 미생기 했다 강연하고, 뽀뽀 무임도 왔다. 보는 앞에서 .. 죽여야함. 뽀뽀 저 새끼 미비메이도 보는 앞에서 죽여야함. 무임승 사지 말은 .. 그정도 뽀. 죽여서 저~일 살기니냐. 유우관 11/2 11:20 100% 100%</p>
일간베스트	평창 올림픽... 여자 피겨선수... jpg.ISIS	11/2	<p>1 모링모링링 그레이시 골드 아프대ㅠㅠ 못나온대ㅠㅠ 육봉주사로 고쳐주고싶당</p> <p>2 적패올스타정부 보지 짚을때 너무 이쁘다ㅠㅠ</p>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댓글 내용
일간베스트	기괴) 목이 돌아가는 여자아토틀.gf	11/4	<p>1 영망진창섹스 +21</p> <p>앞뒤 구분 안되는 건 한녀 공통</p>
일간베스트	이방카 피지컬 jpg.	11/4	<p>1 갈아랑</p> <p>와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황고시다</p>
일간베스트	여자에 대한 격언	11/4	<p>1 모두행복합시다</p> <p>여: 여자씨발년들아 자: 자지내꺼도 좀 어떻게해줘라</p>
일간베스트	반도의 흔한 보적보.jpg	11/7	<p>1 안서</p> <p>일주일에 한두번 보고 영애할때 잘못하다가 일년내내 붙어있던 느꼈다 아무리 이봐도 할림. 일빠 지나다니는 모후는 코코넛이 더 꿀림</p> <p>1 마오쩌둥싱재재</p> <p>지영누나 구글로검색하면 동영상 아직도 나오는데 신음소리 죽이더라 하악하악 ~ 오빠~ 박아줘~</p>
일간베스트	한국 여배우들의 한계 (feat. 팍팍)	11/7	<p>1 일머로운하루일과</p> <p>젖탱이틀까거나 보지를 까야</p> <p>노출인거지.</p> <p>1 시원한얼음</p> <p>가슴에 멍가 문제가 있겠지</p> <p>꼭지가 합틀이라든가</p> <p>의젓 실패로 모양이 괴상하다던가</p> <p>그래서 노출은 절대안하려고하는거 아니냐</p>
일간베스트	보지심리 전문가.jpg (feat. 한샘)	11/7	<p>1 진짜내 인생행복하</p> <p>애초에 여자가 술먼저 먹자해 놓고 역행생각은 없었다...? 순진무구한 사회초년생 신입사원이 당한거다...?</p> <p>이건 순진을 떠나라 뺨대거리 아니냐???</p>
일간베스트	여캠BJ 영상 유출시 변호사 선임한다고 함	11/7	<p>1 CLA180</p> <p>씨발년 발동사이간격 존나뵈네 좆걸레년이</p> <p>1 뽕파이어헌터D +2</p> <p>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별지랄을 다하네 청녀새끼들이</p>
일간베스트	귀여운 서양 어린이 사진모음	11/7	<p>1 초경오면상패 +4</p> <p>임신시키고싶다 로리가 진리지</p>
일간베스트	나이별 상패 김치년 현황.txt	11/7	<p>1 와라아잇 +1</p> <p>음 지금 남녀성비 씘망이라 오히려 애매한 클래스 남자들은 여자 없어서 더 난리야</p> <p>한 5년만 더 가봐 현재 90년대생 애들 결혼시장 나오기 시작하면 보코갓 폭등한다</p> <p>1 1일1알시스템</p> <p>몸 팔면 수백 수천 버는데 문 걱정이노??</p>
유튜브	물 최초 인성질 강의를 해드립니다	11/3	<p>호진 이호진 4일 전</p> <p>말파ㅋㅋ얼마나 박고싶으면ㅋㅋ분신말치노ㅋ</p> <p>답글 · 14 👍</p>
유튜브	팬티 노출로 욕먹고있는 흡소핑 할... 팬티취향 충격이네	8/15	<p>sparkle sprite 2주 전</p> <p>보지가 빨고싶도다</p>

커뮤니티	제목	작성일	댓글 내용
네이트판	분위기 미녀특징	11/4	2017.11.05 19:24 분위기미녀를 특징 날씬하고 키크고 비올쫘고 피부 좋음ㅋㅋ
위마드	[보지놀이테] 성공하면 꼭 해보고 싶은거 쓰고 가라 이기야!	11/3	작성자 재기갈족족873 중국 킬러자지 고용해서 못생긴 한남들 696969명 얼굴에 염산 끼얹기 작성일 김혁수이문9903 2017.11.03.23:30 반반한 양스런이들 모아놓고 요도구멍 벌려서 폭죽막대 추셔박은 다음 반대편에 폭죽물뿌리고 쇼린어들 놀라서 비명지르고 밀쳐떨락 뒤 는거 감상하기
위마드	외국갔다온 한남들 중 창놈됐을확 률 높은 나라 알려준다	11/5	작성자 재기삼초썩492 한남 허벌후장걸레족족
위마드	싱싱한 고자당지, 중자당지 삽니다~	11/5	작성자 윤무기안내590 잘라서 아이스 팩에 넣어서 인증사진 보내주세요. 대물이면 +@있습니다
레몬테라스	40대중후반 다이어트??	11/1	사슴달은아이 2017.11.01. 09:29 40대분들도 많아서요~!! 여자에게 다이어트는 평생숙제~!! 후반에 40대분들 식이조절 잘해서서 배신분들 많아요~!!
레몬테라스	남자들은 잘해주면... 여자를 좀 만만하게 보나요?	11/5	맹탕미러브 2017.11.05. 12:05 주위 많은 남자들이 결혼전엔 (미본여자가) 툭기고 깨달한 여자한테 끌리고 결혼후엔 잘해주면 좋대요~!!
루리웹	요오오망한 후배 만화	11/4	바부쿠루 (4748166) 118.33.***.*** BEST 요오...망...한...~...쉬...불론...같으니...ㅋ... 내가...10년만~질엇어도~!!! 불방맹이로다가...혼풀을 내주는건디~!!!...
오늘의유머	외국인 남자한테 자고싶다고 지껄이는 여자애들;;	11/4	ngc5033 (2017-11-04 10:18:44) (가입:2014-04-24 방문:18) 121.131.***.111 추천 18 저런년들은 화염방사기로 끄살려서 진짜 HOT 하게 해줘야될
디젤매니아	아디다스녀 Vs 나이키녀	11/4	도교감성 2017.11.04. 18:42 지금제대로 보구될 다운받으러가야겠다
디젤매니아	열도의 아나운서	11/4	홈트매니아 2017.11.04. 17:47 F 넘어가지 않아요 저정도면?? 원투족 2017.11.04. 17:52 품번좀 백예빈 2017.11.04. 18:03 일본은 대체 공랑이들 말고도 어떻게 가슴이 이렇게 큰거임 중니중다 2017.11.04. 18:04 스고이요... 금딸 4일째인데 이팔보고 찾네요
디젤매니아	모르는 여자가 이려고 찾아오면.gif	11/5	Sugoi Kim ochii 2017.11.05. 00:06 내 ㅈ선다 lecher 2017.11.05. 23:44 뺨다

V. 나가며

본 보고서에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차별 실태를 분석하였다. 온라인 상의 게시글과 댓글을 중심으로 비난/비하, 혐오, 폭력성 내용을 모니터링한 결과 14개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66개의 게시글과 135개의 댓글을 발췌하였고, 이를 ‘혐오/비난’, ‘폭력/성적대상화’ 2개의 속성으로 분류하여 범주화하였다. 14개의 온라인 커뮤니티 중 성차별적 게시글/댓글이 가장 많은 곳은 디시인사이드(65건, 32.3%)였으며 그 뒤는 일간베스트(61건, 30.3%), 디젤매니아/워마드(17건, 8.5%)순이었다. 이는 2017년 8월에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러링 사이트인 워마드의 지난 모니터링 결과를 비교하면, 4월에는 32건, 8월 25건, 11월 17건으로 성차별적 게시글과 댓글의 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러링 사이트가 ‘남성혐오’를 조장한다는 공격적 여론이 더욱 거세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반면 여성혐오적 발화가 주로 나타나는 디시인사이드와 일간베스트의 성차별적 게시물 수는 항상 워마드의 약 3배에 달하고 있다.

2017년 4월 모니터링 결과에서 성차별적 게시글/댓글이 9건(5.9%)에 불과했던 디시인사이드가 8월, 11월 들어 사회적 이슈에 따른 민감성이 다른 커뮤니티에 비해 상당히 높았기 때문이다. 2017년 8월의 경우, ‘초등학교 페미니스트 교사’, ‘학살살인사건’ 등의 이슈가 있었고 이번 모니터링 기간 동안에는 ‘한샘 성폭력 사건’이 공론화되어 큰 이슈가 되었다.

11월 이슈가 된 ‘한샘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가 작성한 네이트판 게시글을 통해 가시화되었다. 사건이 점차 알려지자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샘 성폭력 사건’이 주요 이슈가 되었다. 그간 여성의 일상에 존재해왔던 성폭력 사건을 수면 위로 가시화시켰다는 의미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성폭력 피해자를 향한 무분별한 추측과 근거 없는 의혹들이 제기되었다. 특히나 디시인사이드와 같은 커뮤니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피해자를 ‘꽃뱀’이라 칭하거나 ‘가해자 없는 강간사건’이라는 내용의 댓글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 성폭력 이후 피해자에게는 냉정했던 회사의 대처, 2차 피해로 인한 피해자의 일상 붕괴, 열악한 여성들의 노동 환경 등에 대한 문제 제기 보다 피해자와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목소리들이 ‘한녀충’의 예민함으로 간주된 것이다.

‘메갈리아’의 등장 이후 ‘남성혐오’라는 단어가 등장했으나 온라인 바깥에서는 여성들이 여전히 불평등한 젠더 권력 속에서 차별을 겪고 있다. ‘한샘 성폭력 사건’, ‘현대카드 성폭력 사건’,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갑질 논란’ 등 성차별적인 여성들의 노동 환경에 대해 고발하는 목소리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시작으로 지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익명에 기대어 ‘네이트판’, ‘대나무숲’과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여성들이 겪은 부당함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러한 목소리들은 ‘남성혐오를 부추기는’ 메갈년/꿀페미/웜태지들의 이기적인 주장’으로 왜곡되고 있다.

현실 속에서 여성혐오는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로 문제시 되고 관심을 드러내는 것은 남성혐오에 대한 것들이다. 얼마 전, 공중파 소속 라디오 작가가 ‘여성시대’에서 활동한다는 것을 근거로 ‘남성혐오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 팀을 이동하게 되었다. 또한 모

프랜차이즈 식당에서는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여성의 채용을 취소했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도 떠나는 것은 언제나 피해자 여성이었다는 점, 쉽게 해고되고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이었다는 점을 비추어볼 때 여성혐오의 문제는 사회적 전반에서 성평등한 변화가 이루어질 때 제대로 자리잡을 것이다.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 속의 혐오 발화들은 온라인 공간에 대한 제재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함을 확인시켜 주었다. 오프라인 현실 속에 위치하고 있는 젠더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다양한 노력과 병행하여 혐오 발화들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규제를 통해서만이 성평등한 온라인 공간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청소년, 대학생 등 이용자들을 위한 젠더 감수성 교육,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혐오 발화 규제 강화, 이용자들의 건전한 비판 의식이 필요하며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려는 모두의 지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공공기관 SNS 홍보물 모니터링 보고서(6월)

I. 들어가며

서울YWCA 양성평등 미디어 모니터회에서는 정부 부처별 공공기관 SNS 홍보물 속 성평등적, 성차별적 사례를 찾아내어 분석하기 위해 2017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올라온 공공기관 페이스북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정부 부처별로 대표적인 기관 및 SNS 홍보가 활성화된 기관을 중심으로 총 20개 공공기관 페이스북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하였고, 해당 기간 동안 페이스북에 올라온 홍보 동영상, 홍보 이미지를 모니터링 하였다. 이번 모니터링은 양성평등 모니터링 도구 표준화 제안에 따라 표준화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였다.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은 다음과 같다.

II. 모니터링 개요

- 모니터 장르 : 정부 부처별 공공기관 SNS 홍보물
- 모니터링 기간 : 2017년 4월 1일~5월 31일(2개월)
- 모니터링 매체 : 20개 공공기관 페이스북 (표1 참조)
- 대상 내용 : 홍보 동영상, 홍보 이미지
- 모니터인원 : 16명

[표1] 모니터링 공공기관 페이스북 목록

번호	기관명	부처명	페이스북
1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https://www.facebook.com/kcomwel
2	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https://www.facebook.com/KOSHAnet
3	한국장학재단	교육부	https://www.facebook.com/kosafdream
4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	https://www.facebook.com/koreaexpressway
5	SH서울주택도시공사	국토교통부	https://www.facebook.com/together.sh
6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facebook.com/krcno1
7	한국관광공사	문화체육관광부	https://www.facebook.com/9suk9suklive
8	국민체육진흥공단	문화체육관광부	https://www.facebook.com/kspof/
9	도로교통공단	법무부	https://www.facebook.com/korearoad
10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https://www.facebook.com/nhis.korea
11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https://www.facebook.com/proNPS
1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https://www.facebook.com/babybith.mv
13	한국전력공사	산업통상자원부	https://www.facebook.com/iamkepco
14	한국가스공사	산업통상자원부	https://www.facebook.com/kogas.kr

번호	기관명	부처명	페이스북
15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여성가족부	https://www.facebook.com/kywa0924
16	한국국제협력단	외교부	https://www.facebook.com/officialKOICA
17	한국인터넷진흥원	미래창조과학부	https://www.facebook.com/kisa118
18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해양수산부	https://www.facebook.com/hifira
19	한국정보화진흥원	행정자치부	https://www.facebook.com/ITKOREANIA
20	한국환경공단	환경부	https://www.facebook.com/kecopr

Ⅲ. 결과분석

1. 양적분석

정부 부처별 공공기관 SNS 홍보물 모니터링의 주요 양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기관별 성평등/성차별적 게시물 수

공공기관 SNS 홍보물에 대해 성평등적인 게시물과 성차별적인 게시물 수를 분석한 결과, 성평등적 게시물(12건)보다 성차별적 게시물(28건)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평등적 게시물의 경우, 근로복지공단(2건, 16.6%)이 가장 많은 것으로 발견되었다. 한편 성차별적 게시물은 근로복지공단(4건, 15.4%)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한국환경공단(3건, 11.5%)이 많았다. (표2 참조)

[표2] 기관별 성평등/성차별적 게시물 수

연번	기관명	해당기간 총 게시물 수	성평등적 게시물 수	성차별적 게시물 수
1	근로복지공단	138	2	4
2	안전보건공단	77	1	2
3	한국장학재단	73	-	1
4	한국도로공사	47	1	2
5	SH서울주택도시공사	47	-	2
6	한국농어촌공사	38	1	1
7	한국관광공사	96	-	1
8	국민체육진흥공단	47	1	-
9	도로교통공단	55	1	-
10	국민건강보험공단	106	1	2
11	국민연금공단	48	-	2
1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9	1	1
13	한국전력공사	39	1	1
14	한국가스공사	72	1	-

연번	기관명	해당기간 총 게시물 수	성평등적 게시물 수	성차별적 게시물 수
15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8	-	-
16	한국국제협력단	92	-	2
17	한국인터넷진흥원	42	-	-
18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58	-	1
19	한국정보화진흥원	17	-	1
20	한국환경공단	112	1	3
합 계		1,261	12	26

(2) 성평등/성차별적 내용

모니터링 결과, 성평등적 내용 중에서는 남녀를 동등한 위치로 보여주는 등 다양성을 표현한 내용이 7건(58.3%)으로 가장 많았다. 성차별적 내용 중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내용이 20건(76.9%)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3 참조)

[표3] 성평등/성차별적 내용

구분		건수	구분		건수
성평등적 내용	주체성	3 (25%)	성차별적 내용	성역할 고정관념 조장	20 (76.9%)
	다양성	7 (58.3%)		여성의 주체성무시/ 남성 의존성향 강조	3 (11.5%)
	대안성	2 (16.7%)		외모지상주의 조장	1 (3.8%)
합 계		12건	합 계		26건

2. 질적분석

부처별 공공기관 SNS 홍보물 모니터링의 주요 내용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평등적 내용

(1) 주체성



한국가스공사 페이스북 게시물 중 <다재다능 만능화공 신입사원 인터뷰> 영상에서는 가스공사에 입사한 조재연 씨를 소개하고 있다. 공학 계열이 남성 위주의 분야라 여겨졌던 과거와 달리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여성 또한 당당하게 자신의 전공을 살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여성의 주체성이 드러났다.

국민체육진흥공단 페이스북 게시물 중 ‘포기할 수 없는 역도의 길’이라며 베이징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받은 임정화 선수를 소개하고 있다. 임정화 선수가 여성임을 강조하기보다 성별에 상관없이 역도 실력이 뛰어난 선수로 소개함으로써 주체성이 담겨있다.



(2) 다양성

한국농어촌공사 페이스북 게시물 중 <사랑의 계절김치 나누기> 활동 홍보 동영상에서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가 김치를 담그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영상 속에는 김치 담그기 단계에서부터 김치 나눔 단계까지 모든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요리가 여성만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며 동시에 성역할의 다양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페이스북 게시물 중 신입사원들의 입사 노하우를 알려주는 <한전 신입사원 4인방의 나의 노하우는> 홍보물은 그 등장인물로 남성과 여성을 2:2로 설정하였다. 입사 전 준비한 나만의 노하우를 공개하고,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모습을 성별에 관계없이 소개하고 있으며, 남녀의 비율을 동일하게 설정함으로써 성별에 따른 차이를 두지 않고 균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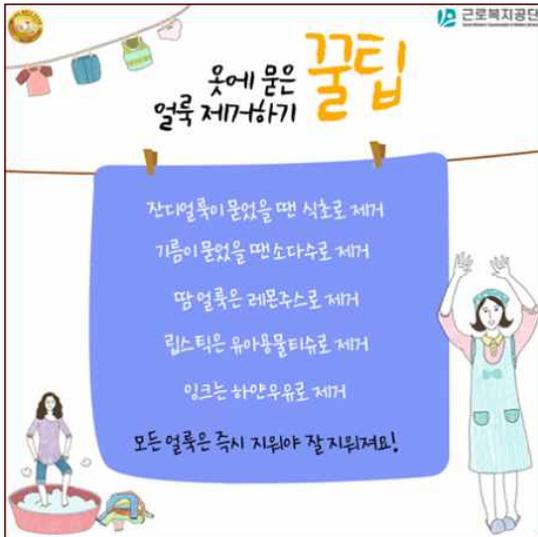
(3) 대안성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페이스북 게시물 중 <아빠 육아 응원 캠페인> 영상에서는 기저귀를 갈며 힘들어 하는 남편에게 “처음인데 많이 늘었다”라고 말하며 격려하는 아내의 모습이 담겨있었다. 뒤이어 “도와주는 아빠에서 나부터 함께 하는 아빠로” 등의 내레이션을 통해 돌봄 노동이 여성만의 몫이 아닌 남편과 아내가 서로 격려하고 함께 육아의 책임을 분담하는 대안성이 반영되어 있었다.

2) 성차별적 내용

(1)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근로복지공단 페이스북 게시물 중 <옷에 묻은 얼룩 제거하기 꿀팁> 포스터에서는 여성 캐릭터만이 옷 세탁하고 있는 이미지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묘사는 세탁을 비롯한 가사노동을 여성이 담당해야 하는 식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할 우려가 상당히 높다.



안전보건공단 페이스북 게시물 중 <근로현장의 안전, 그것이 알고 싶다> 영상 속에는 성별에 따라 업무가 분리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사장은 남성, 주방 업무는 여성, 배달원은 남성으로 묘사되고 있어 성역할 고정관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페이스북 게시물 중 명언을 소개하는 글에는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나타났다. '나약한 태도는 성격도 나약하게 만든다'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명언을 소개하는 데에 민소매 상의를 입은 여성이 얼굴을 감싸고 좌절감에 빠져있는 사진을 사용하였다. 글과 이미지가 중첩되어 여성은 나약하다는 고정관념을 묵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5월 가정의달, 자연을 느껴요 아이와 함께 가기 좋은 캠핑장



한국환경공단의 페이스북 게시물 중 <아이와 함께 가기 좋은 캠핑장> 홍보 이미지에서는 아빠와 아들은 텐트를 치고 엄마와 딸은 음식을 나르는 장면을 사용하였다. 가사와 연관된 일은 여자가, 텐트치기 등 외부활동의 주요한 일은 남자가 한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고 있다.

(2) 여성의 주체성 무시/ 남성 의존성향 강조



국민연금공단 페이스북 게시물 중 <국민연금 수급자 생활수기 공모> 홍보 영상에서는 공모전에 우수상 당선작으로 소개된 '여보! 당신은 살림꾼'이라는 수기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당선작 수기 중에서 '당신의 돈으로 전기세, 수도세를 내고 당신 줄 우유도 샀어요. 고마워요!' 라는 문장만을 홍보 문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성은 생계부양자, 여성은 돌봄 노동자라는 성에 따라 주어지는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3) 외모지상주의 조장



근로복지공단 페이스북 게시물 중 <내 몸을 망치는 잘못된 다이어트 상식> 포스터는 여성 캐릭터만을 사용하고 있다. 여성은 외모 평가에 예민하며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묘사되었으며, 날씬하지 않은 몸매를 지닌 여성은 눈물을 터뜨리며 운동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어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고 있다.

(4) 여성의 성적대상화

근로복지공단 페이스북 게시물 중 <벚꽃인증 사진 이벤트> 홍보 포스터에는 꽃 사진과 함께 “어머! 누가 꽃인지 모르겠네”라고 말하는 여성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을 꽃과 동일시하는 것은 여성을 인격체로 바라보기보다 ‘여성이라는 속성’만을 강조해 성적 객체로 만드는 표현이므로 성적 대상화에 해당한다.



IV. 나가며

모니터링 기간 동안 정부 부처별 20개 공공기관 페이스북에서는 성평등적 게시물보다 성차별적 게시물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성평등적 게시물은 근로복지공단이 2건(16.6%)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차별적 게시물 또한 근로복지공단이 4건(14.2%)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남성도 육아에 동참함으로써 자녀 양육을 담당하는 현실을 반영하거나 육아를 독려하는 게시물이 많았다. 그러나 고위 전문직은 남성이, 가사 노동에 있어서는 여성이 담당하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된 게시물 또한 존재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대중매체가 아닌 정부 부처별 공공기관 홍보물의 성인지 감수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과거와 달리 점차 늘어나고 있는 여성의 사회 진출을 조명해 여성의 주체성을 부각시킨 홍보 게시물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으며 맞벌이 부부의 증가 추세에 따라 육아의 책임을 분담하는 현실을 반영한 게시물도 여럿이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SNS 게시물에서조차 성역할 고정관념이 뿌리깊게 작동하고 있었다. 남성은 전문직종에, 여성은 주방·서비스 직종 등의 비전문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묘사되는 이미지가 발견되었다. 또한 남성은 파랑색 등의 어두운 색상 계열의 옷차림을 하고 여성은 핑크색 등의 밝은 색상 계열의 옷차림과 더불어 치마를 입는 등 성별에 따른 색상과 옷차림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나아가 생계부양자 역할은 남성이, 돌봄의 역할은 여성이 맡게 되는 성별 분업 현상이 반영된 게시물도 존재했다. 또한, 안내의 역할에는 여성의 이미지가 주로 쓰이고,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설명에서는 남성의 이미지가 주로 쓰이는 경향성도 발견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대부분의 홍보 게시물에서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홍보 이미지를 제작·배포하고 있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형성된 핵가족을 ‘이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가족’으로 전제할 때 그 외의 다른 가족 형태를 ‘비정상적 가족’으로 배제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홍보 게시물 제작과정에 대한 비판과 성찰이 필요하다.²⁹⁾

양성평등 대중매체 모니터단의 모니터링 결과, 성역할 고정관념이 가장 두드러지게 반영되어 있는 사례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국민연금 수급자 생활수기 공모전'에 당선된 수기 홍보 게시물이었다. 수기 중에서 “오늘도 당신의 돈으로 전기세, 수도세를 내고 당신 줄 우유도 샀어요. 고마워요!”라는 문장을 선발해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며 남성은 생계부양자, 여성은 가사노동자라는 고정관념을 기반으로 여성의 남성의존성을 지나치게 강조했다. 반면 성평등적인 내용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된 사례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사랑의 계절김치 나누기' 활동 홍보 동영상이었다. 이 동영상에서는 성별과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가 김치를 담그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하는 내용을 담음으로써 성 고정관념을 떠나 성역할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성평등적 문화에 기여했다.

SNS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페이스북을 통한 정부-국민 간의 소통창구가 마련되었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유용한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일상적인 홍보물에서 발견되는 성차별적 내용 또한 적지 않다는 것을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를 통해 정부의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 홍보물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또한 실시되고 있으나, 그 대상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홍보사업'으로 한정하여 공공기관의 홍보물까지 해당되지는 않는 실정이다.³⁰⁾ 공공기관 또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이고, 정부의 정책을 시행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점검이 필요하며,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대한 성인지 교육이 적극 확대될 필요가 있다.

29) 『젠더와 사회』 (한국여성연구소, 2015)

30)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여성가족부, 2017)

V. 모니터링 내용

1. 성평등적 내용³¹⁾

(1) 주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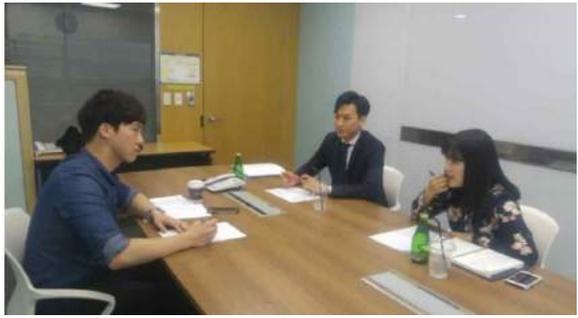
기관명	부처명	게시일	제목 (주제)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한국 도로 공사	국토 교통부	5월 29일	내가 가는 길이 정답이야	 <p>남성들의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정비 분야에서 당당하고 도전적으로 일하는 여성의 모습을 통해 주체성을 보여줌.</p>
국민 체육 진흥 공단	문화 체육 관광부	4월 14일	베이징 올림픽 역도 은메달 리스트 임정화 선수	 <p>베이징 올림픽에서 역도 은메달리스트인 임정화 선수를 소개하고 있음. '힘을 넘어 기술과 전략으로 승부하다'라며 운동 실력이 뛰어난 선수로 소개해 선수로서의 주체성을 보여줌.</p>
한국 가스 공사	산업 통상 자원부	4월 27일	다재다능 만능화공 신입사원	가스공사에 입사한 조재연(오른쪽 여성)씨를 인터뷰한 영상임. 공학이 남성위주의 분야라 여겨지던 시대를 지나 이젠 여성도 당당하게 자신의

31) ① 주체성 : 여성을 주체로서 다루고 있는가? 여성의 시각에서 문제를 보고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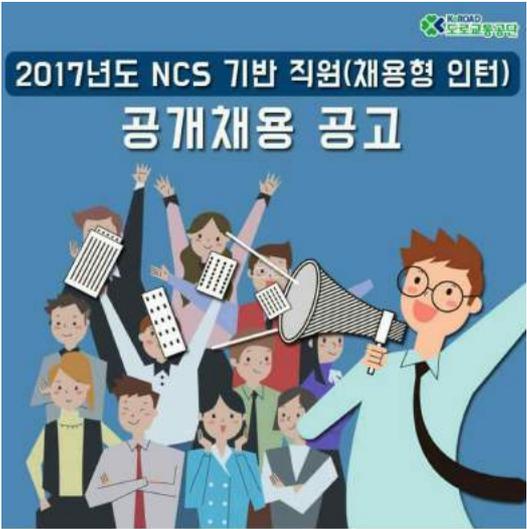
② 현실반영성 : 성불평등적인 젠더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성이 처한 문제와 상황을 잘 파악하여 남녀 불균형적인 현실을 적절히 묘사하고 있고, 성평등을 위한 문제 해결방식이 과장되거나 희화화되지 않는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또한 이 문제가 많은 여성의 상황을 대변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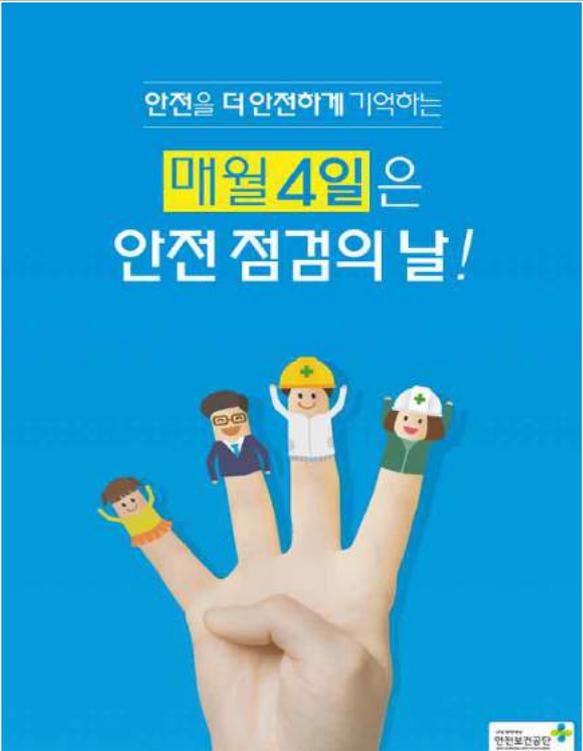
③ 다양성 :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다양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가?

④ 대안성 : 대안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기관명	부처명	게시일	제목 (주제)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인터뷰	<p>전공을 살리는 시대를 반영한 영상이었음.</p> 

(2) 다양성

기관명	부처명	게시일	제목 (주제)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도로 교통 공단	법무부	5월 8일	2017년도 NCS 기반 직원 (채용형 인턴) 공개채용 공고	 <p>성별 구분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채용 공고 포스터에 등장하고 있음.</p>
근로 복지 공단	고용 노동부	5월 8일	가정의달 4행시 이벤트	

기관명	부처명	게시일	제목 (주제)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가정의 달 4행시 이벤트〉 포스터에서 남성과 여성이 동일하게 돌봄을 담당하고 있음. 남성육아에 대한 다양성을 보여줌.
안전 보건 공단	고용 노동부	4월 3일	안전 점검의 날!	 <p>안전을 더 안전하게 기억하는 매월 4일은 안전 점검의 날!</p> <p>〈매월 4일은 안전 점검의 날!〉 포스터에서 네 개의 손가락에 묘사되고 있는 캐릭터가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성별에 따른 직업적 편견이 없음.</p>
한국 전력 공사	산업 통상 자원부	4월 17일	한전 신입사원 4인방의 노하우는?	 <p>신입사원들의 입사 노하우를 알려주는 게시글로 입사 전 준비한 나만의 노하우를 공개함.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모습을 성별에 관계없이 소개함.</p>
한국 환경 공단	환경부	4월 12일	봄맞이 대청소 꿀팁	온 가족이 함께 대청소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가사노동이 여성만의 역할이 아닌 온 가족이 담당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음.

기관명	부처명	게시일	제목 (주제)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한국 농어촌 공사	농림 수산 축산부	4월 4일	사랑의 계절김치 나누기	 <p>〈사랑의 계절김치 나누기〉 활동 홍보 동영상에서 남녀노소 모두 함께 모여 김치를 담그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하는 모습에서 요리를 여성의 역할로 보지 않으며 김치 담그기 단계에서부터 남성도 함께 참여하는 모습을 통해 성역할의 다양함을 보여줌.</p>
국민 건강 보험 공단	보건 복지부	4월 12일	건강보험 40주년 비만예방 건강걷기 대회	

기관명	부처명	게시일	제목 (주제)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비만예방 건강걷기대회〉 포스터에서 남성과 여성을 2:2로 설정해 평등하고 균형감 있게 구현함. 다양한 연령대로 남성과 여성을 모델로 사용하여 비만예방걷기대회를 활기차고 균형적으로 표현한 홍보방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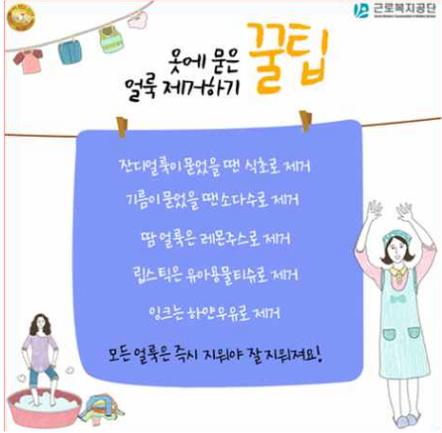
(3) 대안성

기관명	부처명	게시일	제목 (주제)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근로 복지 공단	고용 노동부	5월 11일	퇴직 연금제도 알아보기	 <p>〈퇴직연금제도 알아보기〉 포스터에서 노부부가 서로 허리를 안아주는 뒷모습이 나옴. 어느 한 쪽이 보호하는 것이 아닌 남녀가 평등하다는 느낌을 주고 있음.</p>
저출산 고령 사회 위원회	보건 복지부	5월 12일	아빠 육아 응원 캠페인	 <p>〈아빠 육아 응원 캠페인〉 영상에서 기저귀를 갈며 힘들어 하는 남편에게 “처음인데 많이 늘</p>

기관명	부처명	게시일	제목 (주제)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있다”하며 격려하는 아내와 “도와주는 아빠에서 나부터 함께 하는 아빠로” 등의 대사를 하는 남편의 내레이션을 통해 육아는 더 이상 아내만의 몫만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며 함께하는 공동의 책임이라는 대안성을 제시함.

2. 성차별적 내용

(1)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기관명	부처명	게시일	제목 (주제)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근로 복지 공단	고용 노동부	5월 23일	옷에 묻은 얼룩 제거하기 꿀팁	 <p>〈옷에 묻은 얼룩제거하기 꿀팁〉 포스터에는 세탁하고 있는 여성 캐릭터만 등장함. 세탁을 비롯한 가사노동이 여성의 전유물이라는 오인을 낳을 수 있는 표현임.</p>
근로 복지 공단	고용 노동부	5월 29일	명언 소개	 <p>‘나약한 태도는 성격도 나약하게 만든다’는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명언을 소개하면서 여성이 얼굴을 감싸고 좌절감에 빠져있는 사진을 사용하고 있음. 마치 여성은 나약하다는 표현을 묵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음.</p>

기관명	부처명	게시일	제목 (주제)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안전 보건 공단	고용 노동부	4월 8일	산재 예방 요율제	 <p>건설업, 제조업 등의 직종은 남성 캐릭터를, 서비스업과 같은 직종은 여성 캐릭터를 사용함으로써 성별에 따라 직업이 분리되어 있다라는 편견을 가지게 함.</p>
안전 보건 공단	고용 노동부	4월 28일	근로현장 의 안전, 그것이 알고 싶다	 <p>동영상 속에서 사장님은 남성, 주방 담당은 여성, 배달원은 남성으로 묘사함. 전문직은 남성으로 묘사되는 것과 더불어 배달 업무 담당은 남성, 조리 업무는 여성이 담당하는 것으로 비춰져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함.</p>
한국 장학 재단	교육부	4월 7일	2017년 예술체육 비전 장학금 신규 장학생 신청 및	

기관명	부처명	게시일	제목 (주제)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선발안내	<p>선발절차 서류심사 및 심층면접을 통해 최종선발</p> <p>문의처 1599-2290</p>  <p>제출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공관련 활동실적서 ② 계획서 ③ 전인적 인재성장 계획서 ④ 학과장(지도교수) 추천서  <p>장학생 선발을 하는 포스터에서 남학생의 모습만을 이미지화하였음. 수영, 농구, 힙합 등 예술과 체육 분야에서 여학생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전형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이 드러난 홍보 포스터임.</p>
SH 서울주택도시공사	국토교통부	5월 25일	SH 콜센터 가든파이브 톨동으로 이전하다	 <p>SH 서울주택도시공사 SH콜센터 가든파이브 톨동으로 이전하다!</p> <p>'콜센터 이전'을 알리는 게시물에서 여성 이미지를 메인사진으로 보여줌으로써 콜센터 상담원들은 여성이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함.</p>
SH 서울주택도시공사	국토교통부	4월 19일	임대주택 입주권 불법거래 근절 캠페인	 <p>0:38</p>

기관명	부처명	게시일	제목 (주제)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p data-bbox="783 651 1358 846">〈임대주택입주권불법거래 근절 캠페인〉 영상에서 여성은 ‘주부’로서 아이의 머리를 손질해 주고 아이를 돌보는 존재로, 남성은 손자의 안마 서비스를 받는 ‘교수님’으로 대비시켜 전문직은 남성임을 부각시킴.</p>
한국 농어촌 공사	농림 수산 축산부	4월 17일	농어촌 방송 〈백년 지대계〉	  <p data-bbox="783 1480 1358 1794">농어촌방송 1회 〈백년지대계〉 동영상 중 도입부에 농어촌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노동자의 영상이 담김. 그러나 농촌의 농부도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도 토지를 측량하는 노동자도 모두 남성임. 농어촌 노동자 중 여성 노동자도 상당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모두 남성으로 영상에 담음으로써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함.</p>

기관명	부처명	게시일	제목 (주제)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4월 17일	카페인 관태기 극복법	 <p>“카스, 페북, 인스타 중독에 지쳤고 그건 관계 권태기일 확률이며, 관계 권태기 극복법이 궁금하다면”이라는 안내에서 부정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데에 여성 캐릭터를 넣음. 주로 여성에게 이런 현상이 있는 것처럼 묘사하며 여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함.</p>
한국전력공사	산업통상자원부	5월 11일	혹사당하는 눈, 오늘은 쉬게 해 볼까요?	 <p>포스터의 모델이 남성으로만 그려지고 있으며 모두 전문적인 업종에 종사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음. 전문성을 띤 분야는 남성이 많고 있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갖게 함.</p>

기관명	부처명	게시일	제목 (주제)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한국 국제 협력단	외교부	5월 15일	5차 월드 프렌즈 코이카 봉사단 모집 공고	 <p>〈월드프렌즈 코이카봉사단(117기) 모집 공고〉 포스터에서 요리사, 간호사, 교육을 위한 봉사단은 여성으로, 자동차 정비를 위한 봉사단은 남성으로 표현하며 성 역할을 고정하였음.</p>
한국 국제 협력단	외교부	5월 15일	2차 글로벌 새마을 청년 전문봉사 모집 공고	 <p>〈글로벌 새마을 청년 전문봉사(4기) 모집〉 포스터에는 남성만 등장하여, 국제 농촌개발 분야 업무에는 여성이 적합하지 않은 듯한 편견을 심어 줌.</p>
한국 정보화 진흥원	행정 자치부	4월 26일	한국 정보화 진흥원 임직원 농촌 체험	한국정보화진흥원 임직원이 자매 결연을 맺은 마을에서 농촌의 일손을 도왔다는 사진들을 게시하였음. 게시물에 남성들은 적극적으로 농사일을 하며 일손 돕는 모습을 담은 반면, 여성들은 허드렛일이나 트럭 타고 밥 먹으러 가는 모

기관명	부처명	게시일	제목 (주제)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사진	<p>습 등 부가적인 모습들만을 담아, 부적절한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였음.</p>  <p>오늘의 어벤져스팀!! 4 댓글 2개</p>  <p>즐거운 점심시간~ 밥먹고 오겠습니다^^</p>
한국 환경 공단	환경부	5월 23일	푸른 하늘 만들기	 <p>푸루가 두 팔을 펼치고 있는 반면, 그루는 두 손을 얼굴에 괴어 꽃받침처럼 하고 있음. 머리 위에는 하트모양을 넣었음. 여자는 귀엽고 사랑스러워야 한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할 우려가 있음.</p>

기관명	부처명	게시일	제목 (주제)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한국 환경 공단	환경부	4월 28일		<p style="text-align: right;">한국환경공단</p> <h2 style="text-align: center;">5월가정의달, 자연을 느껴요 아이와 함께 가기 좋은 캠핑장</h2>  <p>아빠와 아들은 텐트를 치고 엄마와 딸은 음식을 나르는 장면. 가사와 연관된 일은 여자가, 외부 활동의 주요한 일은 남자가 한다는 성역할 고정 관념을 조장할 우려가 있음.</p>
저출산 고령 사회 위원회	보건 복지부	4월 28일	육아하는 아빠들의 선택!	<p>책꽂재질러 4월 28일 오후 5:17 · @</p> <p>[육아하는 아빠들의 선택 당첨자 발표] 육아하는 아빠들은 <몸으로 놀아주기>와 <책 읽어주기> 중 무엇을 더 선호할까요? (두구두구두구) 아주 근소한 차이지만 <몸으로 놀아주기>가 더 많은 표를 받았습니니다! 당첨자 명단은 이미지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5월 4일(목) 까지 예시지로 성함과 연락처를 전달해주세요! 당첨자 확인 기간이 지나거나 본인이 아니실 경우 경음치급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해주세요! #보건복지부 #책꽂재질러 #육아하는아빠들의선택 #당첨자 #육아하는_아빠들은_몸으로_놀아주기를_선호한다!</p>  <p><육아하는 아빠들의 선택>이라는 주제에서 그려진 아빠와 자녀들의 모습에서 아들과는 야외에서 축구를 하고 딸과는 방에서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남자는 활동적인 야외활동에 적합하고 여자는 차분한 실내 활동에 어울린다는 왜곡된 성역할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음.</p>

기관명	부처명	게시일	제목 (주제)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한국 관광 공사	문화 체육 관광부	5월 13일	핑덕들 마음이 두근두근! 핑크핑크 한 제주 여행지	 <p>레터스투시리얼</p> <p>1인 1주문 시 5,000원에 드레스를 대여할 수 있는 레터스투시리얼! 핑크빛 공주 품으로 꾸며진 곳에서 셀프웨어 촬영을 할 수 있다.</p>  <p>헬로키티아일랜드</p> <p>핑크캐릭터의 대명사 키티로 가득한 헬로키티아일랜드! 다양하게 꾸며진 테마공간들이 있어 마음껏 사진을 찍을 수 있다.</p> <p>〈핑덕들 마음이 두근두근! 핑크핑크한 제주 여행지〉 사진에서 여성들만 등장함으로써 분홍색은 여성들이 좋아한다는 고정관념을 심어줌.</p>
한국 도로 공사	국토 교통부	5월 12일 / 5월 19일	한국도로 공사 마스코트 '길통이'	 <p>한국도로공사의 마스코트인 '길통이'는 남성 캐릭터만이 존재할 뿐 여성 캐릭터는 존재하지 않음. '길통이'가 외적 부분에 있어 파란색 옷을 입고 있으며 짧은 머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음. 이러한 묘사는 운전·교통이 남성의 몫이라는 고정관념을 조장할 수 있음.</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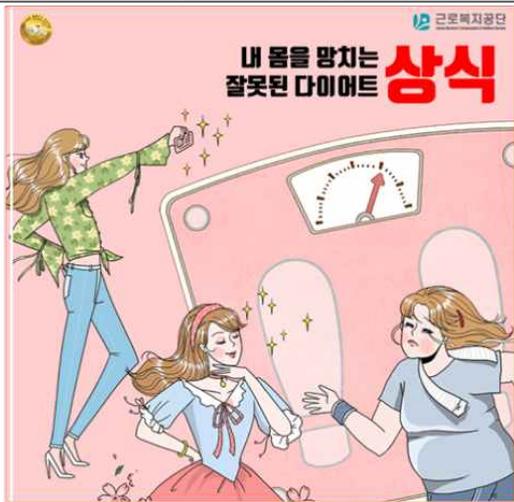
기관명	부처명	게시일	제목 (주제)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한국 도로 공사	국토 교통부	5월 5일	어린이날 과 소파 방정환	 <p>소파 방정환에 대해 소개하는 카드뉴스에서 여자 어린이는 핑크색 옷을, 남자 어린이는 파랑 색 옷을 입고 있음. 색상에 따른 성별 분리가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음.</p>
국민 건강 보험 공단	보건 복지부	4월 27일	봄철 우울증	 <p>봄철 우울증 환자 증가 원인 일조량과 기온의 변화가 몸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때 호르몬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감정기복이 심해진다. 또한 입학이나 취업, 인사 등 환경이 바뀌는 시기이기 때문에 심리·사회적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자극하는 경우도 있다.</p> <p>#꽃_피는_봄 #봄_타나_봄 #계절성_우울증</p> <p>봄철 우울증에 대해 소개하는 카드뉴스이지만 모든 카드뉴스의 배경에는 여성만이 등장하고 있음. 우울증과 같은 증상은 여성에게만 일어날 수 있다는 고정관념을 조장하며 여성이 나약하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부추김.</p>

(2) 여성의 주체성 무시/ 남성 의존성향 강조

기관명	부처명	게시일	제목 (주제)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국민 연금 관리 공단	보건 복지부	4월 11일	국민연금수 급자 생활수기 공모	<p>‘여보! 당신은 살림꾼’이라는 국민연금 수급자 생활수기 공모전에서 당선된 수기 중에서 “오늘도 당신의 돈으로 전기세, 수도세를 내고 당신 줄 우유도 샀어요. 고마워요!”라는 표현을 강조해 홍보하고 있음. 여성의 남성의존성을 강조하고 있음.</p>

기관명	부처명	게시일	제목 (주제)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한국 환경 공단	환경부	5월 10일	물이 무족한 우리 동네,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p>푸루는 손가락을 입에 물고 어찌할 줄 모르는 모습이고, 이에 반해 푸루는 컴퓨터 앞에 앉아 문제해결 방법을 찾는 모습임. 여자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며, 남자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표현되어 여성의 남성 의존성향을 강화시킬 우려가 있음.</p>
한국 수산 자원 관리 공단	해양 수산부	5월 29일	한국수산 자원관리 공단 신규직원 채용공고	 <p>〈해양수산자원관리공단 신규직원 채용공고〉에서 신규직원을 남성위주로 채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게 사진에서 남성만을 부각시킴.</p>

(3) 외모지상주의 조장

기관명	부처명	게시일	제목 (주제)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근로 복지 공단	고용 노동부	5월 26일	내 몸을 망치는 잘못된 다이어트 상식	 <p>〈내 몸을 망치는 잘못된 다이어트 상식〉 포스터는 여성 캐릭터만을 사용하고 있음. 여성은 외모 평가에 예민하며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묘사됨. 또한 날씬하지 않은 몸매를 지닌 여성은 눈물을 터뜨리며 운동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어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함.</p>

(4) 여성의 성적대상화

기관명	부처명	게시일	제목 (주제)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근로 복지 공단	고용 노동부	4월 11일	벚꽃인증 사진 이벤트	 <p>사무실에 있는 직장인을 위해 벚꽃인증사진을 댓글에 남겨달라는 공지에 꽃 사진과 함께 “어머! 누가 꽃인지 모르겠네”라는 멘트를 하는 여성의 모습이 나옴. 여성을 꽃으로 비유하는 것</p>

기관명	부처명	게시일	제목 (주제)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국민 건강 보험 공단	보건 복지부	4월 22일	꾸준히 운동하는 법	은 여성을 동등한 인격체로 바라보기보다 ‘여성’이라는 성별로만 받아들여 성적 객체로 만드는 표현임.
				<div data-bbox="783 434 1350 987">  </div> <div data-bbox="783 1003 1350 1574">  </div> <p data-bbox="783 1585 1350 1783">꾸준한 운동법을 소개하고 있으나 불룩한 살을 드러낸 비키니를 입은 여성을 대상으로 운동법을 소개하여 다소 아쉬움.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 벗은 몸이 아닌 수면에 관한 이미지를 게재하여 대조적임.</p>

추석특집 예능 프로그램 모니터링 보고서(10월)

I. 들어가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서울YWCA 양성평등 미디어 모니터회에서는 추석특집 예능 프로그램 속 성평등적, 성차별적 사례를 찾아내어 분석하기 위해 2017년 9월 29일부터 10월 9일까지 지상파(KBS1, KBS2, SBS), 종합편성채널(JTBC, 채널A, TV조선)과 케이블(tvN)의 추석 특집 예능 프로그램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총 23개 프로그램이 모니터링 대상이 되었고, 11일간 총 64편을 모니터링 하였다. 이번 모니터링은 양성평등 모니터링 도구 표준화 제안에 따라 표준화 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였다.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은 다음과 같다.

II. 모니터링 개요

- 모니터 장르 : 추석 특집 예능 프로그램
- 모니터링 기간 : 2017년 9월 29일~10월 9일(11일간)
- 모니터링 매체 : TV(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케이블)
- 대상 방송사 : KBS1, KBS2, SBS, JTBC, 채널A, TV조선, tvN
- 프로그램 수 : 23개 프로그램 (표1 참조)
- 모니터인원 : 14명

[표1] 모니터링 프로그램 현황

연번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시
1	KBS1	2017 퀴즈 온 코리아	10월 4일(수) 13:55
2	(2)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10월 7일(토)-8일(일) 21:20
3	KBS2 (8)	100인의 선택	10월 3일(화) 18:30
4		혼자 왔어요	10월 3일(화)-4일(수) 23:00
5		99% 다른 우리, 1%의 우정	10월 5일(목) 17:50
6		줄을 서시오	10월 6일(금) 18:30
7		발레교습소 백조클럽	10월 6일(금) 20:00
8		건반 위의 하이에나	10월 7일(토)-8일(일) 22:45
9		하룻밤만 재워줘	10월 9일(월) 17:15
10		생존의 법칙	10월 3일(화) 17:00
11	SBS (5)	트래블 메이커	10월 3일(화) 17:50
12		내 방을 여행하는 낮선 이를 위한 안내서	10월 5일(목) 23:10
13		박스라이프	10월 9일(월) 17:50
14		양세형의 솫터뷰	10월 3일(화)-5일(목) 20:35

연번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시
15	SBS (5)	모비딕 스페셜 워너시티	10월 7일(토) 0:20
16	JTBC (1)	이론상 완벽한 남자	10월 2일(월) 20:50
17	채널A (1)	2018 평창 아이돌 빙상 프로젝트 '우리도 국가대표다'	9월 29일(금)~30일(토) 23:00
18	TV조선 (3)	가족이 뭐길래	10월 2일(월) 18:50
19		스타 고향 맛집	10월 4일(수) 18:40
20		산 너머 남촌	10월 4일(수)~6일(금) 19:50
21	tvN (3)	골목대장	10월 2일(월)~3일(화) 22:50
22		20세기 소년 탐구생활	10월 5일(목), 7일(토) 22:50
23		김무명을 찾아라	10월 7일(토) 15:40 10월 8일(일) 21:00

Ⅲ. 결과분석

1. 양적분석

추석특집 예능 프로그램의 주요 양적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출연자 성비

출연자 성비는 여성이 41.4%, 남성이 58.6%로 여성에 비해 남성이 많았다. (표2 참조)

[표2] 출연자 성비

연번	프로그램명	여성(명)	남성(명)
1	2017 퀴즈 온 코리아	19	6
2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5	0
3	100인의 선택	5	4
4	혼자 왔어요	10	10
5	99% 다른 우리, 1%의 우정	2	6
6	줄을 서시오	3	3
7	발레교습소 백조클럽	5	1
8	건반 위의 하이에나	1	5
9	하룻밤만 재워줘	0	2
10	생존의 법칙	2	8
11	트래블 메이커	2	7
12	내 방을 여행하는 낯선 이를 위한 안내서	8	4
13	박스라이프	3	6
14	양세형의 쏘터뷰	1	6
15	모비딕 스페셜 워너시티	0	11
16	이론상 완벽한 남자	3	14
17	우리도 국가대표다	5	12

연번	프로그램명	여성(명)	남성(명)
18	가족이 뭐길래	3	3
19	스타 고향 맛집	3	3
20	산 너머 남촌	16	10
21	골목대장	2	6
22	20세기 소년 탐구생활	0	7
23	김무명을 찾아라	11	20
합 계		109(41.4%)	154(58.6%)

(2) 출연자 성별 연령대

출연자 연령대는 20대와 30대가 각각 68명(25.9%)으로 가장 높게 나왔다. 40대가 47명(17.9%)으로 뒤를 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20대가 38명(55.9%)으로 가장 많았고, 남성의 경우 30대가 45명(66.2%)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비중이 컸다. (표3 참조)

[표3] 출연자 성별 연령대

(단위 : 명)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모름	합계
전체인원	14 (5.3%)	68 (25.9%)	68 (25.9%)	47 (17.9%)	17 (6.5%)	14 (5.3%)	13 (4.9%)	22 (8.3.%)	263
여성	1 (7.1%)	38 (55.9%)	23 (33.8%)	8 (17%)	9 (52.9%)	11 (78.6%)	7 (53.8%)	12 (54.5%)	109
남성	13 (92.9%)	30 (44.1%)	45 (66.2%)	39 (83%)	8 (47.1%)	3 (21.4%)	6 (46.2%)	10 (45.5%)	154

(3) 성별 역할

주진행자의 경우 여성이 9명(25.7%), 남성이 26명(74.3%)으로 남성이 예능 프로그램을 압도적으로 주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보조진행자, 출연자/초대손님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근소한 차이로 나타났다. (표4 참조)

[표4] 성별 역할

(단위 : 명)

	주진행자	보조진행자	출연자 /초대손님	리포터	기타	합계
전체인원	35	29	185	6	8	263
여성	9 (25.7%)	13 (44.8%)	79 (42.7%)	3 (50%)	5 (62.5%)	109
남성	26 (74.3%)	16 (55.2%)	106 (57.3%)	3 (50%)	3 (37.5%)	154

(4) 성별 직업군

직업군을 분석한 결과 21개의 직업군에 분포되어 있었다. 가수(직업군③)의 비중이 72명(27.4%)으로 가장 높았고, 개그맨/코미디언(직업군①)이 41명(15.5%), 배우가 28명(10.6%)으로 전문 방송인이 출연하는 비중이 높았다. 가수, 개그맨/코미디언, 배우를 제외하고 여성 출연자의 직업군은 주부(직업군⑱), 일반시청자(직업군⑰)였다. 반면 남성은 방송인/전문진행자(직업군⑤), 의사(직업군⑦), 언론인(직업군⑨), 교수(직업군⑬) 등의 전문성을 띠는 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5 참조)

[표5] 출연자의 직업군

(단위 : 명)

직업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3	15	16	17	18	19	20	21	22	99	계
여성	14	16	19	1	2	1	1	1	0	2	0	2	10	2	19	0	13	2	1	0	3	109
남성	27	12	53	0	9	0	5	0	3	1	1	9	15	0	4	1	0	1	1	1	11	154
계	41	28	72	1	11	1	6	1	3	3	1	11	25	2	23	1	13	3	2	1	14	263

※직업분류번호

① 개그맨/코미디언 ② 배우 ③ 가수 ④ 모델 ⑤ 방송인/전문진행자 ⑥ 변호사 ⑦ 의사 ⑧ 비평가/평론가
 ⑨ 언론인(기자 등) ⑩ 요리사/요리연구가 ⑪ 작가 ⑫ 상담사 ⑬ 교수 ⑭ 교육 전문가(교사 등)
 ⑮ 그 외 특정 분야 전문가 ⑯ 학생 ⑰ 일반시청자 ⑱ 회사원 ⑲ 주부 ⑳ 자영업자 ㉑ 운동선수
 ㉒ 무직 ㉓ 모름 99 기타_____

(5)성평등/성차별적 내용

내용분석 결과, 성평등적 내용은 5건, 성차별적 내용은 18건으로 나타났다. 성차별적 내용은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내용(10건, 55.5%)이 가장 많았고,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는 내용(3건, 16.7%)이 뒤를 이었다. (표6 참조)

[표6] 성평등/성차별적 내용 수

(단위 : 건)

구분		건수	구분		건수
성평등적 내용	주체성	2 (40%)	성차별적 내용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10 (55.5%)
	현실반영성	-		여성의 주체성 무시/ 남성 의존성향 강조	1 (5.6%)
	다양성	2 (40%)		외모지상주의 조장	3 (16.7%)
	대안성	1 (20%)		여성의 성적대상화	2 (11.1%)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단어와 행동의 무분별 사용	2 (11.1%)
합 계		5	합 계		18

(6) 방송사별 성평등·성차별 건수

방송사별로 성평등·성차별 건수를 분석한 결과, KBS2의 프로그램에 성평등적 내용이 가장 많이 발견되었다(2건, 50%). 성차별적 내용의 경우 KBS2(7건, 38.9%)가 가장 많았고, SBS와 TV조선(3건, 16.7%)이 뒤를 이었다. (표7 참조)

[표7] 방송사별 성평등/성차별적 내용 수

(단위 : 건)

구분	KBS1	KBS2	MBC	SBS	JTBC	채널A	TV조선	tvN	합계
프로그램	2	8	-	5	1	1	3	3	23
성평등	1 (20%)	2 (40%)	-	1 (20%)	-	-	1 (20%)	-	5
성차별	-	7 (38.9%)	-	3 (16.7%)	2 (11.1%)	1 (5.5%)	3 (16.7%)	2 (11.1%)	18

2. 질적분석

추석특집 예능 프로그램 모니터링의 주요 내용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평등적 내용

(1) 주체성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KBS1, 10월 8일)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KBS1, 10월 8일)에서는 ‘맥가이버 혜정’으로 소개된 배우 김혜정이 방송에 출연했다. 김혜정은 ‘맥가이버’라는 별명에 알맞게 문어 요리를 하려다 인덕선에 불이 들어오지 않자 즉시 공구를 들고 인덕선을 고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외에도 전구를 갈거나 톱으로 나무의 가지를 손질하는 등 남성의 역할이라고만 여겨졌던 일을 척척 해결함으로써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산너머 남촌〉(TV조선, 10월 6일)

〈산너머 남촌〉(TV조선, 10월 6일)에서는 운전이 소심한 이병로 할아버지와 늘 운전이 목말라 온 여장부 구정순 할머니가 출연하는 ‘운전은 아무나 하나’ 편이 방영되었다. 구정순 할머니는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내가 배운다는데 협조해야지” 하며 경운기 운

전에 남다른 열정을 보였다. “남들은 관리기도 하고 트랙터도 한다는데” 하며 자신감을 보인 구정순 할머니는 “내가 이까짓 것도 못해”하며 직접 경운기를 시운전했다. 70대의 나이임에도 한번 마음먹은 것은 꼭 해내는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주어 주체적인 여성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2) 다양성



〈하룻밤만 재워줘〉(KBS2, 10월 9일)

〈하룻밤만 재워줘〉(KBS2, 10월 9일)에서는 출연자들이 이탈리아 라티나로 떠나 마르따네 집에서 하루를 지내는 모습이 방송되었다. 마르따네 집에서는 온가족이 함께 식사 준비를 하는 장면이 나왔으며 딸들과 친구처럼 지내는 아빠의 모습도 방영되었다. 또한 가수 지드래곤의 팬인 마르따의 어머니는 ‘스웨그 넘치는 힙합 여전사’로 소개되는 등 가족들이 성역할 구분 없이 가사노동을 분담하고

각각의 가족 구성원의 성별과 상관없는 개성을 보여주었다.



〈박스라이프〉(SBS, 10월 9일)

〈박스라이프〉(SBS, 10월 9일)의 1부에서는 김숙과 서장훈이 출연해 미니어처 요리기구 사용후기 영상을 직접 제작하는 모습을 방송했다. 성별에 따른 편견 없이 요리에 도전하는 등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다양하게 표현했다.

(3) 대안성



〈가족이 뭐길래〉(TV조선, 10월 2일)

〈가족이 뭐길래〉(TV조선, 10월 2일)에서는 교수와 변호사가 패널로 출연해 ‘명절엔 왜 ‘큰 집’을 가나?’에 대해 토론하는 모습이 방영되었다. 양가 부모님 댁을 방문하는 순서에 대해 다툼이 많다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결혼 20년차 라고 한 여성 교수가 본인은 명절 당일에 시댁을 가고 다음날 친정에 가는 것을 규칙으로 삼아 와서 갈등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신혼임을 밝힌 남성 사회자가

“그런 면에서는 제가 좀 더 신세대다. 추석 당일 아침에는 장인·장모님 댁에 먼저 가고 저희 집에는 오후에 가고..(중략) 여동생 부부가 오후에 오기 때문에 만나기 쉽고 부모님도 흔쾌히 동의하셔서요.”라고 대답했다. 이 대화를 통해 그간 고정되었던 명절 방문 순서를 부부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대안적으로 바뀌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 성차별적 내용

(1)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박스 라이프〉(SBS, 10월 9일)

〈박스 라이프〉(SBS, 10월 9일)에서는 ‘국민 아버지’ 주현이 출연했다. 아침에 일어난 주현이 냉장고를 열어 (여행 간 아내를 향해) “콩나물국 좀 끓여 놓으라고 했더니, 고것도 하기 싫어서..”하며 핀잔을 주었다. 뒤이어 “국내에도 좋은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며 “동남아는 무슨 동남아”하며 아내의 여행을 두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주현의 이러한 태도는 당연히 콩나물국을 끓여야 하는 사람

(가사노동의 주체)은 여성이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론상 완벽한 남자〉(JTBC, 10월 2일)

는 시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처럼 표현하였다. 이는 여성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왜곡된 성별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연출로 비춰졌다.

〈이론상 완벽한 남자〉(JTBC, 10월 2일)는 신개념 SF 커플 매칭을 주제로 하여 수영선수 임다연이 출연했다. 그러나 임다연의 프로필 자막에 '매일 하는 일 상체 하체 운동', '가끔 하는 일 학부생 강연'이라며 출연자를 객관적인 프로필보다는 외모나 취미 위주로 소개하였다. 또한 대학원생의 업무를 '가끔 하는 일' 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여성은 자신의 일에 열중하기보다 취미생활과 외모 가꾸



〈건반위의 하이에나〉(KBS2, 10월 7일)

는 감탄하고 감동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어서 주도적 진행자의 이미지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웠다. 전문가를 캐스팅하는데 있어서 성비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건반위의 하이에나〉(KBS2, 10월 7일)는 기획의도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싱어송 라이터들의 살벌하고 리얼한 음원차트 생존기를 그린 리얼 음악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싱어송 라이터가 모두 남성으로 구성됨으로써 음악을 제작하는 분야는 남성들의 영역인 것처럼 보여진다. 또한 진행자로 나온 써니도 진행을 하기 보다

(2) 외모지상주의 조장



〈하룻밤만 재워줘〉(KBS2, 10월 9일)

앞에서는 용기가 샘솟는 사랑 바보', '이번엔 또 어떤 미녀를 만나게 될까?' 등의 자막을 노출하였다. 여성의 외모에만 집중하는 두 남성 출연자의 모습과 '미녀'를 강조하는 자막을 연속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긴다.

〈하룻밤만 재워줘〉(KBS2, 10월 9일)에서 는 남성 출연자 이상민과 김종민이 로마에서 하룻밤을 재워 줄 상대를 찾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두 남성 출연자는 여러 명의 외국인 여성에게 다가가 하룻밤을 재워줄 것을 부탁하였다. 외국인 여성이 등장할 때 마다 자막을 통해 '이런 미녀의 집에서 하룻밤을?', '얼굴도 영어실력도 착한 러시아 미녀', '미녀



〈발레교습소 백조클럽〉(KBS2, 10월 6일)

〈발레교습소 백조클럽〉(KBS2, 10월 6일)에서는 발레에 도전하는 5명의 여성 연예인들이 방송에 등장했다. 발레를 처음 배우보는 여성 연예인들은 발레를 배우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힐링하는 것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지만 발레를 수행하는 여성 출연자 모두가 날씬한 체형이었다. 이는 곧 날씬한 몸이 여성의 표준으로 여겨져 마른 몸에 대한 여성의 욕망을 부추기고, 여성의 몸이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되었다.

(3)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단어와 행동의 무분별 사용

〈양세형의 슷터뷰〉(SBS, 10월 3일)에서는 배우 추자현과 진행자 양세형이 화장실에서 상황극을 펼치는 장면이 방송되었다. 양세형은 화장실에서 남편이 있을 때 추자현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 샤워하고 벗은 몸인 상태에서 추자현이 남편에게 어떻게 하는지 연출하게 하는 등 성적인 행동을 연상하게 하는 대화를 무리하게 이어나갔다.

〈양세형의 슷터뷰〉(SBS, 10월 4일)에서는 배우 마동석과 양세형이 납치되어있는 상황극으로 시작했다. 서로가 등을 대고 앉아있는 과정에서 서로의 엉덩이가 밀착하게 되자 양세형은 “엉덩이 쪽이 지금 많이 뜨듯해서 그런데 그 저기 뭐 운동해서 엉덩이가 성나 계신 거예요?” 라고 말했고 뒤이어 ‘파워 힙업’이라는 자막이 나왔다. 마동석이 “예, 약간 화가 났는데 엉덩이가 화나서 죄송합니다.”라고 답하자 양세형은 “다음부터 좀 죽이고 오세요.”라고 말했다. 신체부위의 형태를 묘사하는 대화 내용과 자막이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고 있다.



〈양세형의 슷터뷰〉(SBS, 10월 3-4일)

IV. 나가며

모니터링 기간 동안 방송된 23편의 추석 특집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여성과 남성 출연자의 비율이 여성 41.4%, 남성 58.5%로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주진행자 역할의 경우 여성에 비해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이 담당하고 있었으나 보조진행자, 출연자/초대손님은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지난 3월과 7월에 진행된 예능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와 차이를 보인다. 지난 3월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여성 출연자의 비율이 38.5%, 남성 출연자의 비율이 61.5%였으며, 7월 모니터링 결과는 여성이 38.7%, 남성이 61.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3월, 7월 모니터링의 두 결과 모두 프로그램 내에서 주진행자, 보조진행자, 출연자/초대손님 모두 남성의 비율이 높아 남성이 예능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처럼 지난 3월, 7월 결과와 비교해서 여성 출연자의 비율이 높아진 것은 남성 출연자에게 편향되어 있던 미디어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성차별적 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방송사는 KBS2였다. 그 중 언론매체에서 이슈가 되었던 프로그램은 〈하룻밤만 재워줘〉였다. 이 프로그램은 현지인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일상까지 공유하며 또 다른 가족을 만드는 프로그램이라는 취지로 제작되었다. 그러나 출연자 이상민과 김종민은 로마에 가서 현지인들에게 말을 걸며 숙박을 부탁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하는 모습이 방송되었고, 이를 본 시청자들은 프로그램의 취지가 무례하다고 비판했다. 가장 큰 문제는 로마에서 만난 여성들을 두고 ‘미녀’라고 부르거나 ‘미녀’를 본 김종민과 이상민을 두고 ‘사랑 바보’, ‘싱글남’, ‘심쿵’ 등으로 표현했다. ‘이런 미녀의 집에서 하룻밤을?’, ‘미녀 앞에선 용기가 샘솟는 사랑 바보’라는 자막과 같이 여성을 계속해서 ‘미녀’로 호칭해 대상화하고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며, 취지와는 달리 남녀관계에 집착하는 두 출연자의 모습은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반면, SBS에서 제작한 〈내 방을 여행하는 낯선 이를 위한 안내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내 방을 여행하는 낯선 이를 위한 안내서〉는 한국의 톱스타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해외 유명인과 방을 바꾸어 5일간 생활하면서, 그 나라가 가진 테마를 느끼고, 그들의 철학과 생활 모습을 엿보는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성별의 차별 뿐만 아니라 인종과 나이의 차별 없이 인물을 다양하게 설정했으며 진정한 소통의 의미를 발굴하는 프로그램으로 호평을 받았다. 또한, 비슷한 취지의 KBS2의 〈1%의 우정〉은 상반된 성향의 두 사람이 만나 함께 하루를 보내며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우정을 쌓아가는 인간관계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전혀 다른 사람들이 연결고리를 함께 찾아가는 모습에서 감동을 받았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성별 정체성을 기반으로 차별이 재생산되고 있는 젠더 불평등한 사회에서 한 개인의 정체성(성별, 나이, 국적 등)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차이를 넘어 소통하고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 평등한 세상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냈다.

이번 추석 특집 예능 프로그램들에서는 ‘소통’, ‘여행’, ‘연결’이라는 키워드가 주를 이루었다. 명절 특집으로 제작되는 예능 프로그램들은 파일럿으로 방송되고, 시청자들의 반응에 따라 정규편성 여부가 결정된다. 이전에는 자극적인 소재가 등장하기도 하였지만, 최근의 프로그램들에서는 시청자들의 비판적 시각을 의식해,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주제보다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가족 단위를 염두에 두고 명절 특집 방송을 제작했던 과거와는 달리 시대의 유행과 개인의 취향에 초점을 두고 프로그램이 제작되는 경향도 있었다. 특히 가족 이야기보다는 ‘여행’이라는 주제를 전면에 내세워 구성된 프로그램이 다수였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의 성평등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예능 프로그램에서 여성 출연자를 성적 대상화하거나 지나치게 외모에만 집중하는 등 성차별적 내용에 대해 시청자들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성별인식이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콘텐츠의 질적 변화 또한 필요하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방송 제작자들은 시청자들의 요구를 수

용하며, 때로는 시대를 앞지르는 시도들도 필요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방송 제작자들은 시청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며 시청자들 또한 지속해서 피드백을 해야 한다. 이러한 방송 제작자의 노력은 필수적이며, 사회의 지향이 성평등을 향해 갈수록 예능 프로그램 또한 성평등한 콘텐츠로 채워져 나가길 기대한다.

V. 모니터링 내용

1. 성평등적 내용³²⁾

(1) 주체성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KBS1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10월 8일 (2회)	  <p>'맥가이버 혜정'으로 소개된 배우 김혜정이 요리를 하려다 인덕선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즉시 공구를 들고 인덕선을 고침. 이외에도 전구를 갈거나 나무의 가지를 손질하는 등 남성의 역할이라고만 여겨졌던 일을 단숨에 해치워버림.</p>
KBS2	혼자 왔어요	10월 4일 (2회)	캠핑에서 남성들이 대부분 맡아하는 불 피우기를 아이돌 나영이 스스로 시도함. 여성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을 볼 수 있음.

32) ① 주체성 : 여성을 주체로서 다루고 있는가? 여성의 시각에서 문제를 보고 있는가?

② 현실반영성 : 성불평등적인 젠더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성이 처한 문제와 상황을 잘 파악하여 남녀 불균형적인 현실을 적절히 묘사하고 있고, 성평등을 위한 문제 해결방식이 과장되거나 희화화되지 않는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또한 이 문제가 많은 여성의 상황을 대변하는가?

③ 다양성 :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다양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가?

④ 대안성 : 대안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2) 다양성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KBS2	하룻밤만 재워줘	10월 9일 (2회)	  <p>출연자 이상민과 김종민이 방문하게 된 이탈리아의 마르따네 집에서 온가족이 함께 식사 준비를 하는 모습이 나옴. 또한 마르따의 아빠가 딸들과 다정하게 지내는 모습과 가수 지드래곤의 팬으로 '스웨그 넘치는 힙합 여전사'로 소개되는 마르따의 엄마, 고모와 사촌오빠 등 성별의 구분없이 가족들의 다양하고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줌.</p>
SBS	박스라이프	10월 9일 (1회)	<p>싱글라이프 대표인 김숙과 서장훈에게 미니어처 요리도구를 선물하여 리뷰를 작성하게 함. 집보다 밖이 편하다는 '바깥양반' 김숙과 '거인' 서장훈이 성별에 따른 구분이나 편견 없이 각각 요리도구를 선물 받아 요리에 도전함. "어머 소리 나는 거봐.", "아유 예뻐라"하며 직접 만든 빵 반죽을 아기 다루듯 정성껏 준비하는 김숙과 "이거 장난 아니네."하며 신기해하는 서장훈의 모습이 등장함. 두 출</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p>연자 모두 힘들어하지만 맛있게 음식을 요리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다양하게 표현함.</p>  

(3) 대안성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TV 조선	가족이 뒤통자	10월 2일 (1회)	 <p>교수(남녀 각 1명)와 변호사(여)가 패널로 출연하여 외국인(미국인 사위, 러시아인 며느리)과 함께 '외국인 며느리와 사위의 눈에 비친 명절풍경'을 주제로 순위를 매기며 사례를 들어 설명함. 그 중 5위에 선정된 '명절엔 왜 큰집을 가나'에서 배우자 양쪽 본가를 방문하는 순서에 대해 다툼이 많다는 얘기를 나눔. 결혼 20년차인 교수(여)가 본인은 명절 당일에 시댁을 가고 다음날 친정에 가는 것을 규칙으로 삼아 와서 갈등이 없다고 하자, 신혼임을 밝힌 사회자(남)가 "그런 면에서는 제가 좀 더 신세대다. 추석 당일 아침에는 장인·장모님 댁에 먼저 가</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고 저희 집에는 오후에 가고..(중략) 여동생 부부가 오후에 오기 때문에 만나기 쉽고 부모님도 흔쾌히 동의하셔서요.”라고 말함. 이 장면은 여성이 남성의 가문에 소속되어야 한다는 가부장적 고정관념을 깨고 부부 간의 바람직한 의사소통 과정을 보여주고 있음.

2. 성차별적 내용

(1)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KBS2	건반 위의 하이에나	10월 7일 (1회)	 <p>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싱어송 라이터들의 살벌하고 리얼한 음원차트 생존기를 그린 리얼 음악 예능 프로그램이라는 기획의도를 가짐. 그러나 싱어송 라이터가 모두 남성으로 구성됨으로써 음악을 제작하는 분야는 남성들의 영역인 것처럼 보여짐. 또한 진행자로 나온 써니도 진행을 하기 보다는 감탄하고 감동하는 역할로 나와 주도적 진행자의 이미지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웠음.</p>
KBS2	하룻밤만 재워줘	10월 9일 (2회)	 <p>이탈리아의 마르따네 집을 방문했을 때 마르따의 아빠 행동을 표현하는 자막이 '시도 때도 없는 남성성 과시'라는 내용이었음. 무언가를 들어 올리는 행동을 두고 '남성성 과시'라고 하는 것은 남성은 힘이 센 존재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함.</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KBS2	혼자 왔어요	10월 3일 (1회)	 <p>파트너와 함께 데이트한 영상 속에서 한 여성 출연자가 한 행동을 두고 '여우 짓'이라고 표현하고 있음. '여우짓'은 잇속을 챙기는 영악한 여성들의 행동을 비유한 말임. 여성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여기도록 하는 '여우 짓'이란 단어의 사용은 여성을 비하하는 것임.</p>
KBS2	100인의 선택	10월 3일 (1회)	  <p>개그맨들 중에서 맛집을 검증하는 평가단의 단장을 자연스럽게 남성인 송영길이, 부단장은 여성인 안소미를 선정함. 여성은 언제나 남성을 보조한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함.</p>
SBS	박스라이프	10월 9일 (1회)	<p>주현이 냉장고를 열며 “콩나물국 좀 끓여 놓으라고 했더니, 고것도 하기 싫어서..”, “국내에도 좋은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동남아는 무슨 동남아” 등의 얘기를 함. 전 업주부의 가사역할만을 강조하며 남성의 가부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p>속살라떼 예능 최초 출연, 국민아버지 출연 SBS #올해_목표는_독서왕</p>
JTBC	이론상 완벽한 남자	10월 2일 (1회)	 <p>출연자 임다연을 두고 '매일 하는 일 상체 하체 운동', '가끔 하는 일 학부생 강연'이라며 대학원생 출연자의 객관적인 프로필보다는 외모나 취미 위주로 소개하고 대학원생으로서의 업무를 가끔 하는 일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여성은 자신의 일에 열중하기보다 취미생활과 외모 가꾸는 시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처럼 연출함. 여성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왜곡된 성별 고정관념을 조장함.</p>
TV 조선	가족이 뭉길래	10월 2일 (1회)	 <p>이영혁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p>시월드, 처월드'를 주제로 '음식솜씨 타박에 흥기로 시어머니 공격한 며느리 사건', '평소에 자주 찾아오지 않았다고 구박한 시아버지 뺨을 때린 며느리 사건'을 소개함. 극단적인 사례를 소개하며 며느리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음.</p>
TV 조선	스타 고향맛집	10월 4일 (1회)	 <p>최양락과 아들이 아침 새벽부터 여행을 떠나기 위해 준비함. 여행을 떠나는 부자를 위해 아내 팽현숙은 바쁘게 움직여 요리함. "아침에 간단한 토스트와 우유를 먹으면 좋겠는데 꼭 시골밥상처럼 찌개와 반찬을 해달고 난리야"라고 팽현숙이 투덜대며 식사를 차려주지만 부자는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음. 여성에게만 가사노동이 부과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남성들의 모습을 통해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함.</p>
tvN	20세기 소년 탐구 생활	10월 5일 (1회)	<p>2인 진행자 포함 5인 출연자 모두가 남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임. 시대를 관통하는 문화 키워드 중 한 가지를 주제로 삼아 깊이 있게 탐구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출연자들의 전문성이 중요하데, 진행자를 포함해 여성 출연자는 존재하지 않음. 여성에게는 전문성이 없다는 식의 고정관념을 조장할 수 있음.</p>
tvN	20세기 소년 탐구 생활	10월 5일 (1회)	 <p>'언제 제일 퇴사를 결심할까'란 질문에 대한 통계를 설명하며 삽화를 내보냄. 삽화에서 출근을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은 여성, 직장에서 부하직원을 괴롭히는 상사는 남성, 괴롭힘을 당하는 부하직원은 여성으로 표현함. 직장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역할과 성격에 대한 고정관념을 드러냄.</p>

(2) 여성의 주체성 무시/ 남성 의존성향 강조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TV 조선	산너머 남촌	10월 5일 (2회)	 <p>〈님아 그 술을 마시지 마오〉편에서 늘 술에 취해있는 김중철 할아버지와 이에 속을 끓이는 아내 이정임 할머니가 출연함. 술을 마신 다음 날 아침 술국을 끓여 달라는 할아버지를 위해 푸념을 하며 북어국을 끓임. 할아버지는 “맛이 왜 이래. 내가 해도 이거보다 잘 끓였겠다.” 하시며 다시 술을 찾음. 그때 이정임 할머니는 “내가 여자니까 참아야 되지” 하자 할아버지가 “당신이 여자?” 라고 말함. “내가 여자라 저준다” 하며 할머니는 할아버지께 술을 넘김. 늘 일보다는 술에 취해있는 할아버지와 실랑이를 벌이며 화를 참으며 사는 할머니의 멘트에서 부부간의 평등한 관계보다 남성 우위의 관계가 부각됨.</p>

(3) 외모지상주의 조장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KBS2	발레교습소 백조클럽	10월 6일 (1회)	 <p>발레를 처음 배우보는 여성 연예인들이 발레를 배우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힐링하는 프로그램임. 그러나 발레를 수행하는 여성 출연자 모두가 날씬한 체형이었음. 여성의 날씬한 체형에 대한 고정관념을 형성하고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있음.</p>
KBS2	하룻밤만 재워줘	10월 9일 (1회)	남성 출연자 이상민과 김종민이 로마에서 하룻밤을 재워줄 상대를 찾는 과정을 보여줌. 두 남성 출연자는 여러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p>명의 외국인 여성에게 다가가 하룻밤을 재워줄 것을 부탁함. 외국인 여성이 등장할 때 마다 자막을 통해 ‘이런 미녀의 집에서 하룻밤을?’, ‘얼굴도 영어실력도 착한 러시아 미녀’, ‘미녀 앞에서는 용기가 샘솟는 사랑 바보’, ‘이번엔 또 어떤 미녀를 만나게 될까?’ 등의 자막을 노출함. 여성의 외모에만 집중하는 두 남성 출연자의 모습과 ‘미녀’를 강조하는 자막을 연속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김.</p>  
JTBC	이론상 완벽한 남자	10월 2일 (1회)	<p>출연자 임다연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캠퍼스의 여신’, ‘올해의 목표는 독서왕’, ‘취미는 볼링’, ‘특기는 응원’, ‘매일 하는 일 상체 하체 운동’ 이라며 외모나 취미 위주로 소개함. 여성 출연자의 얼굴이나 몸매 위주로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며 예쁜 외모가 하나의 스펙인 듯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고 있음.</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4) 여성의 성적대상화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KBS2	하룻밤만 재워줘	10월 9일 (1회)	  <p>남성 출연자 이상민과 김종민이 로마에서 하룻밤을 재워줄 상대를 찾는 과정에서 여러 명의 외국인 여성에게 다가가 하룻밤을 재워줄 것을 부탁함. '남자에게 길을 물을 땀 스피디하게!, 미녀에게 길을 물을 땀 슬로우 슬로우~', '미녀가 나타나면 아는 길도 또 물어 본다', '아장 아장 그녀에게로 향하는 걸음마', '포폴로 광장에 가고 싶은 걸까 (미녀의 집에 가고 싶은 걸까...)' 등의 자막을 사용함. 이러한 자막은 출연자와 외국인 여성의 관</p>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계를 성적으로 한정하고, 남성 출연자의 태도를 호감을 느끼는 남성이 여성을 대하는 것으로만 표현함. 이러한 연출은 여성 출연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모습임.
채널A	우리도 국가 대표다	9월 29일 (1회)	 <p>사회를 보는 씨니가 여성 출연자 크리사츄를 소개하면서 '과즙미 팡팡 터지는 미소녀' 라고 표현함. '과즙미'라는 단어로 여성을 사물화하고 있으며 수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미소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음.</p>

(5)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단어와 행동의 무분별 사용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SBS	양세형의 숏터뷰	10월 3일 (1회)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p>화장실에서 상황극을 펼치는데 추자현이 화장실에서 남편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함. 샤워하고 벗은 몸인 상태에서 추자현이 남편에게 어떻게 하는지 연출하게 하는 것에서 성적인 행동을 연상하게 함.</p>
SBS	양세형의 숏터뷰	10월 4일 (2회)	 <p>진행자인 양세형이 출연자 마동석을 보고 “엉덩이 쪽이 지금 많이 뜨뜻해서 그런데 그 저기 뭐 운동해서 엉덩이가 성나 계신 거예요?”라고 하자 마동석이 “예, 약간 화가 났는데 엉덩이가 화나서 죄송합니다.”라고 답함. 그러자 양세형이 “다음부터 좀 죽이고 오세요.”라며 엉덩이를 주제로 두고 대화하는 내용이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함.</p>

인터넷 어학사전 모니터링 보고서(11월)

I. 들어가며

지난 10월, 언론에서는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어학사전의 일부 예문이 여성을 남성에 비해 지적 능력이 떨어지거나 유순하고 수동적인 존재로 표현하는 내용(‘조신하다’를 검색하면 ‘시집을 가면 조신해야 한다’는 예문, ‘백치미’를 검색하면 ‘백치미가 있는 여배우’라는 예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며 성차별적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서울YWCA 양성평등 미디어 모니터회는 문제가 되었던 인터넷 포털사이트 어학사전(영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인터넷 사전 모니터링은 3개 범주(남녀 호칭 및 지칭어, 직업명사, 사람에 대한 형용사)에서 각각 20개의 단어를 임의로 선정하여 진행하였으며, 해당 단어를 검색했을 때 보이는 영어사전의 예문 상위 60문장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세한 모니터링 내용은 다음과 같다.

II. 모니터링 개요

- 모니터 장르 : 인터넷 어학사전 (영어)
- 모니터링 기간 : 2017년 11월 6일~11월 10일(5일간)
- 모니터링 매체 : 네이버 어학사전(영어)
- 모니터링 대상 : 예문 3,507문장 (표1 참조)
- 예문 선정 방법 선정

모니터링 대상 단어를 3개의 범주로 나누고 각 부분별로 20개를 선정했다. 먼저 성별에 따른 차별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남녀 호칭 및 지칭 단어**의 예문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는 **특정 직업을 지칭하는 단어**가 한쪽 성에 치우쳐서 설명될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직업을 검색어로 선정하였으며, 세 번째는 성별에 따라 성격·성향 등을 구분 짓는 고정관념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람의 성격·성향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살펴보았다.

[표1] 모니터링 대상

(단위: 개)

남녀 호칭 및 지칭 단어		예문 수	직업 명사		예문 수	사람에 대한 형용사		예문 수
1	어머니	60	21	간호사	60	41	상냥한	60
2	아줌마	60	22	판매원	60	42	다정한	60
3	아가씨	60	23	상담사	60	43	연약한	60
4	언니	60	24	교사	60	44	암전한	33
5	누나	60	25	승무원	60	45	귀여운	60
6	처녀	60	26	군인	60	46	용감한	60
7	소녀	60	27	경찰	60	47	강인한	60
8	아내	60	28	소방관	60	48	자상한	60
9	색시	3	29	조종사	60	49	멋진	60
10	여성	60	30	경호원	60	50	훌륭한	60

남녀 호칭 및 지칭 단어		예문 수	직업 명사		예문 수	사람에 대한 형용사		예문 수
11	아버지	60	31	기자	60	51	유능한	60
12	아저씨	60	32	엔지니어	60	52	똑똑한	60
13	총각	58	33	의사	60	53	명청한	60
14	사나이	60	34	검사	60	54	우아한	60
15	오빠	60	35	변호사	60	55	매력적인	60
16	형	60	36	과학자	60	56	교활한	60
17	삼촌	60	37	작가	60	57	활발한	60
18	남편	60	38	배우	60	58	정직한	60
19	소년	60	39	가수	60	59	성실한	60
20	남성	60	40	요리사	60	60	차분한	53
합계		1,141	합계		1,200	합계		1,166

Ⅲ. 양적 분석

영어사전 속 예문에 등장하는 남녀 성비와 전체 문장 수 대비 성평등적·성차별적 문장에 대한 양적분석을 실시하였다. 그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단어별 남녀 성비

남녀 호칭 및 지칭 단어를 제외하고 직업 명사와 사람에 대한 형용사를 대상으로 남녀 성비를 조사하였다. 각 단어에 대한 예문을 모니터링 했으며 예문 속 주체를 여성, 남성, 해당 없음으로 나눴다. 직업 명사의 예문은 단어 자체가 주체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았고, 성격·성향(형용사)에 대한 예문은 남녀를 지칭하는 단어가 주체로 표현된 문장이 많았다.

[표2] 단어별 남녀 성비

(단위 : 개)

직업	여성	남성	해당 없음	형용사	여성	남성	해당 없음
간호사	8	1	51	상냥한	30	7	23
판매원	2	5	53	다정한	8	20	32
상담사	1	1	58	연약한	13	3	44
교사	4	1	55	암전한	11	3	46
승무원	3	3	54	귀여운	6	9	47
군인	0	4	56	용감한	5	23	32
경찰	0	2	59	강인한	16	19	25
소방관	2	4	54	자상한	6	25	27
조종사	4	7	49	멋진	3	7	50
경호원	2	2	56	훌륭한	6	12	42
기자	0	3	57	유능한	11	18	31
엔지니어	3	5	52	똑똑한	3	6	51
의사	2	1	57	명청한	3	7	50
검사	0	0	60	우아한	17	3	40
변호사	3	4	53	매력적인	10	15	35

직업	여성	남성	해당 없음	형용사	여성	남성	해당 없음
과학자	1	0	59	교활한	3	14	17
작가	6	14	40	활발한	3	4	43
배우	4	8	48	정직한	4	11	45
가수	9	6	46	성실한	5	14	41
요리사	6	1	53	차분한	8	12	40

직업을 검색어로 두었을 때, 여성이 예문에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가수'였다. 두 번째는 '간호사'이며 '작가', '요리사'가 뒤따랐다. 남성의 경우 '작가'를 검색어로 넣었을 때 예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배우'와 '가수' 순으로 많은 예문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녀 성비의 차이가 가장 큰 직업은 '작가'와 '간호사'였다. '작가'의 경우 남성 예문은 16개, 여성 예문은 8개로 두 배 차이가 났다. 반면에 '간호사'는 이 경우는 여성을 주체로 두는 예문이 훨씬 더 많이 확인되었는데, 여성은 8개, 남성은 1개였다. '작가=남성, 간호사=여성'으로 특정 성별에 치우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군인', '기자', '경찰'은 성별이 언급된 예문 자체는 적지만 여성을 주체로 두는 예문이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았다. 즉, 이 세 개의 직업은 100% 남성의 직업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이다.

형용사를 검색어로 두었을 때, 여성이 예문에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는 '상냥한'이었다. 두 번째는 '우아한'으로 분석되었다. 남성은 '자상한'의 예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용감한'에서 많은 예문이 확인되었다. 남녀 성비의 차이가 가장 큰 형용사도 '상냥한'으로 나타났다. '상냥한'은 여성이 언급된 예문이 30개, 남성이 언급된 예문이 7개로 큰 차이가 났다. 다음으로 성비의 차이를 보인 단어는 '자상한'과 '용감한'이다. 이 경우는 남성을 주체로 두는 예문이 훨씬 더 많이 확인되었다. '자상한'은 남성 25개, 여성 6개이며, '용감한'은 남성 23개, 여성 5개로 차이를 보였다.

IV. 내용분석

네이버 영어사전 예문 내용에 대한 질적 분석 결과, ①남녀 호칭 및 지칭 단어 / ②직업 명사 / ③형용사 중 남녀 호칭 및 지칭 단어에서 가장 많은 성차별적 예문이 확인되었으며 직업에 대한 예문에서는 성차별적 예문이 없었다. 그런데 세 부분 모두 성평등적인 내용을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남녀 호칭 및 지칭 단어에서 두 문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평등적 내용

성평등적인 내용의 예문은 조사 대상 예문 3,507개 중 단 두 개로 확인되었다.

검색어	내용 및 이유
여성 (1문장)	It's perfectly acceptable for women to be pallbearers. (출처: 능률교육) 여성들도 충분히 관을 멜 수 있지요. ▷ pallbearer는 우리말로 '관을 메는 사람'이다. 전통적으로 관은 남성들이 옮기는

검색어	내용 및 이유
	것을 자연스럽게 여겨지기 때문에 성에 따른 역할 구분이라고 볼 수 있다.
아가씨 (1문장)	Don't treat any woman as a bit of stuff. (출처: YBM) 그 어떤 여자도 성적 대상으로서의 젊은 아가씨로 대하지 마라. ▷ 여성들이 성적대상화되는 것에 대한 경계가 나타나 있다.

2) 성차별적 내용

성차별적인 내용은 총 59개의 문장을 찾을 수 있었다. 성차별적 문장의 대부분은 남녀 호칭 및 지칭 단어의 예문이었으며(55문장), 사람에 대한 형용사에서는 4개의 문장을 찾을 수 있었다. 직업명사에서는 성차별적 표현을 찾을 수 없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색어	내용 및 이유
아줌마 (4문장)	One aunt split hairs about his husband. (출처: YBM) 어떤 아줌마가 자기 남편에 대해 사소한 일을 꼬치꼬치 따졌다. The old woman likes to spread gossips. (출처: 이용자 참여) 아줌마들은 소문내기 좋아한다. Ajummas on the subway are so aggressive and unruly. (출처: 다락원) 지하철에 탄 아줌마들 진짜 공격적이야. ▷ 아줌마는 사전적 의미로 부모와 같은 항렬의 사람을 부르거나 결혼한 여성을 칭하는 '아주머니'의 준말이지만 일반적으로 결혼한 여성을 비하할 때 많이 사용된다. 조신하지 않으며 가정을 위해 거침없는 모습의 기혼 여성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여성에게 강요되는 조신함, 상냥함 등이 결여된 모습이다. 위의 예문 또한 남편을 괴롭히는 여성의 모습을 표현한 내용이다. 이는 기혼 여성에 대한 반감을 증가시킨다.
	Usually, 'ajumma' are mothers, and they are responsible for holding their families together. (출처: 능률교육) 보통 '아줌마'는 엄마들이고 그들의 가족을 하나로 뭉치게 할 책임이 있다. ▷ 여성에게만 가족의 결속력에 대한 책임을 강조한다.
처녀 (11문장)	The pilot finished his virgin flight in safety. (출처: 잉글리시히든카드) 그 조종사는 그의 처녀 비행을 무사히 마쳤다. The new mayor makes her maiden speech tonight! (출처: YBM) 그 새로 뽑힌 시장은 오늘 밤 처녀 연설을 한다. The ship's maiden voyage will last for 16 weeks. (출처: 능률교육) 이 배의 처녀 항해는 16주 동안 지속될 것이다. ▷ 우리말과 마찬가지로 영어에서도 '처녀'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라는 의미 외에 '일이나 행동을 처음으로 함'이라는 뜻을 지닌다. 이는 순수함, 때 묻지 않은 상태를 '처녀'라는 개념으로 표현하는 맥락에서 굳어진 언어 사용법이다.

검색어	내용 및 이유
	<p>I just don't want to die a virgin. (출처: 이용자 참여) 난 처녀인 채로 죽고 싶진 않아.</p> <p>If we didn't share women, you'd still be a virgin. (출처: 이용자 참여) 우리가 여자를 공유하지 않으면, 너는 아직도 처녀일꺼야.</p> <p>I have to marry a virgin. (출처: 이용자 참여) 난 처녀와 결혼 해야만 해.</p> <p>Don't let it die a virgin. (출처: 이용자 참여) 처녀인 채로 죽게 두지 마세요.</p> <p>They want to know if your child is a virgin. (출처: 이용자 참여) 그들은 너의 아이가 처녀인지 알고 싶어해.</p> <p>▷ '처녀'를 '성관계를 맺지 않은 여성 또는 남성의 상태'로 해석하고 이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의 예문들이다. 이러한 예문은 성관계를 하는 것이 성장하는 단계 중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지적하며 성관계를 하지 않은 것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p> <p>There's a guy who's been picking up girls. (출처: 이용자 참여) 처녀들만 꼬셔 잠자리를 해오던 한 사내가 있었다.</p> <p>She's a bargain, nice job dude. (출처: 이용자 참여) 그녀는 처녀야, 잘했어 친구.</p> <p>▷ 이러한 예문 또한 '처녀'를 '성관계를 맺지 않은 여성 또는 남성'으로 해석한 경우이다. 그러나 위의 예문들과는 달리 성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성관계 상대로 더 가치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여성의 첫 경험 상대가 되는 것이 남성들에게 중요하다는 것 또한 강조하고 있다.</p>
<p>여성 (1문장)</p>	<p>Working mom badly needs help from husband. (출처: 능률교육) 아이가 있는 직장 여성은 남편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p> <p>▷ 육아에 대한 책임은 부모 모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아내를 '돕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육아를 돕는 것이 아닌 함께 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p>
<p>총각 (37문장)</p>	<p>I'm getting married soon and tonight's my bachelor party. (출처: 능률교육) 곧 결혼할 건데 오늘 저녁에 총각 파티를 갖기로 했어.</p> <p>We all get laid before we graduate. (출처: YBM) 내 말은 졸업하기 전에 총각 딱지를 떼어 보자는 거야.</p> <p>It was my brother's bachelor party. (출처: 능률교육) 내 형의 총각 파티가 있었어.</p> <p>Did you schedule my bachelor party? (출처: 이용자 참여) 내 총각 파티 스케줄 잡았어?</p> <p>I was at a bachelor party. (출처: 이용자 참여)</p>

검색어	내용 및 이유
	<p>그것은 총각파티였다.</p> <p>I told you I don't want a bachelor party. (출처: 이용자 참여)</p> <p>난 총각파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어.</p> <p>This is your big bachelor party? (출처: 이용자 참여)</p> <p>이건 너의 성대한 총각 파티야?</p> <p>I guess I was meant to grow old and die single. (출처: 능률교육)</p> <p>나는 총각으로 늙어 죽을 팔자인 것 같다.</p> <p>Nothing happened at the bachelor party. (출처: 이용자 참여)</p> <p>그 총각 파티에서는 아무 일 없었다.</p> <p>I don't want a bachelor party. (출처: 이용자 참여)</p> <p>나는 총각 파티는 바라지 않아.</p> <p>Yeah, it's his real bachelor party. (출처: 이용자 참여)</p> <p>그래, 이게 진짜 그의 총각 파티야.</p> <p>It sounds like a bachelor party to me. (출처: 이용자 참여)</p> <p>내가 볼 때 총각파티인 것 같은데.</p> <p>I mean, it's his bachelor party. (출처: 이용자 참여)</p> <p>내 말은, 그건 그의 총각 파티야.</p> <p>This is our chance to lose virginity. (출처: 이용자 참여)</p> <p>이것은 우리가 총각딱지를 뗄 기회야.</p> <p>Isn't that what you're supposed to do at a bachelor party? (출처: 이용자 참여)</p> <p>그건 네가 총각 파티에서 하기로 된 것 아냐?</p> <p>Trust me I won't let you die a bachelor. (출처: 이용자 참여)</p> <p>날 믿어, 널 총각으로 죽게 하진 않을 거야.</p> <p>And he recently had his cherry popped. (출처: 이용자 참여)</p> <p>그리고 그는 최근에 총각딱지를 떼었다.</p> <p>I'm not interested in a bachelor party. (출처: 이용자 참여)</p> <p>총각 파티에 관심이 없어요.</p> <p>It's just a bachelor party, dear. (출처: 이용자 참여)</p> <p>단지 총각 파티야, 자기야.</p> <p>You should have a good 'stag party'. (출처: 이용자 참여)</p> <p>넌 괜찮은 총각파티를 열어야 해!</p> <p>The second occasion was on my stag night. (출처: 이용자 참여)</p> <p>두 번째 기회가 내 총각파티때 있었다.</p> <p>Oh, no. I was at a bachelor party. (출처: 이용자 참여)</p> <p>오, 아니야. 난 총각파티에 있었어.</p> <p>It's a Bachelor Party - and You're Invited! (출처: 이용자 참여)</p>

검색어	내용 및 이유
	<p>이건 총각 파티야 - 그리고 널 초대해! You've ruined my bachelor party. (출처: 이용자 참여)</p> <p>네가 내 총각 파티를 망쳤어 It's a bachelor party. (출처: 이용자 참여)</p> <p>그건 총각파티야. It's your bachelor party! (출처: 이용자 참여)</p> <p>이건 네 총각 파티야. It's my bachelor party. (출처: 이용자 참여)</p> <p>이건 내 총각 파티인데. It was his bachelor party. (출처: 이용자 참여)</p> <p>그건 그의 총각 파티였다. It looks like I'm destined to spend my whole life as a bachelor. (출처: 능률교육)</p> <p>나는 총각으로 늙어 죽을 팔자인 것 같다 Allegations flew about Nick at an out-of-control bachelor party. (출처: 이용자 참여)</p> <p>총각파티를 제어하지 못해서 닉에 대한 혐의는 없어졌다. They threw a bachelor party for a friend who was getting married. (출처: 능률교육)</p> <p>그들은 결혼을 앞둔 친구를 위해 총각 파티를 열어 주었다 Mike Holda's bachelor party tonight. It's going to be epic! (출처: 다락원)</p> <p>오늘 밤 Mike Holda의 총각 파티야. 아주 대단할 거야. Companies that organise stag parties in the city have gone bust and those that continue report stagnant bookings. (출처: 이용자 참여)</p> <p>도시에서 총각파티 행사를 제공하는 회사들이 도산을 하고 있고 그나마 남아있는 회사들도 예약 부진을 겪고 있다고 한다. Parents keep walking in on things they shouldn't see, like Jim's bachelor party. (출처: 이용자 참여)</p> <p>부모들은 그들이 보지 말아야 할 것들-짐의 총각파티같은 것을 계속해서 불쑥불쑥 부딪혀 보게 된다. ▷ '처녀'와 마찬가지로 '총각'을 '성관계를 맺지 않은 남성의 상태'로 해석하고 이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의 예문들이다. '총각'을 검색어로 넣은 경우, 총 37개의 예문에서 '총각 파티'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p>
<p>남편 (1문장)</p>	<p>She henpecks her husband all the time. (출처: 동아출판)</p> <p>그 여자는 항상 남편을 들볶는다. ▷ '아줌마'와 마찬가지로 아내가 남편을 괴롭힌다는 내용의 예문이다. 이는 기혼 여성에 대한 반감을 증가시킨다.</p>

검색어	내용 및 이유
남성 (1문장)	Women might be placed above men today in intelligence. (출처: 잉글리시히든카드) 오늘날 여성은 남성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지도 모른다. ▷ 남성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내용이다. 이러한 발언은 사회적으로 여전히 여성이 차별받는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 없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약한 (2문장)	Don't worry, woman is a weak creature and cries easily. (출처: 이용자 참여) 걱정 말아요, 여자는 연약한 존재이고 쉽게 울어요. Well, for a slender lady, you pack a punch. (출처: 이용자 참여) 호오, 연약한 여성 치고는 제대로 펀치를 날리시는군요 ▷ 연약함이 모든 여성의 고유한 속성인 것처럼 여기고 있다.
용감한 (1문장)	A brave man was allowed to walk over with the princess. (출처: YBM) 용감한 청년은 공주를 애인으로 갖는 것이 허락 됐다. ▷ 남성이 여성을 소유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매력적인 (1문장)	He did many mistakes with one eye on the charming lady. (출처: YBM) 그는 매력적인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 많은 실수를 했다. ▷ 여성 때문에 남성이 실수를 했다는 전개이다. 이는 문제의 원인을 여성에게로 돌리는 것이다.

V. 나가며

인터넷 어학사전(영어) 속 60개의 단어에 대해 총 1,507개의 예문을 모니터링 한 결과, 성평등적 예문 2문장, 성차별적 문장 59문장을 찾을 수 있었다. 또한 단어별로 주체가 되는 성별을 비교해본 결과, 인터넷 사전의 성차별성을 엿볼 수 있었다. 직업 분야에서 '간호사'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주체가 된 문장이 8배 많았고, '군인', '기자', '경찰'은 여성을 주체로 두는 예문이 단 한 개도 없었다. 사람에 대한 형용사에서 '상냥한'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주체인 경우가 약 3배 많았고, '자상한'은 남성이 주체인 경우가 2.4배 많았다.

내용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성차별적인 내용이 가장 많이 확인된 검색어는 '처녀'와 '총각'이다. 이는 두 단어 모두 한국어에서도 차별적인 맥락에서 사용되기 때문이며 '결혼하지 않은 성년'이라는 사전적 개념보다 '아직 성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은 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녀'와 '총각'을, 사람을 지칭할 때 사용하기도 하지만 특정 시기(성관계를 경험하기 이전 시기)로 여기는 경우가 많으며 이 시기를 빨리 벗어나야 함을 강조하는 내용의 예문이 대다수였다. 단어 자체의 성차별성이 사전 예문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 외에도 남편을 괴롭히거나 교양 없는 행동을 하는 이미지로 '아줌마'를 표현하는가 하면, 연약함을 여성의 고유한 속성인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간주하는 표현이 있기도 하였다.

더 나아가, 단어 그 자체로는 성차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으나 예문을 구성하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살펴보면 일부 검색어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있었다. 돌봄과 관련된 예문은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검색어로 두었을 때 더 많이 확인되었다. 집안일을 하거나 누군가를 돌보는 어머니의 모습이 묘사된 예문(“제 어머니는 가정주부입니다”, “제 어머니는 전업주부입니다”, “어머니의 간호로 많이 앓던 아이는 차도를 보았다”)이 있는 것에 반해, 아버지를 검색어로 넣으면 이러한 내용의 예문을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아버지는 전체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의 모습(“아버지는 자신의 자식들을 육성할 책임이 있다”, “우리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노력하십니다”)이 예문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가정을 책임지는 모습이 여성과 남성에게 따라 다르게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주목해야 할 것은 통념적으로 여성성이 짙은 개념은 여성을 주체로 둔 경우가 많고, 남성성이 짙은 개념은 남성을 주체로 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형용사 ‘우아한’, ‘상냥한’에서 여성이 성비가 더 높다는 점과 ‘용감한’에서 남성의 성비가 더 높다는 점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개념들을 검색어로 넣었을 때는 높게 나타난 성별이 아닌 다른 성별이 예문에 등장하더라도 해당 검색어와 연결성이 약한 경우가 있었다(“그녀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용감한 것일까요 아니면 무모한 것일까요?”, “그는 상냥한 남자였으나 술만 취하면 싸우려고 했다.”). 이는 어학사전 이용자들에게 성별 고정관념을 더 강화시킬 것이다.

한편, 해당 사전을 제공하고 있는 포털사이트 네이버는 이용자들이 문제를 제기한 예문들은 검색 결과에서 제외되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네이버 측은 “어학사전 서비스가 사전을 제작·출판하는 업체들이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내용을 통째로 이관해 온 것이기 때문에 당시 예문들이 그대로 게재되고 있는 것”이라며 “사용자들이 꾸준히 성차별적 예문이 많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작업을 진행해 문제의 예문을 검색 결과에서 제외하거나 출판사 측에 알려 수정을 권고하고 있다”고 했다.³³⁾

이번 인터넷 어학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성차별적 표현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학술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사전에서조차 전통적 성별 고정관념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다. 네이버 영어사전에서 확인된 성차별적인 예문의 전체적인 숫자는 많지 않지만 언어를 익히는 과정에서 이러한 고정관념에 노출되는 것은 그 고정관념이 더욱 공고해지는 촉매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성평등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겨지던 일상적인 표현들을 다시 한 번 돌아보아야 할 때이다. 국민 모두가 곳곳에서 성차별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 않은지 감시하고,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서부터 성평등 문화가 시작될 것이다.

33) 경향신문, “네이버 어학사전, 성차별·여혐 예문 ‘범람’”, 2017.10.22



Ⅲ. 부록

1. '성차별 미디어 아카이브' 게시글
 2. 언론 보도 내용
 3. 카드뉴스 예시
 4. 심의 개선 요청 현황
 5. 시민이 제보한 미디어 속 성차별
 6.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 

■ ‘성차별 미디어 아카이브’ 게시글 (상시 모니터링 결과)

구분	제목	내용(제보자)
오락·예능	채널A 〈아빠본색〉	 <p>4월 12일 방송된 채널A의 〈아빠본색〉에서는 배우 이준혁의 모습이 방송되었습니다. 침대와 텔레비전, 냉장고까지 마련된 독방에 살면서 자기만의 생활을 꾸려가는 모습이 전파를 탔습니다. 또한 이날 방송에서는 아내에게 총을 겨누며 밥을 달라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패널 중에서 "아내분 표정이 낯색이다"라고 말하며 아내의 입장도 생각하는 말들이 오갔지만 이는 쉽게 웃음거리로 넘어갔습니다. 방송 뒤 이런 이준혁의 모습은 '어린아이 같은 남편'이라는 이미지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이는 철없는 성인 남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아내에게 집중된 집안일과 육아에 대한 논의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p>
오락·예능	MNET 〈아이돌 학교〉	 <p>걸그룹 육성 전문 교육기관을 테마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아이돌 지망생들을 걸그룹으로 키워내는 내용입니다. "예쁨"만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의 예고편과 신입생 모집요강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실력이 없어도 "마음이 예쁜 얼굴이 예쁜" 소녀를 기다린다는 영상은 아이들의 자질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외모와 몸매라는 것을 강조하며 외모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분위기를 더욱 조장합니다. 또한 예고편의 카메라 시선은 마른 몸매와 짧은 치마에 집중하며 여성들은 성적대상화하는 것에 거림낌이 없어 보입니다.</p>

구분	제목	내용(제보자)
오락·예능	E채널 〈내 딸의 남자들: 아빠가 보고있다〉	  <p>딸 바보 아빠의 딸 걱정 토크'라는 컨셉의 이 프로그램은 딸의 연애를 아빠가 지켜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월 27일방송에는 가수 김태원의 딸이 출연했습니다. 외국인 남자친구와의 스킨십이 거듭 언급되었는데요, 방송에서는 '뽀뽀 200번?' 등의 자막을 띄워 이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로 늦은 귀가, 술자리, 연애 상대와의 신체 접촉으로 생기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딸의 연애는 '예상하지 못한'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비춰지고 아빠의 기대가 무너지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따라서 딸을 바라보는 아빠들의 걱정에는 중년 남성이 20대 여성의 행동과 역할을 축소시키고 규정하는 모습도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습니다.</p>
오락·예능	SBS 〈박진영의 파티피플〉	<p>박진영의 파티피플에서는 가수 이하이가 자신의 노래 '한숨'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이 방영되었습니다. 진행자 박진영은 예전에 가수 김태우가 같은 노래를 부른 적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남자가 부르니까 좀 더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이 내신 한숨처럼 들리더라고요"라고 발언했는데요, 이는 공적인 영역은 남자들의 것이라는 인식을 내포하고 있습니다.</p>

구분	제목	내용(제보자)
오락·예능	MBC everyone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p>외국인들이 한국에 처음으로 여행온 일화를 담은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의 러시아 여행자들은 30대 남성 독일 여행자들과 달리 모두 20대 초반의 여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을 바라보는 제작진의 시선 또한 사뭇 달랐습니다. 독일 여행 호스트에 대해서는 "독일에서 온 다니엘"이라고 소개한 반면, 러시아 여행 호스트는 "러시아 미녀 스웨틀라나"라고 자막을 달았습니다. 이는 러시아 여행자들을 소개할 때에도 마찬가지로인데, 지나치게 성별에 기반을 둔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외모에 대한 평가와 여성임을 강조하는 수식어가 붙여졌기 때문입니다. "예쁘고 큰 눈망울", "여자여자한" 등의 자막이 따라왔습니다. 또한 독일 여행자들이 철저한 계획을 세워 여행한 것으로 보여진 반면, 러시아 여행자들은 별다른 계획 없이 '예쁘면 모두 다 좋다'라는 기조로 여행을 꾸려가는 것 처럼 방송되었습니다. 또한 술을 즐기는 러시아 여행자들에 대해 '반전 매력'으로 표현했는데, 이는 20대 여성을 술과 가깝지 않다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합니다.</p>

구분	제목	내용(제보자)
오락·예능	<p>웹 예능 <개이득2: 블락비가 탈덕을 블락!></p>	 <p><개이득2: 블락비가 탈덕을 블락!>에서는 안경카메라를 몰래 촬영 목적으로 사용하는 장면이 방영되었습니다. 아이돌 가수 블락비가 온라인상에서 자신들의 굿즈를 판매하려고 하는 팬을 직접 만나 탈덕(팬덤에서 나감, 더 이상 해당 아이돌을 좋아하지 않음)을 막으려는 것이 전반적인 내용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몰카 촬영이 진행된 것입니다. 제작진은 촬영 대상으로부터 방송 전에 동의를 구했다는 내용의 입장을 밝혔으나 안경카메라 사용에 대한 경계 문구나 당사자로부터 동의를 구했다는 언급은 방송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블락비 멤버들이 굿즈 판매자인 팬에게 왜 분장한 블락비를 못알아보았냐고 쏘아붙이자 팬은 "남자분이어서 무서웠어요" 라고 답합니다. 위협적인 행동을 특별히 하지 않았음에도 일상적으로 여성들이 느끼는 공포를 알 수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p>
오락·예능	<p>MNET <워너원고></p>	<p><워너원고>에서 여성을 노골적으로 성적 대상화하는 장면이 방영되었습니다. 보이그룹 워너원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인 이 방송은 11월 24일 방송에서 멤버들이 운동 삼아 요가 비디오를 보며 이를 따라하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멤버들은 요가 비디오에 등장하는 여성의 몸매를 감상한 뒤 연신 감탄사를 연발했으며 "화면을 더 크게 보자", "(특정 장면에서) 멈춰라" 등의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10대 멤버들이 민망한 표정을 짓는 장면이 방송되기도 했습니다.</p>
오락·예능	<p>On Style <뜨거운 사이다></p>	<p>두 여성 MC들을 앞세운 <뜨거운 사이다>에서는 젠더 의식이 부족한 대중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나눴습니다. 게스트로 위근우 기자가 출연해 남성 중심 예능 프로그램의 문제점들을 꼬집었고, 김이나 작사가는 여성을 쉽게 대상화하는 노래 가사들에 대한 고민을 토론했습니다.</p> <p>이들은 방송 제작 현장에 여성보다 남성이 수적으로 훨씬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 청소년들이 즐기는 웹툰과 인터넷 방송 등에</p>

구분	제목	내용(제보자)
		<p>여성혐오적인 콘텐츠가 매우 많다는 점들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출연진들은 '아는형님', '진짜사나이' 등의 프로그램 내 성차별적인 요소에서 느낀 여러 불편한 점들을 함께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p>
<p>오락·예능</p>	<p>On style 〈바디 액츄얼리〉</p>	<div data-bbox="662 465 1289 808" data-label="Image"> </div> <div data-bbox="662 824 1289 1167" data-label="Image"> </div> <p>지난 8월 첫 방송을 시작한 〈바디액츄얼리〉는 여성의 신체와 관련된 용어를 정확하게 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산부인과, 클리토리스, 자궁, 생리 등은 여성의 몸에 대해서 말할 때 꼭 필요한 것들이지만 이제까지 "그곳", "거기" 등으로 지칭되어 왔던 것들이기도 합니다. 〈바디액츄얼리〉는 교육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성교육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도 하고 건강한 몸을 위한 운동법을 알려주기도 합니다.</p>
<p>드라마</p>	<p>KBS2 〈아버지가 이상해〉</p>	<div data-bbox="662 1581 1289 1928" data-label="Image"> </div>

구분	제목	내용(제보자)
		<div data-bbox="655 286 1297 645" data-label="Image"> </div> <p data-bbox="598 660 1356 739">5월 7일 <아버지가 이상해>에서는 동거를 둘러싼 부모와 자식 간의 의견 차가 방송되었습니다.</p> <p data-bbox="598 750 1356 1384">30대 남녀가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했고 이를 양쪽 부모들이 알게 되어 연애와 동거, 결혼까지 큰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특히 동거에 대한 세대 간의 서로 다른 의견을 알 수 있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동거가 지나치게 여성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해석되었는데요, 남성의 동거는 '책임'과 관련된 문제였지만 여성의 동거는 사회적 낙인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또한 동거는 여성이 처신을 제대로 하지 않은 문제이고 집안의 수치를 가져다 주는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여자주인공(혜영)은 상당히 독립적인 캐릭터임에도 부모들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의존적인 존재,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하거나 경제적인 이유로 함께 살아가는 커플들이 많은데요, 동거가 나쁘게 인식되는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여성에게만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해석된다는 것이 더 큰 문제로 보입니다.</p>
드라마	KBS1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p data-bbox="598 1411 1356 1489">6월19일에 방영된 KBS1 드라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는 남-녀가 산부인과에 마주치는 장면이 나옵니다.</p> <p data-bbox="598 1556 1356 1758"> 남: 근데 여긴 또 어떤 일이에요? 여: 아 네 산부인과에 불일이 있어가지고~ 남: (여자의 몸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산부인과요?? 여: (무척 당황스럽다는 듯이 손사래치며) 아니아니아니~ 미혼모를 돌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p> <p data-bbox="598 1814 1356 1982">이 대화에서 남성은 '이 여성이 임신부가 아닌데 왜 산부인과에 방문하지'라는 의문의 표정을 짓습니다. 이는 산부인과에 대한 편견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산부인과는 신부인과 검진, 여성 질환 검사와 치료, 예방접종 등 다양한 진료를 보는 곳입니다.</p>

구분	제목	내용(제보자)
		<p>그러나 임신부가 아닌 여성이 산부인과에 왕래하는 모습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시선 때문에 꼭 필요한 산부인과 진료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p>
<p>영화</p>	<p><브이아이피></p>	<div data-bbox="683 421 1273 728" data-label="Image"> </div> <p>네이버 '브이아이피' 영화 정보 캡처 <동아일보 온라인 신문></p> <p>포털사이트에서는 이 영화를 소개하며 상당수의 여성이 '시체'로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러한 소개가 논란이 되자 해당 정보는 이 여성들을 단지 '여성'으로 소개하는 것으로 내용을 수정했습니다.</p>
<p>음악</p>	<p><데리러 갈게></p>	<div data-bbox="746 958 1209 1505" data-label="Image"> </div> <p>크루셜스타의 '데리러 갈게'에 여성혐오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노래는 여자친구의 귀가 길을 걱정하는 남자의 독백 인데요, 여성을 지나치게 수동적으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여성의 옷차림과 행동이 폭력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라는 해석까지 담고있습니다. 또한 신체접촉을 꺼려하는 여성의 의사를 다분히 무시하고 '거절은 동의'라는 자의적인 해석 또한 보여줍니다. 이러한 내용의 가사는 데이트 폭력과 가정폭력 같이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각종 폭력을 폭력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에서 기인합니다. 더불어 이 가사로 인해 여성들의 의사표현이 왜곡되게 해석될 가능성이 더 많아졌습니다.</p>

구분	제목	내용(제보자)
광고	남양유업	 <p>남양유업 페이스북에 게시된 '루카스' 광고는 다양한 취향에 맞는 커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각기 다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여기서 중년남성은 직장인으로, 중년여성은 엄마로 표현되었습니다. 이는 사무직-남성, 집안일-여성이라는 기존의 잘못된 성별 고정관념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노인남성이 다리를 꼬고 앉아 노인여성이 차려주는 커피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도 연출되었는데, 여성은 보조적인 역할, 돌봄과 가사의 담당자라는 차별적인 사회 모습을 여과없이 이미지로 사용한 것입니다.</p>
뉴스	<조선일보> <티브이데일리> <중앙일보> <연합뉴스> <MBC>	<p>성폭력, 성폭행을 저지른 연예인들이 사건에 대해 언론은 피해자들을 '고소녀', '무고녀' 등으로 지칭하며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p> <p>조선일보, 티브이데일리는 '고소녀'라는 표현을 사용해 기사 제목을 작성했고, 더 엘과 뉴스팜은 '무고녀'라고 피해자들을 지칭했습니다. 이 외에도 중앙일보, 연합뉴스, MBC 등에서도 '무고녀'를 기사 제목에 반영했으며 '무고녀'로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 40건 가까이 되는 기사가 확인됩니다.</p> <p>이와 같이 인물의 성별을 표기하는 방식은 예전부터 불필요하게 성별을 강조해 성에 따른 고정관념을 강화한다는 비판을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표기가 성폭력, 성폭행에 대한 보도에서 더 부각되는 듯한 인상도 있습니다.</p>
뉴스	<경향신문>	<p>위안부 피해자 김군자 할머니가 소천한 것에 대해 경향신문은 이를 보도하며 "이제 37송이, 시간이 없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지면 1면에 실었습니다. 이러한 제목은 여성을 꽃으로 비유하는 성적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꽃으로</p>

구분	제목	내용(제보자)
		<p>비유되는 것은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동시에 연약함이 강조되기도 합니다. 특히나 비유 대상이 여성이라면 주체성이 삭제되어 버리기 일쑤입니다. 여성은 스스로 말하고 행동하는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위해 그저 관상용으로 가만히 놓고 즐기 위한 것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 제목에서는 '빨리 시들어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37송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치더라도, '꽃=여성'이 사회에서 어떻게 통용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자신들이 받은 폭력을 세상에 드러내고 그 부당함에 대해 오랜 시간 싸워 온 위안부 할머니의 소식을 전하는 데에는 더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p> 
<p>웹툰</p>	<p><웃지않는 개그반></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center;">  <p><수정 후></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수정 전></p> </div> </div> <p>이 웹툰에서는 데이트 폭력을 개그 소재로 삼아 논란이 되었습니다(5월 9일, 76화). 데이트에서 무엇을 할지 묻는 여학생에게 남학생은 “이거 다 끝나면 그 때 보자고, 생각해 둔 게 있으니”라고 답한 뒤 속마음으로 ‘데이트 폭력이 뭔지 보여줄게’라고 말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는 데이트 폭력을 개그 소재로 삼은 것으로 웹툰 독자들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이에 대해 논란이 된 문구는 ‘데이트 횡포가 뭔지 보여줄게’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성을 괴롭히는 것 자체를 웃음거리로 삼은 전체적인 맥락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p>

■ 언론 보도 내용

주제	일자	주요내용	매체	보도 건수
사업 수행	1월 24일	양성평등한 미디어 환경 조성 위한 2017년의 첫걸음	연합뉴스 외	3
드라마 속 성불평등	3월 26일	여성이 갈등 유발하면 남성이 해결 ...드라마속 성불평등	경향신문 외	6
예능·오락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	4월 18일 ~23일	“남자 시청자들 만족하십니까?”... TV 예능 성차별적 내용 심각	SBSnews 외	16
어린이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	5월 24일 ~6월 9일	무능한 상사, 겁쟁이, 알몸 변신... 어린이 만화 보다 '여혐' 생길라	중앙일보 외	6
온라인 커뮤니티 모니터링 결과	5월 30일	“김치녀는 삼·일·한”... 끊이지 않는 온라인 '혐오' 표현	한겨레신문 외	17
드라마 모니터링 결과	6월 22일 ~23일	“아이 못낳면 이혼”... 드라마 속 '막장 성차별' 심각	헤럴드 경제 외	9
예능·오락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	8월 29일 ~31일	살짜면 '아줌마', 날씬하면 '이상형'... TV예능 외모지상주의 '여전'	뉴스1 외	13
광고 모니터링 결과	9월 21일 ~27일	“몸매·뒤태 잘 빠졌다”...TV광고 10편 중 1편 성차별적 내용 담아	동아일보 외	8
드라마 모니터링 결과	10월 31일 ~11월 1일	“여자 짓 하는 거야?”... 드라마 속 '스튜핏'	여성신문 외	5
추석특집 예능·오락 모니터링 결과	11월 28일 ~29일	미녀 집에서 하룻밤을?... 추석 TV 예능에도 성차별 18건	뉴스1 외	7
토론회 개최	12월 4일	'양성평등한 미디어 문화 확산' 토론회 개최	연합뉴스 외	5
인터넷 어학사전 모니터링 결과	12월 19일	기혼여성 비하하는 표현으로 '아줌마' 많이 써...성차별적 예문 여전	민중의 소리 외	7
인터넷 기사 모니터링 결과	12월 21일	네티즌 클릭 유도하는 성차별적 제목 '수두룩'	뉴스1 외	4

■ 카드뉴스 예시

한국여성평등교육진흥원

드라마에서 나타나는 성차별

출처: 2017년 5월 대안매체 모니터링 모니터링보고서
모니터링 기관: 2017. 5. 1. - 7. 31. 모니터링 매체: 10개 방송사 22개 TV 드라마 22개 6편

“안주인 되려면 식구들 끼니는 챙겨야지,
불만 번갈게 나르고 입술만 빨갛게 칠하고 있으면 되는 줄 아니?”

잘못된 성역할 고정관념

있으면 되는 것 줄 아니?
- 당신은 너무합니다 (MBC)

예비 시어머니(정혜선)는 며느리(엄정화)에게
가사노동을 강요하고,
며느리의 화려한 외모를 지적합니다.

☑️ “진육이는 특히 오빠고 낯자니까, 엄마한테 든든한 아들 됐으면 좋겠어”



잘못된 성역할 고정관념

◀인색한 아내> (KBS2)

이혼 후, 오랜만에 자녀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아빠(윤상현)는 유독 아들의 역할만을 강조합니다.
엄마를 지키는 건 아들만의 역할일까요?



☑️ “우리 집안 대를 끊으려고 작정을 했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당장!”

여성은 출산을 위한 도구??



◀어영 소리 장남구> (SBS)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 시어머니(유지나)는 며느리에게
한약을 억지로 먹으라고 강요합니다.



☑️ “아무나 오는 곳 아니라고, 유설옥 씨! 여기 아들한테 집 아니에요.”

여성은 전문직일 수 없다??



◀우리의 여권> (KBS2)

민간인 전문 프로파일러인 유설옥(최강희)은
자신을 막아서는 형사 하완승(권상우)에게 명패를 보여줬으나
여전히 그녀의 전문성을 무시당합니다.



☑️ 핫팬츠를 입은 피해여성, 다리를 클로즈업하는 카메라

피해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



◀우리의 여권> (KBS2)

살인사건의 현장, 핫팬츠 차림으로 살해당한 여성.
카메라는 다리에서부터 피해여성의 몸을 천천히 비춰줍니다.
피해 여성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그대로 반영한 장면입니다.



시대상을 반영하고
문화를 생산해 내는 미디어.
드라마에서의
성차별적 언어와 장면은
현실에서의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이미지를
고착화합니다.



방송 제작진은
성평등한 대안적 가치를 생산하는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시청자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지켜보고 소통하는 역할을
함께 해야 합니다.



■ 심의 개선 요청 현황

○ 정기 모니터링에 따른 심의요청

전체	방송 분야				통신 분야	
	드라마	예능	야간	광고	커뮤니티	기사
122건	13	14	12	5	71	7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결과 : 문제없음(22), 심의중(93)

* 한국신문윤리위원회 결과 : 심의중(7)

번호	구분	요청일	주요 내용	결과
1	인터넷 (기사)	12.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체/일자) 스포츠동아박수홍 방송서 폴댄서 강사에.../ `17.11.6. •(내용) 케이블 채널에서 남성 연예인들이 여성 강사에게 폴댄스를 배우는 장면이 방송됨. 폴댄스에 서툰 남성 연예인들이 강사와 함께 고난도 동작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선정적인 장면이 연출됨. 기사에서는 유독 해당 장면의 사진과 함께 제목으로 “소송감이야”라며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함 •(관련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3항(사회적 책임), 4항(차별과 편견의 금지) 	심의중
2	인터넷 (기사)	12.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체/일자) 마투데이183m 미녀골퍼산모갈 바카로 댄스댄서 `17.11.2. •(내용) 프로골퍼 산드라 같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밸런스 액트”란 글과 함께 올린 사진을 소개함. 소개 기사의 제목과 내용에 줄곧 ‘미녀’라는 수식어를 붙여 여성 운동선수의 외모만을 강조하고 있음 •(관련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3항(사회적 책임), 4항(차별과 편견의 금지) 	심의중
3	인터넷 (기사)	12.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체/일자) 아시아경제 [포퓰러하라, 악마코스프레이 외중에 섹시/ `17.11.1. •(내용) 배우 겸 가수 구하라가 할로윈데이를 맞아 악마 코스프레한 사진을 자신의 SNS(인스타그램)에 게재한 것을 그대로 보도하며 “이 외중에 섹시”하다는 제목과 “특히 초미니 원피스와 망사 스타킹으로 섹시한 매력까지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라는 내용으로 성적대상화하고 있음 •(관련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3항(사회적 책임), 4항(차별과 편견의 금지) 	심의중
4	인터넷 (기사)	12.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체/일자) 스포탈코리아시선 쓸어담는 무결점 모델/ `17.11.1. •(내용) 쇼핑몰 모델 김예림의 인스타그램에서 차용한 사진을 게재한 기사. 비키니를 입은 그녀를 “굴곡진 몸매”와 “섹시한 매력”이라고 표현하고 “시선을 쓸어담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화된 여성에 대한 성적 시선을 부각시킴 •(관련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3항(사회적 책임), 4항(차별과 편견의 금지) 	심의중

번호	구분	요청일	주요 내용	결과
5	인터넷 (기사)	12.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체/일자) 스포츠동아'비행소녀'이태임 별명'울산의 조오련', 섬으로 수영하러 다녀/ `17.11.7. •(내용) 배우 이태임이 어릴 때부터 물을 좋아하여 수영을 즐긴다는 내용이나, 메인 페이지에 노출된 제목은 "여전한 수영복 자태, 국보급 몸매에 깜짝"이라는 워딩으로 성적 호기심을 자극함 •(관련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3항(사회적 책임), 4항(차별과 편견의 금지) 	심의중
6	인터넷 (기사)	12.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체/일자) 코리아헤럴드 '영상'분홍빛 여대생의 복분자 댄스/ `17.11.2. •(내용) 전북 고창에서 열린 유행가 부르기 대회에 출연한 여성이 노래하는 영상을 게재한 기사임. 스테미너 음식과 '분홍빛 여대생'이란 단어를 사용한 제목에서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함 •(관련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3항(사회적 책임), 4항(차별과 편견의 금지) 	심의중
7	인터넷 (기사)	12.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체/일자) 아시아경제[포퓰골프 여신 인신애 과감한 탈의 깜짝] `17.11.1. •(내용) 기사의 내용에는 "이날 안신애는 날이 더워지자 입고 있던 비옷을 과감하게 탈의하고 경기에 임했다."라고 쓰여있으나, 기사 내용과는 달리 "갑자기 지퍼를....", "과감한 탈의 '깜짝'"이라며 네티즌의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선정적인 제목을 사용하고 있음 •(관련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 3항(사회적 책임), 4항(차별과 편견의 금지) 	심의중
8	방송 (예능)	11.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체/일자) JTBC'이론상 완벽한 남자'/ `17.10.2. •(내용) 출연자 임다연을 소개하는 과정에서'캠퍼스의 여신','올해의 목표는 독서왕','취미는 볼링','특기는 응원','매일 하는 일상체 하체 운동'이라며 외모나 취미 위주로 소개함. 여성 출연자의 얼굴이나 몸매 위주로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며 예쁜 외모가 하나의 스펙인 듯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고 있음. •(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심의중
9	방송 (예능)	11.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체/일자) TVN'20세기 소년 탐구 생활'/ `17.10.5. •(내용) '언제 제일 퇴사를 결심할까'란 질문에 대한 통계를 설명하며 삽화를 내보냄. 삽화에서 출근을 부담스러워 하는 사람은 여성, 직장에서 부하직원을 괴롭히는 상사(가해자)는 남성, 괴롭힘을 당하는 부하직원(피해자)은 여성으로 표현함. 직장에서의 남성-여성의 역할과 성격에 대한 고정관념을 드러냄. •(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심의중
10	방송 (예능)	11.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체/일자) KBS2'발레교습소 백조클럽'/ `17.10.6. •(내용) 발레를 처음 배워보는 여성 연예인들이 발레를 배우면서 	심의중

번호	구분	요청일	주요 내용	결과
			<p>사람들과 소통하고 힐링하는 프로그램임. 그러나 발레를 수행하는 여성 출연자 모두가 날씬한 체형이었음. 여성의 체형에 대한 고정관념을 형성하고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있음.</p> <p>•(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p>	
11	방송 (예능)	11. 30	<p>•(매체/일자) KBS2'건반 위의 하이에나'/ `17.10.7.</p> <p>•(내용)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싱어송라이터들의 살벌하고 리얼한 음원차트 생존기를 그린 리얼 음악 예능 프로그램이라는 기획의도를 가짐. 그러나 싱어송라이터가 모두 남성으로 구성됨으로써 작곡과 노래를 겸비한 음악 분야는 남성들의 영역인 것처럼 비춰짐. 또한 진행자로 나온 씨니도 진행을 하기보다는 감탄하고 감동하는 보조 역할에 비중을 둬으로써 주도적 진행자의 이미지 보여주지 못했음.</p> <p>•(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p>	심의중
12	방송 (예능)	11. 30	<p>•(매체/일자) KBS2'하룻밤만 재워줘'/ `17.10.9.</p> <p>•(내용) 남성 출연자 이상민과 김종민이 로마에서 하룻밤을 재워줄 상대를 찾는 과정을 보여줌. 두 남성 출연자는 여러 명의 외국인 여성에게 다가가 하룻밤을 재워줄 것을 부탁함. 외국인 여성이 등장할 때 마다 자막을 통해'이런 미녀의 집에서 하룻밤을?', '얼굴도 영어실력도 착한 러시아 미녀', '미녀 앞에서 용기가 샘솟는 사랑 바보', '이번엔 또 어떤 미녀를 만나게 될까?' 등의 자막을 노출함. 여성의 외모에만 집중하는 두 남성 출연자의 모습과'미녀'를 강조하는 자막을 연속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김.</p> <p>•(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p>	심의중
13	방송 (예능)	11. 30	<p>•(매체/일자) SBS '박스라이프'/ `17.10.9.</p> <p>•(내용) 증견배우 주현이 냉장고를 열며 "콩나물국 좀 끓여 놓으라고 했더니, 고것도 하기 싫어서..", "국내에도 좋은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동남아는 무슨 동남아" 등의 얘기를 함. 전 업주부의 가사 책임을 지적하는 가부장적 남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p> <p>•(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p>	심의중
14	방송 (드라마)	10. 31	<p>•(매체/일자) JTBC'청춘시대2'/ `17.9.2.</p> <p>•(내용) 벨에포크의 집주인 손자인 서장훈(김민석)이 총을 잘못 찾아서 여성들의 숙소에서 샤워를 하는 사이, 조은(최아라)이 집에 들어와 서장훈의 알몸을 보게 되고 서로가 당황하는 장면을 방송함. 이 장면에서 서장훈의 알몸 노출신이 오랜 시간 화면에 비춰졌으며 이는 남성의 알몸 노출이라는 과도한 설정으로 인해 선정적으로 보여짐.</p> <p>•(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p>	심의중

번호	구분	요청일	주요 내용	결과
15	방송 (드라마)	10. 31	<p>•(매체/일자) MBC'밥상 차리는 남자'/ `17.9.3.</p> <p>•(내용) 결혼기념일에 고급식당을 간 홍영혜(김미숙)와 이신모(김갑수) 부부의 대화 장면에서 이신모가 “하여간 대한민국 여편네들. 큰일이야. 남편은 밖에서 7000원 짜리 밥 사먹으면서 하루 종일 일하는데, 집에서 평평 놓고 먹으면서 이런데서 칼질이나 하고.. 진짜 말세다. 말세야.” 라는 대사를 함. 회사 일만 중요하다 여기며 가사일을 폼하고 전업주부를 과소평가함.</p> <p>•(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p>	심의중
16	방송 (드라마)	10. 31	<p>•(매체/일자) KBS2'이름 없는 여자'/ `17.9.4.</p> <p>•(내용) 손여리(오지은)가 시아버지 제사를 지내고 제기를 정리하는 장면이 나오며 심지어 이를 도와주는 아이도 여자 아이였음. 제사음식 준비부터 제기정리까지 여성 혼자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제사준비는 여성의 역할 이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함.</p> <p>•(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p>	심의중
17	방송 (드라마)	10. 31	<p>•(매체/일자) MBC'별별며느리'/ `17.5.1.</p> <p>•(내용) 최한주(강경준)는 황은별(함은정)의 친정에서 “내가 보호자입니다. 은별씨 보호자는 접니다. 함부로 하면 안 참습니다.”라고 말함. “안 참으면 어쩔 건데?”라는 동서의 말에 “처갓집 이랑 인연 끊겠습니다.” 등 여성의 의사는 묻지 않고 남성이 혼자서 결단을 내림. 여성의 주체성을 무시하고 남성 의존성향을 부각시킴.</p> <p>•(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p>	심의중
18	방송 (드라마)	10. 31	<p>•(매체/일자) KBS1'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17.9.5.</p> <p>•(내용) 무순경(임수향)과 차팀장(도지한)이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여성인 무순경은 범인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는 반면 남성인 차팀장은 거뜰하게 범인을 제압하여 체포하는 장면을 방송함. 신체적으로 강인한 여성 경찰을 나약한 것으로 묘사하여 남성 의존성향을 강조함.</p> <p>•(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p>	심의중
19	방송 (드라마)	10. 31	<p>•(매체/일자) KBS2'꽃피어라 달순아'/ `17.9.6.</p> <p>•(내용) 가족 모임에 술을 많이 먹고 취해 들어온 부인을 향해 한강피혁 사장은 “어디서 여자가 술 먹고 들어와서 고성방가야!” 라고 말함. 만취해 소리를 지르는 점을 지적하는데 굳이 '여자가'라는 단어를 사용한 점은 여성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함.</p> <p>•(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p>	심의중
20 ~ 64	온라인 (커뮤니티)	9. 29.	<p>•(매체/일자) 일간베스트 등 커뮤니티 게시물</p> <p>•(내용) 성차별적 게시물 45건(댓글 190건)</p> <p>•(관련조항) 정보 통신심의에 관한 규정</p>	심의중

번호	구분	요청일	주요 내용	결과
65	방송 (광고)	9. 29.	<p>•(매체/광고주) 공중파 / KB국민카드</p> <p>•(내용)'주부생활 7년', '오늘도 생활비 아끼려 우아함을 잊은 나란 여자', '생활비 격하게 아끼고 싶다' 라는 자막과 내레이션이 동시에 나오며 관리비 명세서를 들고 격하게 울먹이는 주부(이유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집안일은 여성의 몫이라는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가사노동의 영역을 과소평가함.</p> <p>•(관련조항)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차별금지)</p>	심의중
66	방송 (광고)	9. 29.	<p>•(매체/광고주) 공중파/ 한국인삼공사</p> <p>•(내용) 등교하는 딸에게 카디건을 챙겨주고 바쁘게 출근하는 남편에게 가방을 가져다주는 주부의 모습이 등장함. 사소한 것까지 엄마, 아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가족들을 모두 보내고 소파에 주저앉는 고단한 가정주부의 모습으로 인해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이 여성만의 역할이라는 고정관념을 조장함.</p> <p>•(관련조항)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차별금지)</p>	심의중
67	방송 (광고)	9. 29.	<p>•(매체/광고주) 공중파 / 리규</p> <p>•(내용) 빨래 세제 광고에서 등장하는 모델은 여성뿐임. 정장바지에 힐을 신고 있는 모델은 커리어 우먼을 연상시키지만, 그럼에도 빨래를 비롯한 가사노동은 여성이 담당한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반영함.</p> <p>•(관련조항)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차별금지)</p>	심의중
68	방송 (광고)	9. 29.	<p>•(매체/광고주) 공중파 / 티지알엔</p> <p>•(내용)'소유 몸매 잘빠졌다. 소유 뒤탈 잘빠졌다.'라는 내레이션과 함께 소유의 몸매를 지나치게 클로즈업하고 걸어가는 여성들의 몸매를 화면 가득 잡아 여성의 몸을 성적대상화함.</p> <p>•(관련조항)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차별금지)</p>	심의중
69	방송 (광고)	9. 29.	<p>•(매체/광고주) 케이블 / 다논 코리아</p> <p>•(내용) "건강한 다이어트는 모든 여자의 희망"이라며 요거트를 통한 건강한 식단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이어트에 대한 욕구를 부추기는 내용임. 건강함의 척도가 다이어트를 통한 외적인 변화(몸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 여성이라면 당연히 다이어트를 해야 하며 날씬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함.</p> <p>•(관련조항)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차별금지)</p>	심의중
70	방송 (예능)	8. 30.	<p>•(매체/일자) tvN 'SNL 코리아 9' / `17.7.1.</p> <p>•(내용) <3분 가게>는 여자친구를 원하는 남성(유세윤)이 메뉴판에서 여자친구를 고른다는 설정의 코너. 메뉴판에는 '청순한 여자친구', '친구 같은 여자친구', '보호본능 여자친구', '과즙녀 여자친구', '뉴페이스의 다양한 여자친구'등 여성을 대상화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짐.</p> <p>•(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p>	심의중

번호	구분	요청일	주요 내용	결과
71	방송 (예능)	8. 30.	<p>•(매체/일자) SBS '런닝맨'/'17.7.2.</p> <p>•(내용) 남성이 여성파트너를 선택하는 장면에서 파트너 키워드 중 '개미허리', '애교' 등 여성의 외모나 여성성을 강요하는 단어를 사용함. 실력과 상관없이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여성을 선택하도록 설정함.</p> <p>•(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p>	심의중
72	방송 (예능)	8. 30.	<p>•(매체/일자) SBS '판타스틱 듀오 2'/'17.7.2.</p> <p>•(내용) 가수와 함께 듀엣으로 노래하기 위해 출연한 일반인들의 넉네임을 살펴보면, 남성들은 직업과 관련된 작명인데 비하여 여성 출연자들은 대부분 '~ 소녀', '~ 딸', '~ 배터리'등으로 작명하여 여성을 대상화하거나 주체성이 없는 사람으로 표현함.</p> <p>•(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p>	심의중
73	방송 (예능)	8. 30.	<p>•(매체/일자) tvN '코미디 빅리그'/'17.7.2.</p> <p>•(내용) <그린라이트> 코너에서 남성(이용진)이 두 여성(장도연,박나래)를 대하는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줌. 키가 크고 날씬한 여성에게는 "완전 내 이상형이에요" 라고 말하는 반면 키가 작고 뚱뚱한 여성에게는 "아줌마", "꺼지세요", "아저씨"등의 비하 발언과 무시하는 모습을 연속적으로 보여줌. 여성의 외모를 근거로 남성의 반응이 상반된 장면을 묘사하여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함.</p> <p>•(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p>	심의중
74	방송 (예능)	8. 30.	<p>•(매체/일자) KBS2 '개그콘서트'/'17.7.2.</p> <p>•(내용) <명훈아 명훈아 명훈아> 코너에서 남성(정명훈)을 둘러싼 세 명의 여성(김민경,오나미,이현경)이 남성 앞에서 섹시한 춤을 추며 "나 요즘 썸탄다", "설레겠다"라는 대사와 함께 남성의 몸을 만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만지는 것은 성폭력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설정임.</p> <p>•(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p>	심의중
75	방송 (드라마)	6. 30.	<p>•(매체/일자) MBC '훈장 오순남'/'17.5.1.</p> <p>•(내용) 서당의 아이들의 장면에서 "와~ 너 밥 더 잘먹을거야?"라며 뚱뚱한 아이에게 말하고 깔깔대며 조롱하는 모습과 친구간의 말싸움에서 "조그만한 게!", "왜? 이 꿀꿀아!" 등의 대사로 상대방의 외모를 비하하며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함.</p> <p>•(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p>	<p>•(결과) 문제없음 /8.11.</p> <p>•(사유) 상황의 전후 맥락과 그 표현수위를 고려</p>
76	방송 (드라마)	6. 30.	<p>•(매체/일자) SBS'아침 소리 강남구'/'17.5.1.</p> <p>•(내용) 홍명숙(차화연)이 사돈에게 "영화(나야)가 대를 못 이으니 이혼시켜야겠어요." 라고 말함. 며느리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이유로 이혼을 종용하는 것은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써 표현한 장면임.</p> <p>•(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p>	<p>•(결과) 문제없음 /8.11.</p> <p>•(사유) 장르적 특성과 유사 심의사례의 형평성 등을 고려</p>

번호	구분	요청일	주요 내용	결과
77	방송 (드라마)	6. 30.	<p>•(매체/일자) MBC'훈장 오순남' / `17.5.2.</p> <p>•(내용) 예비부부인 기승재(김형민)와 황세희(한수연)의 결혼 축하 모임 중 진실게임을 하는데, 기승재가 황세희에게 “나는 과거에 가출을 한 적이 있다?”, “나는 과거에 애를 낳은 적이 있다?” 는 질문을 함. 상대방을 성희롱 하는 질문임에도 진실게임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되고 가볍게 여길 수 있음을 표현함.</p> <p>•(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p>	<p>•(결과) 문제없음 /8.11.</p> <p>•(사유) 장르적 특성과 유사 심의사례의 형평성 등을 고려</p>
78	방송 (드라마)	6. 30.	<p>•(매체/일자) tvN'그녀는 거짓말을 사랑해' / `17.5.2.</p> <p>•(내용) 강한결(이현우)이 친구 지인호(장기용)에게 “아, 과일 먹을까? 내가 깎아줄게.” 라고 하자 지인호가 “아, 남자가 깎으면 당도가 반으로 줄어든다는 연구결과 모르냐?” 라고 대답함. 친구 간의 가벼운 농담이지만 '과일은 여성이 깎아야한다'는 의미를 내포함.</p> <p>•(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p>	<p>•(결과) 문제없음 /7.20.</p> <p>•(사유) 장르적 성과 함께 그 표현수위, 해당 내용의 전후 맥락 등을 고려</p>
79	방송 (드라마)	6. 30.	<p>•(매체/일자) MBC'훈장 오순남' / 17.5.3.</p> <p>•(내용) 기승재(김형민)에게 농락당해서 약을 먹고 병원에 실려온 차유나(서혜진)에게 엄마인 모화란(금보라)이 “몸이 무기라고 큰 소리 치더니 누구한테 팔아먹었어!” 라고 말함. 여성의 몸을 성적인 도구로 표현함.</p> <p>•(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p>	<p>•(결과) 문제없음 /8.11.</p> <p>•(사유) 장르적 특성상 극단적인 상황에서 다소 부적절한 언어가 사용될 수 있는 점, 유사 심의사례와 형평성을 고려</p>
80	방송 (드라마)	6. 30.	<p>•(매체/일자) KBS2'추리의 여왕' / `17.5.3.</p> <p>•(내용) 하완승(권상우)이 살인사건 현장 감식을 하는 장면에서 짧은 반바지 차림의 피해여성다리 부분을 클로즈업 함. 피해 여성의 옷차림 설정이 짧은 반바지인 점과 신체부위를 강조한 촬영으로 선정적으로 표현됨.</p> <p>•(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p>	<p>•(결과) 문제없음 /8.11.</p> <p>•(사유) 해당 장면이 다리부분만을 특히 지나치게 클로즈업하였다고 보기 힘들고, 표현 수위 등에 있어서도 기존 심의사례와 비교할 때 문제삼을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움</p>
81	방송 (드라마)	6. 30.	<p>•(매체/일자) MBC'당신은 너무 합니다' / `17.5.7.</p> <p>•(내용) 예비 시어머니 성경자(정혜선)가 유지나(엄정화)에게 “대신 식구들 식사 부탁한다. 안주인 되려면 식구들 끼니는 챙겨야지. 묵하면 배워. 분만 뽀얗게 바르고 입술만 빨갛게 칠하고 있으면 되는줄 아니. 누리고 싶은게 있으면 할 바가 생기는데야” 라고 말함. 전통적 관념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는 유지나에게 가족을 위한 희생을 강요함.</p> <p>•(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p>	<p>•(결과) 문제없음 /8.11.</p> <p>•(사유) 드라마의 장르적 특성상 극적인 상황 설정이 사용될 수 있는 점과 그 표현수위를 고려</p>
82 ~ 107	온라인 (커뮤니티)	5. 31.	<p>•(매체/일자) 일간베스트 등 커뮤니티 게시물</p> <p>•(내용) 성차별적 게시물 26건(댓글 125건)</p> <p>•(관련조항) 정보 통신심의에 관한 규정</p>	심의중

번호	구분	요청일	주요 내용	결과
108	방송 (어린이)	5. 31.	<p>•(매체/일자) EBS '소피루비' / `17.4.2.</p> <p>•(내용) 등장인물들이 13세의 학생인데 짧은 치마와 몸매가 부각되는 의상을 입고, 날씬한 몸매와 긴 다리로 그려지며 외모지상주의를 조장.</p> <p>•(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p>	<p>•(결과) 문제없음 /7.7.</p> <p>•(사유) 주 시청자들이 시청하기에 지나치게 선정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기존 유사사례 등을 고려</p>
109	방송 (어린이)	5. 31.	<p>•(매체/일자) EBS'소피루비'/ `17.4.2.</p> <p>•(내용) 13세 루비가 19세 소피로 변신할 때 여성의 알몸을 클로즈업하여 보여줌으로써 미성년자 여성을 선정적으로 표현.</p> <p>•(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p>	
110	방송 (어린이)	5. 31.	<p>•(매체/일자) MBC'텔레몬스터'/ `17.4.2.</p> <p>•(내용) 주제가와 함께 나오는 장면에서 여시(여)는 공주 옷을 입고, 마릴린 먼로를 흉내내고 치어리딩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 화장을 하거나 치마를 입는 등 여성은 항상 예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으로 표현.</p> <p>•(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p>	<p>•(결과) 문제없음 /7.7.</p> <p>•(사유) 주제가 가사가 지적하신 가사와 다소 차이가 있으며, 여성 캐릭터가 총을 쏘거나 공을 던지는 모습 등이 방송되어 여성을 항상 예쁜 모습만을 보여야 한다는 것으로 표현했다고 보기 어려움</p>
111	방송 (어린이)	5. 31.	<p>•(매체/일자) MBC'텔레몬스터'/ `17.4.2.</p> <p>•(내용) 주제가 가사 중 "새침새침 미끈미끈 흘리는~, 카리스마 눈빛눈빛 흘리는~, 핑크빛 몸을 빚고~" 라는 가사가 포함되어 여성의 성적 이미지를 강조.</p> <p>•(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p>	
112	방송 (어린이)	5. 31.	<p>•(매체/일자) EBS'정글에서 살아남기-마루의 어드벤처'/17.4.3.</p> <p>•(내용) 마루(남)와 카이(남)는 시종일관 용감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 아라(여)는 악당에게 쉽게 유인되는 나약한 모습으로 그리며 여성을 수동적이고 보호받는 대상으로 표현하고 남성은 이러한 여성을 구하는 영웅으로 표현.</p> <p>•(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p>	<p>•(결과) 문제없음 /7.7.</p> <p>•(사유) 두 명의 남자 주인공은 특별한 능력이 있는 팔찌를 지니고 전투를 하며, 여자 주인공은 정글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캐릭터 설정을 고려할 때, 캐릭터의 특성을 반영한 에피소드 전개라고 볼 수 있음.</p>
113	방송 (어린이)	5. 31.	<p>•(매체/일자) KBS2'자동공부책상 위키2'/17.4.3.</p> <p>•(내용) 지키리우스 백작(남)은 남성을 상징하는 파랑과 하늘색으로, 보호를 받는 까부리아 공주(여)는 빨간 리본과 빨간 신발, 장갑, 분홍 치마 등 색상에 따른 성별 고정관념을 표현.</p> <p>•(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p>	<p>•(결과) 문제없음 /7.10.</p> <p>•(사유) 단순히 캐릭터의 색상이 특정계열 색으로 설정되었다고 해서 이를 성차별적 내용으로 보기 어려움</p>
114	방송 (어린이)	5. 31.	<p>•(매체/일자) 디즈니주니어'코코몽3'/17.4.6.</p> <p>•(내용) 아로미(여)가 "어제보다 몸무게가 0.333kg이나 찌어"라며</p>	<p>•(결과) 문제없음 /6.23.</p> <p>•(사유) 여자 캐릭터가 미세한 몸무게 증가</p>

번호	구분	요청일	주요 내용	결과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심각하지 않은 내용을 과장되게 그리며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김. •(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로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전개상 다소 과장이 있는 애니메이션의 장르적 특성과 이야기의 전반적인 맥락, 기존 유사 방송사례를 고려
115	방송 (어린이)	5. 31.	•(매체/일자) 디즈니채널'미라큘러스 : 레이디버그와 블랙캣'/17.4.6. •(내용) 주인공인 마리네뜨(여)와 아드리앙(남)은 다른 친구들에 비하여 멋진 외모로 표현되며,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다양한 인종 중 백인으로만 표현. •(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결과) 문제없음 /6.23. •(사유) 전반적 맥락과 캐릭터의 특성을 고려할 때 특정 인종을 우월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여성의 신체 일부가 클로즈업 되는 장면이 사용되었으나 노출 시간이 비교적 짧고, 프로그램 전반을 통해 전개되는 맥락상 특정 성에 대한 차별적 이미지를 조성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아가 기존 유사 방송사례를 고려
116	방송 (어린이)	5. 31.	•(매체/일자) 디즈니채널'미라큘러스 : 레이디버그와 블랙캣'/17.4.6. •(내용) 남성의 역삼각형 상체를 강조하거나, 남성을 여성에 비하여 비현실적으로 큰 체구로 표현. •(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117	방송 (어린이)	5. 31.	•(매체/일자) 디즈니채널'미라큘러스 : 레이디버그와 블랙캣'/17.4.6. •(내용) 마리네뜨(여)의 변신 과정에서 허리와 엉덩이를 지나치게 클로즈업하여 선정적으로 표현. •(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118	방송 (어린이)	5. 31.	•(매체/일자) 디즈니채널'미라큘러스 : 레이디버그와 블랙캣'/17.4.6. •(내용) 클로이(여)가 디지털 세상에 갇힌 상태에서도 사랑하는 아드리앙(남)과 단 둘이 있게 되었다며 매달리고, 안기는 등의 모습을 수차례 보여줌으로써 여성은 남성의 사랑을 갈구하고 의존적인 여성의 모습을 표현. •(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119	방송 (어린이)	5. 31.	•(매체/일자) JEI'다이노코어'/ `17.4.7. •(내용) 렉스(남)가 "훈련 끝나고 만나"라며 손을 흔들며 떠나는 장면에서 뒤이어 에밀리(여)는 거울을 보며 "렉스 어디 놀러갈래?" 라며 흐뭇한 표정을 짓는 등 지구를 지키는 남성과 그런 영웅을 기다리는 여성을 보여주며 수동적이고 주체성이 결여된 모습으로 표현. •(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결과) 문제없음 /6.23. •(사유) 친구 간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수준으로 남녀의 차이보다는 다이노마스터가 되기 위해 훈련해야 하는 렉스 캐릭터의 특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음
120	방송 (예능)	4. 20.	•(매체/일자) MBC every1 '주간 아이돌'/ `17.3.8. •(내용) 진행자가 국방부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걸그룹을 초대했다고 발언과'남자 시청자들 만족 하십니까', '전국 내무반 들썩 들썩' 등의 자막을 노출. •(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결과) 문제없음 /5.11. •(사유) 여성 출연자에 대한 성차별적 맥락으로 노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및 노출 수위와 기존 유사 심의 사례를 고려

번호	구분	요청일	주요 내용	결과
121	방송 (예능)	4.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체/일자) TV조선 '애정통일 남남북녀 시즌2' / '17.3.10. •(내용) 출연하는 가상부부 간의 호칭이 남성출연자들은 대부분 여성출연자들에게 '너', '이름', '마누라' 같은 여성을 하대하는 호칭을 사용하고, 여성출연자는 남성출연자에게 존칭을 사용. •(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과) 문제없음 /6.2. •(사유) 성차별적인 내용이 방송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예능 프로그램의 장르적 특성 등을 고려
122	방송 (예능)	4.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체/일자) KBS2 '해피선데이-1박2일 시즌3' / '17.3.12. •(내용) 채석강에서 치명적인 컨셉으로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남성들은 포즈를 취하고, 그들의 다리 사이로 바닥에 드러누운 여성은 다양한 표정 변화를 보여줌. 카메라는 그녀를 바라보는 남성 출연자들의 모습들을 각각 클로즈업 했고, '치명적'이라는 멘트와 '퇴폐미&관능미의 치명적 부조화' 등의 자막을 노출. •(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제35조(성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과) 문제없음 /6.2. •(사유) 여성 출연자에 대한 성차별 또는 성희롱의 맥락으로 노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연예오락프로그램에서 출연자의 캐릭터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해당 프로그램의 장르적 특성과 유사 심의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

○수시모니터링에 따른 심의요청

전체	방송 분야			통신분야	기타분야
	드라마	예능	뉴스	웹툰	어린이 학습서
15건	3건	7건	2건	2건	1건

** 결과: 문제없음(2), 심의중(11), 전달(1), 조치(1)

○심의결과

번호	구분	요청일	주요 내용	결과
1	방송 (예능)	11.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체/일자) 온스타일 '뜨거운 사이이다' / '17.11.2. •(내용) '공개적인 노브라에 대한 생각'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출연자가 "위험성으로 치면 가슴이 위험한 게 아니라 남자의 성기가 위험한 것"이라며 "개 입마개처럼 채우면 안 되냐"고 말함. 남성에 대한 부정적, 혐오적 표현을 그대로 방송함. •(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심의중
2	방송 (뉴스)	11.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체/일자) TV조선 '종합뉴스7' / '17.11. 5. •(내용) <집단 성관계 알선하고 음란물 유포> 기사의 자료화면으로 여성 한 명이 침대 위에 앉아 있고, 상의를 탈의하거나 탈의하지 않은 8명의 남성이 그 침대 주변에 서서 손을 뻗고 있는 모습을 그린 삽화를 내보냄. 사건보도에 필요하지 않은 선정적인 장면을 노출함. •(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심의중

번호	구분	요청일	주요 내용	결과
3	방송 (뉴스)	11. 7.	<p>•(매체/일자) 채널A '뉴스A' / `17.11. 5.</p> <p>•(내용) 한샘 성폭력 의혹 사건을 다룬 <“은폐&무마”에 치솟는 분노>에서 5초 가량 남성이 여성의 맨 다리를 더듬는 재연 장면을 자료화면으로 보여줌. 또한 <아내 목 조르며 '살해 연습'>에서는 실루엣으로 남편이 아내의 목을 조르는 모습을 5초가량 자료화면으로 보여줌.</p> <p>•(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p>	심의중
4	통신 (웹툰)	11. 1.	<p>•(매체/일자) 레진코믹스 '박씨유대기' / `17.10.10.</p> <p>•(내용) 학교를 배경으로 한 전체관람등급의 웹툰임에도 내용에 상관없이 여성의 몸매가 부각되는 장면, 유사 성행위 장면이 빈번하게 등장하며, 범죄를 정당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음.</p> <p>•(관련조항)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 8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p>	심의중
5	방송 (드라마)	10. 20.	<p>•(매체/일자) tvN '이번 생은 처음이라' / `17.10.10.</p> <p>•(내용) 직장 동료(남성)가 회사에서 잠을 자려고 하는 여자 주인공에게 술에 취해 다가와 신체 접촉을 강요하는 장면이 방영됨. 성폭행 장면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적으로 묘사하고 긴 시간동안 방송함.</p> <p>•(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6조(생명의 존중)</p>	심의중
6	방송 (드라마)	8. 24.	<p>•(매체/일자) KBS2 '이름 없는 여자' / `17.6.13.</p> <p>•(내용) 구해주(최윤소)의 침구가게에서 홍보물 사진을 찍는 장면에서 여성 모델이 상의를 모두 벗은 채로 침구에 누워있는 것으로 연출. 카메라 각도를 이불 끝에서부터 모델의 가슴 골이 보이는 위쪽으로 쪽 끌어 올려서 보여주며 여성을 성적 대상화, 성상품화함.</p> <p>•(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p>	심의중
7	방송 (예능)	8. 24.	<p>•(매체/일자) KBS2 '개그콘서트' / `17.6.11.</p> <p>•(내용) 개그우먼 오나미가 석류를 들고 “미녀는 석류를 좋아...”라고 노래를 부르는 순간 커튼이 올라가면서 더 이상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연출. 또한 오나미가 “나도 어쩔 수 없는 여자...”라고 말하는 순간 커튼이 올라감. 사회자들은 “그래도 귀엽지 않습니까? 진짜요?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겁니다”라고 말하는 등 여성 개그우먼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함. 예쁘지 않다고 여겨지는 여성을 희화화하고 비하하는 표현이며,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는 장면임.</p> <p>•(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p>	심의중
8	방송 (예능)	8. 24.	<p>•(매체/일자) MBN '속풀이쇼 동치미' / `17.7.8.</p> <p>•(내용) 개그맨 최홍림은 자신의 아내가 살찌면 이혼하겠다 라는 선언에 대한 에피소드를 소개하며 “아내가 살찌면 이혼이다”, “모델같은 몸매였을 때 어떤 놈 만났냐?”, “(내가) 말해서 스트레스</p>	심의중

번호	구분	요청일	주요 내용	결과
			<p>받더라도 그나마 지금 유지하는 거지, 만약에 내가 말 안하고 많이 먹어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나” 등의 발언을 함. 장경동 목사는 최홍림의 말에 동의한다며 “똑같은 아내를 껴안았을 때 날씬했을 때와 살찐 때 다르다”, “남자 입장에서 날씬한 여자를 휘어감는 것하고 뚱뚱한 여자를 휘어감는 것하고 (다르다)”라고 발언함. 여성은 당연히 마른 몸매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며, 몸을 기준으로 여성을 평가하는 잘못된 인식을 강화시킴.</p> <p>•(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p>	
9	방송 (예능)	8. 24.	<p>•(매체/일자) tvN ‘SNL 코리아 9’/ `17.8.12.</p> <p>•(내용) 남성들은 휴대폰 카메라를 사용해 멀리 있는 여성들의 몸을 보았고 카메라 확대 기능을 사용해 가슴을 더 크게 보기도 함. 몰래 카메라를 소재로 한 방송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감소시키며, 범죄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휴대폰을 이용한 몰래카메라 범죄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장면으로 범죄를 부추기고 합리화하는 장면.</p> <p>•(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p>	심의중
10	방송 (드라마)	7. 14.	<p>•(매체/일자) MBC ‘별별며느리’/ `17.6.23.</p> <p>•(내용) 남편과 함께 친정집에 방문한 황금별은 아이를 낳으면 엄마(나명자)에게 말하고 일을 하겠다고 말하자, 아버지(황호식)는 “결혼을 했으면 내조도 하고, 살림도 하고, 애도 키워야지”라고 말하며 결혼한 여성의 역할을 규정하였고, 동생 은별은 “그건 아기가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랄 권리를 빼앗는 거야”, “내 애를 왜 엄마한테 맡기냐?”라고 말하며 황금별을 타박함. 또한 아버지의 회사 일을 배우라는 아버지의 권유에 딸이 “오빠(박민호)랑 금별언니가 있잖아”라고 거절하자 황금별의 시어머니(윤소희)는 “금별이는 애 낳고 살림해야지. 시집왔으면 시집가풍을 따라야지, 지맘대로 다 할 수 있어?”라고 말함. 결혼한 여성에 대한 획일화된 전통적 성 역할을 강요하는 장면</p> <p>•(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p>	심의중
11	방송 (예능)	7. 6.	<p>•(매체/일자) MBC ‘라디오스타’/ `17.6.21.</p> <p>•(내용) 모델 한혜진의 수영복 사진을 실물로 보여준 진행자 김구리는 이 사진을 지속적으로 응시하고 모습 보여줌. 사진을 응시하는 김구리를 구박하던 진행자 윤종신은 “나는 내 휴대폰으로 보면 돼”, “나중에 따로 휴대폰으로 이렇게 (특정 부위만) 눌러 봐야지”라는 발언을 이어갔고 이것이 자막으로 방송. 여성의 몸을 대상화하는 인식을 반영하고, 시선에 의한 성희롱으로 이어질 수 있음.</p> <p>•(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p>	심의중
12	출판물 (학습서)	6. 20.	<p>•(매체/일자) 어린이 학습서 ‘재미있는 수수께끼 천국’</p> <p>•(내용) 해당 도서의 내용은 저급하거나 비윤리적인 내용이 많아, 어린이의 학습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특히 성차별적인 내용이나 특정 성을 비하하는 내용이</p>	<p>•(결과)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심의 대상을 간행물 중에서도 만화, 사진집, 화보집, 소설, 전자출판물, 외국간행물 등</p>

번호	구분	요청일	주요 내용	결과
			<p>다수 들어있음. 이러한 내용이 유머로 치부되며, 어떠한 비판의식도 없이 어린이들 사이에서 배포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도서에 대해 심의·제재를 요청함</p> <p>'호랑이가 강에 갔다'를 세 글자로 하면? -강간범 (p10)</p> <p>부인이 남편에게 매일 같이 주는 상은? -밥상 (p,61)</p> <p>절세미녀란? -절에 세들어 사는 미친 여자 (p.100) 등</p>	<p>으로 한정. 해당도서는 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음.</p> <p>그러나 내용에 문제가 있음을 판단하고, 출판사 와이앤엠 대표와 통화를 통해, 해당 도서에 대한 회수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 재판 발행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정할 것을 약속 받음.</p>
13	방송 (예능)	6. 16.	<p>•(매체/일자) E채널 '내 딸의 남자들' `17.6.3.</p> <p>•(내용) 프로그램의 컨셉을 “딸 연애 파파라치 토크쇼”라고 말하며, 프로그램 내내 남성의 가부장적인 시선으로 딸의 연애를 훑쳐보는 듯 한 연출. 프로그램에서는 아빠가 다른 남성에게 자신의 소유물인 딸을 빼앗기는 것처럼 표현하는 가부장적 사고와 남녀의 스킨십 등 사적인 영역을 훑쳐보는 관음적인 시선이 계속해서 노출.</p> <p>•(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p>	<p>•(결과) 문제없음 /8.11.</p> <p>•(사유) 프로그램의 기획의도와 설정에 대한 부분은 방송사의 고유 권한인 점, 사회통념상 문제가 될 정도로 성역할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아울러 기존 유사사례를 고려</p>
14	통신 (웹툰)	5. 19.	<p>•(매체/일자) 네이버 웹툰 '웃지 않는 개그반' `17.5.9.</p> <p>•(내용) 데이트에서 무엇을 할지 묻는 여학생에게 남학생은 “이거 다 끝나면 그 때 보자고. 생각해 둔 게 있으니” 라고 대답하면서 속마음으로 '데이트 폭력이 뭔지 보여줄게'라고 말하는 장면. 여성을 괴롭히는 것 자체를 웃음거리로 삼는 등 차별적 내용이 아무런 제재 없이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음.</p> <p>•(관련조항)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 8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p>	<p>•(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한국만화가협회가 체결한 '웹툰 자율규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한국만화가협회에 통보</p>
15	방송 (예능)	4. 20.	<p>•(매체/일자) KBS2 '해피선데이-1박2일 시즌3' `17.3.12.</p> <p>•(내용) 채석강에서 치명적인 컨셉으로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남성들은 포즈를 취하고, 그들의 다리 사이로 바닥에 드러누운 여성은 다양한 표정 변화를 보여줌. 카메라는 그녀를 바라보는 남성 출연자들의 모습들을 각각 클로즈업 했고, '치명적' 이라는 멘트와 '퇴폐미&관능미의 치명적 부조화' 등의 자막을 노출.</p> <p>•(관련조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 제35조(성표현)</p>	<p>•(결과) 문제없음 /6.2.</p> <p>•(사유) 여성 출연자에 대한 성차별 또는 성희롱의 맥락으로 노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연예오락프로그램에서 출연자의 캐릭터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으로, 해당 프로그램의 장르적 특성과 유사 심의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p>

■ 시민이 제보한 미디어 속 성차별

구분	제목	내용(제보자)
오락 · 예능	On style 〈립스틱 프린스〉	 <p>프로그램 전체적인 컨셉이 여성을 성적 대상, 남성의 연애대상, 공주, 인형 취급하고 있습니다. MC와 패널은 모두 남자아이들이고 게스트는 여자 아이돌이나 여자배우, 여자모델로 패널들이 해당 게스트를 메이크업해줍니다. 기존의 메이크업프로그램은 전문적인 정보전달이 목적이었다면 이 프로그램은 남성판타지의 충족이 목적인 거 같아요. 프로그램 코너 중 하나로 '여자퀴즈'가 있는데 게스트가 문제를 내고 패널이 맞추는 형식이며 퀴즈를 맞추면 게스트가 애교를 부려 상을 줍니다(권나영).</p>
오락 · 예능	SBS 〈런닝맨〉	<p>8월 20일 방송에서는 커플레이스가 진행되었습니다. 여름방학 특집으로 MT를 가는 설정이었는데, 여장을 한 남성멤버 2명을 포함한 여성 4명은 핑크색 티셔츠, 남성 4명은 파란색 티셔츠로 갈아입고 레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킨더 조이 초콜릿에서도 핑크색은 여자 것, 파란색은 남자 것으로 굉장히 가시적으로 성 고정관념이 부각되었습니다.(이지승).</p>

구분	제목	내용(제보자)
오락 · 예능	XTM 〈남원상사〉	 <p>이 프로그램의 모든 서사는 '남자들의 기 살려주기 프로젝트'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남성에 대해 알려진 여러 속설들을 실험 카메라 형태로 확인하는 '남자 생태 연구소'에서는 데이트 도중 남자친구에게 번호를 물어보는 낯선 여성의 존재에 대해 여자친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아보거나 주차 못하는 여성을 도와 주고 난 후 그 여성이 번호를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지 등등 이러한 상황을 계속해서 연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에서 등장하는 여성들은 '예쁘고' '애교있으며', 이들은 남성들의 기를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남자들의 수다라는 것이 프로그램의 기획의도지만 실상 프로그램을 보면 모든 기획이나 진행방식이 여성들을 매개로 하고 있습니다. 남성의 '기를 살리기 위해 여성을 수단화하고 여성이 남성의 '기를 죽이는 원인이라는 식의 편 가르기나 '남성은 ~할 것이다'라는 프레임에 가두는 남원상사는 성차별을 재생산하고 있을 뿐입니다. 게다가 출연자인 장동민은 키스를 잘 못하는 여성을 두고 송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과거에 여성혐오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던 장동민을 캐스팅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으며, 그러한 문제들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불편합니다(성임은).</p>
오락 · 예능	JTBC 〈아는형님〉	 <p>게스트로 배우 고준희가 등장한 방송에서는 여배우에 대한 각종</p>

구분	제목	내용(제보자)
		<p>외모 평가가 난무했습니다. 또한 몸매가 부각되는 치마가 아니라 바지를 입고 등장하자 패널들은 노골적으로 실망하는 기색을 내비쳤습니다(이지승).</p>
<p>오락 · 예능</p>	<p>JTBC 〈믹스나인〉</p>	 <p>양현석 대표가 28살이라는 준비생에게 "은퇴할 나이다", 섹시하게 춤추는 연습생들을 보고 "우리 애들은 왜 나한테 이렇게 안해주지?" 하는 발언들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된 시청자들이 청소년들이 많은데 여성 아이돌을 가수가 아닌 상품처럼 이야기하는 모습이 좋지 않아보여요(김현숙).</p>
<p>드라마</p>	<p>tvN 〈변혁의 사랑〉</p>	 <p>변혁의 사랑에서 최시원이 여배우 가슴 만지는 성희롱 장면 버젓이 등장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장면이 유머러스한 장면으로 소비되었다는 것입니다(이지승).</p>
<p>드라마</p>	<p>SBS 〈수상한파트너〉</p>	<p>“딸 가진 부모가 뭐 이렇게 당당해?”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이는 노지욱 변호사 어머니가, 은봉희 변호사 어머니에게 하는 대사입니다. 이는 분명히 성차별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박별).</p>
<p>다큐멘터리</p>	<p>MBC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p>	 <p>2017년 11월 5일 방송에서 김보연씨 발언이 불편합니다. 자신의 몸매관리를 언급하며 "여자이기를 포기하면 안돼요"라거나 "저도</p>

구분	제목	내용(제보자)
		<p>배우가 아니었다면 먹고 자고 했을 것"이라는 표현은 날씬하지 못하면 여자이길 포기한 사람, 배우가 아닌 여자들은 집에서 먹고 잔다는 식으로 들립니다. 배우로서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취지의 말이겠지만 표현방법이 잘못었다고 생각합니다(전외순).</p>
광고	모바일 게임	 <p>꼭 이렇게 게임을 광고 해야 할까요? 삼국지 이야기라면 유비관 우장비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여성의 몸을 상품화한 선정적인 그림이 매우 불편합니다(김진주).</p>
광고	생리용품	 <p>생리용품인 화이트 광고는 여성의 신체에 대한 이해 없이 제작되었습니다(이지승).</p>
뉴스	연합뉴스 (2017/5/30)	<p>“강한 아줌마’ 김현미 유리천장 깨고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라는 기사를 고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음을</p>

구분	제목	내용(제보자)
		<p>보고하는 기사의 제목에 '아줌마'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상당히 불편합니다.</p> <p>김현미 장관후보자는 참여정부 청와대 국내언론비서관, 정무비서관을 지낸 바 있고 현재도 국회의원으로 다양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유능한 인물이나, 그녀를 한낱 '아줌마'로 인식하게 할만한 제목으로 보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허지현).</p>
뉴스	세계일보 (2017/8/20)	 <p>기사 의도를 알 수 없는 여자 연예인의 노출에 관한 기사입니다(이지승).</p>
뉴스	OSEN (2017/120/13)	 <p>배우 서신애에 대한 보도가 지나치게 남성중심적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개막식에서 서신애 배우의 노출에 집중했던 언론은 노출만 강조하는 제목의 기사를 연달아 달았으나 다음날 노출이 전혀 없는 의상을 입고 등장한 서신애 배우에 대해 훈계조로 노출을 삼가라는 제목(서신애, '단정한 모습이 가장 예뻐 때')을 달았습니다. 이는 여배우의 몸을 평가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나이에 따른 여성의 옷차림까지 규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지승).</p>

모니터링 체크리스트(드라마)

1. 모니터요원 :

2. 방송사 ① KBS1 ② KBS2 ③ MBC ④ SBS ⑤ JTBC ⑥ tvN

3. 프로그램 명 :

4. 방영일시 : 년 월 일 () -

5. 방영시간대 :

- ① 06:00-08:00 ② 08:00-10:00 ③ 10:00-12:00 ④ 12:00-14:00 ⑤ 14:00-16:00
 ⑥ 16:00-18:00 ⑦ 18:00-20:00 ⑧ 20:00-22:00 ⑨ 22:00-24:00 ⑩ 24:00-06:00

6. 등장인물 성비 분석(단위 : 명)

구 분	인원수	이 름
6-1. 전체		
6-2. 여성		
6-3. 남성		

7. 등장인물 분석(주연1, 주연2, 조연1, 조연2)

7-1. 이름	
7-2. 성별	① 여성 ② 남성
7-3. 연령	① 10대 이하 ② 10대 ③ 20대 ④ 30대 ⑤ 40대 ⑥ 50대 ⑦ 60대 ⑧ 70대 이상 ⑨ 모름
7-4. 직업	① 사장/대표 ② 회사원(팀장/실장/국장/본부장급) ③ 회사원(대리, 과장급) ④ 회사원(평직원) ⑤ 판매사원 ⑥ 안내원 ⑦ 아르바이트 ⑧ 서빙(접객서비스) ⑨ 자영업자 ⑩ 요리사 ⑪ 의사 ⑫ 변호사 ⑬ 검사 ⑭ 판사 ⑮ 경찰(팀장급 이상) ⑯ 경찰(경장/경위) ⑰ 형사 ⑱ 공무원 ⑲ 기자 ⑳ 작가 ㉑ 교수 ㉒ 교사 ㉓ 그 외 특정 분야 전문가 ㉔ 무직 ㉕ 주부 ㉖ 연예인/방송인 ㉗ PD ㉘ 스텐디스/스튜어드 ㉙ 무속인 ㉚ 학생 ㉛ 간호사 ㉜ 농부/어부 ㉝ 해녀/해남 ㉞ 국회의원 ㉟ 장관 ㊱ 비서/수행비서 ㊲ 매니저/로드매니저 ㊳ 회장사모님 ㊴ 범죄자(살인/납치/강도) ㊵ 경비원 ㊶ 공장노동자 ㊷ 고시생/재수생/취준생 ㊸ 운동선수/감독 ㊹ 의료인 ㊺ 백수 ㊻ 모름 (99) 기타_____

7-5. 역할비중	① 주연 ② 조연
-----------	-----------

8. 주요 갈등유발자

8-1. 인물명	
8-2. 성별	①여성 ②남성
8-3. 역할	

9. 주요 갈등해결자

9-1. 인물명	
9-2. 성별	①여성 ②남성
9-3. 역할	

110. 내용분석

- 성평등적 내용(양성평등 기여도)

구분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시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주체성				
현실반영성				
다양성				
대안성				

- 기타 :

- 성차별적 내용

구분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시 (회차)	내용 및 이유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출산의 도구로써의 여성				
여성의 주체성무시/남성 의존성향 강조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외모지상주의 조장				
여성의 성적대상화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단어와 행동의 무분별 사용				
선정성				

- 기타 :

■ **성평등적내용**

1. **주체성** : 여성을 주체로서 다루고 있는가? 여성의 시각에서 문제를 보고 있는가?
2. **현실반영성** : 성불평등적인 젠더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여성이 처한 문제와 상황을 잘 파악하여 남녀 불균형적인 현실을 적절히 묘사하고 있고, 성평등을 위한 문제 해결방식이 과장되거나 희화화되지 않는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는가? 또한 이 문제가 많은 여성의 상황을 대변하는가?
3. **다양성** : 여성과 남성의 역할을 다양하게 표현해 주고 있는가?
4. **대안성** : 대안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 **성차별적내용**

1.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 방송은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내용을 다루는가
 - 가. 남존여비, 남아선호, 여성비하, 가부장제를 강화시키는 내용
 - 나. 순결의 주체를 여성으로만 국한시키는 내용
 - 다. 가사노동을 평가절하하거나 전업주부를 과소평가하는 내용
 - 라. 사회적 직업을 가진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내용
 - 마. 사회적 직업과 권력을 가지지 못한 남성을 무시하거나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조장
 - 바. 여성을 남성의 단순보조나 부속물로 취급하는 내용 혹은 그렇게 보이도록 하는 내용

2. **출산의 도구로써의 여성**

- 방송은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만 보이도록 하는가

3. **여성의 주체성무시/남성 의존성향 강조**

- 방송은 여성의 주체성을 무시하거나 남성 의존적 성향 강조하는가
- 방송은 부부간의 관계를 묘사할 때, 한쪽이 일방적으로 다른 한 쪽에게 복종하는 모습만을 보여주는가

4.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 방송은 여성에 대한 폭력, 성희롱, 성폭력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 방송은 프로그램 내에서 출연자 및 방청객을 성희롱하는 행위 및 언어를 포함하고 있는가

5. **외모지상주의 조장**

- 방송은 출연자의 외모를 미화시켜 외모지상주의를 조장하는가
- 방송은 출연자의 외모를 조롱, 혐오의 대상으로 삼거나 그와 관련된 언어를 사용하는가

6. **여성의 성적대상화**

- 방송은 여성을 남성의 성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인격이나 감정이 없는 물건)으로 묘사하고 있는가

7.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단어와 행동의 무분별 사용**

- 방송은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단어와 행동의 무분별하게 사용하는가

8. **선정성**

- 방송의 흐름과 상관없는 선정적인 장면을 연출하는가

9. **기타**

- 방송은 독신, 한부모, 이혼가족, 재혼가족, 동성가족, 입양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지 않고, 이를 부정적으로 그리거나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 방송은 미망인, 미스, 울드미스, 여사, 과부, 여류, 출가외인 등 가부장적이거나 성차별적인 단어(혹은 어휘, 혹은 표현)를 사용하는가

모니터링 체크리스트(예능·오락)

1. 모니터요원 :

2. 방송사

- ①KBS1 ②KBS2 ③MBC ④SBS ⑤JTBC ⑥채널A ⑦MBN
⑧TV조선 ⑨tvN ⑩MBC every1

3. 프로그램 명 :

4. 방영일시 : 2017년 월 일() : - :

5. 방영시간대 :

- ① 06:00-08:00 ② 08:00-10:00 ③ 10:00-12:00 ④ 12:00-14:00 ⑤ 14:00-16:00
⑥ 16:00-18:00 ⑦ 18:00-20:00 ⑧ 20:00-22:00 ⑨ 22:00-24:00 ⑩ 24:00-06:00

6. 출연자 성비 분석(단위 : 명)

구 분	인원수	이 름
6-1. 전체		
6-2. 여성		
6-3. 남성		

7. 출연자 분석

7-1. 이름	
7-2. 성별	① 여성 ② 남성
7-3. 연령	① 10대 이하 ② 10대 ③ 20대 ④ 30대 ⑤ 40대 ⑥ 50대 ⑦ 60대 ⑧ 70대 이상 ⑨ 모름
7-4. 직업	① 개그맨/코미디언 ② 배우 ③ 가수 ④ 모델 ⑤ 방송인/전문진행자 ⑥ 변호사 ⑦ 의사 ⑧ 비평가/평론가 ⑨ 언론인(기자 등) ⑩ 요리사/요리연구가 ⑪ 작가 ⑫ 상담사 ⑬ 교수 ⑭ 교육 전문가(교사 등) ⑮ 그 외 특정 분야 전문가 ⑯ 학생 ⑰ 일반시청자 ⑱ 회사원 ⑲ 주부 ⑳ 자영업자 ㉑ 운동선수 ㉒ 무직 ㉓ 모름 (99) 기타_____
7-5. 역할	① 주진행자 ② 보조진행자 ③ 출연자초대손님

8. 내용분석

- 성평등적 내용(양성평등 기여도)

구분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시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주체성				
현실반영성				
다양성				
대안성				

- 기타 :

- 성차별적 내용

구분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시 (회차)	내용 및 이유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출산의 도구로써의 여성				
여성의 주체성무시/ 남성 의존성향 강조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외모지상주의 조장				
여성의 성적대상화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단어와 행동의 무분별 사용				
선정성				

- 기타 :

모니터링 체크리스트(어린이)

1. 모니터요원 :

2. 방송사

- ① KBS1 ② KBS2 ③ MBC ④ SBS ⑤ EBS
 ⑥ 디즈니주니어 ⑦ 디즈니채널 ⑧ 투니버스 ⑨ JETI재능TV

3. 프로그램 명 :

4. 방영일시 : 2017년 월 일() : - :

5. 방영 요일 및 시간대 :

주중	① 06:00-08:00 ② 08:00-10:00 ③ 10:00-12:00 ④ 12:00-14:00 ⑤ 16:00-18:00 ⑥ 18:00-20:00 ⑦ 20:00-22:00 ⑧ 22:00-24:00 ⑨ 24:00-06:00
주말	⑩ 06:00-08:00 ⑪ 08:00-10:00 ⑫ 10:00-12:00 ⑬ 12:00-14:00 ⑭ 16:00-18:00 ⑮ 18:00-20:00 ⑯ 20:00-22:00 ⑰ 22:00-24:00 ⑱ 24:00-06:00

6. 주요 등장인물 분석

6-1. 이름	
6-2. 성별	① 여성 ② 남성 ③모름
6-3. 주인공여부	① 주인공 ② 주인공 아님
6-4-캐릭터 성격	① 고정관념 강화요소 있음 ② 고정관념 강화요소 없음
6-5- 캐릭터 외모	① 고정관념 강화요소 있음 ② 고정관념 강화요소 없음

6-4/ 6-5. 세부 설명

캐릭터 이름	성별 고정관념 강화 요소 설명

7. 주요 갈등유발자 (여러 명일 경우 표 추가하여 기재)

7-1. 인물명	
7-2. 성별	①여성 ②남성 ③모름
7-3. 역할	

8. 주요 갈등해결자 (여러 명일 경우 표 추가하여 기재)

8-1. 인물명	
8-2. 성별	①여성 ②남성 ③모름
8-3. 역할	

9. 캐릭터 분석

- 캐릭터 설명 및 외모 캡처

--

10. 내용분석

- 성평등적 내용(양성평등 기여도)

구분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시 (회차)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주체성				
현실반영성				
다양성				
대안성				

- 기타 :

- 성차별적 내용

구분	방송사	프로그램명	방영일시 (회차)	내용 및 이유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출산의 도구로써의 여성				
여성의 주체성무시/ 남성 의존성향 강조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외모지상주의 조장				
여성의 성적대상화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단어와 행동의 무분별 사용				
선정성				

- 기타 :

모니터링 체크리스트(광고)

1. 모니터요원 :

2. 모니터링 광고 수 : 총 건

연번	광고품목	공중파	케이블	인터넷/극장/바이럴
1	정보통신			
2	전기전자			
3	자동차/정유			
4	음료/기호식품			
5	식품/제과			
6	생활/가정용품			
7	화장품			
8	패션/스포츠			
9	제약/의료/복지			
10	금융/보험			
11	아파트/건설			
12	출판/교육/문화			
13	서비스/유통/레저			
14	관공서/단체/공익/기업PR			

3. 등장인물 성비 분석(단위 : 명)

구분	주요 인물	배경 인물	나레이션(목소리)	합계
3-1. 전체				
3-2. 여성				
3-3. 남성				

4. 주요 등장인물 분석

4-1. 인물명(배우명)	
4-2. 성별	① 여성 ② 남성
4-3. 연령	① 10대 이하 (어린이, 청소년) ② 20-30대 (청년) ③ 40-50대 (중장년) ④ 60대 이상 (노년)
4-4. 역할	① 요리하는 사람 ② 아이를 돌보는 사람 (육아) ③ 가사 일을 하는 사람 (육아, 요리 제외/ 빨래, 청소 등)

	④ 다른 사람을 챙기는(돌보는) 사람 (자녀가 아닌 사람을 챙기는 경우) ⑤ 일해서 돈을 버는 사람 ⑥ 선물하는 사람 ⑦ 운전하는 사람 ⑧ 즐기는 사람 (여행, 스포츠, 놀이 등) ⑨ 쇼핑하는 사람 ⑩ 상품을 설명하는 사람 (나레이션 포함) ⑪ 상품을 사용하는(소비하는) 사람 ⑫ 기타_____
	99. 해당 없음

5. 내용분석

- 성평등적 내용(양성평등 기여도)

광고 품목	회사명	광고제품명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 성차별적 내용

구분	광고 품목	회사명	광고제품명	내용 및 이유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여성의 주체성무시/남성 의존성향 강조				
외모지상주의 조장				
여성의 성적대상화				

- 기타 :

모니터링 체크리스트(인터넷기사)

1. 모니터 요원 :
2. 언론사 :
3. 매체명 :
4. 모니터링 기간 : 2017년 11월 1일(수) ~ 7일(화)
5. 내용분석

1) 성평등적 내용

구분	날짜	언론사	url	기사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사진/분석)
주체성					
현실반영성					
다양성					
대안성					

2) 성차별적 내용

구분	날짜	언론사	url	기사제목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사진/분석)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출산의 도구로써의 여성					
여성의 주체성무시/남성 의존성향 강조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외모지상주의 조장					
여성의 성적대상화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단어와 행동의 무분별 사용					
선정성					

3) 종합의견

모니터링 체크리스트(온라인커뮤니티)

1. 모니터요원 :

2. 모니터링 날짜 : 2017년 월 일()

3. 사이트명

4. 게시글분석

제목	URL	게시일자	주요내용 (해당내용캡처/분석)	차별유형	차별대상

5. 댓글분석

게시글제목	URL	게시일자	주요내용 (해당내용캡처/분석)	차별유형	차별대상

*차별유형 : 1. 혐오/비난 2. 폭력/성적대상화

*차별대상 : 1. 여성혐오 2. 남성혐오 3. 기타혐오(혐오대상기재)

모니터링 체크리스트(공공기관 홍보물)

1. 모니터요원 :
2. 공공기관명 :
3. 담당 정부부처명 :
4. SNS(페이스북) 주소 :
5. 홍보물 유형 및 비율

구분	모니터링 대상 홍보물 수	성평등적 홍보물 수	성차별적 홍보물 수	해당사항 없는 홍보물
동영상				
이미지				

6. 내용분석

- 성평등적 내용(양성평등 기여도)

구분	기관명	부처명	게시일	제목 (주제)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주체성					
현실반영성					
다양성					
대안성					

- 성차별적 내용

구분	기관명	부처명	게시일	제목 (주제)	내용 및 이유 (해당장면/분석)
성역할 고정관념을 조장					
출산의 도구로써의 여성					
여성의 주체성무시/남성 의존성향 강조					
성희롱·성폭력 정당화					
외모지상주의 조장					
여성의 성적대상화					
성적 이미지를 연상케 하는 단어와 행동의 무분별 사용					
선정성					



2017 대중매체 양성평등 모니터링 사업결과보고서

GENDER EQUALITY